



2018 통일의식조사

정동준·김 선·김희정·나용우·문인철·송영훈·최규빈·임경훈·이정옥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42

2018 통일의식조사

인 쇄 2019. 3. 6
발 행 2019. 3. 6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임경훈
저 자 정동준·김 선·김희정·나용우·문인철·송영훈
최규빈·임경훈·이정옥

등 록 119-82-67975(2006.7.7)
주 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 화 02) 880-4052~4
팩 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편집·제작 (주)다해미디어

가 격 비매품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

(2018) 통일의식조사 /

저자: 정동준, 김 선, 김희정, 나용우, 문인철, 송영훈, 최규빈, 임경훈, 이정옥.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42)

ISBN 979-11-961299-9-6 93340 : 비매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42

2018 통일의식조사



목차

서장	16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98
제1부 기초분석		1. 서론	98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30	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100
1. 서론	30	3. 정책별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영향력 인식	103
2. 통일의 이미지, 필요성과 이유	32	4. 대북정책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인식	105
3. 통일의 추진 방식과 가능 시기	41	5. 정부의 대북정책 및 4.27 남북정상회담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113
4. 통일의 편익에 대한 기대	47	6. 소결	115
5. 통일한국의 체제와 통일정책의 시급성	51	제4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120
6.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55	1. 서론	120
7. 소결	58	2. 가장 가까운 주변국,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122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62	3. 주변국의 국가이미지	138
1. 서론	62	4.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과 기대	151
2. 북한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	66	5. 소결	159
3.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	72		
4. 북한 변화와 정권 안정성 인식	78		
5.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	82		
6. 북한 사회 친숙성 및 존재성에 대한 인식	88		
7. 북한의 인권 상황 및 개선 방법에 대한 견해	91		
8. 소결	94		

제2부 심층분석

제5장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국민정체성	164
1.	서론	164
2.	탈북자에 대한 태도	167
3.	남북한주민의 국민정체성과 국민됨의 요건	173
4.	소결	190
제6장	세대별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192
1.	서론	192
2.	분석방법	197
3.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198
4.	세대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서적, 인식적 반응	203
5.	세대별 통일교육 경험	206
6.	소결	210

결장

216

부록

230

표 목차

〈표 1-1-1〉	통일의 이미지	32	〈표 1-4-7〉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 예상	142
〈표 1-1-2〉	주요 요인별 통일 이미지	33	〈표 1-4-8〉	일본의 국가이미지	144
〈표 1-1-3〉	통일의 이미지와 통일의 필요성(2018)	36	〈표 1-4-9〉	한반도 전쟁 시 일본의 태도 예상	144
〈표 1-1-4〉	통일의 이유	38	〈표 1-4-10〉	중국의 국가이미지	147
〈표 1-1-5〉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2018)	40	〈표 1-4-11〉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태도 예상	148
〈표 1-1-6〉	통일의 추진 방식	42	〈표 1-4-12〉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150
〈표 1-1-7〉	통일 필요성과 통일 추진 방식(2018)	44	〈표 1-4-13〉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의 태도 예상	151
〈표 1-1-8〉	통일의 가능시기	45	〈표 1-4-14〉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152
〈표 1-1-9〉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52	〈표 1-4-15〉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154
〈표 1-1-10〉	학교 통일교육을 통해 접한 내용(2018)	55	〈표 1-4-16〉	남북한 협력과 한·미·중 공조	155
〈표 1-1-11〉	연령별 학교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2018)	56	〈표 1-4-17〉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중 공조	156
〈표 1-1-12〉	사회통일교육을 통해서 접한 내용(2018)	57	〈표 1-4-18〉	중국 부상과 미중 갈등 시 한국 입장	158
〈표 1-1-13〉	연령별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인식(2018)	57	〈표 2-5-1〉	남한주민의 국민정체성 자격요건에 대한 항목별 응답률	177
〈표 1-4-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123	〈표 2-5-2〉	남한주민의 국민정체성 자격요건에 대한 요인분석	180
〈표 1-4-2〉	주변국 친밀도 선호도	124	〈표 2-5-3〉	남한주민의 국민정체성 자격요건 분류 비교	183
〈표 1-4-3〉	연령대별 주변국 친밀감	125	〈표 2-5-4〉	탈북자의 국민정체성 자격요건에 대한 항목별 응답률	186
〈표 1-4-4〉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33	〈표 2-5-5〉	탈북자의 국민정체성 자격요건에 대한 요인분석	188
〈표 1-4-5〉	연령대별 대북, 대중 위협인식	134	〈표 2-5-6〉	남한주민과 탈북자의 국민정체성 자격요건 비교	189
〈표 1-4-6〉	미국의 국가이미지	141	〈표 2-6-1〉	측정 문항	197

그림 목차

〈그림 1-1-1〉 통일의 필요성	35	〈그림 1-2-15〉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83
〈그림 1-1-2〉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전체와 개인	48	〈그림 1-2-16〉 지역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인식	84
〈그림 1-1-3〉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2018)	50	〈그림 1-2-17〉 연령대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85
〈그림 1-1-4〉 통일을 위해 시급한 정책(2018)	53	〈그림 1-2-18〉 북한 핵보유에 대한 위협 인식	86
〈그림 1-2-1〉 북한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	67	〈그림 1-2-19〉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 인식	87
〈그림 1-2-2〉 지역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68	〈그림 1-2-20〉 북한 사회 인지도	89
〈그림 1-2-3〉 지역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	69	〈그림 1-2-21〉 북한의 존재성에 대한 인식	90
〈그림 1-2-4〉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70	〈그림 1-2-22〉 북한의 인권 상황 인식	92
〈그림 1-2-5〉 연령대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	71	〈그림 1-2-23〉 북한의 인권 개선 방법	93
〈그림 1-2-6〉 종교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72	〈그림 1-3-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100
〈그림 1-2-7〉 북한 정권 신뢰도	73	〈그림 1-3-2〉 지역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101
〈그림 1-2-8〉 지역별 북한 정권 신뢰도	74	〈그림 1-3-3〉 정치성향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102
〈그림 1-2-9〉 정치성향별 북한 정권 신뢰도	75	〈그림 1-3-4〉 대북정책별 북한의 개혁개방 효용성 인식	103
〈그림 1-2-10〉 연령별 북한 정권 신뢰도	76	〈그림 1-3-5〉 대북정책별 북한의 개혁개방 효용성 인식(2017-2018)	104
〈그림 1-2-11〉 종교별 북한 정권 신뢰도	77	〈그림 1-3-6〉 진보층의 대북정책별 북한의 개혁개방 효용성 인식(2017-2018)	105
〈그림 1-2-12〉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	79	〈그림 1-3-7〉 대북 사안별 시급성	106
〈그림 1-2-13〉 북한 정권 불안정 예측	80	〈그림 1-3-8〉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견해	107
〈그림 1-2-14〉 남한주민이 생각하는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81		

그림 목차

〈그림 1-3-9〉 정치성향별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견해	107	〈그림 2-6-1〉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2007-2018)	199
〈그림 1-3-10〉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견해	108	〈그림 2-6-2〉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2007-2018)	200
〈그림 1-3-11〉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견해	109	〈그림 2-6-3〉 연령대별 통일의 이유(2018)	202
〈그림 1-3-12〉 핵무기 보유에 대한 견해	110	〈그림 2-6-4〉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감(2007-2018)	204
〈그림 1-3-13〉 북핵문제 해결 전 남북 교류협력 중단에 대한 견해	111	〈그림 2-6-5〉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2007-2018)	205
〈그림 1-3-14〉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인식 비교	112	〈그림 2-6-6〉 세대별 학교통일교육 경험(2018)	208
〈그림 1-3-15〉 남북관계 개선과 정부의 영향력에 대한 견해	113	〈그림 2-6-7〉 세대별 사회통일교육 경험(2018)	209
〈그림 1-3-16〉 4.27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에 대한 견해	114		
〈그림 1-4-1〉 정치성향별 대미친밀도	127		
〈그림 1-4-2〉 정치성향별 대북친밀도	128		
〈그림 1-4-3〉 정치성향별 대중친밀도	129		
〈그림 1-4-4〉 정치성향별 대미위협도	135		
〈그림 1-4-5〉 정치성향별 대북위협도	137		
〈그림 1-4-6〉 정치성향별 대중위협도	138		
〈그림 2-5-1〉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168		
〈그림 2-5-2〉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169		
〈그림 2-5-3〉 탈북자 수용에 대한 견해	170		
〈그림 2-5-4〉 탈북자 지원에 대한 견해	171		
〈그림 2-5-5〉 다문화에 대한 견해	172		



서 장



서장

2017년 11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후 ‘국가 핵 무력 완성’ 발언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한 치도 예측할 수 없었던 작년과 달리, 2018년도는 한반도 정세의 극적 전환을 확연하게 볼 수 있었던 한 해였다.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될 것만 같았던 한반도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19일에 한미연합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고 발언하며,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도록 적극 유도한 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이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렇게 2018년 새해 벽두에서 남북은 평화와 화해의 모드로 가는 대화의 문을 열었다.

분단 70여 년 역사에 북한과의 접촉이 이렇게 활발했던 해가 있었을까 싶을만큼 2018년 한 해에는 남북 간에 많은 교류가 진행되었다. 문재인 정부 2년차, 김정은 정권 7년차에 접어든 올해, 남북 정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제1차 남북정상회담, 4.27), 북측 통일각(제2차 남북정상회담,

5.26), 그리고 평양(제3차 남북정상회담, 9.18-20)에서 무려 세 차례나 만났다. 민족은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움직임에 감격했고, 전 세계는 유일한 분단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현장을 주목했다.

4월 27일에 열린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평화와 번영, 통일’을 기반으로 하는 남북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면서 비핵화를 위한 남북의 공동 노력과 “단계적 군축”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다. 이를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고(5월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중단하는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의지로 보였다. 이후 9월19일 제3차 정상회담은 4월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 한 회담으로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비핵화 실천 과제를 공동으로 제시하였다.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남북 정상 차원에서 상호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회담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이렇듯 남북한이 지난 10년 간 단절되었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2월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북측 예술단 및 남측 공연단의 공연 등을 시작으로 경제, 군사, 인도,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 성과를 보였다. 남북은 군사 분야에서 3차례 장성급 군사회담(6월14일, 7월31일, 10월26일), 경제 분야에서 철도협력 분과회담(6월26일), 도로협력 분과회담(6월28일), 사회분야에서 체육회담(6월18일) 등 크고 작은 회담을 개최하였다. 회담을 통해 남북이 상호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휴전선 일대의 선전 스피커는 철거되었고 서로를 감시하던 GP도 인원과 장비 역시 시범적인 철수와 해제 작업에 들어갔다.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무력시위와 같은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도 없어졌으며, 비무장지대의 지뢰도 서서히 제거되고 있다. 또한 서해지역의 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하고 매일 남과 북의 함정들이 제3국 선박의 불법어로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있으며,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을 위해 현지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2018년은 역사적 대전환이 일어난 해였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중재로 인해 취소 위기까지 갔던 북미 간의 역사적 첫 회담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이 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의 정립과 함께 남북 간의 관문점 선언 재확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등이 합의문에 채택되었다. 비록 미국이 그간 주장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합의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 정상이 가진 첫 번째 회담이란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작지 않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숨가쁘게 달려온 남북과 북미 간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2018년 말, 계속되는 추진력을 얻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에 실질적인 합의 사항 이행과 관계의 진전이 일어나도록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양측이 진정한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국내정치적으로도 이러한 일련의 성과와 대북정책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념적, 당파적 지지와 연결되면서, 보수층과 반대파를 중심으로 서서히 다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국제사회에서도 2018년 이후 북한이 보이는 전향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18년 10월 15일 한-프 정상회담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안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가운데 명확한 기저 위에 대화를 구축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취약해지지 않고 원하는 대화를 할 수 있다”며 북한 제재 완화에 선을 그었다. 대북제재의 선봉에 서있는 미국 역시 북미간의 대화 재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 수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가 검증을 통해 확인될 때까지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2018년 말, 북미 간 협상은 진전 없이 교착상태이다. 11월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2019년 초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나왔기에 미 중간선거 승리를 잡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시진핑 집권 제2기 체제를 시작한 중국은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에 적극 지지하면서 올해 초 한중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하였다. 더불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자 3월25일 중국은 비밀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작년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소원해졌던 관계를 복원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이며, 2018년 들어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내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에 방북하는

일정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에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미사일 계획을 포기시키고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도발에도 굴하지 않는 의연한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제7차 한·중·일 정상회담(5월9일, 도쿄)에서 ‘관문점 선언’을 평가하고 환영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정부는 아베총리와 개별면담에서 미래지향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곤란한 문제를 관리(manage)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를 계속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10월30일),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11월21일) 등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어 2017년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18년 푸틴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 북한의 입장 - 단계적, 점진적 비핵화 - 에 지지하는 한편(6월8일 중-러 정상회담), 미국의 입장에 우려의 목소리와 대북제재에 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미국이 지난 5월 ‘김정은이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으면 리비아와 같은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 발언한데 대해 러시아는 외무부 대변인 젤레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리비아 시나리오’를 언급한 위협은 모든 지역에 대한 위협”이라며 경계를 표했다. 또한 제3차 남북정상 회담을 앞두고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러시아에 ‘대북제재 동참’을 압박하고 나서자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대북제재 해제’로 응수하기도 했다. 이렇듯 러시아는 미국과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며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러시아의 움직임이 2019년도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2018년 안팎으로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진행된 한반도에서 한국인들은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1,200여 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설문조사하고 있다. 설문문항은 국민들의 변화되는 의식의 시계열적 흐름을 보기 위해 대부분 동일한 문항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론적 심화와 시의적절한 함의 제공을 위해 해마다 필요한 문항들을 추가 또는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구축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먼저 국민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매년 유사한 항목으로 측정함으로써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통일학의 기초자료로서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통하여 여러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종속변수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삼음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관련 이론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통일 논의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에 기초한 통일 및 대북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민의 선호에 기반하지 않은 어떠한 정책적 논의도 그 효용성을 담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자료는 정책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구성할 수 있는 근거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018년 통일의식조사』는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크게 기초분석과 심

화분석으로 구성되었다. 기초분석에서는 기본적인 국민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그 주제별로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이다.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는지, 통일이 남한사회 전체 혹은 응답자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 보는지,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등에 대한 질문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018년에는 통일에 관한 이미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통일교육에 대한 문항들이 신설되었다.

두 번째 부문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련된 질문들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태도, 북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물음이 포함되었다. 또 응답자가 북한과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남북한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북한정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입장 등이 질문에 포함되었다. 이 외 북한의 현 인권상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세 번째 부문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이 질문에 포함되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부,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 대북 전단 살포문제, 북한인권 문제 등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평가 문항도 이 부문의 주요 조사항목이다. 올해에는 이에 더하여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묻는 등 최근 일어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파악하려 하였다.

네 번째 부문은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주로 주변국이 통일 및 한반

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해 국민들의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들이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들이 향후 어떠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만의 노력 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점에서, 이에 대한 국민의 선호와 입장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외교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초분석에 더하여 올해에는 다음의 두 가지 주제로 심화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국민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각은 남북 통합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겪게 될 문제들을 미리 예견케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분석해야 할 주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에서 독특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혈연을 나눈 같은 민족이지만 또한 동시에 다른 제도와 문화를 지닌 사회에서 편입된 이주자 집단 중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태도가 다른 이주자 집단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렇게 사회의 구성이 복잡해지고 민족국가의 경계가 와해되어 감에 따라 한국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점차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통일이란 남과 북이 하나된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란 점에서, 통일한국이 어떠한 국민적 정체성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는지는 매우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한국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에 대한 생각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

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공통된 정체성에 기반한 정치공동체의 구성을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이어서 생각해 볼 문제는 통일교육에 대한 문제이다. 통일에 대한 생각이 갈수록 다변화되고, 안보에 기초한 반공교육이 그 실효성을 잃어가는 오늘날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요즘 젊은층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통일교육의 유형에 따른 통일의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변화된 시대에 알맞은 통일교육의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2018년 통일의식조사』는 2018년 7월 12일부터 8월 3일까지 23일 동안 시행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의 성인 남녀 전체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이지만 인구가 적어 충청남도의 권역에 포함하였다. 2015년 조사부터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집단의 연령을 기존의 65세 이하에서 74세 이하로 확대해 통일의식 형성에서 고령층의 견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유효 표본의 수는 1,200명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 이다.

모집단의 정보는 조사 시점 기준 가장 최신 행정자료인 행정안전부의 월간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표본추출은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을 이용하였다. 모집단의 지역별 인구 분포에 따라 조사지점별 할당이 주어지며, 면접원은 해

당 조사지점 내에서 성별/연령별 할당을 고려하여 거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강원, 제주 등)에 표본이 과소포집되거나 누락돼 전국 단위의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2014년부터는 우선 할당 후 비례 배분하는 할당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역별 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방식은 모집단의 분포와 표집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분석시 사후보정 가중치를 반영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1대1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 시행에 앞서 실사지도원(supervisor)에 대한 교육을 시행 한 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속 전문 면접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면접원들은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해 두 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연습 면접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조사 방법과 질문지 내용에 익숙하게 한 후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여 지적함으로써 비표본 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고 또 면접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시도하였다. 면접원은 면접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포괄적으로 교육받았다. 담당연구원 및 실사 책임자는 매일 회수된 질문지에 대해서 면접원 입회하에 검토하였으며, 문제점 발견 즉시 면접원을 재교육을 하는 품질 통제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2017년에 실시된 품질진단 보고서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 기존 문항뿐 아니라 2018년 신설된 문항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해 조사표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 중 30%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응답자 전화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화 검증으로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체를 무효로 하고 다른 면접원으로 교체해 재조사 하였다. 원자료는 편집(editing), 코딩(coding), 입력(punching) 과정을 거쳐 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질문항목별 기본 빈도는 이 책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지역, 정치적 성향, 종교 등의 배경 변수와의 교차분석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부록에 제시된 통계는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다. 통일의식조사의 원자료는 1년 후 한국사회과학 자료원을 통하여 설문지와 코드북이 제공되고 있다.





제1부 기초분석

-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 제4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1. 서론

‘평화, 새로운 시작이다’를 알리며 남북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던 2018년 4월 27일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17년 가을부터 2018년 초반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누가 더 강력한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지 시위를 할 때는 전혀 상상하기 힘든 변화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의 만남이 재개되고, 그 만남은 봄의 씨앗이 되어 다양한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아직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남과 대화를 통해 이뤄낸 결실들을 부정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담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분단체제의 극복과 안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던 통일담론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남북교류를 통한 경제적 번영을 포함하는 평화중심의 담론으로 변화되고 있다. 평화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캠페인이 내

포한 것처럼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평화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평화를 통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달리 말하면 평화는 다른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하기에 평화를 이룬다는 그 자체에만 몰입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담론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민들 개인 차원의 통일의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한반도에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지만,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사건과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의식도 있지만,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인식의 속성이 있음을 서울대학교 통일의식조사는 반복적으로 보고해왔다. 이는 대북 및 통일정책을 추상성이 높은 수준에서 논의하기보다는 국민들의 공감을 확보하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장에서 기술된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현재 시점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의식과 다를 수 있다. 2018년 상반기에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국민들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데 비해, 하반기에는 실질적 진전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존재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반기의 의식 변화는 내년도 조사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은 2018년 통일의식조사에 나타난 통일에 대한 이미지,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 시기의 기대와 추진 속도, 통일사회에 대한 집단적, 개인적 기대감,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 통

일 한국의 정치사회체제 등과 관련된 기초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국민들의 통일인식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어떤 경향성을 보여 왔는지 확인하였다.

2. 통일의 이미지, 필요성과 이유

1) 통일의 이미지와 필요성

통일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화두이지만 통일의 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1989년 이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정부가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마다 가지는 통일에 대한 인식 또는 이미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미지의 차이는 통일 관련 다른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1〉 통일의 이미지

통일의 이미지	%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58.8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	14.3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19.5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7.3
기타	0.3
무응답	0.1
합계	1,200

통일을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8.7%였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남북한의 정치체제까지 하나의 국가가 되는 상황을 최종적인 통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통일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과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도 통일의 하나라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된 상황도 정치적으로 하나의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인적, 물적 교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1-1-2〉 주요 요인별 통일 이미지

(단위: %)

구분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기타	무응답	합계 (N)	
성별	남자	57.6	15.1	19.4	7.6	0.3	0.0	609
	여자	59.9	13.4	19.6	6.8	0.2	0.2	591
연령대	19-29세	61.7	10.8	17.1	9.9	0.5	0.0	222
	30-39세	53.2	16.2	20.7	9.5	0.5	0.0	222
	40-49세	57.3	16.9	20.0	5.4	0.4	0.0	260
	50-59세	58.2	12.3	23.0	6.5	0.0	0.0	261
	60세 이상	63.4	14.9	16.2	5.1	0.0	0.4	235
정치적 성향	진보적	57.4	16.3	18.2	7.6	0.5	0.0	406
	중도	58.5	13.9	20.5	7.0	0.0	0.2	585
	보수적	62.2	11.5	19.1	6.7	0.5	0.0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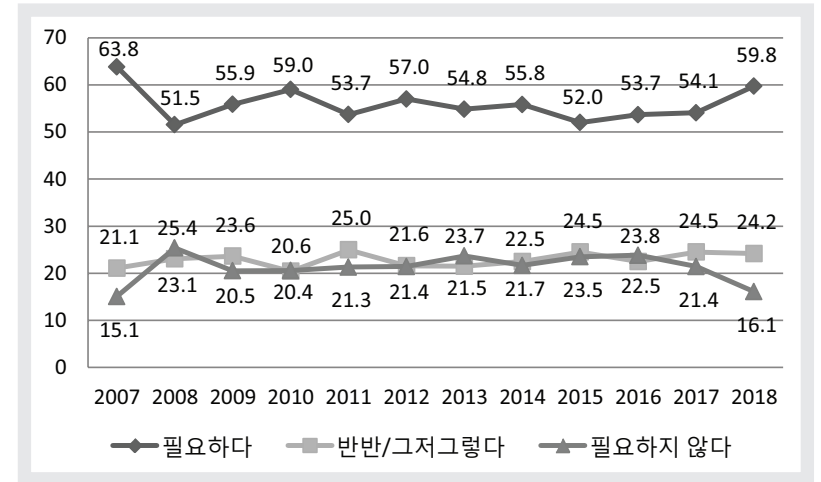
구분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기타	무응답	합계 (N)
경제만족도	만족	57.9	15.3	19.9	6.9	0.0	0.0	261
	불만족	59.0	14.0	19.4	7.2	0.3	0.1	939

통일에 대한 이미지는 성별, 연령, 정치적 성향, 경제만족도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인다. 모든 통제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완전히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을 통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들은 물자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뤄지는 단계와 남북 간 경제협력이 진전되는 단계순으로 통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통일에 대한 개념이 다른 통일인식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향후의 심층연구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59.8%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으며, 2017년보다도 5.7% 증가하였다. 적극적으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도 18.0%에서 21.9%로 증가하였으며 ‘필요하다’는 인식도 36.1%에서 37.8%로 증가하였다. ‘반반/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림 1-1-1〉 통일의 필요성

(단위: %)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2018년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가지는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통일준비’ 또는 ‘통일대박’이라는 프레임만으로 정책을 구체화되지 않았던 때에 비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과 같이 세상의 주목을 끄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정책이 구체화될 때 국민들은 통일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통일의 편익만을 강조하는 것보다 이것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때 국민들도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이다.

통일을 바라보는 20대와 30대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20대에서는 40.3%에서 53.6%까지 증가하였고 30대에서도 40.1%에서 52.3%까지 증가하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50%를 넘은 것은 2007년도 이래 처음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20대

젊은 세대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으나 2018년은 그에 대한 우려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일자리 문제를 비롯하여 청년들의 당면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이후 보수층과 진보층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보수층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는데, 2018년 조사에서는 진보층의 66.5%, 보수층의 53.1%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남북관계의 변화와 정부 및 개인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정부에 대한 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3〉 통일의 이미지와 통일의 필요성(2018)

(단위: %)

통일의 이미지 / 통일의 필요성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필요하지 않다	합계 (N)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61.1	24.1	14.8	705
남북 간 경제협력의 심화되는 것	56.7	28.1	15.2	171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61.5	20.9	17.5	234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47.7	26.7	25.6	86
기타	100	0	0	3
무응답	100	0	0	1
합계	717	290	193	1200

〈표 1-1-3〉은 앞선 두 질문을 교차분석 해 본 결과이다.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과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을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61.1%와 61.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가치와 문화, 교육까지 가까워져야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낮았다. 이러한 응답은 통일정책이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남북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 통일의 이유

남북한이 통일은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지극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통일을 당위와 관련된 민족적 과제라고 인식하는 경우 통일을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하거나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취되어야 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남북 간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통일을 이해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통일의 현실적 이유를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 1-1-4〉 통일의 이유

(단위: %)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합계 (N)
2007	50.7	8.9	19.2	1.8	18.7	0.7	1,197
2008	58.7	6.6	14.5	2.9	17.2	0.1	1,206
2009	44.3	8.5	23.5	4.2	18.7	0.8	1,195
2010	43.3	7.0	24.2	4.0	20.8	0.6	1,193
2011	41.9	7.2	27.3	4.8	17.7	1.1	1,197
2012	46.0	9.1	25.3	4.4	14.5	0.8	1,199
2013	40.4	8.3	30.8	5.5	14.2	0.8	1,198
2014	42.1	9.1	27.0	3.9	17.6	0.3	1,200
2015	40.7	12.3	26.3	6.3	14.0	0.4	1,198
2016	38.6	11.8	29.8	5.0	14.2	0.7	1,200
2017	40.3	10.5	32.5	4.0	12.5	0.2	1,200
2018	45.1	6.9	31.4	3.4	12.9	0.2	1,200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은 2016년에 이어 다시 증가하여 45.1%를 기록하였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라는 응답은 계속 감소하여 6.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8년 6.6% 다음으로 낮은 것이다. 이 두 범주를 합친 상위적인 응답을 한 국민들이 2016년 50.4%, 2017년 50.8%, 2018년 52.0%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년도보다 1.1%p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30% 넘는 응답자들이 전쟁위협을 해소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통일의 이유를 찾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경향은 국민들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해소를 바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악화되며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전쟁위협을 해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아직도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험악한 긴장고조의 시기를 지나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이 조금 더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대와 30대에서는 전쟁위협을 해소를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통일에 관한 논의에서 민족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는 것이 반드시 통일의 당위성이 약화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지난 조사의 결과들은 국민들이 통일을 민족적 사건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국제적 사건으로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하면서도 통일을 통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보편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국민들의 의식에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통일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과 분리될 수 없다. 통일은 현재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곧 통일의 과정이라는 접근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및 통일 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조성되는가에 따라 통일의 당위성과 이유가 달라지고 그것이 다른 통일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8년에 처음으로 만약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면 그 이유로 가

장 큰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 보았다. 통일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확인하기보다 통일의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표 1-1-5〉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2018)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19.33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13.33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34.67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27.67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	4.33
기타	0.17
무응답	0.5
합계(N)	1,200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될 때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통일비용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통일의 편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국민 개인의 삶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될 비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통일의 부정적인 측면은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문제이다. 이 두 가지 항목이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미래 사건의 비용에 대한 기대인식에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의 개선이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충분조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통일정책도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을 때 국민들이 더 잘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통일의 추진 방식과 가능 시기

1) 통일의 추진 방식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통일의 과정과 추진 방식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보다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조사가 시작된 이래 항상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응답을 해 다수의 국민들이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에는 70.6%였는데, 2016년, 2017년 54.1%와 54.7%보다 13.0%p 가량 증가한 67.7%가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1-6〉 통일의 추진 방식

(단위: %)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합계 (N)
2007	10.6	70.6	11.8	7.0	1,200
2008	9.6	64.8	17.1	8.5	1,213
2009	8.6	68.3	15.6	7.5	1,203
2010	10.0	67.0	16.1	6.9	1,200
2011	9.7	67.0	15.2	8.2	1,201
2012	9.6	65.1	18.3	7.0	1,200
2013	11.3	61.8	18.9	8.0	1,199
2014	12.1	61.3	19.6	7.0	1,200
2015	11.8	57.5	21.8	8.9	1,200
2016	13.1	54.1	23.2	9.6	1,201
2017	12.1	54.7	24.7	8.4	1,200
2018	9.9	67.7	16.7	5.8	1,200

응답자 중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10년 동안 약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체제경쟁을 하던 시기에 통일이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경우 그 어떠한 가치보다 먼저 추구해야 할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서 통일이 다른 가치들의 희생에 대가로 성취해야 할 가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이대로가 좋다’고 남북공존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2007년 11.8%에서 2016년 23.2%, 2017년 24.7%로 계속 증가하였다가 2018년에는 16.7%로 감소하였다. ‘통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는 응답자는 7.0%에서 9.6% 사이에서 해마다 다르지만 큰 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그동안 결과에 비하면 가장 낮은 5.8%를 기록하였다.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아직까지 절반을 넘지만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현재의 남북한 체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하나의 정치체제로 통일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함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남북한의 경제공동체 운영, 자유롭고 안전한 왕래가 보장되는 수준의 통일을 이루는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통일에 대한 다양한 상이 여러 층위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20대의 64.4%, 30대의 69.6%, 40대의 63.9%, 50대의 70.2%, 60대의 72.0%가 점진적 통일의 과정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20대에서는 18.0%였으며, 30대는 18.8%, 40대, 50대와 60대는 각각 18.8%, 13.8%, 14.7%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의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비용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통일이 빨리 이뤄질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국민들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커진다면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더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1-1-7〉 통일 필요성과 통일 추진 방식(2018)

(단위: %)

	가능한 빨리 통일	여건이 성숙될 때 통일	현재 상태가 좋다	통일에 관심 없다
통일이 필요하다	9.33	46.08	3.25	1.08
반반/그저그렇다	0.5	16.25	6	1.42
통일이 필요없다	0.08	5.33	7.42	3.25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통일 추진 방식에 대한 인식의 교차분석 결과에 의하면 두 문항 간의 상관성이 높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점진적 통일을,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자들은 남북공존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혼란, 막연한 두려움을 감안하면 통일의 문제는 너무나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한국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통일의 가능 시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사회의 일부는 북한의 붕괴가 임박했고 통일도 머지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담론이 관심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전면적 남북교류를 통해 평화의 정착과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이렇듯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논리는 다르지만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담론이 한국사회를 주도하였다.

하지만 전문가, 정치인, 활동가들의 기대와 달리 국민들은 통일이 급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는 대부분이 동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준비의 범위와 속도에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통일준비의 급박함을 강조했어도 국민들은 통일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까지의 조사결과와 달리 6.3%가 5년 이내에 통일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응답을 하였지만, 다른 응답에 대하여 그 비율이 높지 않다.

〈표 1-1-8〉 통일의 가능 시기

(단위: %)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합계 (N)
2007	3.7	23.5	30.9	14.7	13.9	13.4	1,198
2008	2.3	13.4	22.3	14.8	25.1	22.1	1,213
2009	2.7	17.0	27.7	16.3	16.5	19.8	1,202
2010	3.4	17.8	24.1	13.4	20.8	20.6	1,200
2011	2.5	16.3	26.1	14.0	19.7	21.4	1,201
2012	2.9	14.5	25.9	17.8	19.8	19.2	1,200
2013	3.7	13.3	25.3	13.7	18.3	25.8	1,200
2014	2.2	13.7	22.8	18.2	19.7	23.5	1,200
2015	3.5	17.8	25.5	13.9	19.6	19.7	1,199
2016	3.5	14.0	25.1	15.2	17.9	24.4	1,201
2017	2.3	13.7	23.2	16.1	20.1	24.7	1,199
2018	6.3	16.7	15.6	15.0	18.7	20.7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조사결과는 통일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통일이 '10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2007년 23.5%에서 2017년에는 13.7%로 지난 10년 동

안 9.8%p 감소하였는데,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 3.0%p 증가하였다. 반면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2007년 13.4%에서 2018년 20.7%로 지난 10년 동안 7.3%p 증가하였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30년 이상'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5년 이내와 10년 이내는 응답이 2017년 대비 7.0%p 증가한 것은 국민들의 기대감이 조금 커졌음을 의미한다.

통일 가능 시기를 '30년 이내'라는 응답자들은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는 통일을 먼 미래에 있을만한 사건으로 인식하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통일을 가까운 미래에 실현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극단적으로 5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20대 응답자는 3.8%였고, 50대와 60대 응답자는 7.2%와 8.6%였다. 반면 불가능하다는 응답자는 20대의 15.1%, 50대와 60대의 13.6%, 14.9%였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은 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통일된 한국이 지향하는 보편적 미래상이 있더라도 현재 한국의 모습과 분단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된 한국이 하루아침에 현재의 한국과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과 통일된 한국을 연결하는 인식의 통로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의 통로는 실천적 통일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정부의 통일정책이 국제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일의 추진 전략을 수립할 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통일의 편익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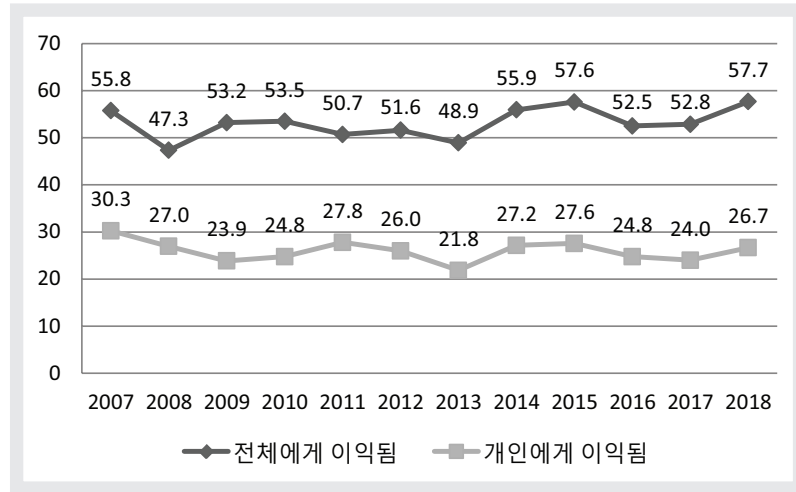
1) 통일의 이익 기대감: 개인과 공동체

통일은 최소 70년 이상 분단된 채 경쟁을 해왔던 두 체제가 하나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과 비용이 함께 발생하는 사건이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통일이 가져올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실제 통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통일에 따른 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평가하고 이익을 크게 평가한다면 통일에 대해 가지는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통일의 편익에 대해 많은 전문적 진단이 있었지만, 그러한 논리들은 국민들이 충분히 소화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국민들은 통일의 편익을 사회전체에 가져올 이익과 개인에게 가져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해할 것이다. 통일의 편익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일이 남한사회에 가져올 편익을 크게 평가하는 응답자들이 개인에 가져올 편익을 크게 평가하는 응답자들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통일의 이익이 무엇인지 개인적 차원에서 불분명하지만, 통일에 따른 비용은 세금 인상 등 개인이 구체적으로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그 비용과 이익의 구체성 때문에 개인적인 기대감은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그림 1-1-2〉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전체와 개인

(단위: %)



2007년 이후 지금까지 통일외식조사에서 통일의 편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일관되게 공동체에 대한 편익을 개인에 대한 편익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08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50%를 넘었다. 반면, ‘통일이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07년 30.3%였지만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7년에는 23.9%를 기록하였고, 2018년에는 이보다 약간 증가한 26.7%였다.

남한사회에 대한 집단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는 평균 26.7%이다. 평균적으로 집단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보다 두 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두 범주 간의 격차는 각각 28.4%와 28.2%,

31.0%이다. 이 격차는 2012년 이후 점점 커지고 있다.

‘남한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남성의 응답은 2017년 52.1%에서 2018년 60.2%로 증가하였으며,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17년 23.9%보다 증가한 28.1%이다. 여성은 각각 2017년 47.1%와 20.0%에서 55.1%와 24.9%로 줄어들었다. 통일에 대해 여성들이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성이 이 문항에 대한 응답에도 반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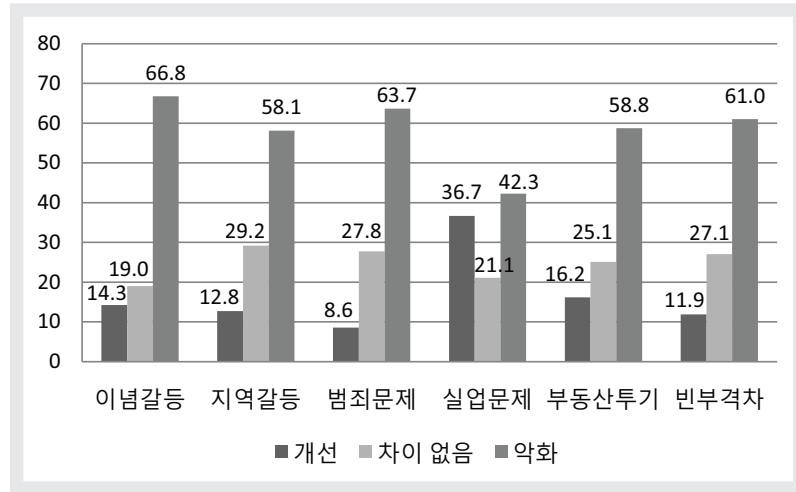
연령별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57.1%와 57.5%를 기록하였으며, 50대와 60대에서는 65.0%와 50.7%를 기록하였다. 반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20대가 23.8%, 60대가 25.0%를 기록했고, 30대, 40대, 50대의 응답은 27.9%, 26.8%, 26.8%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에서 사회전체에 대한 이익과 개인에 대한 이익 기대감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이다.

2)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은 구체적인 사회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외식조사는 통일의 편익에 대한 질문이 가진 집합성과 추상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통일이 되면 주요한 사회문제들이 통일 이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통일의 편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측정하고 있다. 주요 사회문제는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으로 여섯 가지이다.

〈그림 1-1-3〉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2018)

(단위: %)



〈그림 1-1-3〉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실업문제의 해결로 이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업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조사 이래 가장 높은 36.7%였는데, 종전에는 2015년의 32.0%가 가장 높았다. 2017년 24.1%였던 점을 고려하면 평화와 번영이라는 통일담론의 키워드가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이념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9.2%에서 14.3%로, 지역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8.6%에서 12.8%로, 범죄문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은 7.4%에서 8.6%로 증가하였다. 반면,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기대감은 16.8%에서 11.9%로, 부동산투기 해소에 대한 기대감은 17.2%에서 16.2%로 감소하였다.

통일은 한국이 북방경제라는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예측과 기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의 실현으로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예측과 기대는 정부가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통일정책 및 통일담론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은 다가올 미래라고 하지만 그것을 직접 체험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오늘의 문제가 얼마나 해결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통일의 손익을 평가할 것이다.

통일된 한국은 지금의 한국과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가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의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갈 국가이다. 통일은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역사성, 그리고 한국사회의 문제해결과 국제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재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미래 지향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통일정책이 남북관계, 한반도 대외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사회, 문화적 문제들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5. 통일한국의 체제와 통일정책의 시급성

1) 통일한국의 체제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민족공동체통일안은 화해협력과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야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일국가의 정치사회체제는 통일의 과정에서 다층의 관계자들의 이해가 반영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70년 넘게 단절된 두 사회가 하나의 체제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는 일반적으로 남한 체제 중심의 통일, 북한 체제 중심의 통일, 제3의 절충형 통일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9〉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단위: %)

년도	남한의 현재체 유지	남북한 체제의 절충	남북한 두 체제의 유지	어떤 체제도 무방
2009	43.6	39.1	13.3	4.0
2010	44.4	38.8	12.6	4.2
2011	48.9	35.6	12.3	3.2
2012	44.2	37.7	15.1	3.0
2013	43.6	35.4	16.9	4.1
2014	44.9	37.9	13.2	4.1
2015	48.1	33.5	13.6	4.8
2016	47.3	34.5	14.4	4.0
2017	45.4	37.7	13.5	3.4
2018	46.7	27.3	23.8	2.2

국민들은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46.7%로 가장 많았다. 조사 기간 동안 이 항목에 대해서는 약 43%~48% 정도로 응답 비율이 거의 변함이 없었다. 두 번째로 많은 국민들이 선택한 응답은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는 것이지만 2017년 37.7%였던 것과 비교하면 10.4%p 감소하였다. 절충형 모델을 선호하는 응답도 약 35% 내외에서 변화가 없었는데, 2018년에는 남북한 두 체제의 유지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증가한만큼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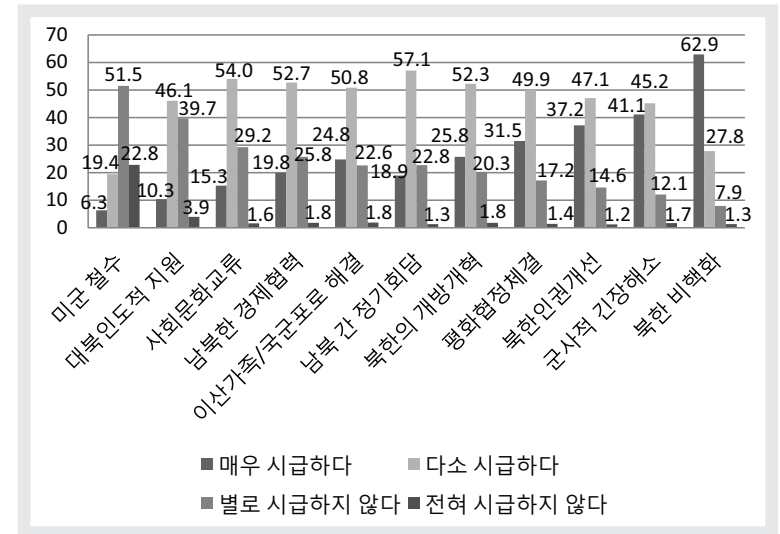
점진적인 통일과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인식이 확산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통일정책의 시급성

국제무대에서 이해당사자들은 항상 갈등을 겪게 되지만 동시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시도한다. 남북관계가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논리로 남북관계도 일반적인 국제정치와 다르지 않을수도 있다. 남북한도 갈등을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무력사용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서로 대화와 협상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림 1-1-4〉 통일을 위해 시급한 정책(2018)

(단위: %)



남북한이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해소, 북한인권의 개선, 평화협정체결 등을 순서대로 시급하게 다뤄져야 하는 과제라고 응답하였다. 4·27 평양선언 이후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는 핵심적 의제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군사적 긴장해소와 평화협정 체결은 비록 그 형식과 해석상의 이견이 존재하더라도 남북한의 번영 및 다른 문제들의 해결에 핵심이 되는 만큼 시급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정기적인 남북 회담,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북한의 개방과 개혁, 남북한 경제협력, 모두가 중요한 의제들이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시급성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시급한 의제가 아니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워낙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를 경험하면서 축적된 이미지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기에 신중한 해석과 접근이 요구된다. 시급한 정책현안이 여겨진다 하여 반드시 그 현안을 먼저 다뤄야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적 환경과 수요, 대화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6.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분단 이래 모든 정부에서 통일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 왔지만 그 내용은 서로 다르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개인의 통일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및 기타 기관에서 받은 통일 관련 교육의 내용을 조사해 보았다. 물론 이 문항을 통하여 최근의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받은 통일에 대한 교육은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이 통일의식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하고자 한 것이다.

〈표 1-1-10〉 학교 통일교육을 통해 접한 내용(2018)

학교 통일교육 내용	%
반공 및 안보	64.8
북한에 대한 이해	10.1
탈북자와 다문화	7.5
자유민주주의 가치	11.0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4.4
통일의 이익	2.2

조사결과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반공과 안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응답하였다. 통일교육이 정권에 따라 안보교육, 북한이해교육, 통일교육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였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연령별로 살펴볼 때 차이가 발견되었다. 40대 이상의 연령층은 반공 및 안보와 관련된 내

용으로 통일을 접했다고 하였지만, 20대에서는 탈북자와 다문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등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1-1-11〉 연령별 학교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2018) (단위: %)

학교 통일교육 내용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반공 및 안보	34.2	52.3	68.5	81.2	83.4
북한에 대한 이해	13.1	13.1	12.3	6.5	6.0
탈북자와 다문화	18.0	10.4	4.6	2.7	3.4
자유민주주의 가치	18.0	15.8	10.4	5.8	6.4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10.4	6.3	2.3	3.1	0.9
통일의 이익	6.3	2.3	1.9	0.8	0.0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도 사회변화에 따라서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입장만을 전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 특히 평화와 번영이 강조되는 시기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통일교육이 평화 중심의 평화교육,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공급자의 변화와 준비도 요구된다. 교육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을 교사들의 개인적 역량에만 맡기지 말고, 제도적으로 교육자들이 새로운 교육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학교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통일교육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사회 통일교육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공과 안보의 내용만으로 구성되어서는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접해온 사회 통일교육은 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표 1-1-12〉 사회통일교육을 통해서 접한 내용(2018)

사회통일교육	%
반공 및 안보	40.3
북한에 대한 이해	10.0
탈북자와 다문화	20.8
자유민주주의 가치	16.9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5.8
통일의 이익	6.2

종교/시민단체, 군대, 직장 등에서 통일에 대해 들었던 내용 중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역시 반공 및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학교 통일교육과 달리 탈북자와 다문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등도 각각 20.8%와 16.9%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 통일교육은 전달자가 주로 교사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교과 외로 수행하는 것에 부담이 있지만, 사회 통일교육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1-13〉 연령별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인식(2018) (단위: %)

사회통일교육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반공 및 안보	27.9	34.2	36.5	47.1	54.0
북한에 대한 이해	7.7	10.4	12.3	10.7	8.5
탈북자와 다문화	27.9	23.9	19.6	16.9	17.0
자유민주주의 가치	21.6	18.5	18.5	14.9	11.5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7.2	5.9	5.4	5.8	5.1
통일의 이익	7.7	7.2	7.7	4.6	3.8

학교에서 배운 통일과 사회에서 접한 통일교육의 내용 차이가 크다는 점은 연령대별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반공 및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많이 들었다는 응답자들은 모든 연령에서 학교 통일교육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단순히 교육체계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 경험의 차이 또는 학교교육의 기억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의 차이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7. 소결

평화와 번영이 사회적 담론의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통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 남북한이 하나의 체제를 가지는 것이 통일인가? 중단된 육로를 통한 교류가 재개되는 것도 작은 통일은 아닐까? 그렇다면 통일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 통일 관련 정보와 담론들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는 프레임을 통해서만 해석된다면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통일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며, 오늘의 한국이 좀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통일외식조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변하거나 혹은 변하지 않는 경향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정부 관료와 전문가들이 아무리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보고서나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면 비효율적인 것들이

된다. 좀 더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자신들 나름의 통일에 대한 상을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사의 의의가 커진다.

올해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통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는 못하더라도 일관적이고 방향성을 가진 인식의 지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국민들은 통일을 더 이상 민족 중심적 담론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통일이 필요하다 생각하더라도 그 이유가 반드시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다.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거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다. 통일이 실용적, 도구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이것이 꼭 우려할 일만은 아니다. 통일의 미래와 삶의 현재를 연결시키는 접근이 더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은 통일은 민족적 사건임과 동시에 국제적 사건임을 인식하고 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통합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통일이 남한사회에 대해서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통일인식의 지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일로 인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응답이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많지 않다.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외적인 요인에 의해 통일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사회통합에는 상

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정책의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한국사회에서 통일보다는 평화가 주된 화두였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화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되었다. 그렇지만 과연 평화만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일한 답이라는 접근은 자칫 ‘통일은 대박이다’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 평화가 답일 수도 있지만, 평화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평화 이외에도 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민들에게 체감될 때 정부의 통일정책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1. 서론

2012년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 정권은 핵개발에 모든 총력을 기울였다. 2012년 4월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한 것을 시작으로, 주권국가의 핵개발 권리를 강조하며 핵무력 강화에 모든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와는 반대로 북한의 고립은 심화되었고, 경제사정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제3차(2013년 2월 12일), 제4차(2016년 1월 6일), 제5차(2016년 9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그로 인한 대북제재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이 강화되었고 한반도의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었다. 2017년 5월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다양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쓴 문재인 정부도 기본적으로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개선될 조짐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미국에서는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결국 북핵 문

제를 키웠다고 평가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북미관계를 한층 더 단절시켰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변화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핵 능력을 강화시켰다. 그 때문에 출범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군사적 선제타격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정책 옵션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트럼프 정부는 최대한 압박하여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천명하였다.

손실이 발생할수록 더욱 위험감수적 행동을 하여 이를 만회하고자 한다는 전망이론의 가설처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손실)될수록 북한은 핵개발(위험감수)에 박차를 가했다.¹⁾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 속에서 2017년 9월 3일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어서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실험 발사(11월 29일)하였다. 북한은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와 동시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9월 11일), 2397호(12월 22일)를 채택하였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갈등은 한층 더 고조되었고, 나아가 한반도 전쟁위기가 확산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무응답 속에서도 끊임없이 화해·협력 메시지를 보냈고, 마침내 북한은 이에 답했다. 2018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

1) 문인철, “북한 핵무기 개발 및 보유의 인지심리학적 의미,” 『한국동북아논총』, 87권 (2018), pp. 27-48.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한 정권 70주년과 남북관계 개선을 연계시키며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참가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남북 정상은 세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남북관계와 마찬가지로 오랜 적대 관계였던 북한과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나타내었다.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사상 이래로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남측에 내려온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러한 모습들이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남한주민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은 이 모습에 많은 응원과 환호를 보였다.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마주 앉았고, 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북남관계가 새롭게 역사가 쓰여지는 출발점에 서서 신호탄을 쏜다는 마음가짐으로 왔다”며 “원점으로 돌아가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손잡고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오기 전에 만찬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지고 왔다”며 “대통령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곧바로 김 위원장은 북한의 정성을 이야기 하는 가운데 “멀리 온 평양냉면”이라고 말했고, 이를 곧바로 정정하며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라며 웃었다.²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발언은 한동안 남한주민들 사이

에서 유행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반영하듯, 남한주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역시 확연한 변화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북한정권을 신뢰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남한주민들의 54.7%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북한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3%로 2009년 이래로 50% 이상을 유지하던 ‘불신’이 40%대로 떨어지고, 30%대를 유지하던 ‘신뢰’가 ‘불신’을 역전해버렸다. 또한 북한이 변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변하고 있다’가 ‘변하지 않고 있다’를 넘어섰다. 2008년 이래로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률은 50-60%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변하고 있다’라는 응답률은 30-40%대를 유지했었다. 2017년의 한반도 상황은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변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00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인 31.9%로 조사되었다. 한편,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2007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인 68.0%였다. 그러나 2018년 소위 대전환기의 한반도 상황은 또 다시 남한주민들의 대북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변하고 있다’는 응답은 2007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인 77.3%, ‘변하지 않고 있다’는 22.7%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7월 12일부터 8월 3일까지 23일간 실시되었다. 그 때문에 9월 19일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 전개된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관계 개선 상황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북핵 문제의 교착상태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의 북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김정은 ‘제가 멀리서 평양냉면을... 아 멀다하면 안 되겠구나.’” 『머니투데이』, 2018년 4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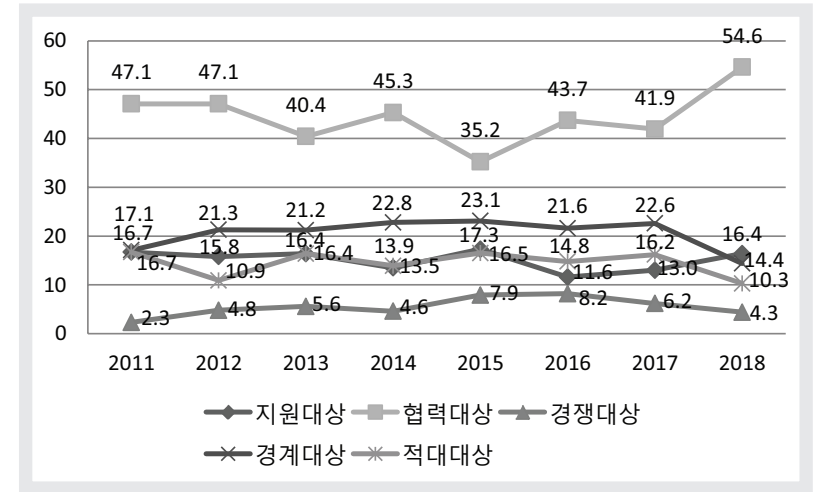
2. 북한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

남한주민들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기 위해 먼저 북한을 ‘협력대상’, ‘지원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중 어떠한 대상으로 인식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2-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협력대상)’이라는 인식은 2017년 41.9%에서 2018년 54.6%로 12.7% 상승했다. 다음으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지원대상)’이라는 인식은 2017년 13.0%에서 2018년 16.4%로 3.4% 상승했다. 반면,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경쟁대상)’,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경계대상)’,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은 하락하였다. 가령, 경쟁대상은 6.2%에서 4.3%로, 경계대상은 22.6%에서 14.4%로, 적대대상은 16.2%에서 10.3%로 하락하였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하락하고, 긍정적 인식이 상승한 것은 2017년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2018년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2017년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극복하였고, 2018년 들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및 경제 발전 의지 표명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1> 북한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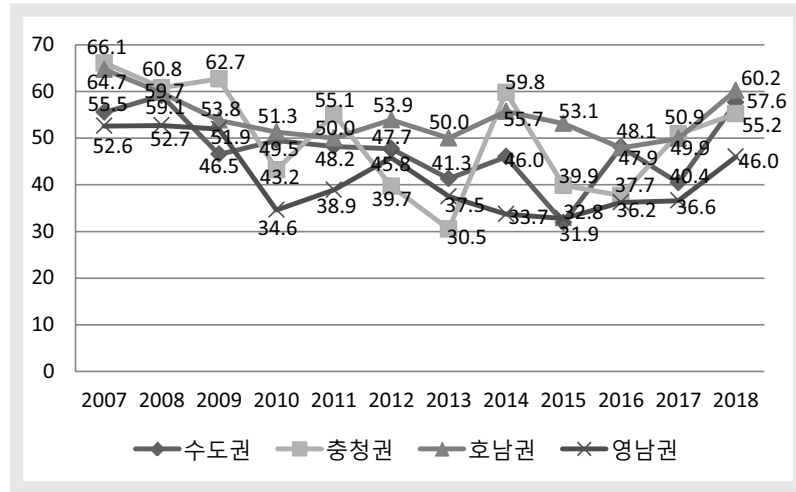
(단위: %)



북한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은 지역, 종교, 연령, 정치성향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지역별 인식을 살펴보면,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순서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크게 상승했다. 전년대비 수도권의 경우 40.4%에서 57.6%로 17.2%, 충청권의 경우 50.9%에서 55.2%로 4.3%, 호남권의 경우 49.9%에서 60.2%로 10.3%, 영남권의 경우 36.6%에서 46.0%로 9.4% 상승했다. 이중 수도권이 17.2%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충청권이 4.3%로 가장 작은 폭으로 상승했다. 북한에 대한 지역별 협력인식에 있어서 특기할 점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이 2016년부터 모두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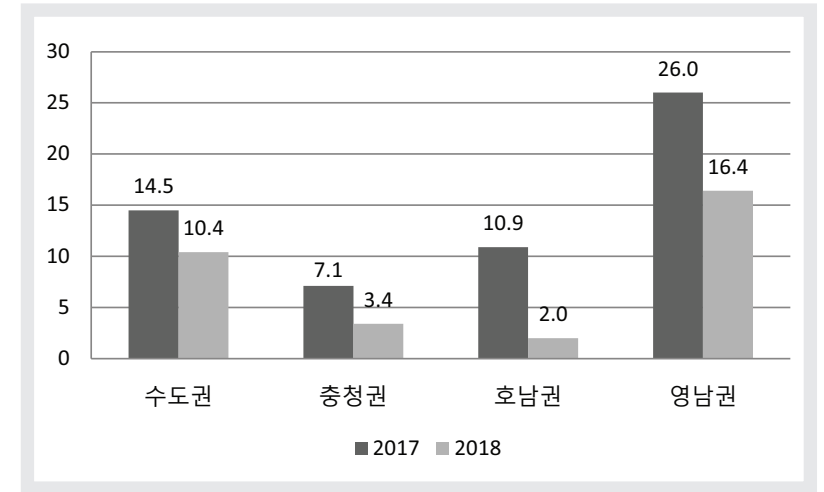
〈그림 1-2-2〉 지역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단위: %)



〈그림 1-2-3〉 지역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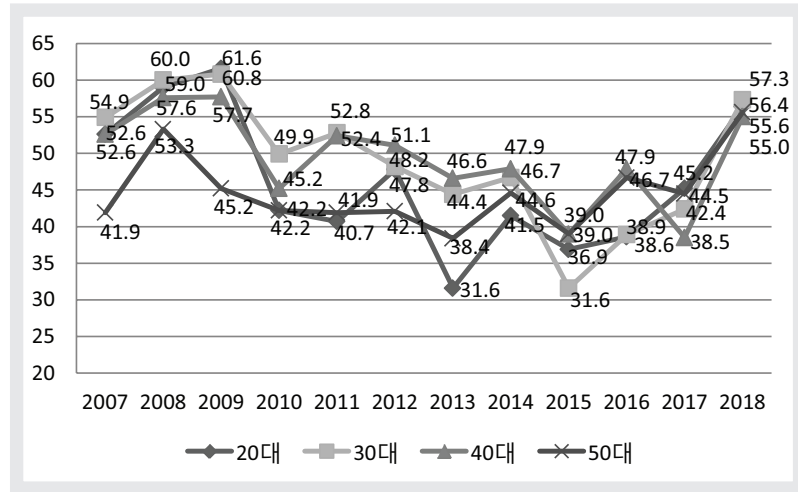
한편, 북한에 대한 지역별 적대대상 인식은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충청권 순으로 하락하였다. 영남권의 경우 전년대비 26.0%에서 16.4%로 9.6%, 호남권의 경우 10.9%에서 2.0%로 8.9%, 수도권의 경우 14.5%에서 10.4%로 4.1%, 충청권의 경우 7.1%에서 3.4%로 3.7% 하락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8년의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전 연령에서 북한에 대한 협력대상 인식이 대폭 상승하였다. 〈그림 1-2-4〉에서 볼 수 있듯이, 20대의 경우 45.2%에서 56.4%로 11.2%, 30대의 경우 42.4%에서 57.3%로 14.9%, 40대의 경우 38.5%에서 55.0%로 16.5%, 50대의 경우 44.5%에서 55.6%로 11.1% 상승하였다. 이중 30대가 가장 높게, 40대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40대의 경우 16.5%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 조사에서 특기할 점은 2015년 이래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20대와 30대의 인식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가령, 20대의 경우 36.9% → 38.6% → 45.2% → 56.4%로 2015년과 비교할 때 19.5%가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30대의 경우에도 31.6% → 38.9% → 42.4% → 57.3%로 2015년 기준 25.7% 상승했다. 따라서 40대를 제외하고 2016년 이래로 20대, 30대, 50대 모두 상승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4〉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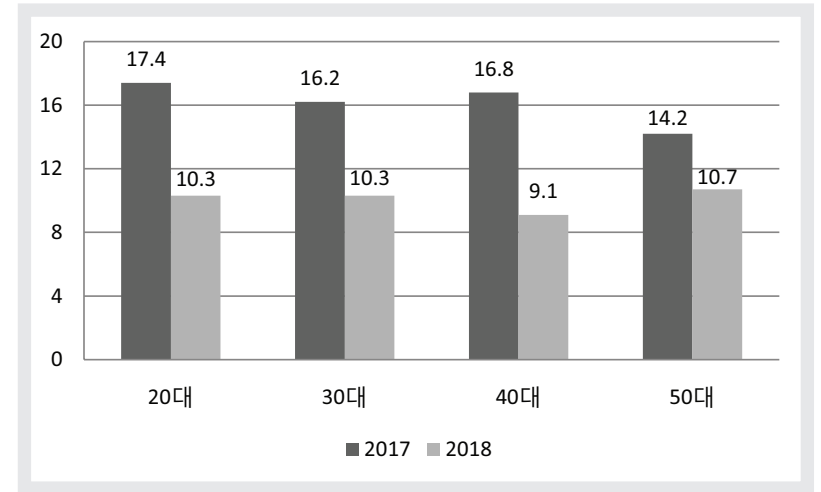
(단위: %)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전 연령대에서 모두 하락하였다. 가령, 20대 17.4% → 10.3%, 30대 16.2% → 10.3%, 40대 16.8% → 9.1%, 50대 14.2% → 10.7%로 하락하였다. 〈그림 1-2-5〉에서 볼 수 있듯이 적대대상 인식은 40대가 가장 낮고, 5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적대대상 인식의 하락폭은 20대가 전년대비 -7.1%로 가장 컸고, 50대가 -3.5%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5〉 연령대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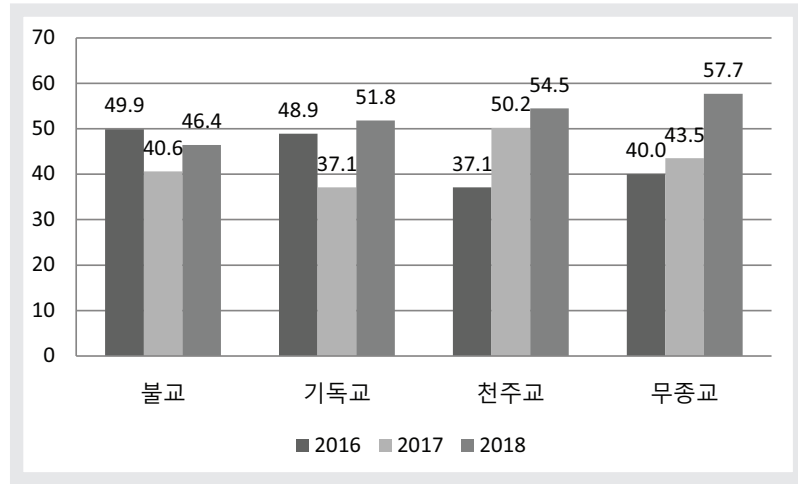
(단위: %)



마지막으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도 모두 상승했다. 〈그림 1-2-6〉에서 볼 수 있듯이, 불교의 경우 2017년 40.6%에서 2018년 46.4%로 5.8% 상승했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2017년 50.2%에서 2018년 54.5%로 4.3% 상승했다. 특히 기독교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2017년 37.1%에서 2018년 51.8%로 14.7% 상승했다. 2017년의 경우 불교와 기독교의 협력대상 인식이 2016년 대비 하락한 반면, 천주교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무종교의 경우에도 2016년 이래로 북한에 대한 협력대상 인식이 계속해서 상승했는데, 2018년의 경우 57.7%로 전년 대비 14.2% 상승했다.

〈그림 1-2-6〉 종교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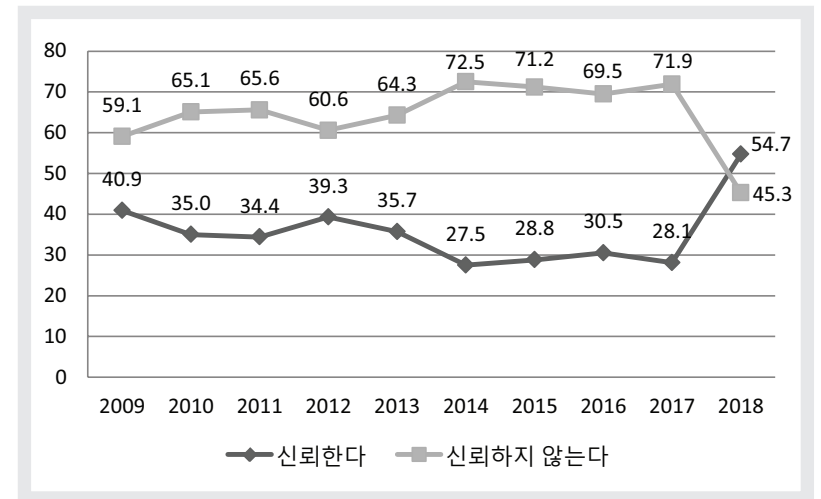
3.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

북한 정권에 대한 남한주민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54.7%가 북한 정권을 ‘신뢰한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1-2-7〉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편차는 있었으나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33%대로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북한 정권에 대한 남한주민의 불신은 동 기간 평균 67%대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남한주민의 불신 인식은 2018년 45.3%로 전년대비 26.6% 낮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2018년

들어 처음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남한주민의 신뢰가 불신을 넘어섰다. 이는 2018년에 들어와 남북 간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 정권의 비핵화 의지와 제한적이지만 관련 조치들이 이행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7〉 북한 정권 신뢰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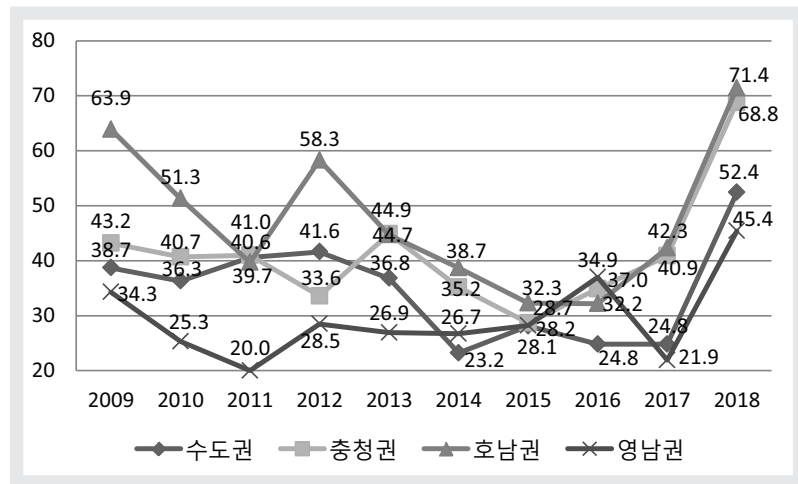
북한 정권에 대한 남한주민의 신뢰도는 지역, 종교, 연령, 정치성향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모든 지역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2017년 24.8%에서 2018년 52.4%로 전년 대비 27.6% 상승했다. 충청권의 경우 2017년 40.9%에서 2018년 68.8%로 전년 대비 27.9% 상승했다. 호남권의 경우 2017년 42.4%에서 2018년

71.4%로 전년대비 29.0% 상승했다. 한편, 영남권의 경우 2009년 이래로 20%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45.4%로 전년대비 23.5% 상승했다.

특기할 점은 수도권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영남권보다 낮은 신뢰도를 보여 왔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다시 영남권을 넘어섰다. 가령, 2013년부터 2017년 수도권의 북한 정권 신뢰도는 36.8% - 23.2% - 28.1% - 24.8% - 24.8%였다. 같은 기간 영남권의 북한 정권 신뢰도는 26.9% - 26.7% - 28.2% - 37.0% - 21.9%였다.

〈그림 1-2-8〉 지역별 북한 정권 신뢰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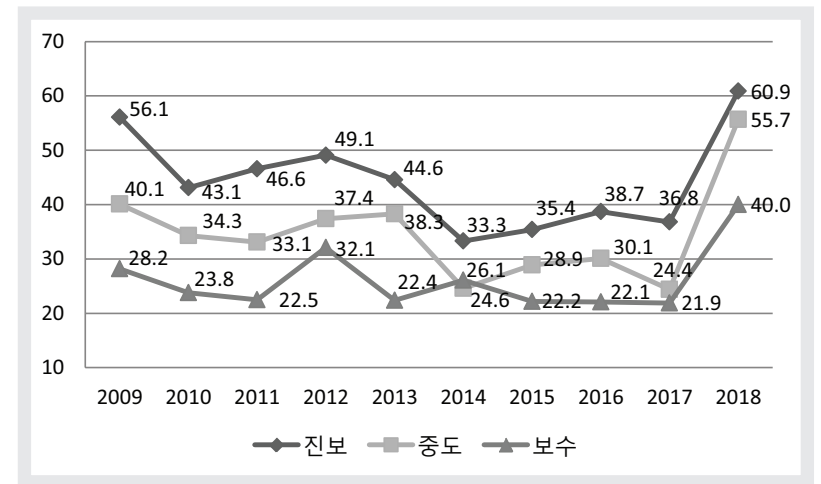


다음으로 정치성향별 북한 정권에 대한 남한주민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진보, 중도, 보수 모두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진보적 정치성향의 경우 2014년이래로 30%대를 이어오다가 2018년 60.0%로 24.1% 상승했다. 중도 성향의 경우도 2014년 이래로 20%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55.7%로 전년대비 31.3%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보수적 정치성향은 2012년(32.1%)을 제외하고 2009년 이래로 20%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40.0%로 전년대비 18.1%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수의 북한 정권 신뢰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 실행 방안, 북한주민의 인권, 독재체제 유지 등의 문제가 아직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한 간 오랜 적대관계로 인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9〉 정치성향별 북한 정권 신뢰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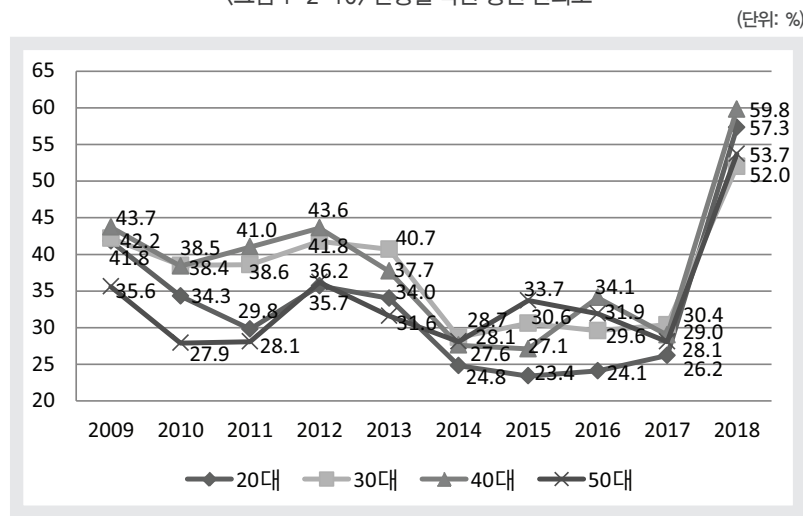


전 연령대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상승했다. 20대의 경우, 26.2%에서 57.3%로 전년대비 31.1% 상승했고, 30대의 경우, 30.4%에서 52.0%로 전년대비 21.6% 상승했다. 40대의 경우, 29.0%에서 59.8%로 전년대비 30.8%로 상승했고, 50대의 경우도 28.1%에서 53.7%로 전년대비

25.6% 상승했다. 2017년의 경우 30대 > 40대 > 50대 > 20대로 순으로 조사된 반면, 2018년의 경우에는 40대 > 20대 > 50대 > 30대 순으로 2017년에 가장 높았던 30대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연령대별 인식 중 ‘30대’가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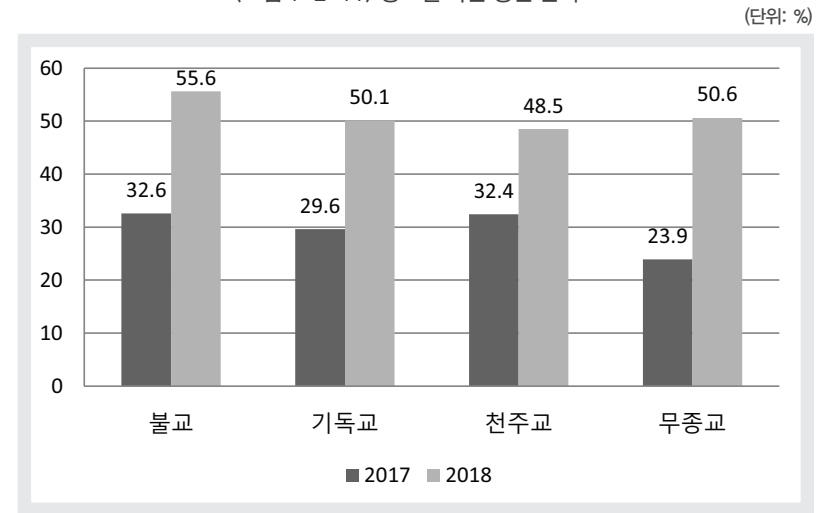
2017년의 경우에도 ‘20대’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 중 가장 높게 조사된 반면,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2018년에도 2017년과 같은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20-30대는 ‘북한 또는 북한주민’과 ‘북한 정권’을 분리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대의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기본적으로 2017년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그림 1-2-10〉 연령별 북한 정권 신뢰도



마지막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남한주민의 종교별 신뢰도도 전년과 비교할 때 모두 크게 상승했다. 불교의 경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32.6%에서 55.6%로 32.6% 상승했다. 기독교는 두 번째로 29.6%에서 50.1%로 20.5% 상승했고, 천주교는 32.4%에서 48.5%로 16.1% 상승했다. 무종교의 경우는 23.9%에서 50.6%로 26.7% 상승했다.

〈그림 1-2-11〉 종교별 북한 정권 신뢰도



4. 북한 변화와 정권 안정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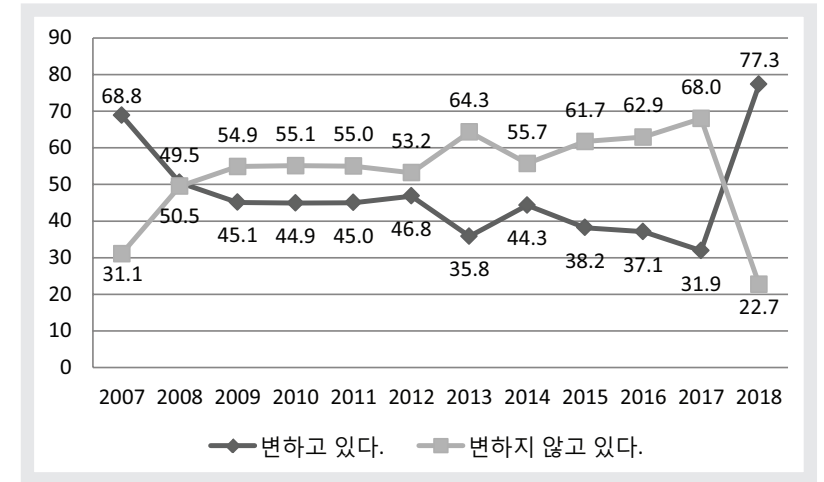
1)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

“당신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77.3%가 ‘북한이 변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 반면,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응답은 22.7%로 낮게 조사되었다. 좀 더 살펴보면,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은 2017년 31.9%에서 2018년 77.3%로 45.4% 상승했고,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2017년 68.0%에서 2018년 22.7%로 45.3% 하락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지역, 정치적 성향, 종교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설문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부분이 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응답자가 생각하는 북한 변화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평양의 도시 발전상이라던가, 평양 및 북한주민의 스마트폰 사용이나 패션, 평양 또는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증언 등 10년 전과 달라진 여러 모습들이 언론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남한주민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은둔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김정일 위원장과 대조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대외 행보나 경제 발전(협력) 및 비핵화 의지 피력, 남북한 대화 시 나타나는 북한 지도부의 유화적 모습 등이 여러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1-2-12〉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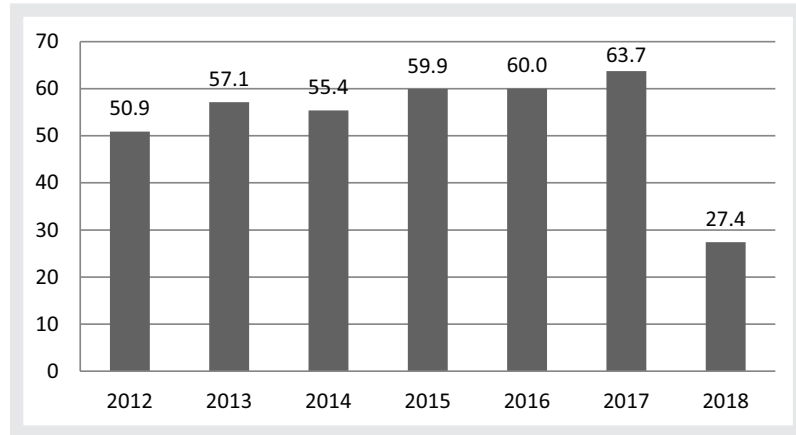


2) 북한 정권 불안정 예측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와 ‘비동의’를 묻는 질문에 대해 27.4%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달리 말해,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2017년 64.7%에서 27.4%로 37.3% 대폭 감소했다. 김정은 정권이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과 2018년 4월 ‘경제-핵 병진 노선’에서 ‘경제발전 총력 집중 노선’ 선언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초점을 두면서 체제가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최고지도자 최초로 관문점 남측을 방문하고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 개인이 보인 여러 자신감 있는 언행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13〉 북한 정권 불안정 예측

(단위: %)



3)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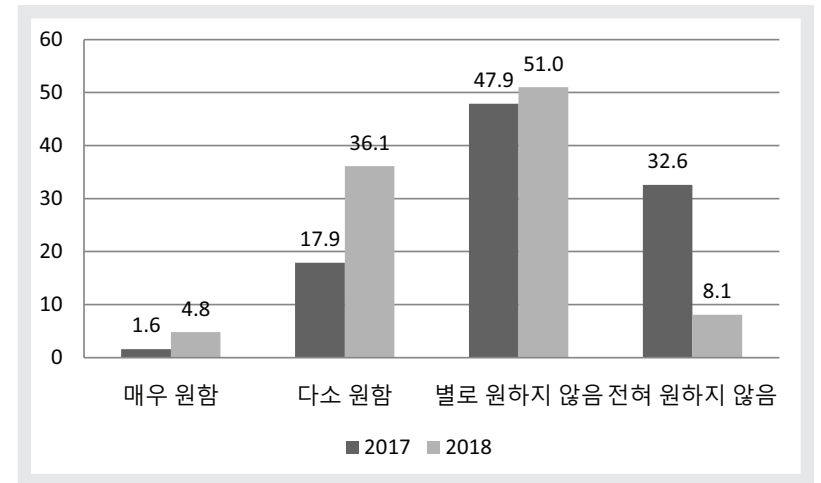
북한이 통일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남한주민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4.8%가 ‘매우 원한다’, 36.1%가 ‘다소 원한다’고 답함으로써 40.9%의 응답자가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21.4% 상승한 결과이다. 반면, 51.0%가 ‘별로 원하지 않는다’, 8.1%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답함으로써 50.1%의 응답자가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남한주민의 응답률은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2017년과 비교할 때 30.4% 하락했다는 점에서 이

는 매우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2018년 신년사에서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발언과 이후 급속도로 전개되기 시작한 한반도 평화 분위 등이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생각하는 통일의 방법과 형태 즉, 적화통일인지 흡수통일인지, 연방제 통일인지, 연합제 통일인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향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1-2-14〉 남한주민이 생각하는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단위: %)



5.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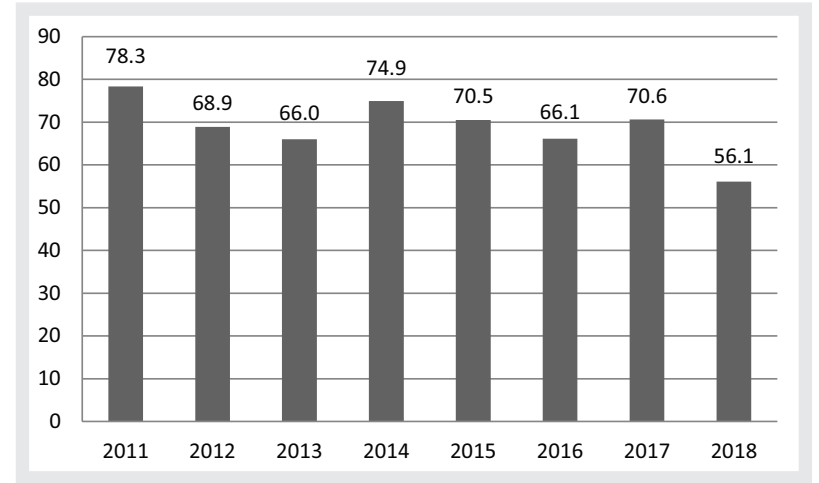
1)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북한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56.1%의 응답자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였다. 여전히 남한주민의 50%이상이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2-15>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응답률은 전년대비 14.5% 하락했고, 2011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 인식이 50%대를 유지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진전, 남북한 교류협력,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의 가시적 성과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지난 70여 년 간 지속된 남북한 군사적 갈등 상황으로 여전히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문조사 이후 9월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체결되었고, 현재 그에 따른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2019년의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2-15>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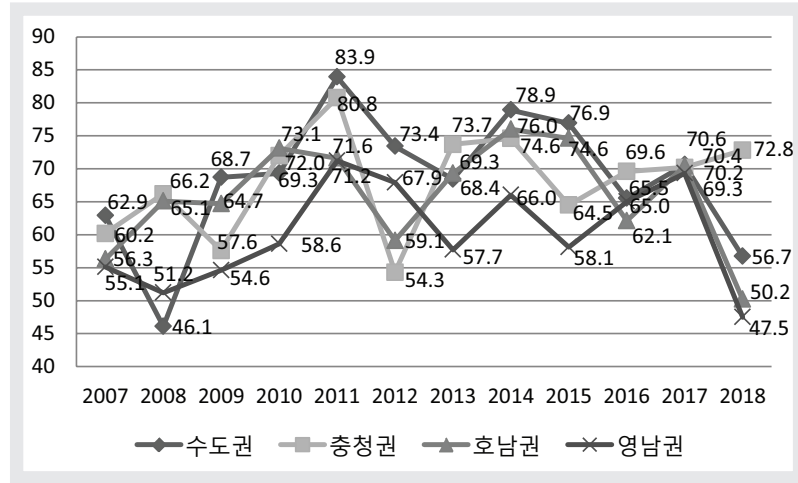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한 지역별 위협 인식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2017년 70.6%에서 2018년 56.7%로 ‘13.9%’ 하락했다. 호남권의 경우, 2017년 70.4%에서 2018년 50.2%로 ‘20.2%’ 하락했다. 영남권의 경우, 2017년 69.3%에서 2018년 47.2%로 ‘22.1%’ 하락했다. 반면, 충청권의 경우 2017년 70.2%에서 2018년 72.8%로 ‘2.6%’ 상승했다. 2016년에도 다른 지역은 모두 감소한 반면, 충청권은 상승했었다. 충청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14명,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12명으로³⁾ 다소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 강한 영남권이 하락한 것과 달리 충청권에서 대남 무력도발 인식이 상승한 것은 특이한 점이다.

3) 대한민국국회 검색(검색일: 2018년 12월 22일)

<http://www.assembly.go.kr/assm/memact/congressman/memCond/memCond.do>

〈그림 1-2-16〉 지역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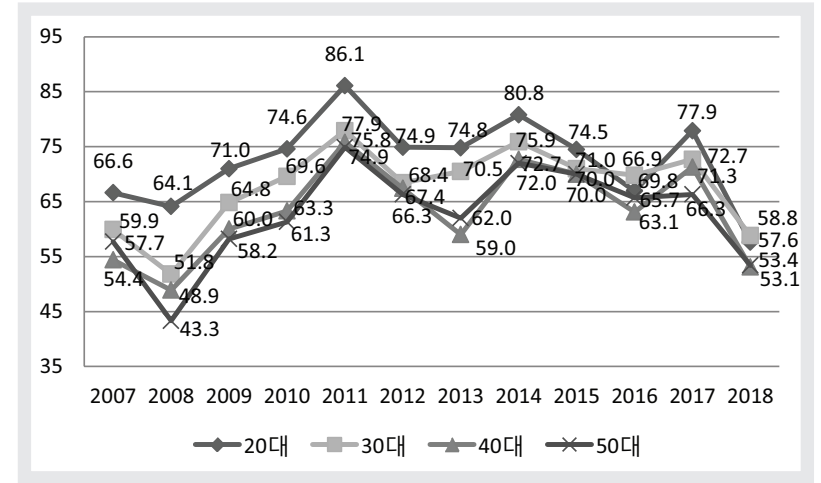
(단위: %)



2017년과 비교할 때 전 연령대에서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2017년 77.9%에서 2018년 57.6%로 20.3% 하락했고, 30대의 경우에는 2017년 72.7%에서 2018년 58.8%로 13.9% 하락했다. 40대의 경우에는 2017년 71.3%에서 2018년 53.1%로 8.2% 하락했고, 50대의 경우, 2017년 66.3%에서 2018년 53.3%로 13.0% 하락했다. 그러나 전 연령대 모두 50%대 수준으로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2-17〉 연령대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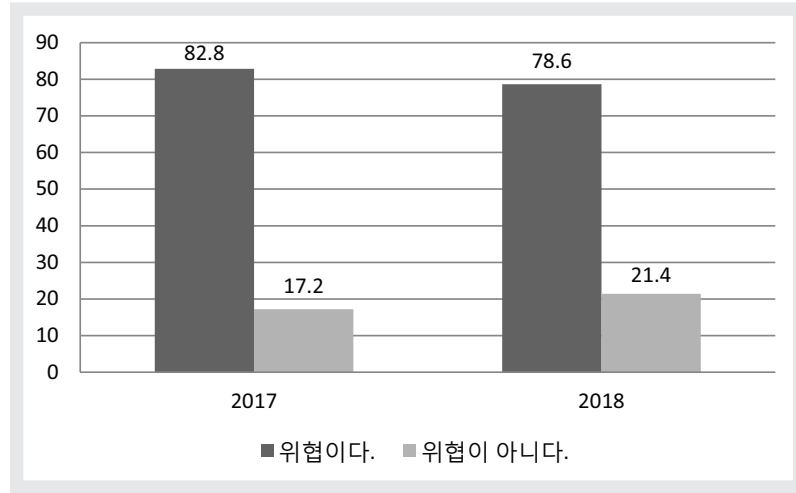


2) 북한 핵보유 위협 인식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라고 물었다. 그 결과 북한 핵무기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 인식은 2017년 82.8%에서 2018년 78.6%로 전년대비 4.2% 낮아졌다. 본 설문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관계 개선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협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21.4%에 그치고 있고 ‘위협이다’는 의견도 7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핵보유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 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1-2-18〉 북한 핵보유에 대한 위협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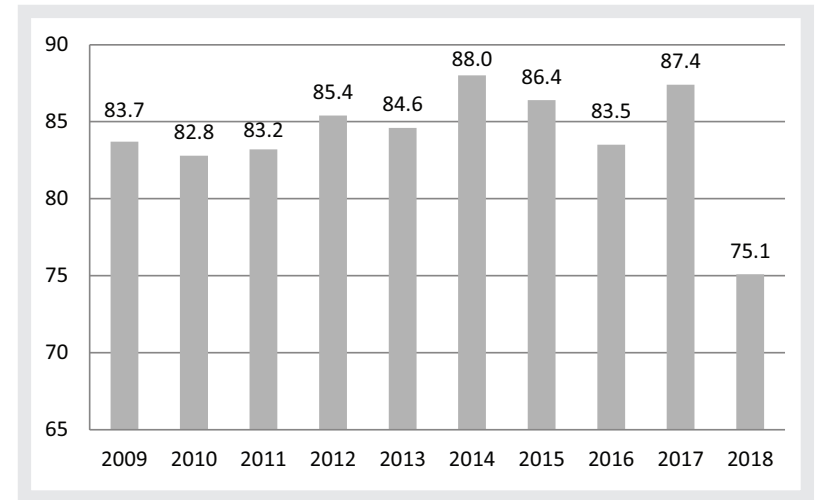
아울러 본 조사는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그 결과 75.1%의 응답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12.3% 감소한 것으로, 2009년 이래로 80% 수준을 유지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의미 있는 변화이다. 그러나 북한 핵보유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1.6%에 그쳤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5%라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남한주민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아직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5월 24일 비핵화 조치의 하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75% 이상의 결과가 나온 것은 비핵화에 대한 남한주민의 기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에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했을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공동합의문에 CVID 문구가 빠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남한주민들이 북한정권의 생존과 핵무기 보유를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핵무기 포기의 대가로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까지 체제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조건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주민들은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19〉 북한의 핵포기가능성 인식

(단위: %)



6. 북한 사회 친숙성 및 존재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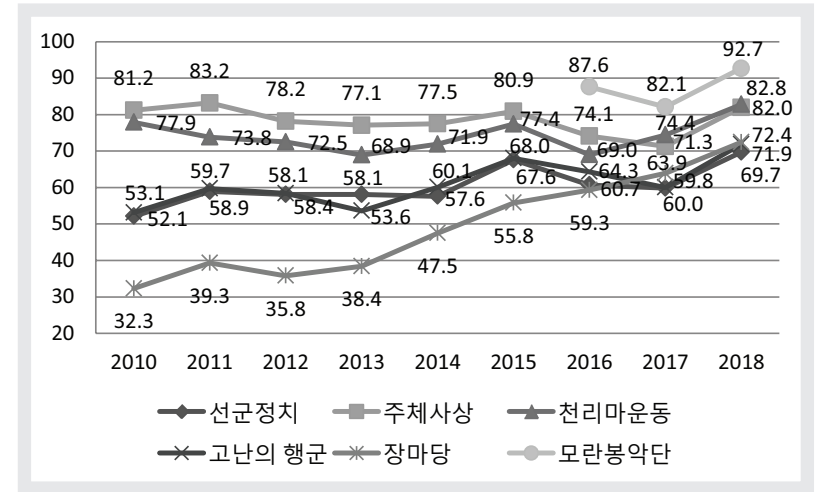
1) 북한사회 인지도

북한 사회에 대해 남한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모란봉 악단’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분석의 편의상 ‘잘 안다’, ‘조금 안다’, 그리고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을 합하여 계산한 결과, 북한사회에 대한 인지도는 기본적으로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 대한 인지도는 전년 대비 모두 소폭 상승하였다. 선군정치의 경우 59.8% → 69.7%, 주체사상 71.3% → 82.0%, 천리마운동 74.4% → 82.8%, 고난의 행군 60.0% → 71.9%, 장마당 63.9% → 72.4%, 모란봉악단 82.1% → 92.7%로, 남한주민 대부분은 북한에 대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들어와 남북관계가 급진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분위기에 따라 언론 및 다양한 매체 등에서 북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와 더불어 남한주민 스스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찾아보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었던 2016년과 2017년에도 5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현 한반도 상황과 별개로 기본적으로 남한주민의 북한 사회 인지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20〉 북한 사회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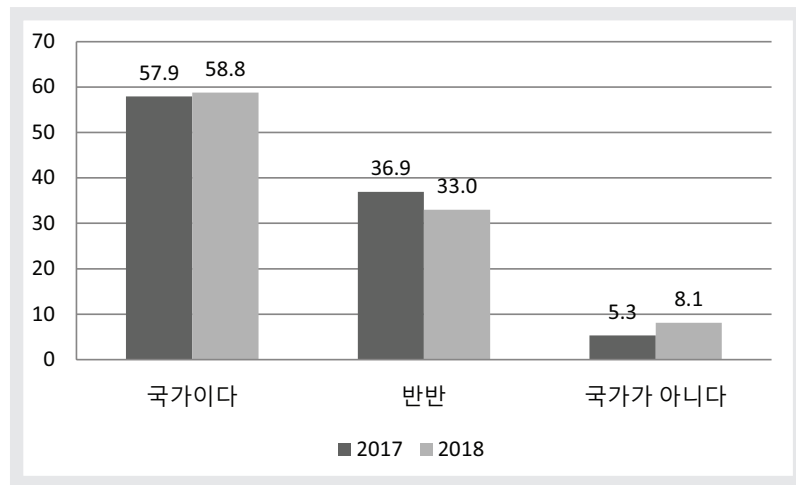
2) 북한의 존재성에 대한 인식

1991년 남한과 함께 북한은 160번째로 유엔에 가입하였다. 그 때문에 북한은 하나의 국가로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1991년 12월 남북한 사이에 합의되었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즉,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국가 간 관계이자 민족 관계의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주민이 북한의 존재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견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58.8%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2017년과 파

찬가지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17년 5.3%에서 2018년 8.1%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소폭 증대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북한을 하나의 존재성으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반반’이라는 의견도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할 때 남한주민들은 대체적으로 통일을 남과 북의 대등한 국가 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21〉 북한의 존재성에 대한 인식

(단위: %)



7. 북한의 인권 상황 및 개선 방법에 대한 견해

북한 핵문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문제도 국제사회로부터 매우 심각한 문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엔은 2005년부터 2018년 최근에 이르기까지 14년 연속으로 회원국들의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⁴⁾ 이러한 점에서 2018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남한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35.5%가 ‘매우 심각하다’, 46.8%가 ‘다소 심각하다’고 응답함으로써 ‘82.3%’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1%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 0.2%가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함으로써 2.4%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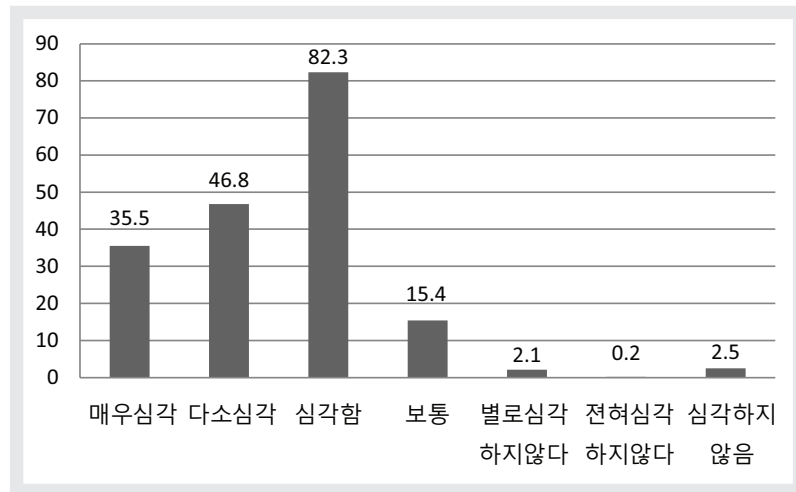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점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대북 사안별 시급성 조사’이다.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해 2018년 남한주민들의 83.5%(매우 시급 35.2% + 다소 시급 48.3%)는 통일을 위해 북한의 인권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7년 조사 결과인 86.3%(매우 시급 54.5% + 다소 시급 31.8%)보다 다소 떨어진 수치이다. 하지만 2018년 조사도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남한주민들은 통일을 위해 북한

4) “유엔, 14년 연속 북 인권결의안 채택... 북·미 비핵화 협상 영향?” 『뉴스프리존』, 2018년 12월 21일.

인권 개선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2018년 응답자의 61.3%(매우 찬성 17.0% + 다소 찬성 44.3%)는 남한 정부가 핵문제와 별개로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참고로 이에 대한 2017년 찬성 응답은 57.0%였고, 반대에 대한 응답은 12.2%였다.

〈그림 1-2-22〉 북한의 인권 상황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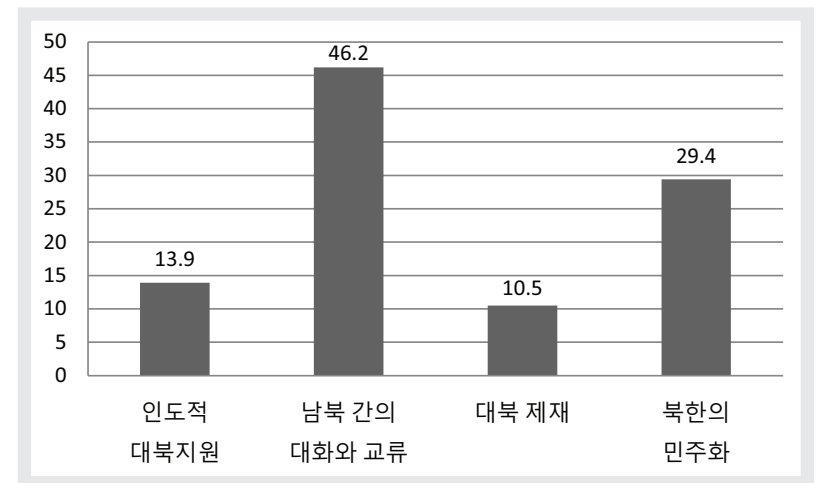


북한 인권 상황 인식과 더불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2%가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북한 인권 개선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로 응답자의 29.4%가 '북한의 민주화'가 북한 인권 개선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세 번째로 응답자의 13.9%가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 인권 개선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

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10.5%가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북한 인권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것과 비슷하게 44.7%(매우 긍정 8.6% + 약간 긍정 36.1%)가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인권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43.8%,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6%였다.

〈그림 1-2-23〉 북한의 인권 개선 방법

(단위: %)



8. 소결

북한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협력의 대상인가, 아니면 적대대상인가? 민족인가 혹은 국가인가? 북한의 핵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인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것인가? 북한 정권은 안정적인가? 한반도 대전환의 시기로 평가받는 2018년에 이루어진 이번 조사는 이에 대한 여러 질문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준다. 하지만 앞선 질문들은 쉽게 답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리고 이는 항상 유동적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결국 남북 간 갈등은 신뢰의 부족에 있다는 것이다. 남북 간 상호 이해의 부족이 결국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은 남북이 자주 만나 대화하고, 교류·협력하는 것이 결국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고 또 통일로 가는 궁극적 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 한 해였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약 9년여에 걸친 남북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남한주민들의 대북 인식에도 큰 변화를 이끌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을 적대대상이나 경계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들의 인식은 2017년과 비교할 때 소폭 하락하였다. 반면에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은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9년 만에 50%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인식은 연령, 종교, 지역,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모든 영역에서 나타났다.

2018년 한반도 대전환의 분위기는 북한 정권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

에도 매우 큰 변화를 이끌었다. 2009년 이래로 남한주민들은 북한을 협력 대상이라고 보면서도 북한 정권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남한주민들은 북한 또는 북한주민과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북한 정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남한주민의 절반 이상이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긴 것이기도 했지만 신뢰가 불신을 역전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나타냈던 영남권조차도 북한 정권을 신뢰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는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게 만들었다. 그동안 남한주민 절반 이상은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평가·예측했었다. 사실 이러한 평가 또는 예측은 1990년대 냉전 해체 시기부터 지속돼 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우리의 예측 및 평가와 달리 안정적이었고,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마무리 했다. 심지어 북한은 수백만의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고난의 행군 시기도 자신의 방식으로 꾀꾀하게 버텼다. 그리고 2017년 북한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현재 북한은 '경제-핵 병진 노선'에서 '경제개발 총력 집중 노선'으로 전환하고, 모든 국가적 노력을 경제발전에 쏟아 붓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불안정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북한은 탈냉전 이후 약 30년 동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가 그간 북한이 불안정해지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보게 만든다. 하지만 올해 나타난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는 이러한 평가를 뒤집어 놓았다. 본문에서 밝혔듯이, 50-60대%를 유지하던 북한 정권에 대한

불안정성 예측은 2018년 들어 27.4%로 급락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규정하고 재단해왔는지를 나타내는 단편적인 사례가 된다. 그리고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가 가질 자세에 대해서 많은 함의를 제공해준다.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내부에 있고, 또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준다. 흔히들 하는 말로 통일을 위해 남남갈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바로 북한 핵문제이다. 북한 혹은 북한 정권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긍정적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핵에 대한 생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남한주민의 70% 이상이 북한 핵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하다.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2017년과 비교할 때 20%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한주민들은 북한 핵을 큰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 정권을 신뢰한다는 의견이 조사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여전히 높게 조사되었다.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에 종속되면 안 되지만, 결국 북핵문제는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2018년 12월 현재 우리의 기대와 달리 북한 핵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한 교류협력도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은 또 다시 한층 더 발전된 한반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 12월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진행될 계획이고, 내년 봄에는 6.25 전사자 유

해 발굴 공동 사업이 실행될 예정이다. 또한 타미플루 지원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는 앞으로 인도주의 남북 협력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남측 답방이 예정되어 있고,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도 계획 중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한층 더 개선될 수 있고, 이는 진정한 한반도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정부, 국제사회가 모두 노력할 때 한반도 평화의 문은 더욱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1. 서론

2018년 남북관계는 관계 개선의 수준과 속도, 그리고 지속성의 측면에서 분단 이후 가장 파격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수차례의 중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롯해, 2차 북미 핵실험을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 소위 ‘핵보유국’의 지위를 국제사회에 인정받으려 노력했던 북한의 공세적인 자세를 돌이켜 본다면 2018년은 그야말로 한반도 분단 이래 가장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이처럼 지난해까지 갈등과 긴장이 첨예하게 고조되었던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는 2018년 급격한 변화를 맞으며 평화와 번영의 대담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시작된 남북 대화의 재개는 남북 상호특사교환,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 그리고 4.27 판문점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남북관계의 개선 및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크게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 9월 18-19일 평양을 방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조성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북미간 협상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은 다소 아쉬운 상황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역시 2019년 초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진행된 남북, 북미관계의 개선이 쉽게 역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금년 한 해 동안 남북관계의 개선은 유례없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만, 오랜 상호불신의 역사를 갖고 있는 북미관계는 우리의 기대보다 그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듯 북미간 비핵화 프로세스가 다소 교착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적극적 중재자 혹은 촉진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추진동력은 금년 하반기 북미협상이 지연되면서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해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북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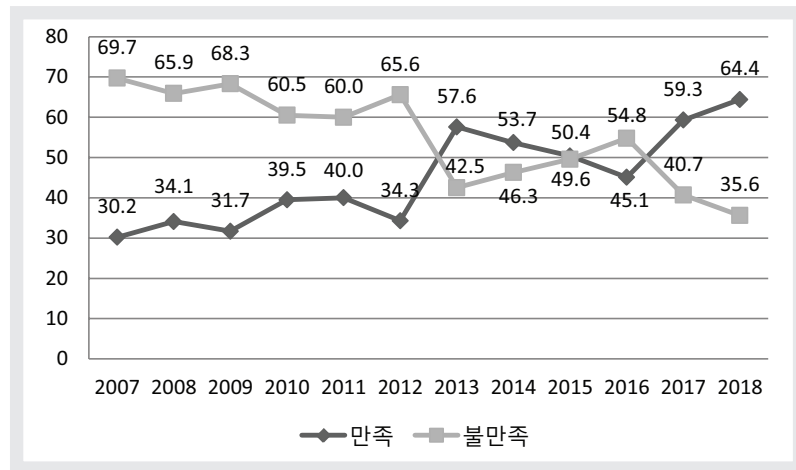
그렇다면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는 2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대북정책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2013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어 올해에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64.4%를 기록하였다. 2017년의 조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달 뒤에 이루어진 조사 결과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였다기보다는 새로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성에 대한 기대의 측면이 컸다. 그렇기에 실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금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1-3-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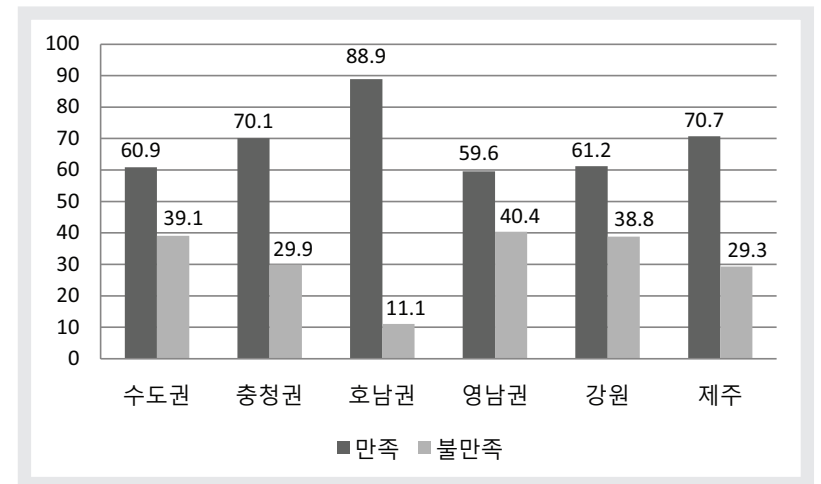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올해 국민들은 2018년 1월부터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나타난 구체적 성과들 -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등 - 로 인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호남권(88.9%), 제주(70.7%), 충청권(70.1%), 강원(61.2%), 수도권(60.9%), 영남권(5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7.0%, 65.7%를 각각 기록한 강원과 호남권에서 금년 정책 만족도가 크게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 남북관계의 변화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강원지역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한 즉각적인 안보 및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이라 기대한 것으로 보이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호남의 경우에는 평화로운 남북관계의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현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61.5%의 만족도를 보였던 수도권에서는 만족도가 오히려 낮아졌는데, 전체적인 만족도 상승 추세와 비교해볼 때 특이한 현상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이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는 인식과 배치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적 지지 양상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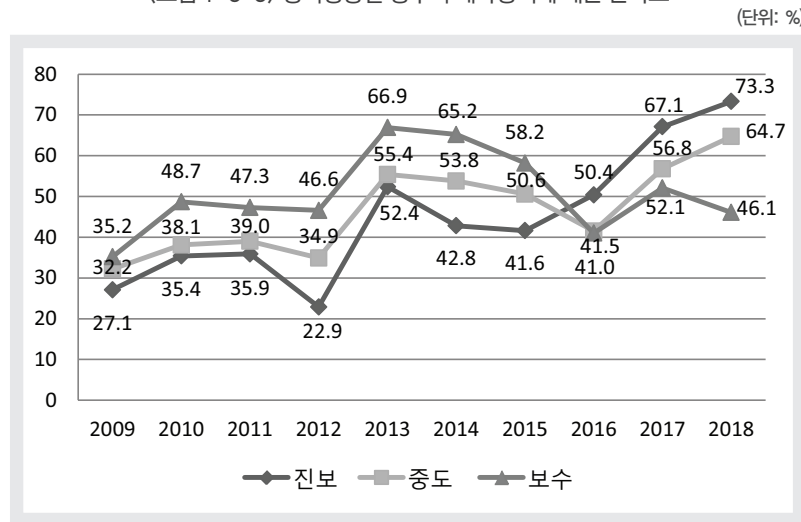
〈그림 1-3-2〉 지역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정치성향별로 대북정책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진보의 73.3%, 중도의 64.7%가 만족한다고 응답, 두 집단 모두 조사 이래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진보 및 중도층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이 높아진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 하겠다. 반면, 지난해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던 보수층에서는 금년에는 절반이 안 되는 46.1%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8년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개선의 상당히 빠른 속도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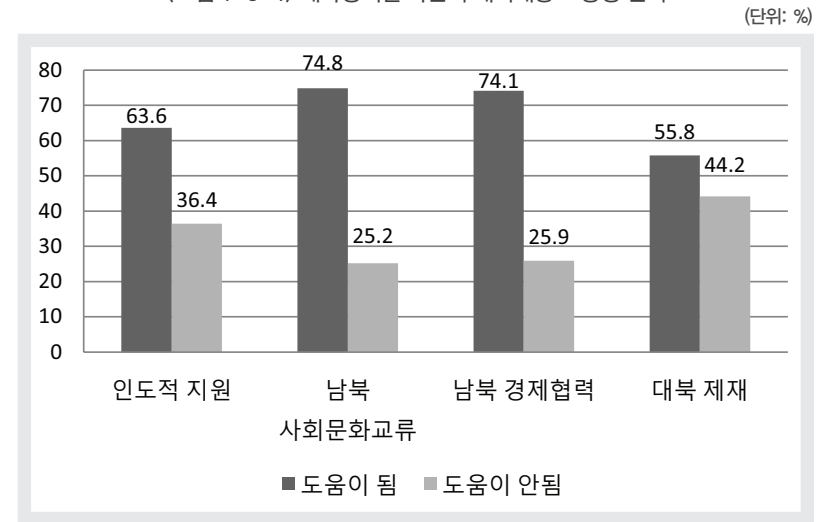
〈그림 1-3-3〉 정치성향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3. 정책별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영향력 인식

그렇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인가?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 중 어떠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효용감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그림 1-3-4〉 대북정책별 북한의 개혁개방 효용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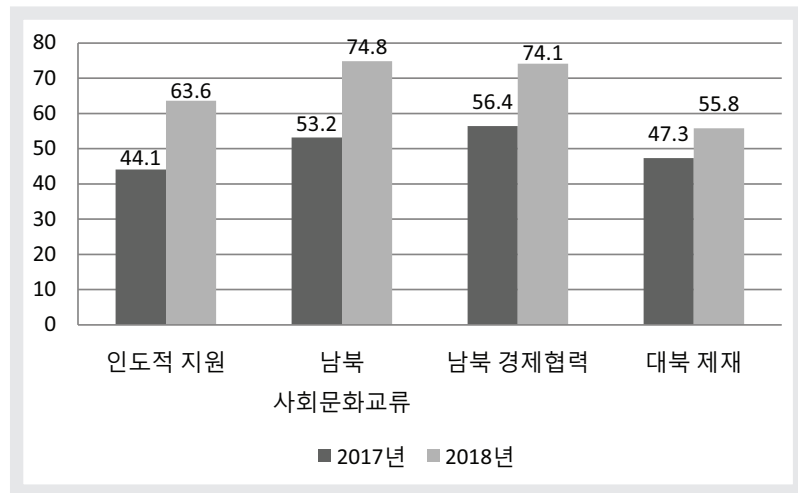


〈그림 1-3-4〉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대북제재와 인도적 지원보다 남북 사회문화교류 및 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효용성을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보수정권에서 강조한 대북제재 등 강경한 대북정책이나 기존 진보정권에서 적극 추진했던 인도적 지원 등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우리의 이익도 확대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1-3-5>처럼,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대북제재까지 모든 대북정책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인식이 증가하였다. 이는 그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 대한 피로감이 증대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북관계의 진전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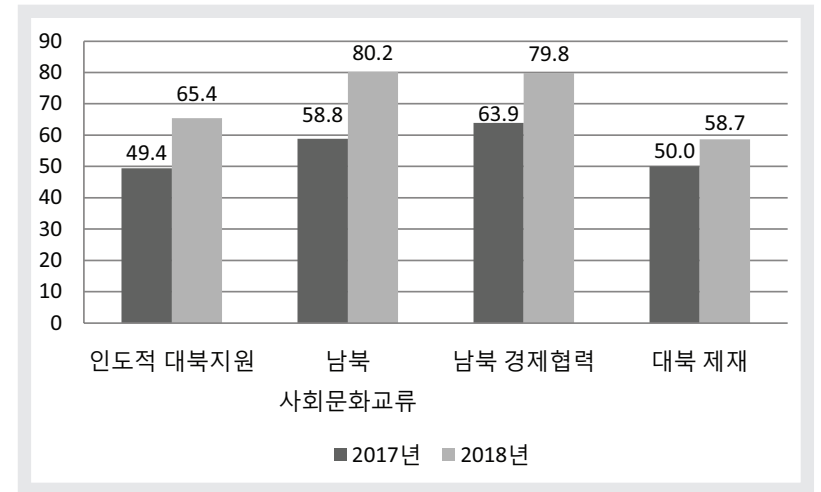
<그림 1-3-5> 대북정책별 북한의 개혁개방 효용성 인식(2017-2018) (단위: %)



한편, 주목할 것은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대북제재 역시 북한의 개혁개방에 효과적이라는 응답도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1-3-6>처럼 특히 대북제재 등 강경한 대북정책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이는 진보층에서도 소폭이지만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해까지 그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였던 대북제재라는 외부적 환경에서 금년 북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진보층에서도 대북제재의 효과를 일정 수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3-6> 진보층의 대북정책별 북한의 개혁개방 효용성 인식(2017-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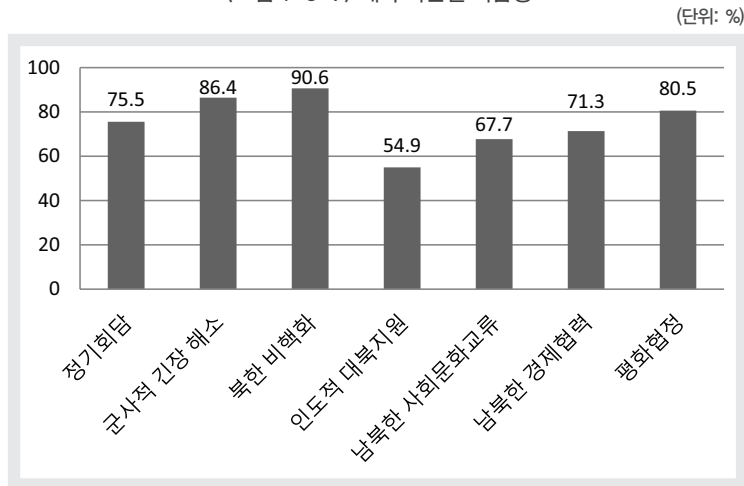


4. 대북정책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인식

국민들에게 현재 가장 시급한 대북정책이 무엇인지를 물은 결과, 북한의 비핵화(90.6%), 군사적 긴장해소(86.4%), 평화협정(80.5%), 정기회담(75.5%), 경제협력(71.3%), 사회문화교류(67.7%), 인도적 지원(54.9%) 순

으로 응답하였다.⁵ 북핵 고도화에 따른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었던 최근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들 역시 비핵화, 군사적 긴장해소, 평화협정 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지원 등의 사안보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통한 남북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7〉 대북 사안별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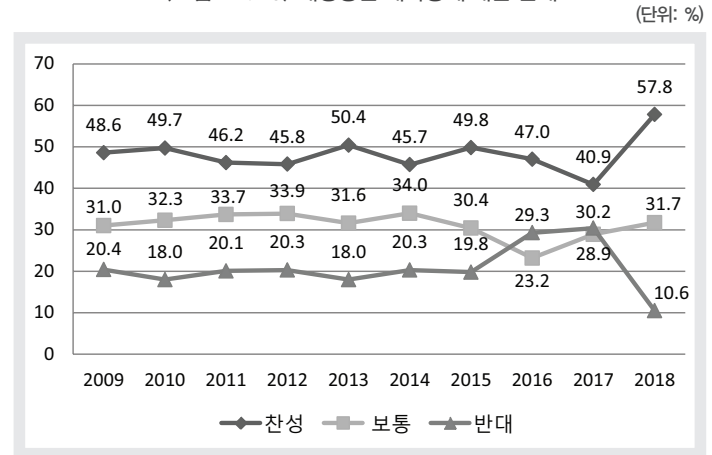


구체적인 이슈별로 보면, 우선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찬성’은 2017년 40.9%에서 57.8%로, ‘반대’는 30.2%에서 10.5%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월 제5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크게 증가했었는데, 금년에는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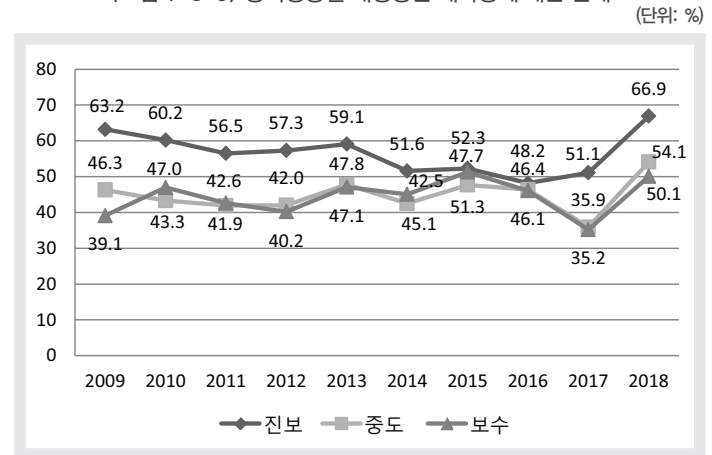
5] 2017년 조사에서는 비핵화(86.3%), 군사적 긴장해소(83.3%), 평화협정(77.9%), 정기회담(68.2%), 경제협력(62.6%), 사회문화교류(54.4%), 인도적 대북지원(43.3%)의 순으로 응답한 바 있다. 정근식 외, 『2017 통일외식조사』(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7), pp. 283-293.

북관계가 개선으로 재개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림 1-3-9〉에서 보듯, 보수성향의 응답자까지 50.1%(2017년 35.2%)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1-3-8〉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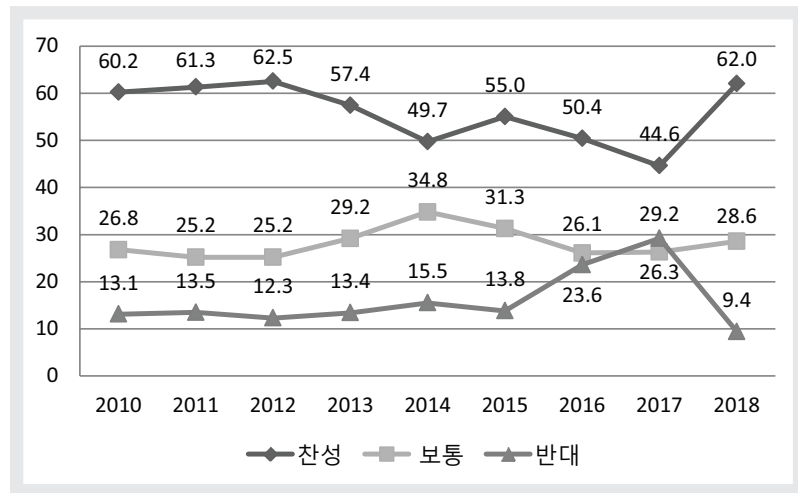


〈그림 1-3-9〉 정치성향별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견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그림 1-3-10>에서 확인되듯이, 2010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찬성여견이 62.0%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약 30%까지 상승했던 반대여견 역시 크게 줄어 9.4%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남북교류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양 정상은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림 1-3-10>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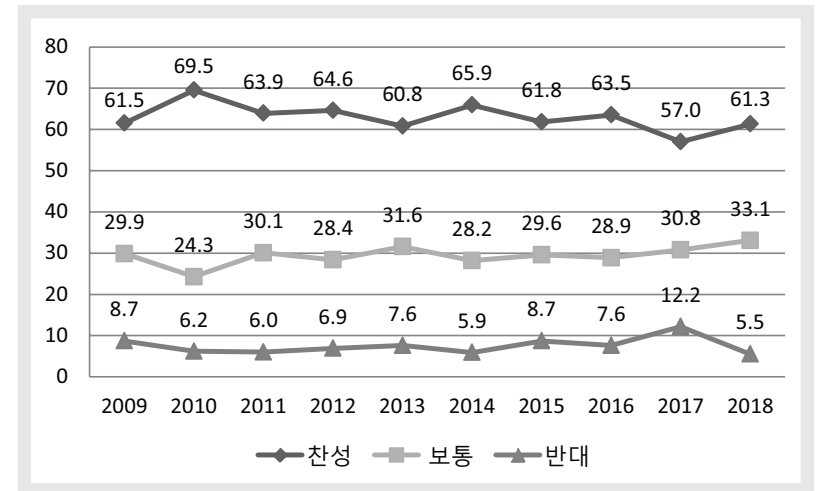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불구하고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남북관계 개선과 인권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북한의 인권문제를 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3-11>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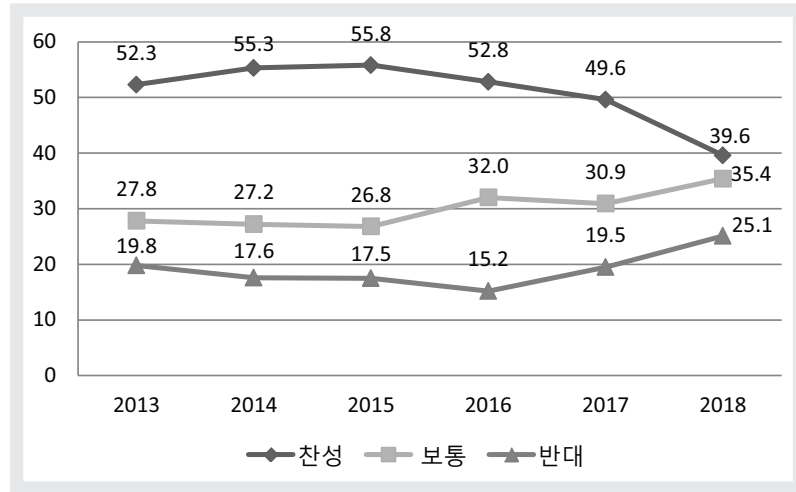
(단위: %)



남한도 북한과 같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은 39.6%로 지난해에 비해 10% 줄어든 반면, '반대'는 19.5%에서 25.1%로 증가하였다. 북의 핵실험 중단과 대외관계 개선 노력으로 우리 국민의 안보에 대한 위협 역시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핵보유에 대한 찬성 의견이 40%에 가깝다는 사실은 북핵문제가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기까지 국민들의 안보불안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3-12> 핵무기 보유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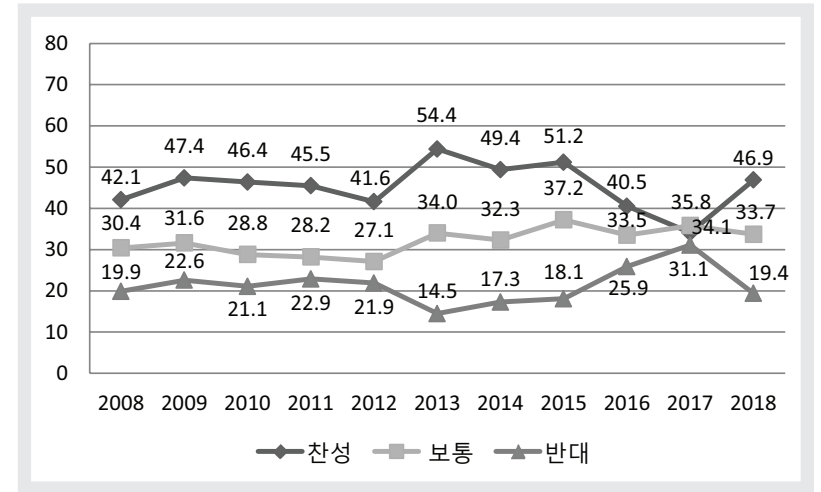
(단위: %)



한편,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이 46.9%, 반대가 18.4%, 보통 33.7%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찬성 34.1%, 반대 31.1%, 보통 35.8%와 비교해보면 다소 의외의 결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의 선결조건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꼽는 경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기저에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교류협력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북제재가 북한의 개혁개방에 효과적이라는 인식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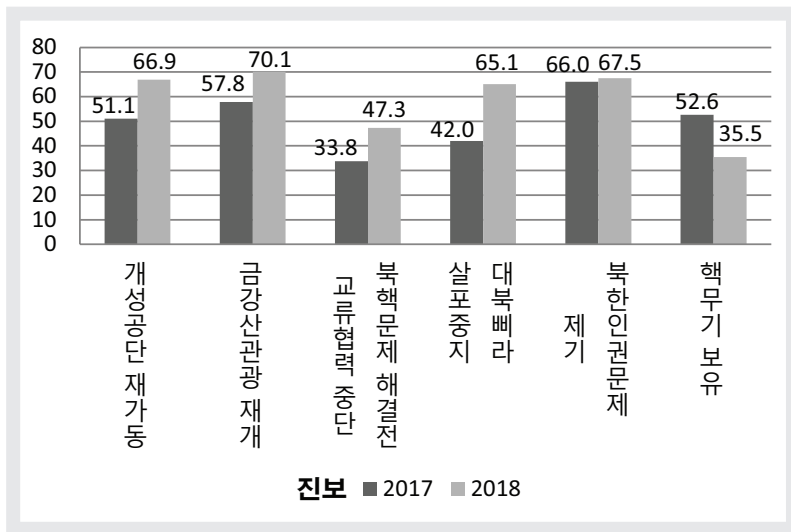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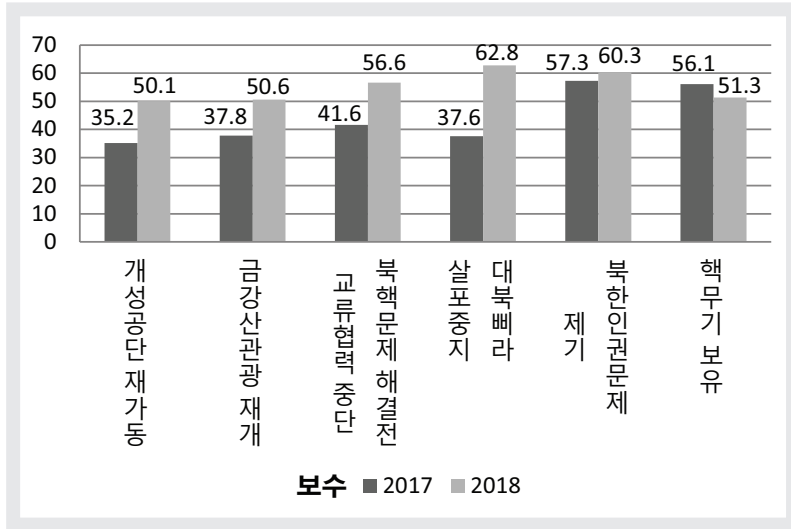
<그림 1-3-13> 북핵문제 해결 전 남북 교류협력 중단에 대한 견해

(단위: %)



이렇듯 2018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양분해왔던 이슈들(대북제재, 인권개선 등)과 실제 국민들의 인식 간에 불일치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그림 1-3-14>에서처럼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해 (특히 북핵문제의 진전 없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던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이 금년 조사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절반 이상 찬성하고 있는 반면,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은 오히려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 교류협력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작년 대비 14% 증가한 47.3%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북빠라 살포를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수성향 응답자의 62.8%(2017년 37.6%)가 찬성하고 있는 것 역시 정치성향과 이슈인식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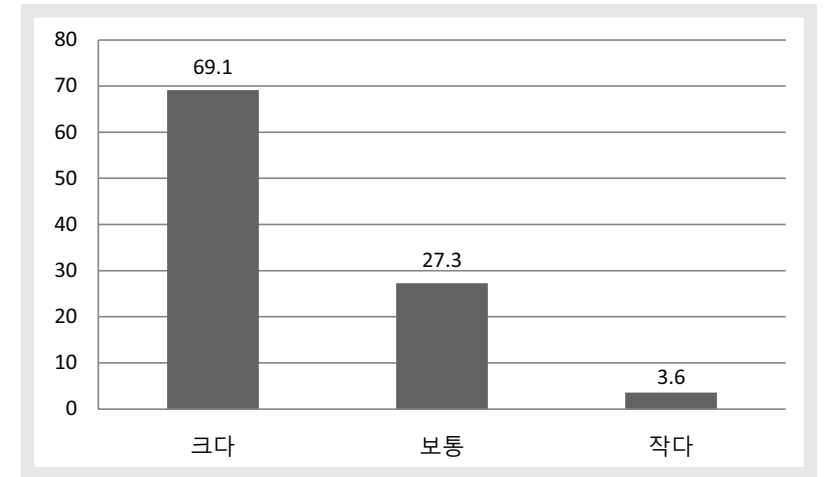
〈그림 1-3-14〉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



5. 정부의 대북정책 및 4.27 남북정상회담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금년도 새롭게 추가된 문항으로, 기존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과 달리 최근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묻고자 했다.

〈그림 1-3-15〉 남북관계 개선과 정부의 영향력에 대한 견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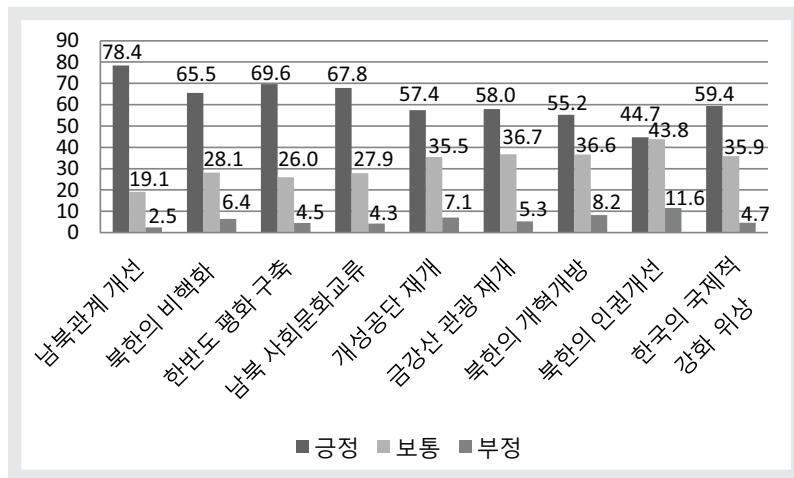
2018년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은 69.1%로, 우리 국민들은 현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64.4%)와 상당히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정치성향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 정

부의 대북정책이 크게 기여했다 평가하는 집단은 지난 정부의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에 불만을 가진 진보(79.3%)와 중도(65.4%)층이 주를 이루었으며, 보수층에서는 단지 59.2%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보수층으로부터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남북관계 전환의 가장 기념비적 사건인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남북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들에 미친 영향을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질문들을 추가하였다.

〈그림 1-3-16〉 4.27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에 대한 견해

(단위: %)



〈그림 1-3-16〉에서 확인되듯, 우리 국민들의 78.4%는 4.27 남북정상회담이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구축(69.6%), 남북 사회문화교류(67.8%) 및 북한 비핵화(65.5%)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

으로 개성공단 재개(57.4%) 및 금강산관광 재개(58.0%), 북한의 개혁개방(55.2%), 북한의 인권개선(44.7%) 측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 비핵화 프로세스의 지연 등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할 것이라 평가한 것은 국민들이 이들 이슈가 남북관계를 넘어 북미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이슈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6. 소결

2018년 우리 국민들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을 뿐 아니라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김정은의 신년사로 시작된 북한의 변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호응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대북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들이 결실을 거두면서 국민들의 만족감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정치성향별로 대북정책 만족도를 비교해볼 때, 지난 정부의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진보와 중도층은 모두 조사 이래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보수층의 경우에는 가장 적은 약 46%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며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방향에 우려와 두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전히 남남갈등의 골

이 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우리 국민들은 대북제재와 인도적 지원보다는 남북 사회문화교류 및 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정부들의 강경한 대북정책과 인도적 지원 등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우리의 이익도 함께 확대시킬 수 있는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향후 대북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금년 남북관계의 급진전에도 불구하고 90.6%의 응답자가 북한의 비핵화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군사적 긴장해소 86.4%, 평화협정 80.5%, 정기회담 75.5%, 경제협력 71.3%, 사회문화교류 67.7%, 인도적 지원 54.9%의 순으로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국민들은 남북 경제협력 및 인도지원 등의 사안보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구축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한다’와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각각 응답자의 57.8%, 62.0%가 찬성하였다. 한편, ‘북핵문제 해결 전 남북교류협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46.9%가 찬성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를 남북관계의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 민감한 주제인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응답자가 찬성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들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별개로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2018년 조사에서 드러난 중요한 특징으로는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양분해왔던 이슈들과 스스로 보수와 진보로 규정짓는 것 사이의 불일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북빠라 살포를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수층의 60% 이상이 동의하고 있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반면, 진보성향 응답자의 경우에는 북핵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여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정치성향과 쟁점 사이의 불일치 현상은 유례가 없이 빠르게 진전되는 남북관계 속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혼란인지, 그동안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쟁점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향후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년도 신규로 추가된 질문으로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69.1%의 응답자들은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79.3%의 진보층과 65.4%의 중도층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보수층에서는 59.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보수성향의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상당수의 우리 국민들은 남북 정상이 11년 만에 다시 만난 역사적 사건인 4.27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구축, 남북 사회문화교류 및 북한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

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의 재개, 북한의 개혁개방 및 북한 인권개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정세 및 북핵문제를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비핵화프로세스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어떠한 경제 및 교류협력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향후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대북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정치성향 혹은 지역에 따라 거의 30%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점차 심각해진 남남갈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대북 및 통일정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 중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와 같이 강경책 혹은 유화책과 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보다는, 적극적인 교류협력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3개 벨트와 하나의 시장'과 같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은 이러한 구상을 어떻게 실현해야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겠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제4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1. 서론

2018년은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급격히 전환된 시기였다. 북한은 2017년 15차례에 걸쳐 20발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했고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전례 없이 높아져 있었다. 특히 북한은 2017년 7월 4일과 7월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급 ‘화성-14형’을, 8월 29일과 9월 15일에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함으로써 ‘핵무력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 하였고 ‘미국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타격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고 공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포하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지속해 나갔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며 이른바, 중재외교로 북미 간 대화 국면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의 진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착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비핵화 협상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미국 독자 제재,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압박, 관여하고 있다. 중국 역시 유엔 대북제재에 참여함과 동시에 2017년 9월 한국의 사드 배치 후 경제 보복 및 완화 조치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최근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정세가 달라짐으로서 관련 당사국들의 전략적 이해와 영향력, 개입의 범위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오랜 기간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과 같은 국가 과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인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전략 마련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주변국들에 대해 갖는 이미지와 통일과 관련된 주요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에 된다. 관련된 설문에 대한 응답을 문항별로 정리하며 조사항목에 대한 결과들을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하면서 주변국 인식의 특징과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가장 가까운 주변국,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1)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한국인들이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은 미국이다. “귀하는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2018년 응답자의 72.5%는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표 1-4-1>에 나타나듯 미국은 조사가 시작된 지난 10년 간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였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도 그 격차는 현저하게 큼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친밀감은 70% 이상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교체의 영향은 특별히 없었다. 미국 다음으로 한국인들이 가깝게 느끼는 대상은 북한이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률이 올해 19.1%로 작년 대비 7.8%가 증가하였고 최근 3년 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했다는 점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친밀감은 3.7%로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낮게 나타났다. 후술하겠지만 올해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진 않았다. 북한에 대한 친밀감 상승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효과, 국가 지도자로서의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이미지 등과 관계가 깊을 것이다. 대중친밀감의 하락은 대북친밀감 상승에 대한 반작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1-4-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53.3	60.7	68.3	70.7	68.8	65.9	76.2	74.9	78.3	73.8	74.1	72.5
일본	11.6	9.4	8.6	9.5	9.1	6.8	5.1	4.3	3.9	5.2	8.3	4.5
북한	24.0	20.4	16.0	14.8	16.0	20.6	11.0	8.9	8.1	10.8	11.3	19.1
중국	10.2	7.8	6.1	4.2	5.3	5.8	7.3	10.3	8.8	9.7	5.0	3.7
러시아	0.9	1.7	1.0	0.8	0.8	0.9	0.5	1.0	0.9	0.4	1.1	0.1
합계 (N)	1,188	1,202	1,196	1,196	1,197	1,199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주변국 친밀도를 국가별 선호도로 관찰했을 때 우리 국민은 미국 > 북한 > 일본 > 중국 > 러시아 순서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역대 한국인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로 그 선호도는 변함이 없었다. 지난 5년 간의 선호 순위를 놓고 볼 때 두드러지는 변화가 있었던 국가는 중국이다. 2014-2015년에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선호하는 국가였으나 2016년에 미국, 북한에 이어 세 번째 국가가 되었고 2017-2018년에는 미국, 북한, 일본에 이은 네 번째 국가로 순위가 떨어졌다. 당시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상승은 2012년 시진핑 정부 이후 경제적 상호의존성 및 인적교류의 확대, 한중관계를 심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력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가입(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2015년 9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발표(2015년 12월) 등은 최고조로 무르익은 한중 협력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 결정과 이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4-2〉 주변국 친밀도 선호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1	1	1	1	1	1	1	1	1	1	1	1
일본	3	3	3	3	3	3	4	4	4	4	3	3
북한	2	2	2	2	2	2	2	3	3	2	2	2
중국	4	4	4	4	4	4	3	2	2	3	4	4
러시아	5	5	5	5	5	5	5	5	5	5	5	5

미국, 북한, 중국에 대한 친밀도를 연령대와 정치성향별로 살펴보면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대별 조사에서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20대 인식의 변화가 주목된다. 〈표 1-4-3〉에서 나타나듯이 2007년 20대의 대미 친밀감이 46.7%로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2018년은 74.8%로 60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지금까지 높은 대미 친밀감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10여 년간 20대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의 특징은 2007년에서 2018년으로 갈수록 대미친밀도의 세대별 편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세대적 특징을 보이지 않으며 세대 간 격차가 수렴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대의 대북인식의 부정적인 변화도 발견된다. 2012년 이래 대부분의

세대에서 북한에 대한 친밀감은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북한에 대한 친밀감이 증가하였다. 40대(24.7%) > 30대(20.2%) > 50대(20.0%) > 60대(18.1%) > 20대(11.8%) 순으로 북한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냈으며 20대의 대북친밀감은 연령대에서 가장 낮으며 2017년에 비교하였을 때의 상승폭도 가장 작았다. 지난 10년 간 20대의 높아지는 대미 친밀감, 낮아지는 대북친밀감을 ‘20대 인식의 보수화’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성세대에 비해 민족의식의 영향이 덜하며 국제화 영향에 노출되어 성장한 세대라는 점, 규범적 관점으로 북한정권을 바라 볼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특징을 결정하는 요인일 수 있다. 대중친밀감의 경우 2016-2018년 동안 모든 연령대에서 대중친밀감이 낮아졌으나 20대의 경우 2018년 대중친밀감이 4.2%로 2017년 3.3%보다 소폭 상승한 점은 다른 연령대와는 다른 패턴이다.

〈표 1-4-3〉 연령대별 주변국 친밀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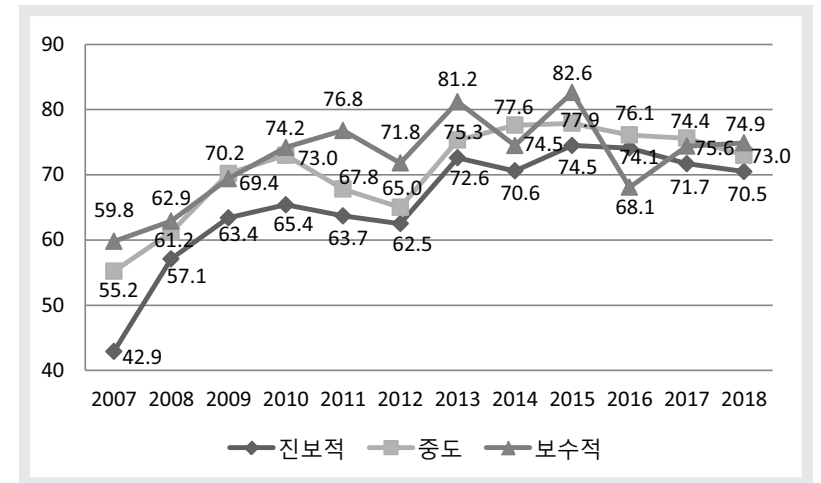
연령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19-29	46.7	57.7	60.5	62.9	62.6	64.6	80.8	77.0	82.5	76.9	71.3	74.8
30-39	47.4	53.7	67.9	64.7	68.1	61.0	74.5	72.6	76.6	72.2	71.7	71.9
40-49	52.3	57.8	66.2	73.6	66.4	61.6	69.8	73.8	75.6	74.6	74.6	67.4
50-59	64.2	72.3	78.1	83.9	73.0	72.8	78.5	74.6	75.5	70.2	76.1	72.5
60 이상	76.5	78.8	82.6	80.2	85.4	78.9	82.0	80.2	82.5	75.8	76.4	76.3

연령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북한												
19-29	21.7	14.0	18.6	17.2	15.2	22.4	8.8	8.1	3.5	7.3	9.7	11.8
30-39	25.0	26.7	17.3	17.9	15.6	22.3	10.2	8.5	7.1	8.9	11.8	20.2
40-49	30.1	26.5	17.4	12.9	20.2	23.8	16.1	11.1	9.1	11.3	11.3	24.7
50-59	20.7	13.6	10.4	9.8	14.8	15.3	9.6	9.1	12.3	14.8	9.7	20.0
60 이상	14.1	10.0	9.3	12.8	9.0	14.7	7.0	5.9	7.8	11.1	14.4	18.1
중국												
19-29	10.7	6.8	8.0	5.0	4.3	5.1	4.4	8.1	8.8	8.9	3.3	4.2
30-39	12.7	10.0	4.5	3.8	4.2	7.1	6.5	10.7	10.5	11.8	5.1	4.8
40-49	8.9	7.3	7.9	4.0	6.8	5.5	8.5	8.5	9.5	9.1	4.8	3.6
50-59	9.8	7.5	4.2	4.1	7.0	5.4	8.5	13.4	7.5	10.4	7.1	3.7
60 이상	4.7	6.3	3.5	3.5	1.1	6.3	9.0	10.9	7.8	8.1	4.2	2.4

정치성향별 미국, 북한, 중국 친밀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4-1>에 나타나는 것처럼 대미친밀도를 한국인들의 정치적 이념 성향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체로 진보적 성향이라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대미친밀도는 중도와 보수적 성향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진보와 보수의 격차가 2007년 16.9%, 2011년 13.1%, 2015년 8.1%, 2018년 4.4%로 점차적

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도 발견된다. 특히 정치성향별 대미친밀감의 차이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의 대미친밀감의 전반적 상승 추세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1> 정치성향별 대미친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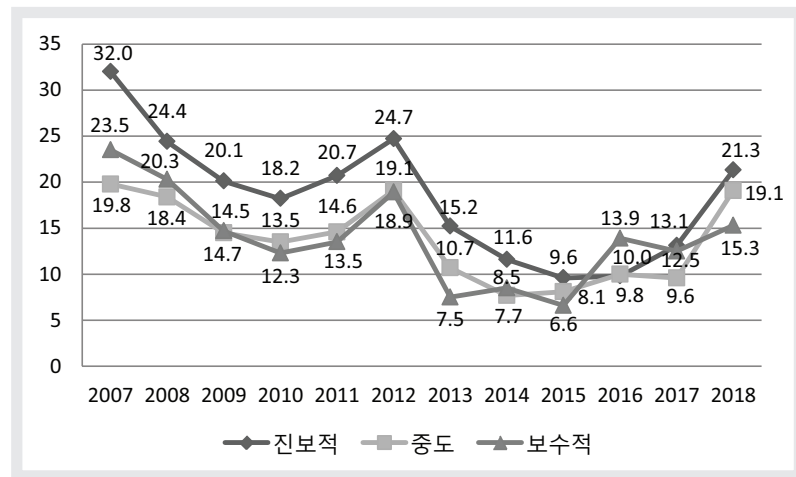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의 대북친밀도는 <그림 1-4-2>에 나타나고 있듯이 2016년을 제외하고 다른 성향의 응답자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3차 핵실험(2013년 2월), 개성공단 잠정 폐쇄(2013년 4월), 장성택 처형(2013년 12월)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 및 공포 정치가 진행된 2013년 이후 대북 친밀도가 하락한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⁶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많았던 2017년의 경우 진보적 성향을 제외하고 모

6) 박명규 외, 『2013 통일외식조사』(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p.139.

두 대북친밀도가 하락했으며 2018년의 경우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대북친밀도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다만 그 증가의 폭은 중도가 9.5%, 진보가 8.2%, 보수가 2.8%로 중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2〉 정치성향별 대북친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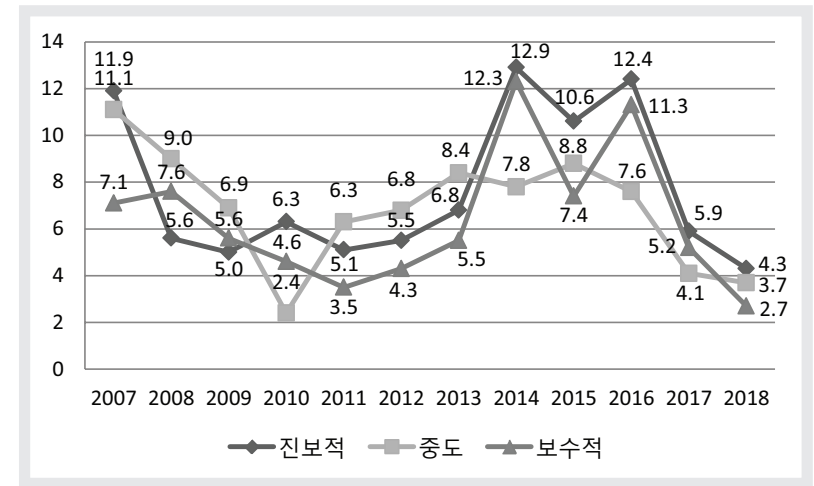
(단위: %)



대중친밀도를 정치성향별로 관찰하였을 때 뚜렷하게 발견되는 특징은 없다. 단순 응답이라는 설문 구조상 미국과 북한을 제외하였을 때 나머지 국가에 대한 응답 빈도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그림 1-4-3〉에서와 같이 최근 5년간 응답률을 볼 때 진보적 성향의 대중친밀도가 다른 정치적 성향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6-2018년 동안 모든 이념성향에서 대중친밀도는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3〉 정치성향별 대중친밀도

(단위: %)



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이 정서적 호감도나 가까움에 관한 부분이라면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은 개인과 집단의 안전과 생존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앞서 살펴본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의 변화가 상대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의 변화로 이어지는 않는다. 즉, 특정 국가를 가깝게 여기는 태도나 판단을 개인이 갖고 있더라도 실제 그 국가를 위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주변국의 실질적 위협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앞선 항목과 같이 단순 응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정 국

가에 대한 위협인식의 증가는 다른 국가의 위협인식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인은 주변국 가운데 중국을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가장 위협적이라는 응답은 46.4%로 북한의 32.8%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2008년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상대는 북한이었다. 그렇지만 최대 위협국이 올해 처음으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전환된 것은 주목되는 결과이다. 2018년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응답률은 2007년 조사 이래 최저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응답률은 조사 이래 최고로 나타났다.

지난 10년의 추세를 관찰할 때 북한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인식은 남북관계의 전환, 교착, 악화 변화에 상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한 화해 무드가 가장 고조되었다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대북 위협인식은 36.1%였으나 2차 핵실험을 했던 2009년에는 52.9%,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2010년은 55.6%, 그리고 3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3년에는 56.9%로 각각 증가했다. 2015년 8월 북한 DMZ 지뢰도발, 2016년 1월 4차 핵실험, 2016년 2월 북한 장거리미사일(광명성) 발사 등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은 안보 불안을 고조시킴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인식을 강화시키는 직접적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2018년의 대북위협인식 완화는 상반기 대화국면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완화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2017년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11월 29일에는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고 미국은 북한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하면서 안

보위기는 전례없이 고조되었다. 하지만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북핵 위기가 대화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되었고 4월 27일, 5월 26일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⁷

우리 국민의 대중위협인식 증가는 2016년 7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이어진 한중관계 악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단체 관광객 한국 방문 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불이익은 이른바 경제 보복으로 인식되었고⁸ 이러한 공세적인 중국의 태도는 한국인들의 대중인식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민 방문으로 한중 간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된 측면이 있지만, 2017년 이후 미중 갈등이 고조됨과 더불어 중국의 강경한 입장 및 실질적 보복 조치는 일반 주민들의 대중이미지를 악화시키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2017년 7월 북한의 ‘화성-14형’ 발사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대응 방식 또한 양국 간의 인식차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었다.⁹ 다시 말해, 올해 국민의 대중위협인식의 증가는 대북위협인식 완화의 반작용임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이미지 투영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7)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설문 조사시점 이후에 일어났으므로 응답률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8)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대표적 사례는 한국인에 대한 상용비자 발급 제한, 한국인 단체관광 금지, 중국내 롯데마트 행정규제 및 매각 차질,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재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미지급, 문화 콘텐츠 제약 등을 들 수 있다. “사드 보복해제 전향적 조치 촉구,” 『중앙일보』, 2018년 4월 20일; <<https://news.joins.com/article/22555635>>.

9) 이동률, “2017년 한·중 관계와 한국의 대중국 외교,” 『2017 중국정세보고』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p. 233.

수 있다. 그렇지만 한중관계의 개선 및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방향에 따라 대중위협인식은 달라질 수 있기에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2018년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 응답률은 13.8%로 지난 2014-2017년 동안 계속되었던 하락 추세에서 반등한 점이 주목된다. 양국 간 역사인식 차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견, 아베 내각의 우익 성향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부분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8년 3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를 견제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대해서도 평가 절하하는 행동을 보였다.¹⁰ 2018년 5월에는 그동안 일본의 외교청서에서 써오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독도에 대해서도 한국에 의한 실효지배는 ‘불법 점거’라고 명기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항의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을 위협대상으로 보는 응답률 상승에 대한 과한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한일관계가 여전히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이 ‘평화공존의 대상’이며 북한 위협 특히 북한 핵문제에 있어 한국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근본적 인식이 약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처럼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매우 낮다. 다시 말해 남한주민은 대다수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중국보다 미국이 더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미위협인식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부터

터는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위협적이지 않는 국가로 보고 있다.

〈표 1-4-4〉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21.2	16.0	12.5	8.3	8.6	9.5	4.4	5.4	4.7	4.7	4.9	5.2
일본	25.8	34.5	17.7	10.4	11.6	12.3	16.0	24.6	16.1	10.0	7.1	13.8
북한	36.1	33.7	52.9	55.6	46.0	47.3	56.9	49.8	54.8	66.7	63.7	32.8
중국	15.6	14.6	15.8	24.6	33.6	30.5	21.3	17.6	23.3	16.8	22.7	46.4
러시아	1.3	1.2	1.1	1.2	0.3	0.4	1.3	2.6	1.3	1.7	1.6	1.8
합계 (N)	1,196	1,210	1,199	1,197	1,201	1,200	1,200	1,199	1,200	1,200	1,200	1,200

위협인식을 연령대로 보았을 때 주목되는 현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대북위협인식이 하락한 반면 대중위협인식은 증가한 점이다. 대북위협인식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2014-2016년 동안 증가했었지만 2016-2018년 동안에는 하락한다. 대중위협인식은 이와는 반대의 패턴을 보여준다. 연령대별 대북위협인식의 격차는 최고 34.4%, 최저 30.1%로 4.3%, 대중위협인식의 경우 최고 49.2%, 최저 43.5%로 5.7%로 간극이 크지 않다. 즉, 우리 국민들의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수준이 세대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민들의 대중 위협인식의 경우 그동안 증감의 패턴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유보적이고 유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2년간의 결과는 고정적이고 부정적 인식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0 김기정, “남북/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일본의 대응,” 『북핵위기와 정상회담: 아시아 각국의 시각』, 서울대 아시아 지역 관련 연구소협의회 좌담회 (2018년 4월 9일), p. 23.

〈표 1-4-5〉 연령대별 대북, 대중 위협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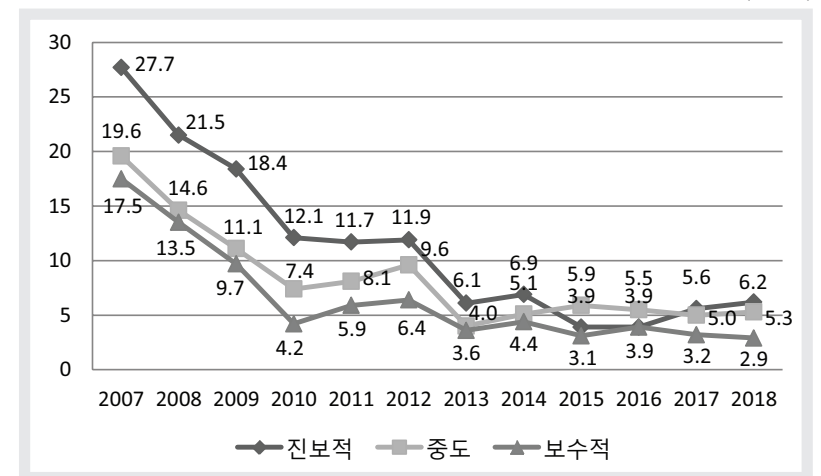
연령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북한												
19-29	32.9	32.8	51.7	50.7	52.3	44.7	59.2	54.4	57.5	68.8	66.3	32.0
30-39	34.6	31.8	50.0	51.9	43.0	40.8	58.5	48.1	52.5	65.9	57.4	34.3
40-49	32.8	34.0	51.8	57.6	35.5	45.6	49.8	43.4	57.5	63.9	63.6	33.5
50-59	43.5	37.1	58.5	61.7	52.0	51.7	59.6	51.1	53.0	64.3	64.0	30.1
60 이상	48.2	33.8	58.6	66.3	56.2	67.4	61.0	58.8	52.9	72.0	67.5	34.4
중국												
19-29	12.0	13.4	9.6	23.2	24.0	28.2	21.6	18.1	24.6	16.6	21.0	45.3
30-39	13.1	14.6	17.9	25.6	36.4	32.6	20.4	20.7	24.8	16.1	25.2	46.0
40-49	18.4	14.4	15.4	28.0	39.4	33.9	26.9	18.4	21.5	18.7	25.5	43.5
50-59	20.2	15.0	21.2	20.7	33.6	30.3	15.6	16.3	25.7	18.7	22.0	47.9
60 이상	16.5	18.8	19.5	22.1	31.5	20.2	22.0	7.8	19.9	13.2	19.3	49.2

정치성향별 미국, 북한, 중국 위협인식에서 발견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4-4〉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다른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미국을 더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미국을 덜 위협적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특히, 2012-2013년을 지나면서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위협 인식의 격차는 좁혀지는 특징을 보였고 이후 큰 변화 없이 3%-6%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진보 성향 응답자들의 대미 위협인식이 소폭 상승한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의 경우 소폭 하락한 점에 눈에 띈다. 지난 2년간 북한에 대한 압박은 강화하지만 대화를 통해 관여를 모색했던 미 행정부에 대한 입장에 대해 한국의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보다 더 안정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7년 진보 성향 응답자들의 대미위협도는 27.7%로 가장 높았지만 2016년 3.9%로 보수와 동률을 이룰 때까지 낮아졌다가 2018년 6.2%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지난 10여 년간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대미위협인식 완화가 다른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뚜렷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그림 1-4-4〉 정치성향별 대미위협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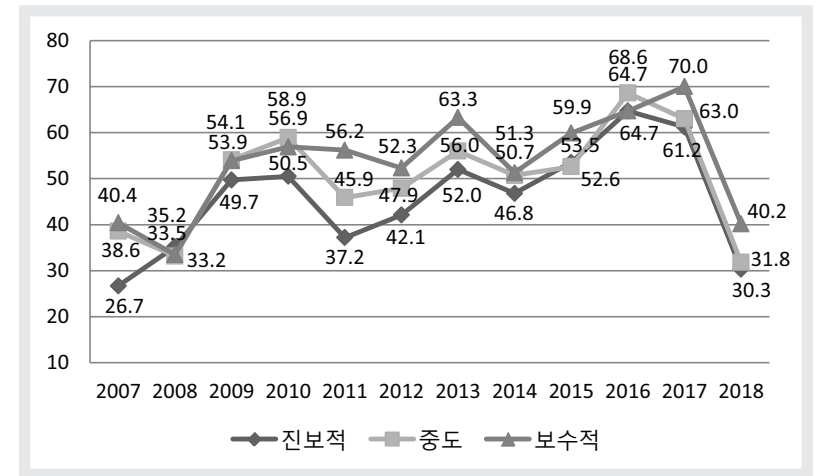


정치성향별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은 <그림 1-4-5>에 나타나고 있듯이 자신의 정치성향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대체로 북한을 보다 더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북한을 덜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18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모두 하락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70% → 40.2%, 중도 성향은 63% → 31.8%, 진보성향은 61.3% → 30.3%로 각각 떨어졌고 그 감소 폭은 약 30%로 비슷하였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변화였다. 즉, 문재인 정부 들어 추동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로 남북미 간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이는 4.27 판문점 선언 및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 올리는 데 기여했다. 즉, 2018년 상반기의 남한 정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최우선 정책 및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정세의 변화가 한국인의 대북위협인식 완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¹¹⁾ 물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핵 신고 및 검증 로드맵, 체제안정보장, 한반도 종전선언 등 앞으로의 남은 과제들의 진척 여부에 따라 대북위협인식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1) 2018년 설문조사가 2018년 7월 12일부터 8월 3일 동안 이루어진 것을 고려한다면 조사 시점이 이러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그림 1-4-5> 정치성향별 대북위협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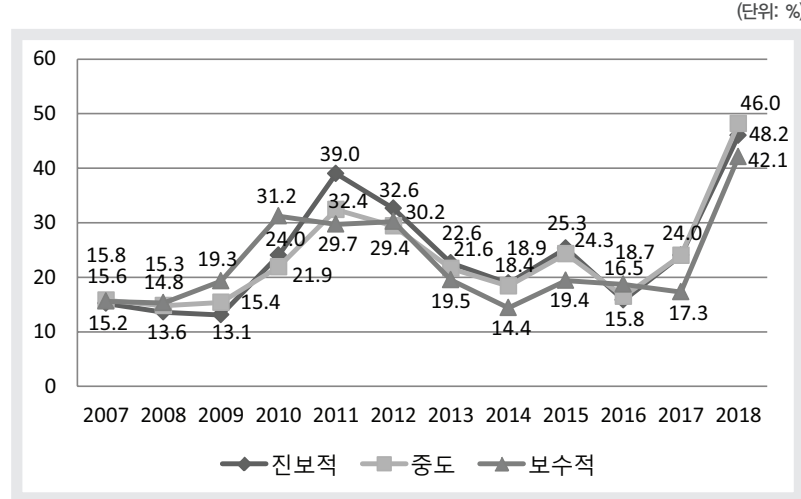


중국에 대한 위협도 역시 정치성향과는 관계없이 모두 상승했다는 점에서 앞선 북한에 대한 위협도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사실 대중위협인식은 정치성향별로 확산과 수렴을 반복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¹²⁾ 2016년까지 한국인들의 보수와 진보의 대중위협인식이 어느 한쪽으로 결정되거나 고착화되기보다 유보적이며 유동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정치성향별 대중위협인식은 이러한 패턴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2016-2018년 동안 진보 성향의 응답자의 대북위협인식은 15.8%에서 46%로, 중도 성향은 16.5%에서 48.2%로, 보수 성향은 18.7%에서 42.1%로 각각 증가하였다. 진보와 보수의 증가폭은 약 30%로 나타났으며 2018년의 위협인식은 모든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역대 가장 높게 형성되

12) 정근식 외, 『2016 통일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139.

었다. 2010년 이후 대중위협도가 대북위협도와 상반되게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¹³ 한국인들의 대중위협인식에는 북한 변수가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1-4-6〉 정치성향별 대중위협도



3. 주변국의 국가이미지

주변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친밀감 및 위협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별국가를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조사는 2007년부터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

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응답자는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그리고 ‘적대대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이 조사에서 국가이미지란 “한 국가에 대한 구조화된(organized, structured) 인지의 모임”으로 인지심리학의 스키마(schema) 개념을 국제정치학에서 접목하여 발전시킨 개념이다.¹⁴ 국가 단위의 관계에서 구조화된 인식으로 형성되는 ‘이미지’는 자국의 정책을 정당화 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집단화된 인식과 태도가 반영된 이미지는 상대 국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1) 미국의 국가이미지

대다수의 한국인은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였다. 〈표 1-4-6〉에서 보듯이 2018년 미국이 협력대상이라고 한 응답은 81.0%로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2018년 초 문재인 정부의 당면했던 외교적 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통한 도발 행위를 억제시키며 북한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및 3월 남측 특사 면담에서 밝힌 조건부 비핵화 의지를 북미협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2017년 8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 발사(7월 4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8월 8일)¹⁵에 직면하게 될 것이

13] 박명규 외, 『2012 통일외식조사』(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p.128.

14] 박명규, 이상신 “현상과 이미지,” 『통일과 평화』, 제3집 1호 (2011), pp. 129-173.

15] “Trump Threatens ‘Fire and Fury’ Against North Korea if It Endangers U.S.,” *The New York Times* August 8, 2017; <<https://www.nytimes.com/2017/08/08/world/asia/north-korea-un-sanctions-nuclear-missile-united-nations.html>>.

라 옹호하였고 허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예방전쟁 (preventive war)’ (8월 20일)¹⁶를 언급하였다. 미국은 2018년 2월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를 통해 ‘핵무기 사용의 실현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¹⁷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매우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위협이 가중 될 경우 공격적 대응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과 군사적 선제공격 조짐을 완화시키면서 전쟁반대 의지를 분명히 하고 평화우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¹⁸ 실제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핵위기를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남북정상회담(4월 27일, 5월 26일), 북중정상회담(3월 25-28일, 5월 7-8일, 6월 19-20일), 북미정상회담(6월 12일)이 개최됨으로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북미간의 중재 혹은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며 한국 정부의 입장과 노력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근 10여 년간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며 특별한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정부의 교체에 관계없이 미국이 전통적인 한국의 동맹국이자 우방이며 동반자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16] “Talk of ‘Preventive War’ Rises in White House Over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August 20, 2017; <<https://www.nytimes.com/2017/08/20/world/asia/north-korea-war-trump.html>>.

17] 김현욱, “2018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분석,” IFANS 주요국제문제 분석, (2018), p. 7.

18] 고유환, “판문점 선언과 비핵평화체제 이행 전략,”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2018년 6월 29일), p. 14.

〈표 1-4-6〉 미국의 국가이미지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협력 대상	53.2	70.2	73.6	76.4	75.0	77.3	79.9	81.0	77.3	81.2	80.5	81.0
경쟁 대상	22.0	13.0	13.7	14.6	14.2	11.0	11.8	11.7	15.3	11.9	10.7	10.3
경계 대상	22.0	14.8	11.7	8.2	9.7	10.9	7.8	6.8	6.9	6.6	8.1	8.3
적대 대상	2.9	2.0	0.9	0.8	1.1	0.8	0.6	0.5	0.5	0.3	0.5	0.4
합계 (N)	1,198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199	1,200	1,200	1,200

주변국가 이미지와 관련하여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주변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도 조사하였다. 이는 국가이미지에 대한 보편적 태도와 인식보다는 군사안보에 초점을 맞춰 주변국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 인지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대미인식을 미국의 한반도 전쟁대응과 연결지어 볼 때,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혹은 남한과 북한 어느 한 쪽을 지원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태도는 〈표 1-4-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응답자의 66.1%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 시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라 판단하였다.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다’는 29.7%이고, 북한을 돕거나 혹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2.4%, 1.7%였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한미동맹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전쟁 시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즉,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미국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돕거나 다른 주변국의 이익에 의해 한반도 상황이 결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¹⁹ ‘한국을 도울 것이다’라는 응답률은 2010년 처음으로 70%대로 진입하였으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이후 60%대로 떨어진 반면 ‘자국의 이익을 따름’은 최근 2년간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표 1-4-7〉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 예상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을 도움	50.6	57.4	65.1	74.7	72.4	72.8	75.2	74.0	70.5	74.1	67.8	66.1
북한을 도움	1.3	1.4	0.7	0.7	1.6	1.8	1.6	1.8	4.9	2.4	3.4	2.4
자국의 이익 따름	45.5	37.4	32.3	23.0	24.1	23.8	20.9	22.6	22.6	22.1	26.2	29.7
중립을 지킴	2.6	3.8	2.0	1.7	1.9	1.6	2.3	1.6	2.0	1.4	2.7	1.7
합계 (N)	1,200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2) 일본의 국가이미지

한국인들은 일본을 협력대상이라기보다 경쟁과 경계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가치지향을 공유하고 있지만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는 일본의 국가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다만 2014-2016년 결과를 본다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적으

19] 박명규 외, 『2014 통일외교조사』(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p. 186.

로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협력대상’이라는 판단은 2014년 11.4%에서 2016년 16.4%로 소폭 증가하였고 ‘경쟁대상’은 같은 기간 27.0%에서 41.0%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협력대상’ 이미지가 다시 감소하여 13.4%로, ‘경쟁대상’ 이미지는 48.5%로 다시 증가하였다. 일본에 대해서는 ‘협력대상’보다 ‘경계와 경쟁대상’ 이미지가 여전히 강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대일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은 역사인식 문제이다. 최근 2년 동안에는 2015년 12월 28일에 맺어진 한일 양국 위안부 합의가 한국 사회에서 수용되지 못한 부분이 컸다.²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2018년 1월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음을 밝힌 바 있다.²¹ 2018년 5월 9일 한·중·일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일파트너십 선언²² 20주년인 올해를 기념하고 이를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함께 열어갈 것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한일 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한일양국은 현재의 파국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 이슈에 대해 상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국 간 역사문제, 군사안보 문제에서의 앞으로의 변화들이 국민들의 대일감정과 이미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20] 국립외교원, 『2017 한일관계』(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 2018), p. 2.

21]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진정한 해결 될 수 없다..일에 재협상 요구 안해.” 『조선일보』, 2018년 1월 9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9/2018010901756.html>.

22] 이는 1998년 10월 8일 도쿄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이른다.

〈표 1-4-8〉 일본의 국가이미지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협력 대상	14.6	16.7	19.5	14.3	13.8	16.9	11.8	11.4	12.3	16.4	16.1	13.4
경쟁 대상	46.6	35.6	49.4	50.9	40.8	35.3	41.4	27.0	35.3	41.0	39.9	48.5
경계 대상	30.3	31.0	26.2	28.0	34.6	35.8	35.3	44.0	40.6	33.9	37.1	31.3
적대 대상	8.5	16.7	4.9	6.8	10.7	12.0	11.4	17.5	11.9	8.8	6.8	6.8
합계 (N)	1,196	1,211	1,203	1,200	1,201	1,200	1,200	1,199	1,200	1,200	1,200	1,200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기반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1-4-9〉에서 나타나듯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을 도울 것이다’라는 응답은 2016년 7.2%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는 2018년 응답은 80.9%로 조사 이래 최고일 뿐 아니라 주변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응답률이다. ‘한국을 도울 것이다’는 응답이 2009년에는 24.6%였으나 2014년 이후 10%이하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유사시 일본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감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9〉 한반도 전쟁 시 일본의 태도 예상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을 도움	16.2	14.7	24.6	17.1	15.3	11.6	11.3	7.8	7.7	8.5	9.6	7.2
북한을 도움	3.3	4.3	3.7	2.3	3.2	5.0	2.9	7.5	9.2	6.1	4.9	4.9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국의 이익 따름	72.7	69.4	66.0	71.6	74.3	75.4	75.1	74.9	71.6	74.5	74.5	80.9
중립을 지킴	7.9	11.6	5.7	9.1	7.2	8.0	10.7	9.8	11.5	10.9	11.0	6.9
합계(N)	1,200	1,211	1,201	1,200	1,201	1,199	1,200	1,199	1,201	1,200	1,200	1,200

3) 중국의 국가이미지

중국의 부상은 이제 엄연한 현실이며 한국의 국내 정치·경제·문화 영역 뿐 아니라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시진핑 체제 이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을 통해 중국 중심의 경제건설을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2013년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New great power relations)’를 제시하고 글로벌 파워로써 중국식 질서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²³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중국의 부상과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중관계의 경쟁과 대결구도를 만들면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새로운 양상을 가져왔다. 시진핑은 과거 중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우면서 동북아 안보 및 경제 질서 재편의 토대를 쌓아가고 있으며 역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한국인

23) 김현욱,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국의 대응,” 『다자적 국제협력과 한국의 외교』, 2014년 한국국제정치학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2014년 10월 30일), p. 42.

이 중국에 갖는 이미지와 태도 또한 이러한 중국의 위상변화에 따라 달라져왔다는 것이다. 본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대중인식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들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문제는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 인식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표 1-4-10〉의 결과로 볼 때, 한국인들은 중국을 '경계대상'으로 보고 있다. 2018년 협력대상 이미지는 13.3%, 경쟁대상은 28.4%, 경계대상은 50.3%, 적대대상은 8.1%로 나타났다. 사실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한쪽으로 결정되어 있기보다는 협력, 경쟁, 경계의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존재하였다. 그렇지만 올해의 경우 과거와 달리 특정 이미지, 즉, 경계대상 이미지가 처음으로 절반을 초과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16년 이후 한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인식은 보다 분명해졌다. 협력대상 의식은 2017년 26.6%에서 2018년 13.3%로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경계대상 의식은 같은 기간 38.4%에서 50.3%로 11.9%p가 증가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한국의 2016년 7월 사드 배치 이후 불거진 한중갈등, 중국의 경제보복 등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한중 간의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 구조와 함께 한·중 FTA 타결(2014년 10월),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2015년 9월) 등은 정치·경제적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그렇지만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이를 둘러싼 한중갈등, 이어진 경제보복은 우리 국민의 대중인식을 부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로 중국을 봉

쇄하기 위한 한미 간 안보협력으로 간주하였다.²⁴ 중국의 대 한국 경제보복은 험한 감정 조성을 통한 한국제품 불매, 관세장벽 강화, 중국인 단체 한국 관광 제재, 한국 문화컨텐츠 제한 등의 조치로 이어졌다. 그간 양국 간에 쌓아놓은 문화 및 경제 분야의 신뢰를 생각할 때, 경제대국이자 이웃 나라로써 중국의 이런 조치는 국민들의 실망을 사기 충분하였을 것이다. 이는 한중관계의 외적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이익이 교차하거나 자국의 안보가 침해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문제에는 충분히 대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1-4-10〉 중국의 국가이미지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협력대상	19.3	23.7	21.1	19.7	20.5	22.4	28.5	34.0	33.9	30.0	26.6	13.3
경쟁대상	46.4	38.2	42.0	45.1	40.2	36.9	43.9	34.3	39.9	39.4	31.6	28.4
경계대상	31.0	32.9	33.3	31.8	34.9	35.3	24.5	29.5	24.2	27.6	38.4	50.3
적대대상	3.3	5.1	3.6	3.4	4.4	5.4	3.1	2.2	2.0	2.9	3.3	8.1
합계(N)	1,197	1,209	1,203	1,200	1,201	1,200	1,200	1,199	1,200	1,200	1,200	1,200

한국인들은 중국이 유사시 북한을 돕거나 자국에 이익에 기반한 결정을 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4-

24) 유현정, 주재우,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5집 2호 (2017), p. 168.

11)에서 나타나듯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북한을 돕는다’가 51.7%로 가장 높았으며 ‘자국의 이익에 따른다’ 41.4%로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여기에 비해 ‘한국을 돕는다’는 1.2%로 그 비중이 매우 미미했다. 즉, 중국은 유사시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라는 응답이 최근 2년간 50%가 넘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으로 무력충돌, 긴급사태와 같은 유사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보고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11〉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태도 예상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을 도움	5.3	4.5	3.1	3.3	2.4	1.3	3.3	5.2	5.8	5.3	1.2	1.2
북한을 도움	26.8	30.4	38.5	55.5	62.8	58.3	49.7	42.9	46.3	46.0	53.0	51.7
자국의 이익 따름	56.4	52.2	50.8	37.4	31.0	37.5	41.4	46.0	43.4	42.9	39.7	41.4
중립을 지킴	11.4	13.0	7.7	3.8	3.8	2.8	5.6	5.9	4.5	5.9	6.1	5.6
합계(N)	1,200	1,212	1,200	1,200	1,201	1,199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4)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한국인들은 러시아에 대해 경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2〉에서와 같이 2018년 경계대상 이미지는 작년도 43.0%에서 47.0%로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경쟁대상 이미지는 2017년 33.5%에서 2016년 32.4%로 같은 기간 하락하고 있다. 경쟁과 경계의 이미

지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추세를 보면 경계대상 이미지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협력대상 이미지는 2010년 이후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2017년 19.2%, 2018년 16.1%로 떨어진 점도 주목된다.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 변화의 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고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결과는 러시아의 국가이미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만한 특별한 사건이 없었던 점도 일부 관계가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천연가스와 석유 등의 에너지 자원 공급과 중계 역할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남-북-러 3국간의 가스관, 철도 연결사업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²⁵ 이는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한국이 군사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와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이며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 국가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모색 중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사업의 진행과 그 성과에 따라 북중관계 및 남북관계에 파급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25) 신범식, “북-중-러 접경지대 개발협력과 동북아시아 지역정치,” 운영관 외, 『네트워크로 보는 세계 속의 북한』 (서울: 들꽃플러스, 2015), p. 311.

〈표 1-4-12〉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협력 대상	22.8	28.8	28.1	21.7	24.7	24.0	22.8	22.6	21.3	20.2	19.2	16.1
경쟁 대상	40.3	35.2	39.8	40.6	39.3	32.9	38.5	30.2	39.9	38.5	33.5	32.4
경계 대상	32.1	31.9	29.8	33.5	33.1	38.1	34.8	43.3	35.4	37.7	43.0	47.0
적대 대상	4.7	4.1	2.3	4.3	2.8	5.0	4.0	4.0	3.4	3.6	4.2	4.5
합계 (N)	1,195	1,209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199	1,200	1,200	1,200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에 러시아의 태도를 예상하는 질문에서도 국민들의 특별한 인식 변화는 발견되지는 않는다. 〈표 1-4-13〉에서 보여주듯이 2018년 ‘북한을 도울 것이다’의 응답률이 25.9%로 2017년 20.9%보다 5.0% 증가하였다.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응답률은 58.0%로 다른 응답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이는 주변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결과이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중립을 지킬 것이다’라는 응답률은 가장 높다. 중국보다 ‘북한을 돕는다’는 응답률이 낮고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란 응답이 지배적인 점, 그리고 ‘중립을 지킬 것’ 응답이 주변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는 것은 러시아의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별히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이득은 러시아의 극동 및 시베리아 개발과 이해가 중첩되는 부분이 크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통일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이 배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동북아와 북한에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

〈표 1-4-13〉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의 태도 예상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한국을 도움	3.7	6.0	4.3	5.8	4.2	3.7	3.8	3.3	3.3	3.8	2.4	1.9
북한을 도움	19.0	20.9	22.5	19.2	15.4	11.8	12.4	14.5	23.8	14.6	20.9	25.9
자국의 이익 따름	59.1	54.7	57.7	59.5	61.7	68.1	67.4	68.5	59.2	64.4	62.9	58.0
중립을 지킴	18.2	18.4	15.5	15.6	18.8	16.3	16.4	13.7	13.8	17.2	13.8	14.2
합계 (N)	1,199	1,211	1,200	1,200	1,200	1,199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4.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과 기대

통일이 남한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민족적인 과업임은 분명하지만 주변국가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국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조 체계를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분단의 지속으로 인한 현상 유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주변국에 각기 다른 비용과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이해를 파악하며 잠재적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먼저 주변국들이 통일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표 1-4-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4-14>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매우 필요하다	42.0	45.2	51.5	48.2	45.5	45.8	47.5	44.7	44.6	40.3	48.6
필요한 편이다	48.9	47.7	42.8	43.7	44.8	46.1	45.7	45.9	47.1	52.1	44.1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7.1	5.2	4.7	5.7	6.8	6.6	5.5	8.1	7.1	6.8	6.4
전혀 필요하지 않다	2.1	1.8	1.0	2.3	3.0	1.5	1.3	1.3	1.3	0.8	1.0
일본											
매우 필요하다	18.5	20.4	19.2	19.7	16.8	14.0	13.7	13.1	12.1	9.6	9.3
필요한 편이다	52.4	58.9	57.4	52.0	51.2	51.8	51.7	47.3	46.3	50.5	50.9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22.9	16.2	19.8	22.8	25.1	27.8	26.7	31.3	33.7	34.4	34.1
전혀 필요하지 않다	6.2	4.5	3.7	5.4	6.9	6.4	8.0	8.3	7.9	5.5	5.7

중국											
매우 필요하다	25.3	29.7	36.4	43.2	31.4	34.8	35.5	30.8	28.1	28.8	27.2
필요한 편이다	55.4	53.6	52.5	41.5	48.7	49.7	53.0	51.3	54.8	53.6	54.0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15.2	13.3	9.5	11.4	15.3	13.0	9.6	15.8	15.0	15.4	14.8
전혀 필요하지 않다	4.1	3.4	1.6	3.9	4.6	2.6	1.9	2.3	2.2	2.2	4.0
러시아											
매우 필요하다	17.2	19.9	18.8	21.3	17.3	15.5	15.3	14.0	12.3	12.9	11.8
필요한 편이다	57.9	53.6	55.3	51.1	50.8	51.5	56.6	51.4	48.0	51.1	57.2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20.9	22.6	22.8	23.4	25.8	28.5	23.9	28.6	33.4	31.2	26.6
전혀 필요하지 않다	4.0	3.9	3.1	4.2	6.1	4.5	4.3	6.1	6.2	4.8	4.3
합계(N)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한국인들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변 4개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8년 미국의 경우 ‘매우 필요한 편이다’와 ‘필요한 편이다’를 합한 즉,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2.6%로 2008년 이후 줄곧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의 응답률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 비교하였을 때도 가장 높다. 중국의 경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8년 81.2%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남북한 통일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0%를 상회 하였으나 2018년에는 각각 60.2%의 응답자들만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2018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9.1%로 우리 국민들은 러시아의 도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통일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고 일본보다는 중국의 도움이 더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표 1-4-15>에 의하면 2018년 주변국 중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미국 > 중국 > 러시아 > 일본 순서이며 2008-2018년 기간의 전체 평균 응답률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표 1-4-15>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단위: %)

	2018		2008-2016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미국	92.6	92.1	7.4	7.9
일본	60.2	67.0	39.8	33.0
중국	81.2	83.6	18.8	16.5
러시아	69.1	69.2	30.9	30.8

본 조사는 통일을 위한 개별국가에 대한 협조 필요성 인식과 더불어 한국을 중심으로 양자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이한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표 1-4-16>에 나타나듯이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현재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올해에는 37.4%로 가장 높았다. ‘남북 간 협력’이 35.3%로 뒤를 이었고 ‘한미 간 협력’은 23.4%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한중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3.8%로 2015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계속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국과의 양자 관계가 복합적인 고려 대상이기보다는 선택의 문제라 여기는 시각이 우세함을 보여준다.²⁶ 하지만 특정 국가와의 관계 강화가 압도적이지 않다는 점은 그러한 선택의 정향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이 ‘남북 간 협력’을 ‘한미 간 협력’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잠재적인 내부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한중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16> 남북한 협력과 한·미·중 공조

(단위: %)

	2015	2016	2017	2018
남북 간 협력	32.8	34.9	36.0	35.3
한미 간 협력	24.6	26.1	31.4	23.4
한중 간 협력	6.6	7.0	5.6	3.8
모두 중요하다	36.0	32.0	27.0	37.4
합계(N)	1,200	1,200	1,200	1,200

그렇다면 당면한 최대 과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본 조사에서는 특히 한반도 문제에 가

26] 이정남, 하도형, “동아시아 지역 미중 경쟁구도 강화에 따른 한국인의 대미·대중 인식 변화,” 이내영, 윤인진,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 2005-2015』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6), p. 250.

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양자 사이의 선택을 하도록 하였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현재 ‘한미 간 협력’과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표 1-4-17>이 보여주듯, 우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인 52.2%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 한중 간 협력이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미 간 협력’은 39.3%로 ‘한중 간 협력’ 8.6%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균형과 조화의 문제라 보는 시각이 국민들 사이에 우세함을 보여준다.²⁷⁾

<표 1-4-17>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중 공조 (단위: %)

	2018
한미 간 협력	39.3
한중 간 협력	8.6
모두 강화해야 한다	52.2
합계(N)	1,200

남북한 협력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일 수 있지만 사안과 조건에 따라 이러한 협조 체계는 원활하게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동아시아 국제 정세는 기존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에 부상하는 국가 중국의 도전으로 집약할 수 있다. 중국의 부상과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의 문제가 된 것이다. 한미동맹이 한국외교와 안보

27) 정치적 성향, 소득 수준, 성별, 연령대에 관계없이 ‘모두 강화해야 한다’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다.

의 중심축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한중협력은 기존의 한미 간 협력과 함께 한반도의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축이 된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서의 조화와 균형의 문제는 한국 외교가 직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에게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안에 따라 매우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 국민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2018년 조사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 결과 ‘도움이 안 됨’이 49.5%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8.5%에 불과했다. 즉 남한 주민의 약 절반은 중국의 국력강화 및 주변국 영향력 확대가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를 경계하고 우려하는 입장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응답은 20대(53.1%), 고학력(51.6%), 고소득(51.9%), 대도시 지역(51.9%), 진보 성향(52.2%)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53.2%로 가장 높았다. ‘미국과 협력 강화’는 39.2%, 중국과 협력 강화는 7.6%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미국에 대해 매우 친근하게 생각하고 협력 대상 이미지가 압도적이지만 미중 갈등 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중립을 지키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이다. 여론이 반드시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어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반도 문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양국 간의 관계 악화 시 보다 신중하고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함을 시사하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미중 갈등 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중국의 부상을 보는 인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중국의 부상 인식과 미중 갈등 시 한국 입장을 교차 분석했을 때, 중국의 부상을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 모두 미중 갈등 시 한국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표 1-4-18〉 중국 부상과 미중 갈등 시 한국 입장 (단위: %)

		미중 갈등 시			
		미국과 협력 강화	중국과 협력 강화	중립을 지켜야	합계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됨	34.2	11.0	54.8	100
	보통	36.4	8.5	55.1	100
	도움이 안 됨	40.5	5.0	54.5	100
	합계(N)	455	88	657	1,200

x² = 19.299 p<0.05

5. 소결

2018년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조사를 통해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미친밀감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2018년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호감도를 보였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을 위해 반드시 협조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미친밀감 증가 및 대미인식 강화가 가져올 상쇄효과 즉, 한미관계의 친밀함과 긴밀함이 중국으로 부터의 의구심을 가져오거나 미국의 안보이익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대상은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최대위협국이 조사 이래 처음으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전환되었다. 대중위협인식 상승과 대북위협인식 하락은 2018년 가장 두드러졌던 특징으로, 전자의 경우 사드 배치 이후 한중관계 악화과 관계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최근 남북관계 진전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관련하여 연령대간 대미친밀감, 대북, 대중 위협인식의 차이가 크게 좁혀진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2018년 조사결과 20대의 대미 친밀감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20-30대 젊은 세대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북미관계 개선 및 한미관계의 미칠 영향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완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증가가 세대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은 향후 남북관계 진전, 한반도 비핵화 이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인은 중국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국민

들이 중국에 대해 유동적이고, 신중하며 복합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올해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뚜렷하게 드러났었다. 중국에 대한 경제대상 이미지가 우세해졌고 대중친밀감 역시 조사 이래 최저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중국에 대한 협력대상 이미지 감소 및 경제대상 이미지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대한 중국의 대외정책, 다시 말해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중국의 포지셔닝(positioning)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갈등 구도, 동아시아 영토분쟁, 일대일로를 통한 영향력 확대 및 힘의 과시는 한국인에게 두려움 내지 위협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넷째, 한국인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한미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한중 간 협력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특별히 미중 갈등 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한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기조를 보였다. 하지만 미중간의 상이한 인식과 상호 경계 태도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좁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방법론이 필요한 시점이다.²⁸⁾

다섯째, 한반도의 통일 환경이 우호적이지는 않다. 한국인들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 4개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중요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들은 통일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고 일본보다는 중국의 도움이 더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 ‘남북 간 협력’, ‘한중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이 중 하나의 선택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국이 도움이 미국 다음으로 긴요할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한중 간 협력’은 ‘남북 간 협력’, ‘한미 간 협력’에 비해 그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의 변화는 현상이자 결과라는 측면에서 이 자체가 정부의 외교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의사소통, 정보의 공유, 인식의 수용, 이익 형성은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 내의 특정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되는 것은 통일을 위한 협력적 환경 설정에 유리하지 않다. 정책적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보다 내실있게 다져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한문제 등의 외교안보문제에 대한 신뢰와 협력 증진 방안이 요구된다. 원론적이지만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상호의존과 협력체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한국이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는 점에서 주변국이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지지하고 통일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명민한 외교가 절실하다.

28) 전재성,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서울: 늘봄플러스, 2015) 서문 참조.



제2부

심층분석

제5장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국민정체성

제6장 세대별 통일 의식과 통일교육

제5장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국민정체성

1. 서론

탈북자 3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탈북자들이 점차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탈북자에 대해 남한주민들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는지 파악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는 이들이 북한에서 넘어 온 사람들이란 점에서 이들에 대한 태도는 곧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간접적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북한이라는 '체제'에 대한 태도와 북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 있다. 또한 북한주민이라는 추상적 집합체에 대한 태도 역시 개개인의 북한 사람에 대한 태도와도 다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을 직접 접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 탈북자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형성된 태도는 향후 통일 시대에 북한 사람들을 향해 가지게 될 태도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이 분단이 낳은 특수한 집단인 동시에 남한 사회로 넘어 온 이주자 집단이라는 점이다. 세계 제일의 단일 민족 국가인 남한은 그간 이주자 집단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몇몇 국가로부터의 난민 신청도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다문화 및 이주자 집단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탈북자 역시 또 하나의 이주자 집단이란 점에서 이들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흥미로운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탈북자 3만 명 시대와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직면하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이 있다. 바로 무엇이 대한민국의 국민됨(nationhood)을 결정하는지의 문제이다. 기술하였듯이 세계 제일의 단일민족 국가로서 한국은 그동안 같은 혈연을 공유하는 인종적 의미의 국민과, 같은 정치공동체에 속한 시민적 의미의 국민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명확한 인종적 구분과 함께 오랜 기간 유지된 영토적 경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두 가지 개념의 국민이 하나가 된 우리에게 있어 국민국가를 이루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인종적으로도 동질적이지 않고 영토 역시 시시각각 변했던 유럽과 같은 지역에서 이러한 국민정체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이란 일련의 국가성(nationhood)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이라 말할 수 있다.²⁹⁾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정체성을 이루는 요건에 대해 남한의 주민들

29) Rogers Brubake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Jack Citrin and David O. Sears, *American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떠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한국인이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남한주민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도 여러 모양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통일의 또 다른 파트너인 북한주민들이 국민됨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통일이란 서로 다른 정치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란 점에서, 두 국민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국민됨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모델이 제시될 때 그 모델의 정책적 효과가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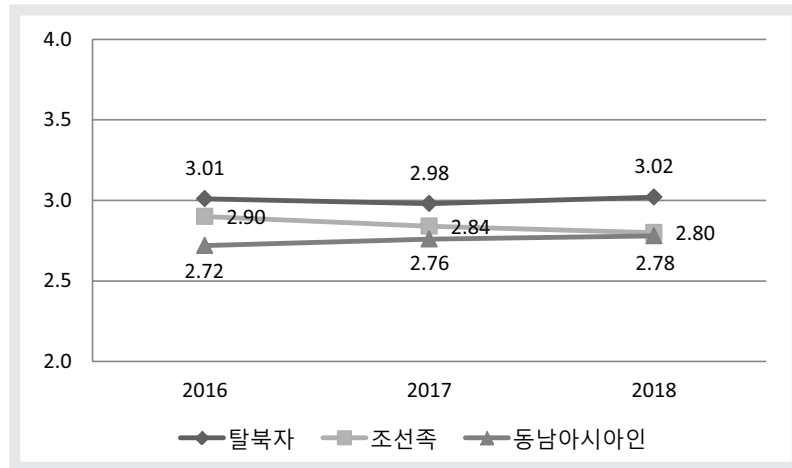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먼저 2018년 남한주민들이 탈북자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일련의 설문문항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남북한주민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국민됨의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는지를 요인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비교분석한 후, 이러한 분석결과가 통일 과정에 줄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이와 더불어 북한주민의 국민정체성 요건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하겠다. 물론 현재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설문조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장에서는 본 연구원이 실시하는 또 다른 조사인 『북한주민의식조사』를 통해, 직전 해에 탈북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회적으로나마 국민정체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탈북자에 대한 태도

먼저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어떠한지를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란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응답은 1(전혀 친근하지 않음)부터 5(매우 친근)까지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장의 관심 주제 중 하나가 단순히 탈북자에 대한 태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를 다른 이주자 집단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2016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다른 이주자 집단(조선족,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태도와 같이 분석해보았다.

5점 척도의 평균값을 매긴 결과, <그림 2-5-1>과 같이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은 전반적으로 다른 이주자 집단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탈북자가 이주자 집단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우리와 같은 혈연 공동체라는 점에서 타민족 이주자에 비해서는 좀 더 친근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시계열적으로 볼 때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은 예년에 비해 소폭 오르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지난 3년간의 추이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조사가 이루어진 2018년이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된 시점이란 점이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여타 통일외식조사 문항에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주목해 보아야 할 결과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긍정적 통일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은 크게 좋아지지 않은 것이다.

〈그림 2-5-1〉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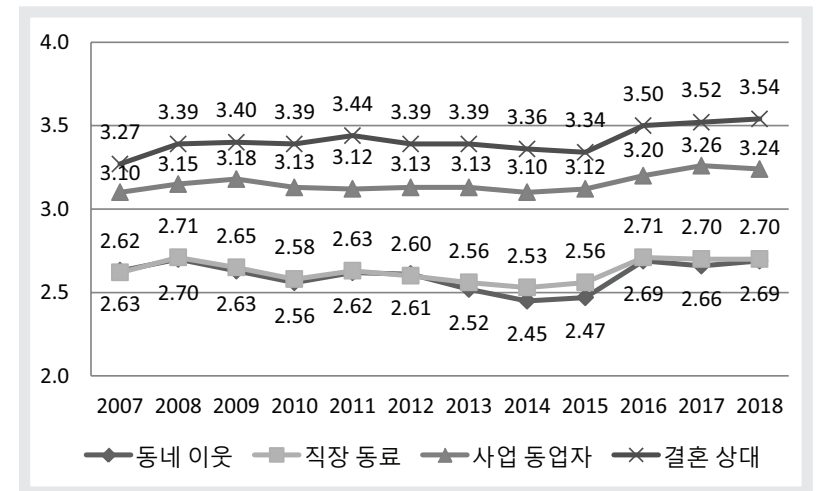


다음으로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를 보기 위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고전적 척도인 ‘보가더스(Bogardus) 척도’를 변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탈북자를 동네 이웃, 직장 동료, 사업 동업자, 그리고 결혼상대로 관계 맺는 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점(전혀 꺼리지 않음)부터 5점(매우 꺼림)까지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후자로 갈수록 보다 가깝고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를 보더라도 〈그림 2-5-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올해의 결과는 예년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사업 동업자 및 결혼 상대에 대한 거리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 10년 간 비슷하거나 지속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올해에도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올

해 일어난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변화를 생각할 때 이는 오히려 두드러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그에 따른 통일인식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가까워지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는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5-2〉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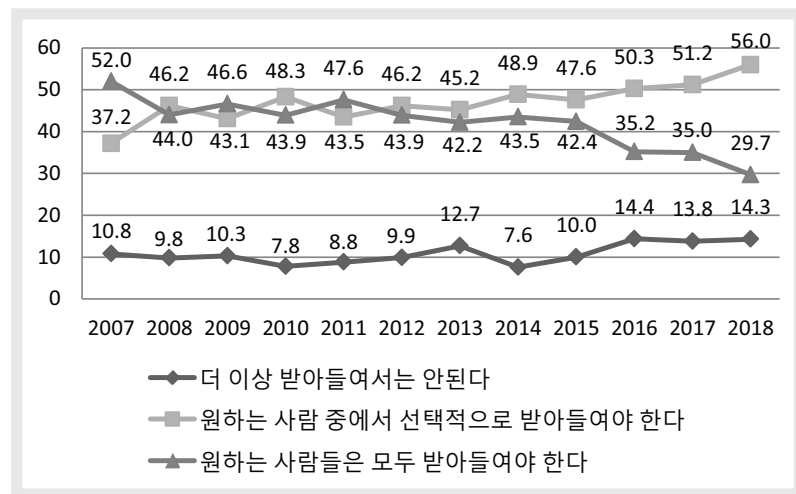


특히 이러한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증가는 탈북자 수용에 대한 견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원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으며, 반대로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률은 작년보다 증가한 14.3%를 기록하였다. 특히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인 56%를 기록, 탈북자의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가 보다 보수적

이고 신중한 쪽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마찬가지로 올해 나타난 긍정적인 통일인식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예상 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 들어와 살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질감과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림 2-5-3〉 탈북자 수용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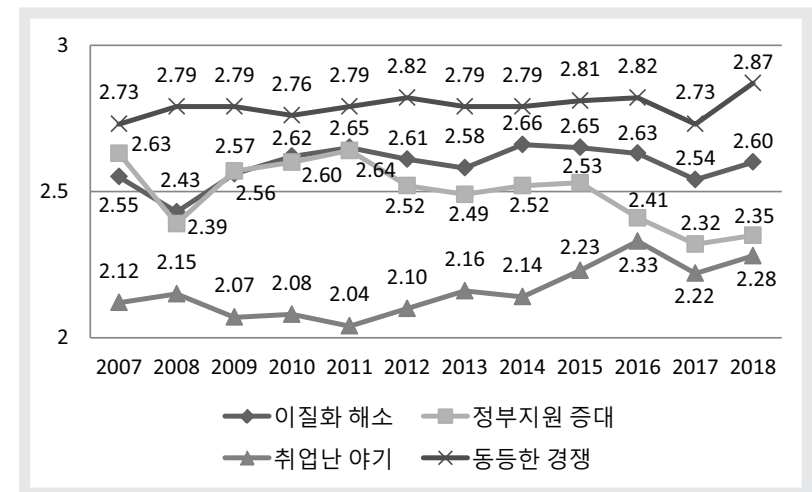
(단위: %)



탈북자에 지원에 있어서도 지난 12년간 긍정적 견해 - 이질화 해소, 정부지원 증대 - 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부정적 견해 - 취업난 야기, 동등한 경쟁 - 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점(전혀 동의하지 않음)부터 4점(매우 동의)까지의 4점 척도를 평균한 값을 살펴본 결과, 특히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와 '탈북자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치가 예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경기불황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높은 실업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투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정된 재화를 놓고 경쟁하는 외집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³⁰

〈그림 2-5-4〉 탈북자 지원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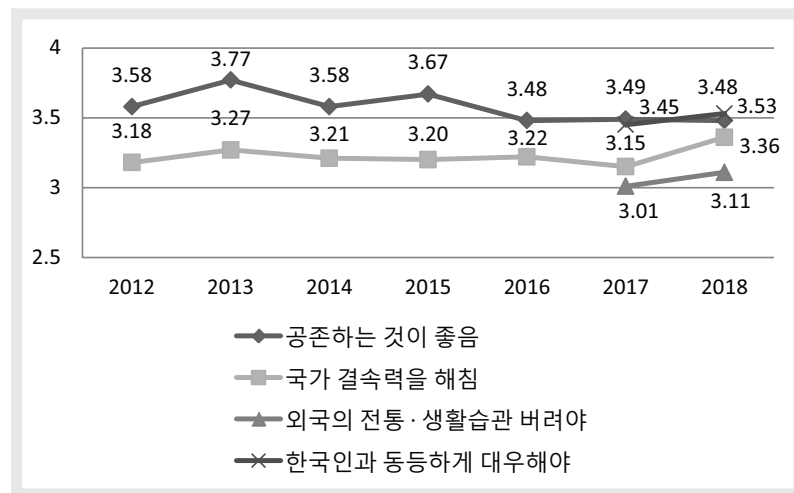


다음으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역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와 관련된 일

30] Hubert M. Blalock Jr., *Toward a Theory of Minority Group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1967); Lewis A. Coser, *The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Glencoe, Illinois: The Free Press, 1956); Peer Scheepers, Merove Gijsberts and Marcel Coenders, "Ethnic Exclusionism in European Countries Public Opposition to Civil Rights for Legal Migrants as a Response to Perceived Ethnic Threa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8, no. 1 (2002), pp. 17-34.

련의 진술에 대한 찬성과 반대(1점: 매우 반대 ~ 5점: 매우 찬성)를 묻는 질문에,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의 평균값은 조사 시작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는 응답은 특히 올해의 조사에서 높아진 수치를 보였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및 난민 수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설문결과에 일부 반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림 2-5-5〉 다문화에 대한 견해



3. 남북한주민의 국민정체성과 국민됨의 요건

1) 이론적 논의

국민정체성이란 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자신을 얼마나 그 나라의 성원으로 생각하는지의 자기인식이라 할 수 있다. 국민정체성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국가건설 과정과 민족주의의 등장, 이것이 합해진 민족국가의 건설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의 근대국가 건설 과정에서 새롭게 국가의 범위와 권한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통치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의해야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의 개념이 등장하며 '우리'와 '남'을 구분짓는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이 되었다.³¹ 하나의 집단적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치공동체의 형성에 있어 필수적인 일이었고 이러한 정치공동체의 형성 없이는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³²

이러한 정치공동체의 형성에 있어 가장 가시적이고 명확하게 그 집단의

31] 정동준,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민족 건설과 소수인종 보호: 유권자들의 투표행동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10권 1호 (2017), pp. 125-161; Michael Mann, *The Sources of Social Power, Vol. II: The Rise of Classes and Nation-Stat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Charles Tilly, *Roads From Past To Future*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7).

32] Kjetil Duvold and Sten Berglund, "Democracy between Ethnos and Demos: Territorial Identification and Political Support in the Baltic States,"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and Culture*, vol. 28, no. 2 (2014), pp. 341-365; Juan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종적 개념의 민족이라 할 수 있다.³³ 특정 유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외형에서 차이를 보이는데다 그들만의 오랜 역사적 전통으로 생긴 문화의 공유로 인해 각 인종 간에는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특징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와 ‘남’의 구분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성원이라는 의미에서 민족을 구성하는 기준이 꼭 이러한 인종적 특질이 되지는 않는다. 설령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 국가 고유의 법과 제도,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고 따른다면 실질적인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 국민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후자를 시민적 정체성(civic identity)라 부르고 전자를 인종적 정체성(ethnic identity)로 부르며, 브루베이커(Rogers Brubaker)와 같은 학자³⁴는 전자를 서유럽 국민국가의 형성에, 후자를 보다 현대의 신생 독립국가들 형성에 나타나는 정체성 모델로 보았다. 하지만 서유럽의 근대국가 형성 과정 역시 단일민족을 기반으로 한 국민국가를 국가의 모범으로 보고 이를 이루기 위한(또는 이루지 못해 생겨난) 갈등과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신생 국가라 하더라도 법적, 제도적 순응을 기반으로 한 정치공동체의 형성이 국가건설 과정에서 필수적이란 점에서 어느 모양의 국가든지 두 가지 국민정체성 모델은 혼재하고 있다고

33] Henry Hale, *The Foundations of Ethnic Politics: Separatism of States and Nations in Eurasia and the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34] Brubake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할 수 있다.³⁵

즉, 어떠한 특징을 국민됨의 요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한 국가 안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들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장의 내용과 연계시켜 말하자면 통일의 과정에서 통일의 두 당사자인 남북한주민이 국민됨의 요건에 대한 생각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고려에 따라 이어지는 소장에서는 남북한 주민이 국민정체성의 자격 요건으로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비교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 남한주민의 국민정체성 자격요건

어떠한 요건이 국민됨을 느끼는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및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의 문항들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맥락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해당 설문에서도 조사시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통상,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등의 아홉가지 요인을 묻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동일한 아홉가지 요인을 국민됨의 요건으로 물어보았다.

35] 장승진,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가 정체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4집 3호 (2010), pp. 97-119; Frank L. Jones and Philip Smith, “Diversity and Commonality in National Identities: An Exploratory Analysis of Cross-National Patterns,” *Journal of Sociology*, vol. 37, no. 1 (2001), pp. 45-63.

먼저 응답자들이 각각의 요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표 2-5-1>에 정리하였다. 1(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4(매우 중요하다) 까지 4점 척도로 제시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3.42)과 ‘한국 국적을 갖는 것’(3.40)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요인이 문화적이거나 정서적이기보다는 제도적 요인에 가깝다는 점에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한국의 제도적 틀 안에 들어오는 것을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2.97)이나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2.93), 그리고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2.92)과 같은, 주로 인종적이고 생득적인 요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어떠한 요건이 인종적 정체성 혹은 시민적 정체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³⁶ 국민정체성이란 개념 자체가 가변적이고 시대적, 상황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한국 국적을 갖는 것’,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등 다섯가지 요인은 인종적 정체성으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적 정체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분류법에 따라 각 정체성에 해당하는 자격요건들의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응답자들은 두 정체성 모두를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민적 정체성(3.22)을 인종적 정체성(3.13)보다 조금 더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1> 남한주민의 국민정체성 자격요건에 대한 항목별 응답률

항 목	항목별 응답률				평균값
	1	2	3	4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㉑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1.3	17.3	51.3	30	3.10
㉒ 한국 국적을 갖는 것	0.5	8.9	40.3	50.3	3.40
㉓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1.8	23.8	50	24.4	2.97
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0.8	11.8	52.5	34.9	3.22
㉕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0.7	12.6	49.1	37.7	3.24
㉖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0.3	9.2	38.7	51.9	3.42
㉗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0.7	7.8	51.7	39.8	3.31
㉘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3.3	26.8	43.8	26.1	2.93
㉙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1.6	23.6	55.9	18.9	2.92
인종적 정체성(㉑,㉒,㉓,㉕,㉖)					3.13
시민적 정체성(㉔,㉕,㉗,㉘,㉙)					3.22

36] 장승진,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정기선·이선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국제비교연구: 자격요건 평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9권 1호 (2011), pp. 45-72; 이상신·박종철·윤광일·윤지성,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통일연구원: KINU 연구총서 17-04, 2017).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슷한 설문을 진행했던 여타의 연구결과와도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 윤인진·송영호³⁷는 시민보다는 인종적 정체성이 다문화수용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일민족으로서 인종적 요인을 중시하는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정기선·이선미³⁸ 역시 동일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여 실시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하여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인종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반대로 강원택³⁹은 한국인의 정체성에서 시민적 요인이 오히려 인종적 요인보다 중시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윤인진 외⁴⁰ 역시 한국인은 대체로 인종보다는 시민적 정체성을 더 중요히 여기지만 두 정체성의 강도는 모두 약한, 즉 '다원형' 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렇듯 정체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조사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는 첫째, 기술하였듯이 정체성이란 개념 자체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제 어떠한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이분법적 분류가 모든 집단에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단일민족을 유

지하며 인종적 공동체와 시민적 공동체 사이의 구분이 쉽지 않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기존의 분류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⁴¹

이러한 점에서 2018년 현재 남한주민들은 과연 아홉 개의 요건들을 서로 어떻게 연결지어 생각하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요건들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여러 변수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여 보다 적은 수의 변수(잠재요인)로 추려내는 분석 방법으로 국민정체성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⁴² 요인분석을 통해 먼저 각 변수와 잠재요인 간 상관관계의 합을 의미하는 아이겐값(Eigenvalue)을 계산한 결과, <표 2-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개의 잠재요인이 1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왔다. 즉, 아홉 개의 자격요건들은 적어도 두 가지 큰 요인으로 추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을 통해 각 요인에 가까운 변수들을 살펴보니(표 안의 굵은 숫자), 요인 1은 인종적 정체성에 가깝고 요인 2는 시민적 정체성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37) 윤인진·송영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pp. 579-591.

38) 정기선·이선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국제비교연구."

39)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민족주의",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한국정치』 (동아시아 연구원, 2007), pp. 15-38.

40) 윤인진·송영호·김상돈·송주영,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파주: 이담북스, 2010).

41) 정기선·이선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국제비교연구"; 황정미,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제53권 4호 (2010), pp. 152-184;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의 한계는 이미 기존의 연구들도 지적한 바 있다. 일부 연구에서 단순한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두 요소의 조합을 통한 4분법 모델, 혹은 두 요소에 '문화적 요소'를 추가한 3분법 모델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분석 및 해석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이분법적 분류를 따르도록 하였다.

42) 보다 자세히는 주성분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중 잠재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없이 서로 독립적(orthogonal)이라 가정하는 분산최대화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을 선택하였다. 상관관계를 가정한 다른 회전방식(promax rota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여도 본 논문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2-5-2〉 남한주민의 국민정체성 자격요건에 대한 요인분석

항목	요인1(인종적) 요인적재값	요인2(시민적) 요인적재값
아이겐값(Eigenvalue)	3.71	1.12
㉠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0.72	0.11
㉡ 한국 국적을 갖는 것	0.35	0.56
㉢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0.7	0.21
㉣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0.54	0.4
㉤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0.47	0.54
㉥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0.03	0.85
㉦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0.2	0.67
㉧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0.78	0.14
㉨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0.72	0.11
	요인별 평균값	
인종적 정체성(㉠,㉡,㉢,㉣,㉤)	3.03	
시민적 정체성(㉥,㉦,㉧,㉨)	3.34	

이렇게 남한주민이 생각하는 국민정체성의 요건이 크게 두 요인으로 분류된다는 결과는 기존의 일부 연구결과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2003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 설문결과를 사용한 윤인진·송영호⁴³와 정기선·이선미⁴⁴의 연구에서 한국인은 두 요인이 아닌 하나의 요인만으로 국민정체성을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최근의 유사한 연구라 할 수 있는 통일연

43] 윤인진·송영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44] 정기선·이선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국제비교연구."

구원의 연구⁴⁵에서도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자격요건은 하나의 요인에 수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윤인진·송영호⁴⁶의 동일한 논문에서도 다른 설문결과(2008년 아시아인권센터 자료)를 사용하면 두 요인으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등, 조사시점 및 자료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민정체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와 맥락에 따라 가변적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이 아직 명확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두 번째 요인으로 분류된 시민적 정체성의 경우 아이겐값이 1.12로 통상적으로 설명력있는 잠재요인이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인 1을 겨우 넘겼다는 점에서 요인 1인 인종적 정체성과 비교하면 그다지 큰 설명력을 가진 요인이라 할 수 없다. 한국인은 아직 시민적 정체성에 해당하는 요건들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두 번째 요인의 아이겐값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결과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분석에 의거하여 각 정체성에 해당하는 요건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분류법과는 확연히 다른 점들이 관찰되었다.(차이점은 표 안의 굵은 숫자로 표기) 〈표 2-5-3〉에 정리된 바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비교적 적은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항목은 여전히 인종적 정체성의 영역에 포함되었지만, '한국국적'과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은 시민적 정체성(요인 2)

45] 이상신 외, 「통일 이후 통합방안」

46] 윤인진·송영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으로 분류되었다. 국적 취득이 일반적으로 혈연 및 출생과 같은 생득적 요인과 관련이 깊고 특히 한국국적은 여타 국가에 비해서도 취득이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에서 인종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나,⁴⁷ 적어도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국적 취득을 개인의 선택에 의해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성질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적 특징 역시 한 나라의 문화는 후천적 과정을 통해 동화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항목 모두 인종과 시민의 잠재요인 간 요인적재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어느 정도는 인종적 특성과의 연관지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가지 언어적 항목은 모두 인종적 정체성(요인 1)으로 분류되었다. 즉, 일반적인 분류와 달리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과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시민적이기보다는 인종적인 성질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견 예상을 빗나간 결과라 생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한국어가 한국인임을 구성하는 배타적 구성 요소임을 말해준다 할 수 있다. 즉,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이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나라와 민족에겐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어 사용을 한국인이 됨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의 요인적재값은 인종적 요인(0.72)이 시민적 요인(0.11)보다 뚜렷하게 커,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거나(0.78)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0.72)에 버금가는 정도의 인종적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7) 이상신 외, 『통일 이후 통합방안』; Frank L. Jones and Philip Smith, “Individual and societal Bases of National Identity: A Comparative Multi-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7, no. 2 (2001), pp. 103–118.

이러한 새로운 분류법에 근거하여 각 정체성 별 응답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여전히 인종적 정체성(3.03)보다 시민적 정체성(3.34)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그 간격은 기존의 분류법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조사의 응답에 적합한 틀로 분석한 결과, 한국인은 인종보다 시민적 정체성을 한국사람이 되기 위해 보다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하였듯이, 인종적 정체성의 아이겐값이 시민적 정체성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인종적 정체성에 해당되는 요인들이 시민적 요인들에 비해 더 뚜렷이 구분되고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시민들은 인종적 특성들을 시민적 특성들보다 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시민적 특성들은 아직 정체성의 개념 정립이 인종적 특성들에 비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국민정체성에 있어 어떠한 항목들이 시민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 그 중요성과는 상관없이 - 아직 한국인들이 분명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5-3〉 남한주민의 국민정체성 자격요건 분류 비교

기존연구의 분류	인종적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 한국 국적을 갖는 것 •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시민적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본 요인분석 결과에 따른 분류	인증적 정체성 (요인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시민적 정체성 (요인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국적을 갖는 것 •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3) 탈북자의 국민정체성 자격요건

그렇다면 이러한 남한시민의 국민정체성 자격요건에 대한 생각은 탈북자들의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 다가올 통일시대에 남북한이 하나 된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한국사람’을 결정하는 요건들에 대해 공통된 견해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술하였듯이, 동질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됨의 핵심적 요소이며, 이러한 정치공동체에 기반할 때야 국가의 정당성과 그 존속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통일이 두 개의 국가가 하나가 되는 제도적 차원을 일컫지만은 않는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다른 체제 속에 살아온 두 집단이 국민됨에 대해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남북 간 이해와 통합의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직전해인 2017년에 탈북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원의 『2018년 북한주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각 자격요건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표 2-5-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탈북자들 역시 남한시민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모든 요건이 한국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하다 생각하는 가운데, 기존의 정체성 요건 분류법에 따른 시민적 정체성을 인증적 정체성보다 조금 더 중요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국적을 갖는 것’(3.57)과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3.44)이 남한시민과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띄게 다른 점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3.45) 역시 매우 중요한 한국인의 요건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어’란 남한 표준어를, 그리고 ‘유창하게’란 남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하는 수준을 의미할 것 이란 점에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느끼는 언어적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느끼게 해준다. 북한과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같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오랜 분단으로 언어체계가 많이 달라져 있고 북한식 억양은 남한 사회에서 상당히 이질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남한의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들이 남한 사회에 들어와서 적응해야 하는 주요 과제 중 한 가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북자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한국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꼽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48] 정동준,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의 민족 건설과 소수인종 보호.”

〈표 2-5-4〉 탈북자의 국민정체성 자격요건에 대한 항목별 응답률

항 목	항목별 응답률(%)				평균값
	1	2	3	4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㉔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7.1	21.2	24.7	47.1	3.12
㉕ 한국 국적을 갖는 것	4.6	4.6	19.5	71.3	3.57
㉖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2.3	16.1	34.5	47.1	3.26
㉗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4.7	12.8	30.2	52.3	3.30
㉘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3.5	7.0	45.4	44.2	3.30
㉙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1.2	8.1	36.8	54.0	3.44
㉚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4.6	5.8	37.9	51.7	3.37
㉛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8.1	26.4	33.3	32.2	2.90
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2.3	10.3	27.6	59.8	3.45
인종적 정체성(㉔,㉕,㉖,㉗,㉘)					3.23
시민적 정체성(㉗,㉘,㉙,㉚)					3.39

이러한 결과는 요인분석을 통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표 2-5-5〉에 제시된 요인분석 결과 남한시민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과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로 탈북자들은 인종적 요건들보다 시민적 요건들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이 넘는 아이겐값을 가진 두 요인의 구성 항목들을 살펴보면 요인1은 시민적 정체성에, 요인2는 인종적 정체성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사회에서 원래 남한에서 나고 자란 집단과 탈북자라는 이주자 집단이 갖는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남한에서 나고 자란 사람

은 인종적으로도 대부분 한국인일 것이고, 인종으로서 한국인이 갖는 배타적 특질들을 공유하면서 이를 자연스럽게 한국사람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것이다. 반면 남한이란 낯선 사회에 들어온 탈북자에게, 비록 인종적으로는 같은 인종이라 하더라도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점들을 느끼며 인종적 요건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 반면 남한사회에 적응하여 진정한 남한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시민적 요소들은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고 구분했을 수 있다. 이렇듯 원주민과 이주민이란 이러한 차이가 인종적으로는 같은 두 집단의 차이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큰 차이는 언어적인 부분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남북한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질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과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시민적 요인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 모두에서 요인1과 요인2 간의 요인적재값의 차이가 뚜렷이 관찰된 것이다. 즉, 남한의 표준어가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후천적 노력을 통해 배워가야 하는 시민적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남한의 표준어를 남한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이들 입장에서는 남한사회에 들어와 느끼는 장벽 중 하나이고, 이러한 장벽을 극복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한국사람이 될 수 있다 여긴다는 것을 본 분석결과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표 2-5-5〉 탈북자의 국민정체성 자격요건에 대한 요인분석

항목	요인1(시민적) 요인적재값	요인2(인종적) 요인적재값
아이겐값(Eigenvalue)	4.87	1.11
㉠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0.12	0.83
㉡ 한국 국적을 갖는 것	0.84	0.08
㉢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0.35	0.68
㉣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0.75	0.28
㉤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0.78	0.31
㉥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0.77	0.17
㉦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0.77	0.26
㉧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0.29	0.74
㉨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0.80	0.31
	요인별 평균값	
시민적 정체성(㉡,㉢,㉣,㉤,㉥,㉦,㉧)	3.41	
인종적 정체성(㉠,㉢,㉨)	3.09	

〈표 2-5-6〉 남한주민과 탈북자의 국민정체성 자격요건 비교

남한주민의 분류	요인 1: 인종적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요인 2: 시민적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국적을 갖는 것 •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탈북자의 분류	요인 1: 시민적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국적을 갖는 것 •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요인 2: 인종적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4. 소결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탈북자와 다문화에 대한 견해는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이란 거대담론에 대한 추상적 기대와 실제적으로 삶에서 부딪히는 사람과 사람 간 통합의 문제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최근의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 통일과 북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긍정적 인식을 높여주고는 있지만, 이것이 보다 실질적인 삶의 영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에 대한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 제도적 차원의 통일을 대비하는 것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 사이의 통합에 대한 논의 역시 통일준비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본 장에서는 남북한 주민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국민됨에 대한 요건을 일련의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먼저 남한주민의 경우에는 인종적 정체성과 시민적 정체성 모두를 국민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히 말하면 시민적 정체성을 인종적 정체성보다 조금 더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고 있지만, 오히려 요인들 간의 상호연관성에 있어서는 인종적 특성들을 더 명확히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적 요인들을 보다 강하게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는 탈북자들와는 반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탈북자들 역시 남한주민처럼 시민적 정체성을 좀 더 중요한 국민정체성의 구성요소라 보고 있지만, 개별 요인들 사이의 연관성에 있어서는 시민적 요인들 사이의 관

련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한국어 사용을 인종적 요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남한주민과 달리 탈북자들은 이를 시민적 요인에 가깝다고 여기는 것이다. 탈북자들 역시 언어적으로는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이것이 한국사람이 되기 위한 인종적 요건이라 보지는 않은 대신, 오랜 분단으로 남북의 어휘 및 언어체계가 많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한국어, 즉 남한의 표준말을 후천적 학습을 통해 따라가야 할 시민적 요인이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정체성의 형성 요건에 있어 남북 주민 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언어이며, 향후 남북의 통일 및 통합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언어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가 같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할 수 있다.

제6장

세대별 통일외식과 통일교육⁴⁹

1. 서론

2018년은 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의 연이은 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평화 시대로 진입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시기였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에 대한 세대별 정서적 반응은 상이하다. 남북 정상이 부둥켜안은 장면에 대해 소위 '86세대'의 많은 이들은 '역사적인' 순간에 감격의 눈물을 흘린 반면,⁵⁰ 그 장면이 생경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20대 청년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대별 정서적 반응의 차이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거치며 빠른 속도의 사회변화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지 못함에 따라 세대별 이념과 가치관의 차이

가 생겨나게 되었다. 세대 간 갈등은 각 세대가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사회화 경험의 틀 안에서 정치, 문화, 경제 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다르게 형성한 것에 기인한다. 특히 통일과 분단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가 얽혀있는 총체적 사안이며, 정치, 사회적, 역사적 민감성이 큰 만큼 세대 간 갈등의 집합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동안 통일외식의 세대별 차이가 한국 사회의 갈등의 새로운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세대의 이익창출을 제고하는 방법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병조⁵¹는 세대별 통일외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와 통일관련 사건에 따라 변화하므로 젊은 세대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이익창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윤민재⁵²는 민족적 차원이 아닌 현실 상황이 통일 인식에 있어 영향을 미치며 특히 20, 30대의 통일외식에 사회적, 개인적 차원의 이익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남북관계의 부침과 통일외식의 변화 속에서 민족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현실 상황이 통일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통일에 대한 세대별 갈등 해소와 해결 방안이 주로 실리주의적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경제적 부담이 통일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⁵³에서 통일외식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통일외식에 긍

49) 본 연구는 김희정, 김선(2018) 세대별 통일외식과 통일교육: 통일외식조사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6)를 수정 보완한 것임.

50) 조정아, "2030 세대의 통일외식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2030 세대의 통일외식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통일교육원·한국통일교육학회 공동학술회의(2018. 5. 25.)

51) 김병조, "한국인의 통일외식 2007-2015: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통일과 평화』, 제7권 20호(2015), pp. 3-41.

52) 윤민재,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특징: 세대별 통일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8권 5호(2017), pp. 831-850.

53) 백대현, 이재완, "통일외식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통일외식과 비용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25권 2호(2015), pp. 205-224.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이익창출과 통일 편익 위주의 통일 외식은 통일의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편익이 감소하는 부정적 환경이 생길 때 지지를 철회하거나 동력을 상실하기 쉽다.

또 다른 측면으로 젊은 세대의 실리적인 가치체계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인식론적인 통일 논의가 실제로는 젊은 세대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을 수 있음이 지적된다. 이주영⁵⁴은 젊은 세대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정서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20대의 통일외식 제고를 위해 정서적인 민족 당위에 대한 영상 매체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형빈⁵⁵은 전쟁과 분단에 대한 상이한 경험이 코호트간 통일인식 차이를 유발하므로, 타인의 정서를 공유하는 정서 전염과 공감의 개념을 통일교육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세대별 통일외식과 통일교육에서 정서적 접근의 필요성을 조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갈등의 사건과 주체에 대한 집단적 불안과 증오 같은 부정적 반응이 어떻게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최근 해외 연구를 중심으로 다루기 어려운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집단 간의 부정적 정서에 주목하고 있다.⁵⁶ Halperin과 동료

들⁵⁷은 분노와 공포 정서가 갈등 타협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며 정책적 지지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갈등 대상자들이 갈등 타협 과정에서 분노 감정을 느끼게 되면 외집단을 부당하게 그리고 내집단을 강하고 성공적으로 보게 되며 위협을 무릅쓰며 종종 타협을 반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 대중매체 캠페인과 같은 회복적인 행동을 통해 외집단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부정적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노는 오히려 화합에 대한 지지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세대에 따라 동질적으로 혹은 비동질적으로 드러나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지만,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교육과 언론활동에 따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남북한 평화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 뿐 아니라 갈등의 정서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⁵⁸ 6.25 전쟁, 민주화 운동, 천안함 폭침, 연평도 해전과 같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사건 이외에도 IMF, 세월호 사건 등 우리 사회가 경험한 역사적 트라우마는 세대 간 다른 정서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청소년기에 경험한 북한 관련 사건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었다.⁵⁹ 1999년과 2002년 서해해전, 2008년 금강산 방문객 피격사건,

54] 이주영, "통일외식의 세대분화에 관한 연구—20대의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55] 박형빈, "통일교육의 사회신경과학적 교수방법—코호트 (cohort) 통일 정서전염 (emotional contagion) 교육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제46권 (2017), pp. 181-211.

56] Bar-Tal, Daniel, Eran Halperin, and Joseph De Rivera, "Collective emotions in conflict situations: Societal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63, no. 2 (2007), pp. 441-460.

57] Halperin, Eran, Smadar Cohen-Chen, and Amit Goldenberg, "Indirect emotion regulation in intractable conflicts: A new approach to conflict resolution,"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25, no. 1 (2014), pp. 1-31.

58] 김병로, "남북관계의 사건이 통일외식에 미치는 효과," 『통일과 평화』, 제9권 2호 (2017), pp. 157-184.

59] 위의 논문.

2010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 2006년-2017년 사이 발생한 6차례의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실험 등이 그러하다. 또한 1998년-2008년 사이 남북교류협력과 대북 포용정책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도가 있었음에도 2011년 말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 권력 승계 과정에서 빈발한 인권 문제와 뒤따른 지속된 핵개발과 핵도발 등의 결과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회의론과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트라우마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세대별로 다르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관심과 이를 해결하려는 통일교육적 노력과 접근은 그동안 많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사회적으로 형성된 정서가 이후 갈등의 난치한 특성에 영향을 준다⁶⁰는 점에서 분노와 공포와 같은 강렬한 감정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다루기 어려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⁶¹ 과거의 경험, 행동과 회상에서 오는 부정적 감정이 폭력의 주기(cycle)를 영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서 부정적 갈등사건을 주로 목도한 세대가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 느낄 수 있는 불안과 위협감은 통일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서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세대별 통일외식을 정서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통일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세대별 통일외식,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반응, 그리고 통일교육경험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통일교육의 정서적 접근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60] Halperin, Eran, Smadar Cohen-Chen, and Amit Goldenberg. "Indirect emotion regulation in intractable conflicts: A new approach to conflict resolution,"

61] Coleman, Peter T., Jennifer S. Goldman, and Katharina Kugler. "Emotional intractability: Gender, anger, aggression and rumination in conflict."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vol 20, no. 2 (2009), pp. 113-131.

2. 분석방법

세대는 비슷한 연령대 집단을 의미한다. 세대는 국내외 정치상황에 기초하여 전쟁세대, 근대화/산업화 세대, 386/민주화 세대, 탈냉전/정보화 세대, 신자유주의 세대 등으로 구분되어 왔다.⁶² 최근 세대 내에서도 통일 인식의 분화가 존재한다는⁶³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대별 통일외식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은 <표 2-6-1>과 같다. 통일외식은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이유' 문항을 사용하였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반응 중 정서적 반응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감' 문항을, 인식적 반응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문항을 사용하였다. 통일교육경험은 '학교통일교육 경험'과 '학교 외 통일교육 경험'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표 2-6-1> 측정 문항

	구분	문항	비고
통일 인식	통일의 필요성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 이유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62] 서현진, "청소년기 통일교육과 세대 간 통일외식 차이," 『통일문제연구』, 제29권 1호 (2017), pp. 93-127.

63] 김병조, "한국인의 통일외식 2007-2015: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구분	문항	비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반응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서적 반응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적 반응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 교육 경험	학교 통일교육경험	“학교에서 들었던 통일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학교외 통일교육경험	“학교 이외에 종교/시민 단체, 군대, 직장 등에서 들었던 통일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3.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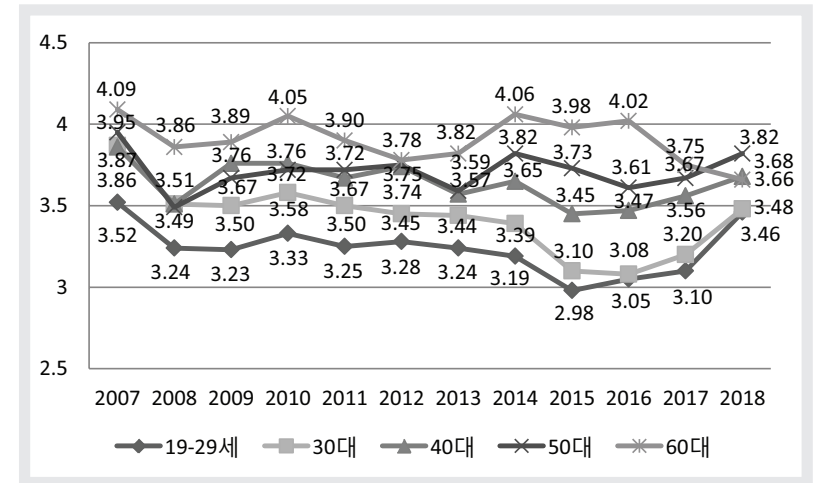
(1)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응답에 대해 1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2점 ‘별로 필요하지 않다’, 3점 ‘반반/그저 그렇다’, 4점 ‘약간 필요하다’, 5점 ‘매우 필요하다’로 통일의 필요성을 측정하였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추이를 살펴본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세대별 순위는 대체적으로 60대>50대>40대>30대>20대로 지속되었다. 그런데 2018년에는 60대 수치가 측정 이후 최초로 50대, 40대보다 하락하면서 연령대별 순위가 50대(3.82)>40대(3.68)>60대(3.66)>30대(3.48)>20대(3.46) 순으로 바뀌는 변화가 나타났다. 20대는 측정기간 동안 세대 중 최저치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 상승하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세대별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2-6-1〉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2007-2018)

(단위: 척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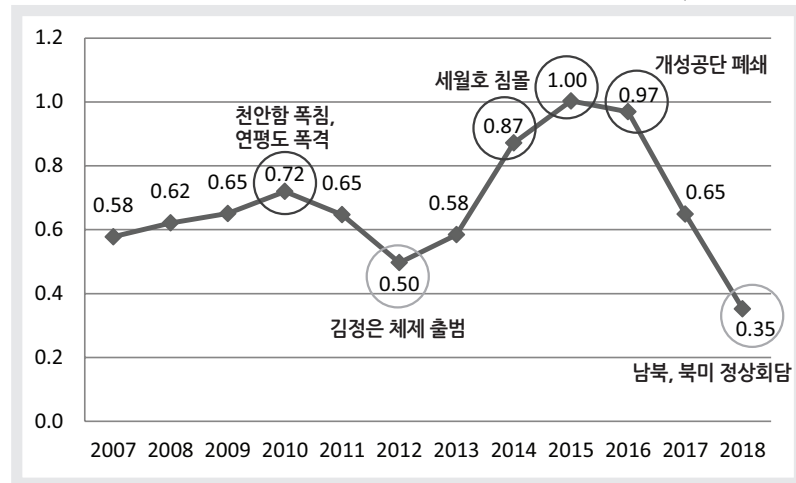
※ 1점 : 전혀 필요하지 않음-5점: 매우 필요함

이러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세대별 격차를 ‘가장 높은 세대의 점수와 가장 낮은 세대의 점수 차’로 설정하고 〈그림 2-6-2〉에서 2007-2018의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60대가 그동안 선두를 지켜왔던 2007-2017년 시기의 수치는 60대와 20대의 점수 차이를, 2018년은 50대와 20대의 점수 차를 의미한다. 결과를 살펴보면, 12년간 점수차의 평균선(M=0.68)을 기준으로 세대별 격차가 평균 이상을 나타냈던 시기는 2010, 2014, 2015, 2016, 2017년으로 나타났다. 평균보다 큰 폭으로 격차가 줄어들었던 시기는 2012년과 2018년이었으며, 2018년은 조사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각 해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정리해보면 2010년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사건으로 김대중 정부 이래 추진했던 햇볕정책을 파기하고 5.24 조치 등李明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인해 사상 최악의 남북관계로 평가받던 해이다. 2014년에는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2016년에는 북한의 빈번한 무력 도발이 있었으며 2월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세대별 격차가 컸던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남북 간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사건이나 국내의 여론이 첨예하게 분열되는 사회적인 갈등 사건이 발발하였다. 이는 갈등 사건이 세대 간 차이를 일으킨다는 김병로⁶⁴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6-2〉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2007-2018)

(단위: 척도 점수)



64] 김병로, "남북관계의 사건이 통일인식에 미치는 효과", 『통일과평화』, 제 9권 2호, (2017), pp.157-184.

반대로 세대별 격차가 평균 이하로 크게 떨어졌던 2012년은 전년도인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2012년 4월 김정은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해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사건은 김일성 주석 사망 사건의 학습효과가 작용하여 남한 사회에 비교적 큰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다. 새롭게 출범한 김정은 정권의 등장, 장성택의 중국방문, 북중간 경제협력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대북인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⁶⁵ 2018년은 20대와 60대의 격차가 줄어들고 수렴되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는데 이 결과는 2018년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조성하였던 사건의 영향으로 보인다. 2012년과 2018년도는 공통적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해라는 점에서 해당 사건들이 세대별 통일 의식 차를 좁히는 시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2018년 통일인식조사가 시기적으로 북미정상회담 진행 이후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세대별 통일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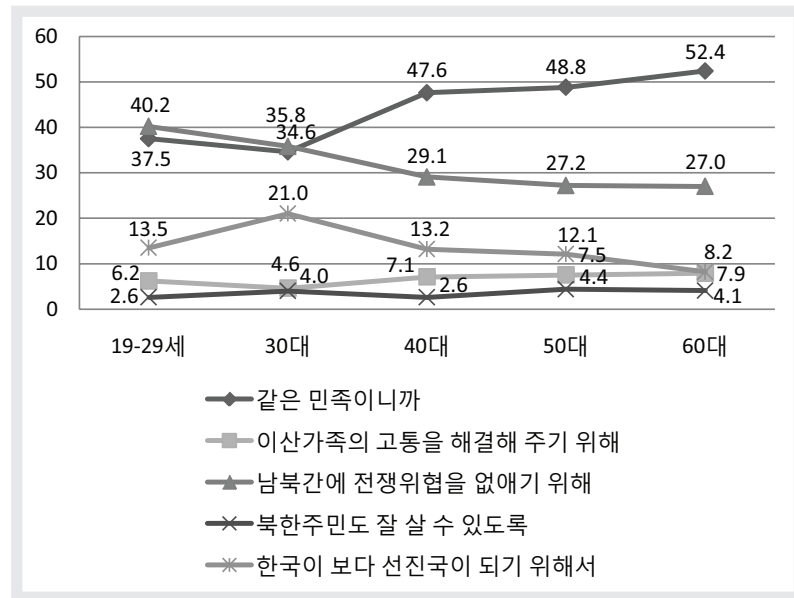
세대별 통일의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40대 이상은 ‘같은 민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20-30대는 ‘남북 전쟁위협 해소’와 ‘같은 민족’의 응답이 근사한 비율이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전쟁위협’을 분단 갈등 요인으로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대가 보이는 남북관계의 물리적 충돌과 전쟁에

65] 위의 논문

대한 높은 수준의 불안이 통일의 동력이 될 수도, 분노 감정으로 이어지는 갈등의 연쇄반응으로 통일에 대한 무력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6-3〉 연령대별 통일의 이유(2018)

(단위: %)



4. 세대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서적, 인식적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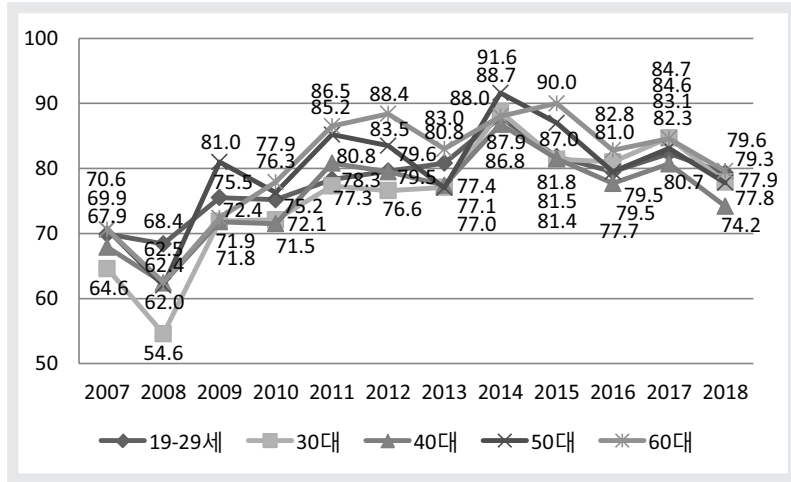
(1) 세대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서적 반응

본 연구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1점 ‘매우 위협을 느낀다’, 2점 ‘다소 위협을 느낀다’로 응답한 수치를 합산하여 ‘위협감을 느낀다’를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2-6-4〉과 같다. 2008년 이후 위협감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 정점을 찍은 후 소폭 줄어들었다. 최근 2년을 살펴보면 2017년 전 연령대에서 80%이상을 나타냈으나 2018년에는 소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8년에 전 연령대에서 70% 이상이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20대와 60대에서는 80%에 가까운 비율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18년 화해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서적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대가 오히려 30대보다 60대와 유사한 응답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20대의 보수화론 지지로 평가되기도 하는데⁶⁶ 이는 20대가 청소년기부터 목격한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부정적 사회현상, 그리고 남북관계로부터 촉발되는 부정적 정서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66] 임성빈, “세대 차이와 통일인식에 대한 신학적 반성,” 『장신논단』, 제46권 2호 (2014), pp.247-270.

〈그림 2-6-4〉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감(2007-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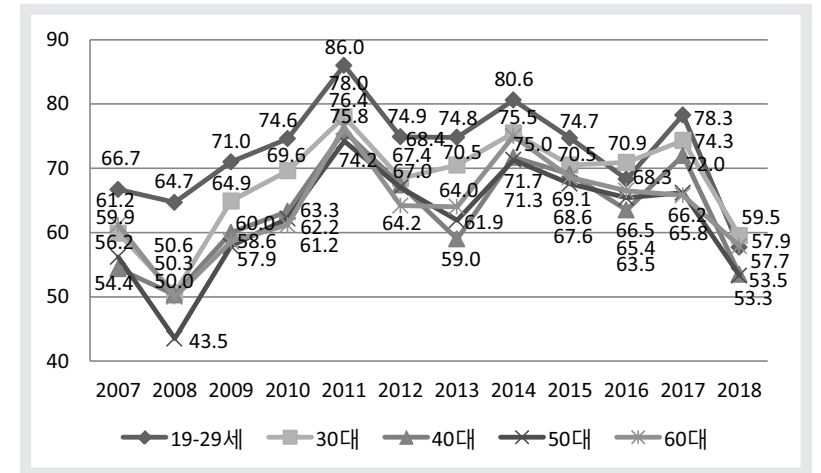
(2) 세대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적 반응

본 연구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적 반응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의 응답으로 1점 ‘많이 있다’, 2점 ‘약간 있다’로 응답한 수치를 합산하여 ‘가능성이 있다’를 측정 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6-5〉와 같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전 연령대에서 2017년 60-70%대를 차지하였으나 올해 50%대로 나타나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연령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가 78.3%에서 57.7%로 20.6%p 줄어들어 전년대비 그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2018년도의 화해 분위기가 젊은층에게 무력도발에 대한 인식

론적 차원에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인지적 차원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과 앞서 살펴본 정서적 차원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감”의 불일치이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적 차원에서 전 연령대가 전년대비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북한에 대한 위협감은 여전히 높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인식적 정서적 반응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림 2-6-5〉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2007-2018)

(단위: %)



이러한 결과는 세대별로 2018년 화해적 사건에 대한 정서적, 인식적 반응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정서적 위협감이 전년대비 3%p 정도만 감소하고 여전히 80% 이상이 위협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는 사실은 20대가 전쟁세대인 60대의 불안과 유사한 수준의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에 대한 불신과 우려

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정서적 차원에서는 2018년 사건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일련의 화해적 사건에도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위협감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는 못했다는 점은 남북관계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더불어 세대별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의 문제임을 간과할 수 없다. 다만 ‘핵무기 보유’ 자체가 ‘무력도발’을 의미하진 않으며 이 두 문항이 다른 차원에서 측정되어 단순비교로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과 정서적 반응의 격차가 통일외식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추후 인식적, 정서적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개발 및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세대별 통일교육 경험

통일교육은 “통일 준비와 동시에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고 발전적인 민주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행해졌다.⁶⁷ 특히 청소년기 통일교육의 경험이 이후 통일외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통일교육지침서의 통일교육 내용은 노무현 정부(2005년), 이명박 정부(2010년), 박근혜 정부(2016년)로의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일부

67] 한만길·오기성·정영순,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9).

표현이나 강조점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의 유사하다.⁶⁸ 그 내용은 통일의 의지 확립, 통일준비 역량 강화,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 민족 공동체 형성 노력, 국가 안보의식, 북한이해이다. 통일 교육은 학생 대상의 학교통일교육과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 성격을 가진 사회통일교육의 양대 축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다.⁶⁹

세대별 통일교육과 통일외식에 대해 서현진⁷⁰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세대로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전쟁경험 세대는 통일이 민족의 숙원과제이며 멸공 통일의 의지를 강화하는 교육을 받아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과 한민족 의식이 높지만, 또한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가장 크다고 보았다. 민주화 세대는 통일이 민족중흥의 사명이란 교육을 받았으며 통일이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이로 인해 통일의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지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세대는 현실적인 통일교육을 받았으며 통일에 대해 냉담하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통일교육과 통일외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주로 변화된 교육 목표와 각 시기에 대한 교육과정 분석이 사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을 경험한 교육주체가 응답한 통일교육 경험이 각 세대의 정서적 반응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 각 세대별 통일교육 경험을 학교와 학교 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68] 김상무, “통일교육의 정의는?,”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KEDI 교육정책포럼 겸 KINU 통일교육 쟁점 공론화 토론회(2018.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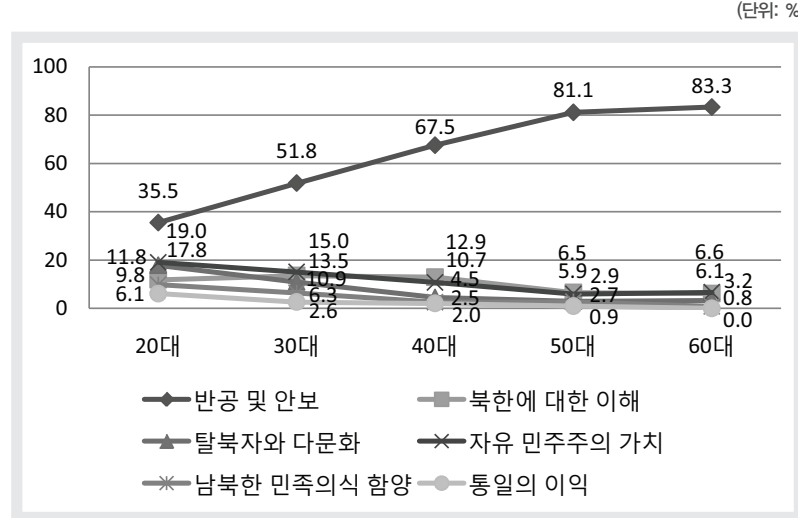
69] 정경환, “제1장 사회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14권 2호(2014), pp. 9-39.

70] 서현진(2017)

(1) 세대별 학교통일교육 경험

세대별 학교통일교육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에서 들었던 통일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세대별 학교통일교육 경험의 결과는 <그림 2-6-6>과 같이 나타났다. 전 연령에서 ‘반공 및 안보’ 교육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순위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북한에 대한 이해 등의 순위로 학교통일교육 경험이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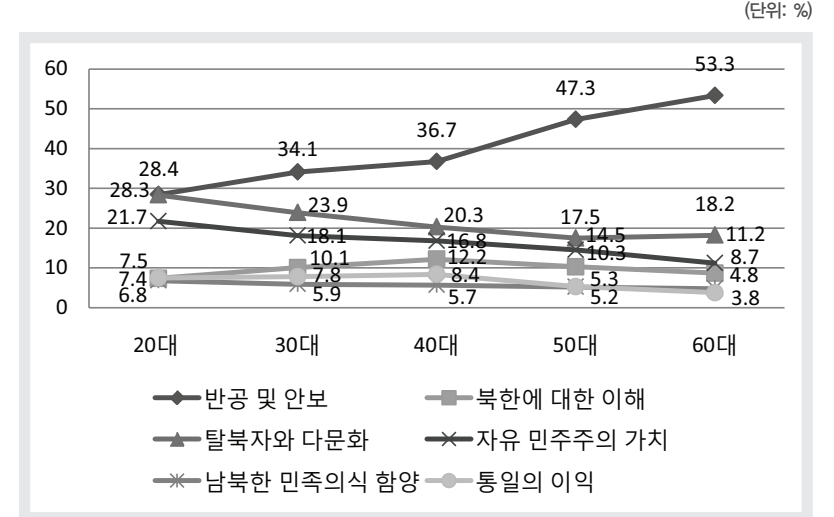
<그림 2-6-6> 세대별 학교통일교육 경험(2018)



(2) 세대별 사회통일교육 경험

세대별 사회통일교육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 이외에 종교/시민 단체, 군대, 직장 등에서 들었던 통일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로 질문을 하였다. 세대별 사회통일교육 경험의 결과는 <그림 2-6-7>과 같다. 사회통일교육 경험 역시 학교 교육과 동일하게 전 연령대에서 반공 및 안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만 학교통일교육 경험과는 달리 반공 및 안보의 비율과 차순위 항목과의 격차가 낮게 나타나 학교 외에서 받았던 통일교육 경험이 좀 더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6-7> 세대별 사회통일교육 경험(2018)



통일교육이 세대를 불문하고 안보 위주로 경험되어 왔다는 점은 통일교육이 오히려 남북 갈등 사건과 북한에 따른 정서 반응에 있어 위협과 불안

을 재생산해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남북이 풀어나가야 할 실질적인 갈등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정서적 화해 및 화합에 대한 고민과 실행이 통일 의식 연구 및 통일 교육의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남북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할 때 담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각 집단이 가진 갈등 경험과 이에 기초한 정서적인 문제를 다루고 개입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통일교육 방법론을 모색할 시점이다.

6. 소결

본 장에서는 통일의식조사의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서적, 인식적 반응, 그리고 통일교육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세대별 정서적 통일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대별 통일인식을 살펴본 결과 남북 간의 갈등이 있던 시기에 세대별 통일의식 격차가 높아지고 화해 무드인 시기에는 그 격차가 줄었으며 남북이 급격한 화해 분위기로 유평한 2018년에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큰 폭으로 줄었다. 또한 젊은 세대는 전쟁 위협의 해소가 통일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결과는 젊은 세대의 불안을 예측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반응을 살펴본 결과 전 연령대에서 북한의 위협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큰 폭으로 줄었지만 핵무기로 인한 정서적 위협감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정서적 반응과 인식적 반응의 격차가 컸다. 이러한 결과는 반공 및 안보 교육이 세대별 통일교육 경험의 주류였던 남한의 교육 현실과도 연결된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 경험을 한 젊은 세대에게 북한의 위협은 통일의 필요성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재생산할 가능성 또한 크다고도 할 수 있다.

2018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차가 줄어든 현상이 20대와 60대의 북한 위협감과 불안으로 인한 것인지, 일련의 화해적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제3의 이유나 다른 변인과의 상호작용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거부터 부정적인 갈등 사건들이 젊은 세대의 통일 필요성과 당위성을 저하시키고 세대 간의 격차 역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또한 젊은 세대에서 높게 나타난 정서적 불안이 공포와 분노 감정과 결합되어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갈등과 폭력의 부정적 주기로 영속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감정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의 부정적 정서가 세대별 통일교육 경험과 관련이 되므로 통일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검토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으로 갈등 사건에 대한 세대별 정서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이 물론 부담스러울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증오’, ‘불안’,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면화하는 것이 심리적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민족 당위성에 대한 잠재적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일 수 있다. 혹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지 않거나 북한의 존재론적 측면과 북한의 행위론적 측면을 구분하지 않은 채로 ‘북한’을 대상화해온 사회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갈등의 중심에 서서 갈등 감정에 직면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부정적 정서가 확인되었다면 세대별로 직접적으로 해당 정서를 스스로 인식하도록 돕고, 불안, 증오, 슬

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수용하도록 하는 접근 방식을 통해, 갈등을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닌 극복해야 할 사건으로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부정적 정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접근은 ‘적대자’로 인식되던 갈등 대상의 입장과 관점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⁷¹⁾ 그러므로 직접적인 정서조절 접근 방식이 역효과를 낼 수 있는 갈등 당사자와 집단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개인적, 집단적 불안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통계검증을 통한 인과적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관련 요인의 관계성을 보다 인과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세대별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구체적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현장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 접근이 세대별 통일의식의 격차를 줄이고, 갈등 사건, 갈등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71) Kupermintz, Haggai, and Gavriel Salomon. "Lessons to be learned from research on peace education in the context of intractable conflict." *Theory into practice*, vol. 44, no. 4 (2005), pp. 293-302.





결 장



결장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2018년은 한반도와 남북관계에 있어 가히 대전환기라 불릴만한 한 해였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새해 신년사에서부터 나타난 변화의 조짐은 이후 문재인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통해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졌고, 때마침 개최된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관계를 급진전시킨 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후 남북 양측은 상호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러한 의지는 4월 판문점에서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훈풍은 비단 남북관계에만 분 것이 아니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적 이해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을 이러한 평화의 바람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의 정상회담을 갖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9월에는 남북의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올 들어 세 번째 만남을 갖는 등 그야말로 대전환적 사건이 연거푸 일어났던 2018년이였다. 물론 이후에 회담의 합의 사항에 대한 이

행 여부를 두고 남과 북, 그리고 미국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기도 하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시범철수 등 일부 사항에 대한 이행 및 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정상 간의 지속적인 회담이 논의 중이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통일의 주체이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국민이 통일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통일에 대한 논의는 그 동력을 상실하기 쉬우며 정책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여론이란 것이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이며, 특히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여론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어디까지 국민의 생각을 바탕으로 통일 논의를 진행시켜야 하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변화하는 통일의식을 제대로 알아야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는 통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 없이 일어나는 통일에 대한 논의는 자칫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올해에는 급변하는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본 의식조사 외에도 여러 다른 기관에서 통일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4월에 실시한 통일연구원의⁷²와 지난 6월에 실시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⁷³를 들 수 있다. 두 조사 모두에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72) 이상신 외,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통일연구원, 2018)

73) 김도희·허석재,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NARS 현안분석』, 14호 (2018).

생각은 긍정적인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이후 매년 통일인식을 조사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의 결과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인식이 예년에 비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본 인식조사는 이들보다는 조금 늦은 시점인 7월 12일부터 8월 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다른 기관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태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주변국에 대한 인식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긍정적인 인식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다소 의외의 결과를 보인 항목도 일부 있었다. 올해 일어난 남북관계의 거대한 변화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보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오히려 이처럼 예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항목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통일에 대한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의 조사에서는 국민들이 통일을 어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물어보았다. 분단 이래 정부에서 추진해 온 통일의 방안들이 모두 남북 간의 제도적 통일을 전제하고 있고 통일교육 역시 그러한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통일은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점차 나라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지역주의와 세계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 역시 다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먼저 통일이란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통일의 상(像)을 물어봄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조사에 담아내고자 했다. 조사 결과, 여전히 다수의 응답자(58.8%)가 통일을 남북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이라 답했다. 하지만 이는 40%가 넘는 응답자가 통일을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통일은 곧 남북이 하나되는 것이라 인식은 더

이상 당연한 명제가 아니란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통일에 대한 접근과 해법 역시 보다 다원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통일에 대한 인식은 올해의 급변한 정세를 반영하듯 예년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난 10년 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통일의 가능시기 역시 '10년 이내'라는 단기적 응답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통일이 남한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 역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특히, 기존에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20대, 30대의 젊은 층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 이상과 보수성향을 가진 집단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세대 간, 정치성향 간 응답의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교체란 사건을 거치며 전반적인 정치적 양극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국내정치적 동향과⁷⁴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커지는 세대 간, 당파 간의 인식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향후 통일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 역시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긍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 또는 북한주민과 북한의 정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즉, 북한주

74] 정동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유권자들의 정치 양극화: 당파적 배열과 부정적 당파성을 중심으로," 『OUGHTOPIA』, 제33권 3호 (2018), pp. 143-180.

민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감을 느끼면서도 북한이라는 정권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에는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이 크게 증가하여,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이 9년 만에 과반을 넘겼다. 특히 이러한 북한에 대한 신뢰 증가는 연령, 지역, 정치적 성향을 초월하여 공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항목도 있었는데 바로 북핵에 대한 태도였다. 국민의 대부분이 여전히 북핵을 위협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는 향후 북한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회복을 통해 남북 간의 교류가 증진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핵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이슈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안보적 위협이란 걸림돌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이러한 전반적인 조사 경향이 유지되었다. 정부의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과반 이상의 국민이 만족함을 표시하고 있고 이러한 만족도는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인도적 지원과 남북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대북제재 등 모든 항목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여,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효용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정치성향에 따라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진보층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에 따른 평가 편향(bias)이 대북정책 분야에서 유난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진보와 보수 간의 차이는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유사

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이념과 당파에 따른 인식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보다 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전히 북핵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90%가 넘는 절대다수의 응답자가 북한의 비핵화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이다. 이는 다른 어떤 쟁점보다 높은 수치로, 국민들이 북핵문제 해결을 통일에 있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정기 회담 개최나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와 같은 아래 수준에서의 교류협력 증진 역시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하나, 북핵 문제가 선결되지 않을 경우 이 모든 정책이 일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따라서 역시나 북핵문제의 해결이 다른 모든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를 가지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나타난 이러한 전반적인 통일의식의 흐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사 이래 처음으로 중국이 북한을 제치고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꼽힌 것이다. 특히 중국을 경계 및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인식 역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예년에 비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악화된 데다,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약화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주변국 가운데 가장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로 중국을 꼽은 데서도 드러났다. 반면, 미국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중국, 미국 등 모든 나라들과의 균형 잡힌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위해 ‘남북, 한미, 한중 간 협력이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이,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 한중 간 협력이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이 어느 한 쪽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오므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방적이기보다 균형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게 나온 것이다. 즉,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북아의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 속에서 선불리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양쪽과의 거리를 신중하게 유지하며 우리가 가진 지정학적 중요성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주변국 인식에서 감정의 차원과 실리의 차원을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올해 나타난 전반적인 남북 간 갈등 완화와 상호 우호인식의 증가 속에서 또 한 가지 두드러지는 결과는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다. 탈북자와 다문화 집단에 대한 인식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된 결과가 그것이다. 이는 통일이란 거대담론이 실제적인 사람 사이의 관계로 내려올 때 양자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통일과 북한에 대한 막연한 태도는 국내적, 국제적 정세의 변화에 이어 좌우될 수 있다. 화해 국면에서 상대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상대와 내가 같이 섞여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통일이란 것이 상부구조에서 일어나는 추상적 사건이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많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통일에 대한 제도적 준비 외에도 서로 간의 다른 생활방식과 가치관, 그리

고 태도에서 나오는 갈등과 통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본 결과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함께 올해에는 국민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인이라는 국민적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이 두 집단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결과,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인종적 특성을 시민적 특성보다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로 시민적 요인들 간의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이는 혈통으로는 같은 한국인이지만 한국 사회에 편입하기 위해 여러 유무형의 관문들을 거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시민적 요인들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두 집단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국민됨의 요소는 바로 언어였다. 남한주민은 한국어 사용을 인종적 요인으로 여기는 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시민적 요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언어적 장벽이 양자 간의 통합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러한 언어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과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을 본 분석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올해 나타난 통일의식의 변화는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일정한 함의를 주었다. 기술하였듯이, 올해 일어난 남북 간의 화해분위기는 전반적인 통일과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시켰는데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여전히 젊은 세대의 북핵과 전쟁에 대한 위협은 큰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분단과 갈등이란 상황 속에서 이들이 경험한 반공 및 안보의 교육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갈등 구조 속에서 그 위협과 공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통일 교육은 오히려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이것이 젊은층의 보수화와 세대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향후의 통일교육은 이러한 갈등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이상 올해 나타난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인식, 대북인식, 주변국 인식 등 조사된 대부분의 항목에서 예년에 비해 긍정적 인식이 많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올해 일어난 남북 및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충분히 예상할 만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조사 이래 처음으로 중국이 북한을 제치고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이 되는 주변국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그만큼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증가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그만큼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위협인식의 감소가 북핵에 대한 위협인식의 감소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여전히 국민들은 북핵에 대하여 경계심을 표시하며 북한의 핵포기 의사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넷째, 탈북자에 대한 태도 또한 과거에 비해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안보적 위협이 제거되고 사회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 못지않게 서로 다른 문화, 생활방식,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통일과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에 있어 안보적, 실리적 관점만을 강조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차

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이질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름 - 특히 본 분석에서 나타난 언어에 대한 다름 등 - 에 대한 상호 이해와 관용의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올 한해 통일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만큼의 큰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부분일 것이다.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듯 통일의식 역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변한다는 점에서 올해의 결과를 통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점이 보다 진정한 국민의 생각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핵에 대한 위협과 불신의 지속, 그리고 이념적, 당파적 성향에 따라 통일에 대한 생각이 양극화되고 있는 것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결과라 할 수 있다. 모든 대화와 협력의 전제 조건이 되는 북핵의 포기가 바람대로 이행되지 않고 이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약화될 경우, 언제라도 북핵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긴장과 화해의 사이클이 반복된 것을 보더라도 작은 불신의 씨앗이 한반도 정세를 다시금 긴장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이는 곧 부정적 통일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올해 나타난 이념적, 당파적 양극화 경향을 생각할 때 더욱 주의를 요한다. 올해 나타난 긍정적 통일의식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반영한 부분도 있지만, 이념적, 당파적 영향을 받은 부분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세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높은 지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견인한 측면이 크다. 이는 바꿔말하면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인 2018년 여름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70% 안팎의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때였다. 하지만 이후 남북 및 북미회담의 합의 사항들이 신속히 이행되지 못하고, 여러 거시 경제 지표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다. 이렇게 정부가 만족할만한 정책성적을 내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한 지지율 하락이 보수층과 반대파들을 집결시킬 뿐 아니라 기존의 지지층마저 이탈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연결되었던 국민들의 통일외식이 향후에는 다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여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힘쓰는 한편, 경제와 같은 다른 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북정책들도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계속하여 그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올해의 조사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글을 마무리하는 시점은 2019년 1월로, 여전히 한반도 정세는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남한과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며 회담의 합의사항들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희망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장기적 비핵화 로드맵을 강조하며 북미정상회담과 뒤이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물론 여전히 양자에는 의견 차가 존재한다. 북한은 국제제재 완화 등 자신들의 핵개발 포기 노력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남한 및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에 따라, 2019년 한국인의 통일외식 역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양

측의 담화에서 나타난 눈에 띄는 공통점은, 남북 모두 경제를 1순위 국정 과제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외치며 민간 부문의 경제발전을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담화의 절반 이상을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할애하였다. 이러한 공통점은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가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교류협력이 일어난다면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길이 남북 모두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럴 때 국민들의 통일외식 역시 기존의 안보적, 민족적, 실용적 담론을 넘어 미래지향적 평화와 번영의 담론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부 록



1. 조사의 기본 설계

1) 표본 설계 (Sample Design)

구 분	내 용
1) 모집단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2) 표본 크기	1,200명 (유효표본)
3)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4) 표본 오차 ^(*)	± 2.8% (95% 신뢰수준)

<주> 【별첨. 표본오차에 관한 보충자료】 참조

<표본 할당>

지역	성별	연령별					소계	합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74세		
서울특별시	남자	19	19	19	18	17	92	191
	여자	20	19	20	20	20	99	
부산광역시	남자	8	7	8	8	9	40	81
	여자	7	7	8	9	10	41	
대구광역시	남자	6	5	7	7	6	31	61
	여자	5	5	7	7	6	30	
인천광역시	남자	7	7	8	8	6	36	71
	여자	6	7	8	8	6	35	
광주광역시	남자	5	4	5	5	4	23	46
	여자	5	4	5	5	4	23	
대전광역시	남자	5	4	5	5	4	23	46
	여자	5	4	5	5	4	23	
울산광역시	남자	4	4	5	5	3	21	40
	여자	3	4	4	5	3	19	
경기도	남자	23	24	28	26	19	120	236
	여자	21	23	27	25	20	116	
강원도	남자	5	4	5	5	5	24	46
	여자	4	3	5	5	5	22	
충청북도	남자	5	4	5	5	5	24	47
	여자	4	4	5	5	5	23	
충청남도(세종)	남자	6	6	7	6	6	31	60
	여자	5	6	6	6	6	29	
전라북도	남자	5	4	6	6	6	27	51
	여자	4	4	5	5	6	24	
전라남도	남자	4	4	5	6	6	25	49
	여자	3	4	5	6	6	24	
경상북도	남자	6	6	7	8	8	35	66
	여자	5	5	6	7	8	31	
경상남도	남자	7	7	9	9	8	40	78
	여자	6	7	8	9	8	38	
제주도	남자	3	3	4	4	3	17	31
	여자	2	3	3	3	3	14	
합계		226	222	264	260	228	1,200	1,200

<주1> 층화변수는 시/도별(16개 수준, 세종시는 충남지역에 포함), 성별(2개 수준), 연령별(5개 수준)로 선정
 <주2> 표본할당은 시/도별 응답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20개 표본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법 적용

2) 실사 설계 (Fieldwork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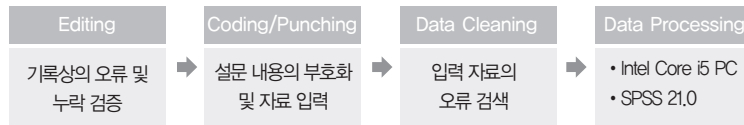
3) 조사 방법 및 기간

구 분	내 용
1) 조사 방법	전문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 (Face-to-Face Interview)
2) 자료 수집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3) 조사 기간	2018년 7월 12일 - 8월 3일 (23일간)

2. 자료 처리

1) 자료 처리 (Data Processing)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를 하였다.



2) 가중치 (Weight)

조사결과는 시/도별(16개 수준), 성별(2개 수준), 연령별(5개 수준)로 모집단(2018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분포를 반영하여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이 일치 하도록 보정하는 가중치 작업 후 분석하였음

〈가중치 산출식〉

- ◎ i :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 (i = 1(서울), 2(부산), ..., 16(제주))
- ◎ j : 성별을 나타내는 첨자 (j = 1(남), 2(여))
- ◎ k : 연령 그룹을 나타내는 첨자 (k = 1(19~29세), 2(30대), ..., 6(70~74세))
-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모집단 인구 수
-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조사된 응답자 수
- ◎ n : 조사된 전체 응답자 수
- ◎ N : 모집단 전체 인구 수
- ◎ W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가중치
- ◎ 총별 최종 가중치 W_{ijk}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함

$$W_{ijk} = \frac{N_{ijk}}{n_{ijk}} \times \frac{n}{N}$$

3. 응답자 특성

구분	조사 표본		가중 표본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200)	100.0	(1,200)	100.0	
성별	남 자	(609)	50.8	(607)	50.5
	여 자	(591)	49.3	(594)	49.5
연령별	19 ~ 29 세	(222)	18.5	(226)	18.8
	30 대	(222)	18.5	(222)	18.5
	40 대	(260)	21.7	(259)	21.6
	50 대	(261)	21.8	(260)	21.7
교육수준별	60대 이상	(235)	19.6	(233)	19.4
	중졸 이하	(117)	9.8	(109)	9.1
	고 졸	(543)	45.3	(560)	46.7
직업별	대재 이상	(540)	45.0	(531)	44.3
	농/수/축산업	(28)	2.3	(22)	1.8
	자 영 업	(323)	26.9	(333)	27.7
	블루칼라	(320)	26.7	(325)	27.1
가구소득수준	화이트칼라	(245)	20.4	(241)	20.1
	전업 주부	(171)	14.3	(170)	14.2
	학생/군인/무직	(113)	9.4	(109)	9.1
	200만원 미만	(81)	6.8	(74)	6.2
지역별	200~299만원	(162)	13.5	(155)	12.9
	300~399만원	(371)	30.9	(374)	31.2
	400만원 이상	(585)	48.8	(596)	49.7
	무응답	(1)	0.1	(1)	0.1
	수 도 권	(497)	41.4	(601)	50.1
	총 청 권	(153)	12.8	(128)	10.6
	호 남 권	(147)	12.3	(116)	9.6
지역 크기	영 남 권	(326)	27.2	(306)	25.5
	강 원	(46)	3.8	(35)	2.9
	제 주	(31)	2.6	(14)	1.2
	대 도 시	(536)	44.7	(542)	45.2
정치적 성향	중 · 소 도 시	(567)	47.3	(567)	47.3
	읍 / 면	(97)	8.1	(90)	7.5
	진 보 적	(406)	33.8	(411)	34.3
종교별	중 도	(585)	48.8	(577)	48.1
	보 수 적	(209)	17.4	(212)	17.7
	불 교	(212)	17.7	(200)	16.6
	기 독 교	(221)	18.4	(232)	19.4
	천 주 교	(45)	3.8	(45)	3.8
	기타	(2)	0.2	(2)	0.1
종교 없음	종교 없음	(686)	57.2	(689)	57.4
	무응답	(34)	2.8	(33)	2.7

〈주〉 가중 표본의 사례 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전체 합계와 다를 수 있음



조사 결과 집계표



표1.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이미지

문) ○○님은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례수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기타	계
		%	%	%	%	%	%
전 체	1200	58.1	14.8	19.3	7.5	0.3	100.0
성별							
남자	607	57.2	15.3	19.2	8.0	0.3	100.0
여자	594	59.0	14.2	19.5	7.0	0.3	100.0
연령별							
19~29세	226	60.9	11.2	17.1	10.3	0.5	100.0
30대	222	52.5	16.9	20.9	9.4	0.3	100.0
40대	259	57.0	17.7	19.0	5.9	0.4	100.0
50대	260	57.4	12.7	23.0	6.9	0.0	100.0
60대	233	62.7	15.3	16.4	5.4	0.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67.2	13.1	13.7	5.2	0.7	100.0
고졸	560	56.8	15.1	21.6	6.1	0.4	100.0
대재 이상	531	57.6	14.7	18.1	9.4	0.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56.2	3.2	29.0	11.6	0.0	100.0
자영업	333	60.9	14.6	17.4	6.6	0.5	100.0
블루 칼라	325	56.4	16.9	19.3	7.1	0.4	100.0
화이트 칼라	241	56.4	15.9	19.3	8.4	0.0	100.0
전업 주부	170	58.4	12.4	23.3	5.9	0.0	100.0
학생/군인/무직	109	58.1	12.8	17.3	11.3	0.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65.5	10.5	18.2	5.8	0.0	100.0
200~299 만원	155	59.2	17.0	20.3	3.5	0.0	100.0
300~399 만원	374	56.1	17.6	20.3	5.9	0.0	100.0
400만원 이상	596	58.2	12.9	18.6	9.8	0.5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53.5	17.7	18.5	10.1	0.2	100.0
충청권	128	68.0	5.9	20.1	5.4	0.6	100.0
호남권	116	64.0	14.0	17.4	4.6	0.0	100.0
영남권	306	61.4	13.6	20.9	3.7	0.3	100.0
강원	35	43.7	13.3	27.8	13.3	2.0	100.0
제주	14	77.3	6.1	9.4	7.1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56.8	14.8	19.3	8.9	0.2	100.0
중/소도시	567	59.9	14.2	18.9	6.5	0.4	100.0
읍/면	90	54.0	18.3	22.5	5.2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56.7	16.8	17.8	8.1	0.5	100.0
중도	577	57.3	14.5	20.7	7.3	0.1	100.0
보수적	212	62.6	11.6	18.7	6.7	0.3	100.0
종교							
불교	200	56.6	15.7	21.8	5.9	0.0	100.0
기독교	232	57.7	13.4	15.4	13.0	0.5	100.0
천주교	45	49.2	20.5	21.3	9.0	0.0	100.0
기타	2	50.6	0.0	49.4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59.1	14.6	19.6	6.4	0.4	100.0
모름/무응답	33	61.5	15.0	23.4	0.0	0.0	100.0

표2.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 하다	② 약간 필요 하다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별로 필요 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1.4	38.4	59.7	24.1	13.5	2.6	16.1	100.0
성별									
남자	607	25.9	36.7	62.5	21.7	13.7	2.0	15.7	100.0
여자	594	16.8	40.1	56.9	26.6	13.4	3.2	16.6	100.0
연령별									
19~29세	226	13.3	40.8	54.2	28.3	14.0	3.6	17.6	100.0
30대	222	17.3	35.6	52.9	27.4	17.5	2.3	19.7	100.0
40대	259	23.2	35.4	58.7	26.4	13.8	1.1	14.9	100.0
50대	260	27.2	42.2	69.4	16.0	13.3	1.2	14.5	100.0
60대	233	24.6	37.5	62.1	23.4	9.3	5.2	14.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21.0	46.0	67.0	22.3	6.4	4.3	10.7	100.0
고졸	560	19.5	37.4	56.9	25.2	15.7	2.3	17.9	100.0
대재 이상	531	23.5	37.7	61.3	23.4	12.8	2.6	15.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7.5	37.3	64.7	20.4	3.9	11.0	14.9	100.0
자영업	333	25.8	34.5	60.3	21.4	15.9	2.4	18.3	100.0
블루 칼라	325	17.4	43.2	60.6	24.7	12.6	2.2	14.7	100.0
화이트 칼라	241	24.3	37.4	61.8	22.3	13.6	2.4	16.0	100.0
전업 주부	170	18.0	42.5	60.5	24.7	11.5	3.3	14.8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7.6	31.3	48.9	34.5	14.5	2.1	16.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6.5	40.7	67.2	21.6	7.9	3.3	11.2	100.0
200~299 만원	155	24.2	33.0	57.2	28.7	8.6	5.4	14.1	100.0
300~399 만원	374	17.3	38.5	55.8	26.0	16.1	2.1	18.2	100.0
400만원 이상	596	22.6	39.3	61.9	22.1	13.9	2.1	16.0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3.7	38.3	61.9	21.8	13.7	2.6	16.2	100.0
충청권	128	29.6	29.7	59.4	24.6	12.0	4.0	16.0	100.0
호남권	116	25.1	41.0	66.0	24.2	9.1	0.7	9.8	100.0
영남권	306	9.0	41.3	50.3	29.5	17.1	3.1	20.1	100.0
강원	35	45.9	37.2	83.1	12.9	4.0	0.0	4.0	100.0
제주	14	27.7	36.7	64.3	26.0	6.6	3.1	9.7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21.0	41.1	62.0	23.2	12.6	2.2	14.8	100.0
중/소도시	567	20.9	36.8	57.7	26.0	13.9	2.4	16.3	100.0
읍/면	90	27.1	31.6	58.7	18.2	16.8	6.3	23.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7.5	39.1	66.6	21.8	10.0	1.6	11.6	100.0
중도	577	16.5	40.8	57.3	26.4	13.1	3.2	16.2	100.0
보수적	212	22.7	30.2	53.0	22.4	21.8	2.9	24.7	100.0
종교									
불교	200	18.5	42.1	60.6	22.7	13.2	3.4	16.6	100.0
기독교	232	23.9	37.6	61.5	23.4	13.1	2.0	15.1	100.0
천주교	45	23.2	30.1	53.3	29.4	17.3	0.0	17.3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21.3	37.7	59.0	24.3	13.9	2.9	16.8	100.0
모름/무응답	33	19.8	45.5	65.3	28.6	6.1	0.0	6.1	100.0

표3.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문)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사례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 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계	
		%	%	%	%		
전 체	1200	9,7	68,0	16,8	5,5	100,0	
성별	남자	607	11,7	66,7	16,7	4,8	100,0
	여자	594	7,6	69,3	16,8	6,3	100,0
연령별	19~29세	226	7,3	64,4	18,0	10,2	100,0
	30대	222	7,2	69,6	18,8	4,4	100,0
	40대	259	11,4	63,9	18,8	5,9	100,0
	50대	260	12,6	70,2	13,8	3,4	100,0
	60대	233	9,4	72,0	14,7	3,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2,5	69,5	13,7	4,4	100,0
	고졸	560	9,7	66,3	18,6	5,5	100,0
	대재 이상	531	9,1	69,5	15,5	5,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4,6	57,6	17,7	10,1	100,0
	자영업	333	9,9	71,1	14,6	4,4	100,0
	블루 칼라	325	11,3	66,1	17,3	5,3	100,0
	화이트 칼라	241	10,3	68,7	14,9	6,1	100,0
	전업 주부	170	5,9	68,0	21,3	4,8	100,0
	학생/군인/무직	109	8,1	64,8	18,6	8,6	100,0
	200만원 미만	74	13,4	71,6	14,0	1,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11,9	62,2	20,6	5,3	100,0
	300~399 만원	374	7,9	70,0	15,4	6,7	100,0
	400만원 이상	596	9,8	67,7	17,0	5,4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8,9	72,2	15,7	3,3	100,0
	충청권	128	12,3	73,5	12,7	1,5	100,0
	호남권	116	17,7	65,3	10,4	6,6	100,0
	영남권	306	8,4	55,7	24,0	11,9	100,0
	강원	35	4,3	89,7	6,0	0,0	100,0
	제주	14	0,0	73,7	19,6	6,8	100,0
	대도시	542	10,9	66,7	16,7	5,6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8,5	69,9	16,7	4,8	100,0
	읍/면	90	10,0	63,3	17,2	9,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1,5	71,5	13,1	3,9	100,0
	중도	577	7,9	66,6	19,2	6,3	100,0
	보수적	212	11,1	64,9	17,3	6,8	100,0
종교	불교	200	10,5	65,8	19,2	4,4	100,0
	기독교	232	9,1	74,2	13,4	3,3	100,0
	천주교	45	11,8	63,4	22,1	2,7	100,0
	기타	2	49,4	50,6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9,0	67,7	16,8	6,5	100,0
	모름/무응답	33	19,9	50,5	18,0	11,6	100,0

표4.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계	
		%	%	%	%	%	%		
전 체	1200	6,3	25,7	28,0	13,3	12,5	14,0	100,0	
성별	남자	607	5,4	24,2	29,2	14,9	13,0	13,2	100,0
	여자	594	7,3	27,3	26,9	11,7	12,0	14,9	100,0
연령별	19~29세	226	3,8	25,0	30,9	13,9	11,2	15,1	100,0
	30대	222	4,9	16,5	33,2	15,9	13,7	15,8	100,0
	40대	259	6,9	31,4	23,9	11,7	15,0	11,2	100,0
	50대	260	7,2	28,9	25,1	14,2	11,0	13,6	100,0
	60대	233	8,6	25,4	28,2	11,3	11,7	14,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0,4	20,4	26,0	13,7	15,1	14,3	100,0
	고졸	560	7,1	25,7	26,2	11,7	13,2	16,2	100,0
	대재 이상	531	4,8	26,9	30,4	14,9	11,3	11,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6	11,5	33,3	7,5	18,9	25,1	100,0
	자영업	333	9,1	28,0	24,3	12,8	12,1	13,6	100,0
	블루 칼라	325	5,4	24,6	26,8	14,2	12,0	17,0	100,0
	화이트 칼라	241	4,4	27,8	36,0	11,3	9,8	10,7	100,0
	전업 주부	170	7,3	24,0	27,9	15,2	14,9	10,7	100,0
	학생/군인/무직	109	3,9	23,1	24,8	15,2	16,4	16,6	100,0
	200만원 미만	74	9,0	19,6	24,2	16,0	19,0	12,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7,4	21,2	30,9	13,0	11,6	15,9	100,0
	300~399 만원	374	6,9	25,2	25,8	13,6	12,6	16,0	100,0
	400만원 이상	596	5,4	28,0	29,2	12,9	12,0	12,5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5,7	30,0	29,6	11,1	13,3	10,4	100,0
	충청권	128	6,5	29,4	25,6	13,5	12,7	12,4	100,0
	호남권	116	8,7	22,4	28,8	15,7	8,2	16,2	100,0
	영남권	306	7,0	15,9	25,7	16,6	12,9	21,9	100,0
	강원	35	6,6	39,6	24,4	14,8	8,1	6,6	100,0
	제주	14	0,0	19,3	38,1	11,1	18,6	12,9	100,0
	대도시	542	7,1	25,2	30,7	11,7	10,9	14,4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5,9	26,3	27,6	13,9	12,9	13,5	100,0
	읍/면	90	5,1	25,8	14,8	19,5	19,7	15,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6,8	25,5	31,2	12,6	11,6	12,3	100,0
	중도	577	5,6	27,2	28,2	14,2	11,2	13,6	100,0
	보수적	212	7,4	22,4	21,2	12,4	18,0	18,6	100,0
종교	불교	200	9,3	25,6	24,5	12,6	11,7	16,2	100,0
	기독교	232	7,5	32,2	28,5	11,7	11,4	8,6	100,0
	천주교	45	12,0	31,9	28,3	7,7	5,4	14,7	100,0
	기타	2	49,4	50,6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4,7	23,2	29,2	14,7	13,4	14,9	100,0
	모름/무응답	33	3,9	24,6	23,2	9,2	18,8	20,4	100,0

표5-1.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㉞ 정기적인 남북 간 회담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7.8	57.7	75.5	23.3	1.2	24.5	100.0	
성별	남자	607	19.6	57.9	77.5	21.2	1.4	22.5	100.0
	여자	594	15.9	57.6	73.5	25.4	1.1	26.5	100.0
연령별	19~29세	226	15.4	57.1	72.5	25.8	1.7	27.5	100.0
	30대	222	16.2	61.8	78.0	21.2	0.9	22.0	100.0
	40대	259	21.6	54.4	76.0	22.4	1.6	24.0	100.0
	50대	260	19.4	59.4	78.8	20.5	0.6	21.2	100.0
	60대	233	15.6	56.3	71.8	26.9	1.2	28.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5.0	62.7	77.7	20.4	1.9	22.3	100.0
	고졸	560	17.0	56.9	73.9	25.4	0.7	26.1	100.0
	대재 이상	531	19.2	57.6	76.8	21.6	1.6	23.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7.4	61.9	79.2	11.2	9.6	20.8	100.0
	자영업	333	16.5	59.2	75.7	23.7	0.6	24.3	100.0
	블루 칼라	325	17.4	61.0	78.3	20.3	1.3	21.7	100.0
	화이트 칼라	241	20.5	54.4	74.9	23.5	1.6	25.1	100.0
	전업 주부	170	17.5	52.9	70.4	28.6	1.0	29.6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7.5	57.5	75.0	24.4	0.6	25.0	100.0
	200만원 미만	74	10.3	68.4	78.7	19.0	2.2	21.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24.2	57.2	81.4	17.3	1.3	18.6	100.0
	300~399 만원	374	15.2	60.8	75.9	24.1	0.0	24.1	100.0
	400만원 이상	596	18.7	54.7	73.4	24.8	1.8	26.6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수도권	601	14.3	60.2	74.6	24.2	1.3	25.4	100.0
지역별	충청권	128	31.6	52.0	83.6	16.4	0.0	16.4	100.0
	호남권	116	30.2	57.6	87.8	10.8	1.4	12.2	100.0
	영남권	306	11.2	57.1	68.4	31.0	0.6	31.6	100.0
	강원	35	35.4	44.9	80.2	10.7	9.0	19.8	100.0
	제주	14	35.6	48.5	84.1	12.7	3.3	15.9	100.0
	대도시	542	16.4	59.2	75.6	23.6	0.8	24.4	100.0
	중/소도시	567	18.1	58.3	76.4	21.8	1.8	23.6	100.0
지역 크기별	읍/면	90	24.0	45.0	69.1	30.4	0.5	30.9	100.0
	진보적	411	20.9	58.0	78.9	19.7	1.4	21.1	100.0
	중도	577	14.9	59.9	74.8	24.2	1.0	25.2	100.0
정치적 성향	보수적	212	19.6	51.2	70.9	27.8	1.3	29.1	100.0
	불교	200	14.6	58.6	73.2	26.2	0.6	26.8	100.0
	기독교	232	20.9	55.4	76.3	23.2	0.6	23.7	100.0
종교	천주교	45	18.1	46.9	65.0	31.3	3.7	35.0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7.7	58.5	76.3	22.3	1.4	23.7	100.0
	모름/무응답	33	14.0	67.6	81.6	15.9	2.5	18.4	100.0

표5-2.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㉟ 군사적 긴장 해소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0.3	46.2	86.4	11.9	1.7	13.6	100.0	
성별	남자	607	39.5	47.1	86.6	11.8	1.6	13.4	100.0
	여자	594	41.1	45.1	86.3	12.0	1.7	13.7	100.0
연령별	19~29세	226	44.3	41.9	86.2	11.8	2.0	13.8	100.0
	30대	222	42.6	46.6	89.1	9.6	1.2	10.9	100.0
	40대	259	36.3	47.7	84.0	14.1	1.9	16.0	100.0
	50대	260	45.1	43.1	88.1	11.5	0.4	11.9	100.0
	60대	233	33.4	51.6	85.0	12.1	2.9	15.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32.8	56.7	89.5	8.2	2.3	10.5	100.0
	고졸	560	40.1	46.3	86.4	11.7	1.8	13.6	100.0
	대재 이상	531	42.0	43.8	85.8	12.8	1.4	14.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1.1	57.9	79.0	9.4	11.5	21.0	100.0
	자영업	333	37.5	48.4	85.8	12.3	1.9	14.2	100.0
	블루 칼라	325	38.1	50.3	88.3	10.6	1.0	11.7	100.0
	화이트 칼라	241	44.1	42.0	86.2	12.2	1.6	13.8	100.0
	전업 주부	170	43.9	43.6	87.5	10.9	1.6	12.5	100.0
	학생/군인/무직	109	45.3	37.8	83.1	15.6	1.3	16.9	100.0
	200만원 미만	74	35.1	54.5	89.6	8.1	2.3	10.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44.8	42.8	87.7	11.2	1.1	12.3	100.0
	300~399 만원	374	36.9	48.9	85.8	13.2	1.0	14.2	100.0
	400만원 이상	596	41.9	44.3	86.2	11.6	2.2	13.8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수도권	601	37.2	50.7	87.9	10.2	1.8	12.1	100.0
지역별	충청권	128	42.7	40.4	83.0	16.4	0.6	17.0	100.0
	호남권	116	53.4	37.7	91.0	7.6	1.4	9.0	100.0
	영남권	306	36.2	47.0	83.2	15.1	1.7	16.8	100.0
	강원	35	76.0	8.8	84.8	11.3	3.9	15.2	100.0
	제주	14	42.4	48.2	90.5	9.5	0.0	9.5	100.0
	대도시	542	41.9	45.3	87.2	11.3	1.5	12.8	100.0
	중/소도시	567	38.8	48.4	87.2	11.0	1.7	12.8	100.0
지역 크기별	읍/면	90	40.2	37.1	77.3	20.6	2.1	22.7	100.0
	진보적	411	45.5	41.6	87.1	11.7	1.2	12.9	100.0
	중도	577	38.4	49.3	87.7	11.0	1.3	12.3	100.0
정치적 성향	보수적	212	35.1	46.6	81.8	14.8	3.5	18.2	100.0
	불교	200	36.6	47.1	83.7	14.3	2.0	16.3	100.0
	기독교	232	41.8	47.2	89.0	10.4	0.6	11.0	100.0
종교	천주교	45	44.4	36.8	81.2	13.9	4.8	18.8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39.7	46.9	86.6	11.6	1.8	13.4	100.0
	모름/무응답	33	58.5	30.0	88.6	11.4	0.0	11.4	100.0

표5-3.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5.9	18.4	24.3	53.0	22.7	75.7	100.0
성별								
남자	607	5.2	18.6	23.8	51.5	24.6	76.2	100.0
여자	594	6.6	18.1	24.7	54.5	20.8	75.3	100.0
연령별								
19~29세	226	3.3	17.1	20.3	55.3	24.4	79.7	100.0
30대	222	7.0	19.7	26.7	54.8	18.5	73.3	100.0
40대	259	7.0	20.4	27.4	54.4	18.2	72.6	100.0
50대	260	5.3	16.7	22.1	57.3	20.7	77.9	100.0
60대	233	6.8	18.0	24.8	42.8	32.5	75.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8.5	24.0	32.5	41.0	26.5	67.5	100.0
고졸	560	4.3	17.7	22.0	55.6	22.4	78.0	100.0
대재 이상	531	7.0	18.0	25.0	52.7	22.3	7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6.6	26.9	33.6	36.9	29.5	66.4	100.0
자영업	333	3.0	13.6	16.6	56.3	27.1	83.4	100.0
블루 칼라	325	6.5	21.2	27.7	50.8	21.5	72.3	100.0
화이트 칼라	241	8.3	19.5	27.8	51.9	20.3	72.2	100.0
전업 주부	170	8.7	19.0	27.7	52.8	19.5	72.3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8	19.5	22.4	55.5	22.1	77.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6.3	22.5	28.9	51.6	19.5	71.1	100.0
200~299 만원	155	8.8	25.3	34.0	46.1	19.9	66.0	100.0
300~399 만원	374	5.7	19.4	25.1	54.9	20.0	74.9	100.0
400만원 이상	596	5.2	15.3	20.6	53.9	25.6	79.4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3.5	12.8	16.3	61.0	22.7	83.7	100.0
충청권	128	9.1	19.7	28.8	48.3	22.9	71.2	100.0
호남권	116	11.3	29.9	41.2	39.5	19.3	58.8	100.0
영남권	306	6.9	24.8	31.7	45.6	22.7	68.3	100.0
강원	35	6.6	15.1	21.7	45.8	32.6	78.3	100.0
제주	14	7.0	21.6	28.6	46.1	25.3	71.4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4.1	18.4	22.4	53.4	24.2	77.6	100.0
중/소도시	567	7.5	17.6	25.0	53.3	21.7	75.0	100.0
읍/면	90	6.9	23.6	30.5	49.1	20.4	69.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5.8	19.3	25.1	56.7	18.1	74.9	100.0
중도	577	5.9	19.3	25.3	53.2	21.5	74.7	100.0
보수적	212	5.8	14.0	19.8	45.1	35.1	80.2	100.0
종교								
불교	200	5.8	23.4	29.2	47.3	23.5	70.8	100.0
기독교	232	7.3	13.1	20.4	52.7	26.9	79.6	100.0
천주교	45	4.8	21.3	26.0	59.4	14.6	74.0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5.6	17.8	23.4	54.8	21.9	76.6	100.0
모름/무응답	33	4.5	29.9	34.4	46.8	18.8	65.6	100.0

표5-4.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2.8	51.9	74.7	23.5	1.8	25.3	100.0
성별								
남자	607	22.4	52.7	75.1	23.7	1.2	24.9	100.0
여자	594	23.1	51.2	74.3	23.3	2.4	25.7	100.0
연령별								
19~29세	226	20.9	51.8	72.7	23.7	3.7	27.3	100.0
30대	222	29.6	43.8	73.4	25.2	1.4	26.6	100.0
40대	259	19.0	55.4	74.5	24.1	1.4	25.5	100.0
50대	260	22.1	53.7	75.7	23.6	0.7	24.3	100.0
60대	233	22.9	54.1	77.1	21.0	2.0	22.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24.1	55.1	79.2	18.5	2.3	20.8	100.0
고졸	560	19.4	54.7	74.1	24.7	1.2	25.9	100.0
대재 이상	531	26.0	48.4	74.4	23.3	2.3	25.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0.2	51.5	81.7	10.7	7.6	18.3	100.0
자영업	333	19.8	51.3	71.1	27.6	1.3	28.9	100.0
블루 칼라	325	19.4	56.2	75.7	23.0	1.3	24.3	100.0
화이트 칼라	241	29.5	46.4	75.9	22.0	2.1	24.1	100.0
전업 주부	170	25.9	51.7	77.6	21.2	1.3	22.4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0.3	54.0	74.3	21.8	3.8	25.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3.5	52.3	75.8	21.9	2.3	24.2	100.0
200~299 만원	155	25.4	52.2	77.6	20.8	1.6	22.4	100.0
300~399 만원	374	20.8	55.4	76.2	23.1	0.7	23.8	100.0
400만원 이상	596	23.2	49.6	72.9	24.7	2.5	27.1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6.6	56.6	73.2	25.4	1.5	26.8	100.0
충청권	128	45.9	40.2	86.1	13.3	0.6	13.9	100.0
호남권	116	33.1	46.9	79.9	18.7	1.4	20.1	100.0
영남권	306	17.0	51.7	68.7	28.4	2.9	31.3	100.0
강원	35	47.8	39.2	87.0	8.8	4.3	13.0	100.0
제주	14	52.2	41.0	93.2	6.8	0.0	6.8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9.5	55.3	74.8	24.2	1.0	25.2	100.0
중/소도시	567	24.9	49.3	74.2	23.2	2.6	25.8	100.0
읍/면	90	28.6	48.6	77.1	21.5	1.4	22.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4.9	52.6	77.5	21.2	1.3	22.5	100.0
중도	577	21.6	52.0	73.6	24.4	2.0	26.4	100.0
보수적	212	21.9	50.4	72.3	25.5	2.1	27.7	100.0
종교								
불교	200	29.9	52.4	82.3	16.3	1.4	17.7	100.0
기독교	232	24.1	51.7	75.8	22.8	1.4	24.2	100.0
천주교	45	23.3	48.8	72.1	25.1	2.8	27.9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9.7	52.6	72.3	25.8	1.9	27.7	100.0
모름/무응답	33	29.5	44.0	73.5	23.7	2.9	26.5	100.0

표5-5.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북한의 개방과 개혁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4.1	53.2	77.3	21.0	1.7	22.7	100.0	
성별	남자	607	23.6	55.5	79.1	19.1	1.8	20.9	100.0
	여자	594	24.6	50.8	75.5	22.9	1.6	24.5	100.0
연령별	19~29세	226	23.2	56.4	79.6	17.9	2.5	20.4	100.0
	30대	222	27.9	49.5	77.3	21.3	1.3	22.7	100.0
	40대	259	23.9	52.1	76.0	21.7	2.3	24.0	100.0
	50대	260	26.4	54.3	80.7	18.4	1.0	19.3	100.0
	60대	233	19.2	53.5	72.7	25.9	1.4	27.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20.9	55.7	76.6	20.7	2.7	23.4	100.0
	고졸	560	21.7	54.6	76.3	22.7	1.0	23.7	100.0
	대재 이상	531	27.4	51.1	78.5	19.3	2.2	21.5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2.2	43.1	75.3	18.9	5.8	24.7	100.0
	자영업	333	21.8	52.4	74.2	24.9	0.9	25.8	100.0
	블루 칼라	325	23.9	59.4	83.4	15.4	1.2	16.6	100.0
	화이트 칼라	241	28.9	45.2	74.0	22.7	3.3	26.0	100.0
	전업 주부	170	19.7	57.0	76.7	21.7	1.6	23.3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6.6	50.6	77.2	21.5	1.3	22.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8.4	57.6	76.0	21.9	2.1	24.0	100.0
	200~299 만원	155	23.0	55.2	78.2	19.8	2.0	21.8	100.0
	300~399 만원	374	24.0	54.9	78.9	19.9	1.3	21.1	100.0
	400만원 이상	596	25.3	51.1	76.4	21.8	1.8	23.6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7.6	57.0	74.6	23.7	1.6	25.4	100.0
	충청권	128	34.0	51.5	85.4	13.3	1.2	14.6	100.0
	호남권	116	41.6	42.8	84.4	13.5	2.2	15.6	100.0
	영남권	306	24.0	51.9	75.9	22.8	1.2	24.1	100.0
	강원	35	35.0	43.2	78.2	15.8	6.0	21.8	100.0
	제주	14	42.9	43.5	86.4	10.4	3.3	13.6	100.0
	대도시	542	23.8	56.7	80.5	18.3	1.2	19.5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24.4	51.3	75.7	22.0	2.3	24.3	100.0
	읍/면	90	24.0	44.3	68.3	31.1	0.5	31.7	100.0
	진보적	411	27.1	55.5	82.7	16.5	0.9	17.3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77	23.0	52.1	75.1	23.1	1.7	24.9	100.0
	보수적	212	21.2	51.6	72.8	24.1	3.2	27.2	100.0
	불교	200	26.5	56.1	82.6	15.8	1.6	17.4	100.0
종교	기독교	232	21.5	50.5	72.1	27.4	0.6	27.9	100.0
	천주교	45	18.8	40.3	59.1	38.1	2.8	40.9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25.0	53.4	78.4	19.5	2.1	21.6	100.0
	모름/무응답	33	16.1	67.2	83.3	16.7	0.0	16.7	100.0

표5-6.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㉕ 북한의 인권 개선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5.2	48.3	83.5	15.2	1.3	16.5	100.0	
성별	남자	607	35.1	49.2	84.3	14.9	0.8	15.7	100.0
	여자	594	35.3	47.4	82.7	15.5	1.8	17.3	100.0
연령별	19~29세	226	36.4	46.2	82.5	15.7	1.7	17.5	100.0
	30대	222	33.0	50.3	83.4	14.9	1.7	16.6	100.0
	40대	259	33.7	49.7	83.4	14.9	1.7	16.6	100.0
	50대	260	37.6	47.8	85.4	14.6	0.0	14.6	100.0
	60대	233	35.1	47.5	82.6	15.9	1.5	17.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37.7	48.2	85.9	12.9	1.2	14.1	100.0
	고졸	560	32.5	51.1	83.6	15.5	1.0	16.4	100.0
	대재 이상	531	37.5	45.4	82.9	15.4	1.7	17.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59.4	27.4	86.8	7.3	5.8	13.2	100.0
	자영업	333	35.0	49.0	84.0	15.0	1.0	16.0	100.0
	블루 칼라	325	34.7	51.8	86.5	12.7	0.8	13.5	100.0
	화이트 칼라	241	35.8	44.7	80.4	17.5	2.1	19.6	100.0
	전업 주부	170	32.7	48.3	81.0	16.9	2.0	19.0	100.0
	학생/군인/무직	109	35.3	47.6	82.9	17.1	0.0	17.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34.9	48.2	83.1	15.8	1.1	16.9	100.0
	200~299 만원	155	32.8	51.9	84.7	15.0	0.3	15.3	100.0
	300~399 만원	374	33.4	49.0	82.4	16.7	0.9	17.6	100.0
	400만원 이상	596	37.0	46.9	83.9	14.3	1.8	16.1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8.1	52.9	81.0	16.9	2.1	19.0	100.0
	충청권	128	55.3	36.9	92.2	7.8	0.0	7.8	100.0
	호남권	116	53.0	37.4	90.4	8.2	1.4	9.6	100.0
	영남권	306	30.6	50.9	81.5	18.2	0.3	18.5	100.0
	강원	35	59.8	26.2	86.0	14.0	0.0	14.0	100.0
	제주	14	48.4	41.8	90.2	6.5	3.3	9.8	100.0
	대도시	542	31.6	54.0	85.6	13.4	1.0	14.4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38.3	44.5	82.7	15.8	1.5	17.3	100.0
	읍/면	90	37.8	37.9	75.8	22.3	1.9	24.2	100.0
	진보적	411	36.4	47.3	83.7	15.4	0.9	16.3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77	34.7	49.8	84.5	14.1	1.4	15.5	100.0
	보수적	212	34.3	46.1	80.4	17.8	1.7	19.6	100.0
	불교	200	35.4	50.0	85.3	12.9	1.7	14.7	100.0
종교	기독교	232	33.3	50.2	83.5	15.9	0.6	16.5	100.0
	천주교	45	38.2	37.3	75.6	18.9	5.6	24.4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35.9	47.4	83.4	15.4	1.2	16.6	100.0
	모름/무응답	33	28.0	57.1	85.1	14.9	0.0	14.9	100.0

표5-7.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북한 비핵화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62.9	27.7	90.6	8.1	1.2	9.4	100.0	
성별	남자	607	60.2	30.4	90.6	8.5	0.9	9.4	100.0
	여자	594	65.6	25.0	90.6	7.8	1.6	9.4	100.0
연령별	19~29세	226	64.7	23.6	88.3	10.1	1.6	11.7	100.0
	30대	222	63.4	30.9	94.3	4.4	1.3	5.7	100.0
	40대	259	63.2	26.0	89.1	8.8	2.0	10.9	100.0
	50대	260	62.1	27.9	90.0	9.9	0.2	10.0	100.0
	60대	233	61.1	30.5	91.7	7.2	1.2	8.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61.9	28.8	90.8	8.0	1.2	9.2	100.0
	고졸	560	63.3	27.6	90.9	8.2	1.0	9.1	100.0
	대재 이상	531	62.6	27.7	90.3	8.2	1.5	9.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44.4	36.9	81.3	11.0	7.7	18.7	100.0
	자영업	333	62.8	26.1	89.0	10.4	0.6	11.0	100.0
	블루 칼라	325	64.7	27.6	92.3	6.8	0.9	7.7	100.0
	화이트 칼라	241	59.6	30.3	89.9	7.7	2.4	10.1	100.0
	전업 주부	170	65.7	24.7	90.4	8.7	0.9	9.6	100.0
	학생/군인/무직	109	64.2	30.3	94.5	4.6	0.9	5.5	100.0
	200만원 미만	74	53.2	37.0	90.2	8.7	1.1	9.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58.2	33.0	91.2	7.6	1.2	8.8	100.0
	300~399 만원	374	61.4	27.8	89.2	10.1	0.7	10.8	100.0
	400만원 이상	596	66.3	25.1	91.3	7.0	1.6	8.7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64.0	25.8	89.8	8.7	1.5	10.2	100.0
	충청권	128	65.1	28.8	94.0	4.7	1.3	6.0	100.0
	호남권	116	69.0	21.4	90.4	8.2	1.4	9.6	100.0
	영남권	306	56.0	34.6	90.6	9.1	0.3	9.4	100.0
	강원	35	75.8	21.8	97.6	2.4	0.0	2.4	100.0
	제주	14	59.1	18.6	77.6	10.0	12.4	22.4	100.0
	대도시	542	68.4	23.9	92.2	6.8	0.9	7.8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60.6	28.9	89.5	9.1	1.4	10.5	100.0
	읍/면	90	43.8	43.9	87.8	10.3	1.9	12.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66.3	23.0	89.4	9.3	1.3	10.6	100.0
	중도	577	60.5	30.9	91.4	7.6	1.1	8.6	100.0
	보수적	212	62.6	28.3	90.9	7.5	1.6	9.1	100.0
종교	불교	200	61.3	29.4	90.8	6.4	2.8	9.2	100.0
	기독교	232	69.8	20.8	90.6	8.4	1.0	9.4	100.0
	천주교	45	50.9	31.8	82.7	11.8	5.6	17.3	100.0
	기타	2	0.0	49.4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61.9	28.8	90.7	8.6	0.7	9.3	100.0
	모름/무응답	33	62.7	37.3	100.0	0.0	0.0	0.0	100.0

표5-8.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㉕ 인도적 대북지원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9.5	45.4	54.9	41.4	3.7	45.1	100.0	
성별	남자	607	9.7	46.1	55.8	40.9	3.3	44.2	100.0
	여자	594	9.4	44.7	54.1	41.8	4.1	45.9	100.0
연령별	19~29세	226	6.3	46.4	52.7	41.5	5.8	47.3	100.0
	30대	222	7.8	47.1	54.9	41.6	3.5	45.1	100.0
	40대	259	12.8	43.6	56.5	40.3	3.2	43.5	100.0
	50대	260	8.9	49.0	57.9	41.2	0.9	42.1	100.0
	60대	233	11.2	40.8	52.0	42.5	5.5	48.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3.0	45.1	58.2	33.9	7.9	41.8	100.0
	고졸	560	7.4	44.7	52.1	45.2	2.7	47.9	100.0
	대재 이상	531	11.1	46.2	57.2	38.8	3.9	42.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3.3	45.7	69.0	25.2	5.8	31.0	100.0
	자영업	333	8.7	42.7	51.4	44.2	4.4	48.6	100.0
	블루 칼라	325	7.7	48.4	56.2	41.7	2.1	43.8	100.0
	화이트 칼라	241	14.4	43.6	58.0	37.0	5.0	42.0	100.0
	전업 주부	170	8.2	44.0	52.2	44.6	3.2	47.8	100.0
	학생/군인/무직	109	5.8	50.6	56.4	39.5	4.1	43.6	100.0
	200만원 미만	74	11.8	47.5	59.3	33.6	7.1	40.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11.2	48.8	59.9	36.6	3.5	40.1	100.0
	300~399 만원	374	9.6	46.6	56.2	41.2	2.6	43.8	100.0
	400만원 이상	596	8.8	43.6	52.3	43.6	4.0	47.7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5.1	44.5	49.7	47.9	2.4	50.3	100.0
	충청권	128	15.0	48.4	63.4	31.8	4.8	36.6	100.0
	호남권	116	20.5	50.6	71.0	27.6	1.4	29.0	100.0
	영남권	306	9.8	44.8	54.6	39.9	5.5	45.4	100.0
	강원	35	27.8	30.7	58.6	30.9	10.5	41.4	100.0
	제주	14	3.8	63.4	67.2	23.0	9.9	32.8	100.0
	대도시	542	7.1	48.0	55.1	41.6	3.3	44.9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10.9	42.7	53.6	42.0	4.4	46.4	100.0
	읍/면	90	15.5	46.7	62.2	36.2	1.6	37.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9.9	47.9	57.8	39.2	3.0	42.2	100.0
	중도	577	9.7	46.5	56.2	40.9	2.9	43.8	100.0
	보수적	212	8.3	37.5	45.8	47.0	7.2	54.2	100.0
종교	불교	200	8.8	48.9	57.7	37.7	4.6	42.3	100.0
	기독교	232	11.1	38.0	49.1	49.0	1.8	50.9	100.0
	천주교	45	12.7	31.6	44.3	45.9	9.8	55.7	100.0
	기타	2	49.4	0.0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8.9	48.1	57.0	39.1	3.9	43.0	100.0
	모름/무응답	33	8.4	41.3	49.7	50.3	0.0	50.3	100.0

표5-9.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4.1	53.6	67.7	30.7	1.6	32.3	100.0	
성별	남자	607	14.4	55.5	69.9	28.9	1.3	30.1	100.0
	여자	594	13.9	51.6	65.5	32.6	1.9	34.5	100.0
연령별	19~29세	226	12.9	55.1	68.0	29.0	3.0	32.0	100.0
	30대	222	10.7	61.9	72.6	26.0	1.4	27.4	100.0
	40대	259	15.6	54.4	70.0	28.6	1.4	30.0	100.0
	50대	260	17.7	49.1	66.8	32.8	0.4	33.2	100.0
	60대	233	13.0	48.2	61.2	36.8	2.0	38.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6.9	56.6	73.5	23.7	2.8	26.5	100.0
	고졸	560	10.2	51.2	61.4	37.5	1.1	38.6	100.0
	대재 이상	531	17.8	55.4	73.2	24.9	1.9	26.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7.0	54.7	71.7	22.5	5.8	28.3	100.0
	자영업	333	13.1	46.2	59.3	39.0	1.7	40.7	100.0
	블루 칼라	325	13.6	58.3	71.8	27.1	1.0	28.2	100.0
	화이트 칼라	241	17.5	55.0	72.5	25.6	1.9	27.5	100.0
	전업 주부	170	10.1	58.4	68.6	31.0	0.4	31.4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7.5	50.9	68.4	28.3	3.4	31.6	100.0
	200만원 미만	74	18.0	46.4	64.3	34.5	1.1	35.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15.6	52.5	68.1	30.3	1.6	31.9	100.0
	300~399 만원	374	9.4	57.7	67.0	32.2	0.8	33.0	100.0
	400만원 이상	596	16.3	52.1	68.4	29.4	2.2	31.6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0.7	51.3	61.9	36.2	1.9	38.1	100.0
	충청권	128	25.3	48.6	74.0	26.0	0.0	26.0	100.0
	호남권	116	24.7	58.5	83.2	16.1	0.7	16.8	100.0
	영남권	306	9.9	59.5	69.4	29.2	1.4	30.6	100.0
	강원	35	30.6	44.2	74.8	19.1	6.0	25.2	100.0
	제주	14	25.2	51.2	76.4	20.3	3.3	23.6	100.0
	대도시	542	12.5	59.6	72.1	27.0	0.9	27.9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15.3	49.0	64.3	33.5	2.2	35.7	100.0
	읍/면	90	16.8	45.9	62.8	35.3	2.0	37.2	100.0
	진보적	411	15.7	53.2	68.9	29.1	2.0	31.1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77	14.0	56.9	70.9	27.7	1.3	29.1	100.0
	보수적	212	11.5	45.2	56.7	41.8	1.5	43.3	100.0
	불교	200	16.0	50.1	66.1	32.1	1.8	33.9	100.0
종교	기독교	232	17.9	50.4	68.3	30.3	1.5	31.7	100.0
	천주교	45	18.5	42.9	61.4	33.0	5.6	38.6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2.3	55.1	67.4	31.2	1.4	32.6	100.0
	모름/무응답	33	7.9	79.5	87.3	12.7	0.0	12.7	100.0

표5-10.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남북한 경제협력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8.5	52.8	71.3	27.0	1.7	28.7	100.0	
성별	남자	607	19.0	53.2	72.2	26.3	1.4	27.8	100.0
	여자	594	17.9	52.4	70.3	27.6	2.1	29.7	100.0
연령별	19~29세	226	14.3	54.0	68.3	28.1	3.6	31.7	100.0
	30대	222	16.2	53.2	69.4	28.7	2.0	30.6	100.0
	40대	259	20.4	54.2	74.6	23.8	1.5	25.4	100.0
	50대	260	22.4	50.2	72.6	27.4	0.0	27.4	100.0
	60대	233	18.2	52.6	70.8	27.3	1.9	29.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9.5	57.0	76.5	20.8	2.8	23.5	100.0
	고졸	560	15.7	53.0	68.7	30.2	1.1	31.3	100.0
	대재 이상	531	21.3	51.7	72.9	24.9	2.2	27.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0.2	60.7	70.9	23.3	5.8	29.1	100.0
	자영업	333	16.2	50.6	66.9	31.6	1.5	33.1	100.0
	블루 칼라	325	18.2	58.5	76.7	21.9	1.4	23.3	100.0
	화이트 칼라	241	23.2	46.4	69.6	28.2	2.2	30.4	100.0
	전업 주부	170	18.1	51.4	69.5	29.4	1.1	30.5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8.2	56.8	75.0	22.2	2.8	25.0	100.0
	200만원 미만	74	22.7	53.8	76.5	22.4	1.1	23.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16.7	57.1	73.8	24.7	1.6	26.2	100.0
	300~399 만원	374	17.7	50.6	68.3	31.5	0.2	31.7	100.0
	400만원 이상	596	18.9	53.0	71.8	25.3	2.8	28.2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3.4	53.7	67.2	30.5	2.3	32.8	100.0
	충청권	128	35.6	44.0	79.6	20.4	0.0	20.4	100.0
	호남권	116	36.5	51.3	87.9	11.4	0.7	12.1	100.0
	영남권	306	13.6	55.6	69.2	30.0	0.8	30.8	100.0
	강원	35	30.0	42.2	72.1	17.8	10.0	27.9	100.0
	제주	14	9.1	67.3	76.4	20.3	3.3	23.6	100.0
	대도시	542	15.9	55.1	71.0	27.6	1.4	29.0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20.7	50.2	70.9	27.0	2.1	29.1	100.0
	읍/면	90	19.9	55.1	75.0	23.1	1.9	25.0	100.0
	진보적	411	22.9	49.2	72.1	26.2	1.7	27.9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77	17.1	55.7	72.9	25.6	1.6	27.1	100.0
	보수적	212	13.7	51.7	65.5	32.2	2.3	34.5	100.0
	불교	200	19.3	57.0	76.3	23.0	0.7	23.7	100.0
종교	기독교	232	19.8	48.5	68.3	30.3	1.4	31.7	100.0
	천주교	45	27.6	36.1	63.7	30.8	5.6	36.3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7.1	53.5	70.6	27.4	2.0	29.4	100.0
	모름/무응답	33	17.0	68.6	85.5	14.5	0.0	14.5	100.0

표5-11.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평화협정 체결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9.9	50.6	80.5	17.9	1.6	19.5	100.0	
성별	남자	607	30.4	51.8	82.1	16.6	1.3	17.9	100.0
	여자	594	29.4	49.4	78.8	19.3	1.9	21.2	100.0
연령별	19~29세	226	29.5	48.6	78.1	19.3	2.6	21.9	100.0
	30대	222	25.0	54.4	79.4	19.2	1.4	20.6	100.0
	40대	259	30.5	50.2	80.7	17.8	1.5	19.3	100.0
	50대	260	32.8	51.7	84.5	14.6	1.0	15.5	100.0
	60대	233	31.0	48.2	79.2	19.4	1.4	20.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31.1	55.1	86.2	13.1	0.8	13.8	100.0
	고졸	560	27.0	52.3	79.3	19.8	0.9	20.7	100.0
	대재 이상	531	32.7	48.0	80.6	17.0	2.4	19.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9.6	49.4	78.9	17.4	3.7	21.1	100.0
	자영업	333	27.0	53.6	80.6	18.2	1.1	19.4	100.0
	블루 칼라	325	27.3	55.3	82.6	16.6	0.8	17.4	100.0
	화이트 칼라	241	35.5	44.2	79.6	18.1	2.2	20.4	100.0
	전업 주부	170	29.1	49.8	78.9	17.8	3.3	21.1	100.0
	학생/군인/무직	109	35.2	43.0	78.2	21.1	0.6	21.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36.0	47.3	83.3	15.6	1.1	16.7	100.0
	200~299 만원	155	27.7	52.0	79.7	20.3	0.0	20.3	100.0
	300~399 만원	374	27.4	52.1	79.5	20.3	0.2	20.5	100.0
	400만원 이상	596	31.3	49.8	81.1	16.0	2.9	18.9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4.7	52.3	77.0	20.5	2.5	23.0	100.0
	충청권	128	39.6	46.8	86.4	13.6	0.0	13.6	100.0
	호남권	116	57.5	35.6	93.1	6.2	0.7	6.9	100.0
	영남권	306	22.8	57.1	79.9	20.1	0.0	20.1	100.0
	강원	35	52.2	26.3	78.5	13.6	8.0	21.5	100.0
	제주	14	33.5	56.4	89.9	10.1	0.0	10.1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32.1	48.1	80.2	19.1	0.7	19.8	100.0
	중/소도시	567	27.8	52.8	80.5	16.8	2.7	19.5	100.0
	읍/면	90	29.6	51.9	81.5	18.5	0.0	18.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33.5	45.5	79.0	18.6	2.4	21.0	100.0
	중도	577	28.2	53.5	81.7	17.1	1.1	18.3	100.0
	보수적	212	27.3	52.6	79.9	18.8	1.2	20.1	100.0
종교	불교	200	31.8	50.5	82.4	17.6	0.0	17.6	100.0
	기독교	232	32.9	49.1	81.9	16.6	1.4	18.1	100.0
	천주교	45	28.2	48.4	76.7	20.4	2.9	23.3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28.4	51.1	79.5	18.4	2.1	20.5	100.0
	모름/무응답	33	29.0	53.7	82.7	17.3	0.0	17.3	100.0

표6.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문)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 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위해	남북간에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44.5	6.7	31.6	3.5	13.5	0.1	0.0	100.0	
성별	남자	607	46.8	6.3	29.8	2.9	14.0	0.1	0.1	100.0
	여자	594	42.1	7.1	33.5	4.2	13.0	0.1	0.0	100.0
연령별	19~29세	226	37.5	6.2	40.2	2.6	13.5	0.0	0.0	100.0
	30대	222	34.6	4.6	35.8	4.0	21.0	0.0	0.0	100.0
	40대	259	47.6	7.1	29.1	2.6	13.2	0.2	0.2	100.0
	50대	260	48.8	7.5	27.2	4.4	12.1	0.0	0.0	100.0
	60대	233	52.4	7.9	27.0	4.1	8.2	0.4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58.7	10.2	20.0	4.7	5.5	0.8	0.0	100.0
	고졸	560	47.5	6.1	30.1	3.6	12.7	0.1	0.0	100.0
	대재 이상	531	38.4	6.6	35.6	3.3	16.0	0.0	0.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9.4	12.7	24.3	15.1	8.4	0.0	0.0	100.0
	자영업	333	44.9	5.3	29.1	4.4	15.8	0.3	0.1	100.0
	블루 칼라	325	45.0	6.8	31.8	3.0	13.3	0.0	0.0	100.0
	화이트 칼라	241	39.0	7.2	35.2	1.9	16.4	0.2	0.0	100.0
	전업 주부	170	53.9	7.2	27.5	3.8	7.5	0.0	0.0	100.0
	학생/군인/무직	109	40.0	7.3	38.5	3.2	10.9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56.9	9.0	25.9	4.2	4.0	0.0	0.0	100.0
	200~299 만원	155	45.5	6.3	28.1	2.7	17.1	0.0	0.3	100.0
	300~399 만원	374	43.9	6.3	29.3	5.1	15.2	0.2	0.0	100.0
	400만원 이상	596	43.0	6.8	34.7	2.7	12.7	0.1	0.0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39.0	6.3	33.3	4.9	16.6	0.0	0.0	100.0
	충청권	128	44.3	5.1	29.6	2.0	18.4	0.7	0.0	100.0
	호남권	116	45.1	6.7	35.7	2.7	9.8	0.0	0.0	100.0
	영남권	306	55.8	7.9	26.7	1.8	7.8	0.0	0.0	100.0
	강원	35	40.2	6.6	40.1	4.5	8.6	0.0	0.0	100.0
	제주	14	42.3	12.4	31.6	2.8	4.0	3.8	3.1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44.3	6.5	32.3	4.1	12.8	0.0	0.0	100.0
	중/소도시	567	44.9	5.3	32.4	2.6	14.6	0.2	0.1	100.0
	읍/면	90	43.4	16.5	22.6	6.4	10.5	0.6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41.1	4.6	37.6	3.0	13.7	0.0	0.0	100.0
	중도	577	47.5	7.5	29.0	2.9	12.8	0.2	0.1	100.0
	보수적	212	42.9	8.6	27.1	6.4	15.1	0.0	0.0	100.0
종교	불교	200	50.3	7.0	28.0	2.3	12.4	0.0	0.0	100.0
	기독교	232	38.0	7.0	36.9	3.0	14.9	0.0	0.2	100.0
	천주교	45	39.9	9.1	36.4	5.6	9.1	0.0	0.0	100.0
	기타	2	0.0	0.0	49.4	0.0	0.0	50.6	0.0	100.0
	종교 없음	689	45.4	6.4	30.2	4.0	13.9	0.1	0.0	100.0
	모름/무응답	33	44.1	6.1	39.4	2.5	8.0	0.0	0.0	100.0

표7. 통일이 되지 않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문) 만약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면 ○○님은 그 이유로 가장 큰 것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 간 정치 체제의 차이	남북 간 사회 문화적 차이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	기타	없다	계	
		%	%	%	%	%	%	%	%	
전 체	1200	19.2	13.7	35.2	26.8	4.5	0.2	0.5	100.0	
성별	남자	607	22.7	12.1	33.7	26.3	4.6	0.1	0.4	100.0
	여자	594	15.6	15.3	36.7	27.4	4.3	0.2	0.5	100.0
연령별	19~29세	226	15.4	15.4	32.7	32.4	3.6	0.0	0.4	100.0
	30대	222	15.8	14.1	38.8	25.6	5.2	0.6	0.0	100.0
	40대	259	24.4	11.6	33.6	24.8	5.0	0.0	0.6	100.0
	50대	260	19.7	13.3	34.3	27.1	4.6	0.3	0.6	100.0
	60대	233	19.6	14.4	37.0	24.7	3.8	0.0	0.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8.9	14.3	36.1	27.3	3.4	0.0	0.0	100.0
	고졸	560	19.5	13.4	36.6	26.4	4.0	0.2	0.0	100.0
	대재 이상	531	18.9	13.8	33.6	27.3	5.2	0.2	1.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9.6	18.5	30.9	41.0	0.0	0.0	0.0	100.0
	자영업	333	20.1	13.0	36.9	23.8	5.2	0.0	0.9	100.0
	블루 칼라	325	22.9	11.7	31.4	29.2	4.9	0.0	0.0	100.0
	화이트 칼라	241	16.5	17.6	32.6	29.1	2.6	0.5	1.0	100.0
	전업 주부	170	15.2	13.4	43.9	21.9	5.6	0.0	0.0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9.6	12.2	34.4	28.9	4.2	0.8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8.7	14.9	33.7	28.9	2.1	1.7	0.0
200~299 만원	155	15.7	14.5	34.1	30.8	4.3	0.0	0.6	100.0	
300~399 만원	374	19.1	16.3	35.2	23.5	5.4	0.0	0.6	100.0	
400만원 이상	596	20.2	11.6	35.7	27.6	4.3	0.2	0.4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1.7	14.8	36.7	21.8	4.6	0.2	0.2	100.0
	충청권	128	16.3	12.3	32.3	37.0	1.4	0.0	0.7	100.0
	호남권	116	21.9	13.8	28.9	26.3	6.2	0.0	2.9	100.0
	영남권	306	14.0	13.2	36.0	32.4	4.2	0.3	0.0	100.0
	강원	35	25.7	8.2	34.2	20.6	11.3	0.0	0.0	100.0
	제주	14	12.0	2.8	33.0	49.1	3.1	0.0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25.7	14.5	33.4	23.8	2.4	0.2	0.0	100.0
	중/소도시	567	14.6	13.3	37.1	28.7	5.6	0.2	0.5	100.0
	읍/면	90	9.0	11.4	34.1	33.0	9.8	0.0	2.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8.5	12.6	39.4	25.4	3.2	0.5	0.4	100.0
	중도	577	19.7	15.2	32.9	26.9	5.0	0.0	0.3	100.0
	보수적	212	19.0	11.6	33.3	29.5	5.6	0.0	1.0	100.0
종교	불교	200	15.3	15.2	35.1	27.7	6.2	0.0	0.5	100.0
	기독교	232	21.1	18.3	30.7	24.1	4.8	0.0	0.9	100.0
	천주교	45	22.1	13.2	38.7	18.2	7.9	0.0	0.0	100.0
	기타	2	0.0	0.0	0.0	50.6	49.4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9.8	11.3	36.9	27.6	3.7	0.3	0.4	100.0
	모름/무응답	33	13.3	22.6	28.3	35.7	0.0	0.0	0.0	100.0

표8.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①+②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0.4	47.3	57.7	36.7	5.6	42.3	100.0	
성별	남자	607	13.5	46.7	60.2	34.0	5.8	39.8	100.0
	여자	594	7.2	47.9	55.1	39.4	5.5	44.9	100.0
연령별	19~29세	226	12.4	44.6	57.1	37.3	5.6	42.9	100.0
	30대	222	11.1	46.4	57.5	40.0	2.6	42.5	100.0
	40대	259	12.3	45.1	57.3	38.6	4.0	42.7	100.0
	50대	260	10.4	54.6	65.0	29.0	6.0	35.0	100.0
	60대	233	5.6	45.1	50.7	39.5	9.8	49.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7	47.3	49.0	38.3	12.8	51.0	100.0
	고졸	560	7.5	48.9	56.4	38.6	5.0	43.6	100.0
	대재 이상	531	15.2	45.6	60.8	34.4	4.8	39.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8.0	53.0	61.0	17.9	21.0	39.0	100.0
	자영업	333	6.6	49.2	55.9	38.4	5.7	44.1	100.0
	블루 칼라	325	11.3	45.1	56.5	38.3	5.2	43.5	100.0
	화이트 칼라	241	14.0	48.3	62.3	32.3	5.5	37.7	100.0
	전업 주부	170	7.4	48.8	56.3	39.3	4.4	43.7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6.2	42.1	58.3	36.1	5.6	41.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9.4	43.6	53.0	40.2	6.8	47.0
200~299 만원	155	10.8	44.0	54.8	38.3	6.9	45.2	100.0	
300~399 만원	374	7.7	42.4	50.1	44.6	5.3	49.9	100.0	
400만원 이상	596	12.1	51.6	63.7	30.9	5.3	36.3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9.3	51.9	61.2	34.9	3.9	38.8	100.0
	충청권	128	20.5	41.7	62.2	33.2	4.6	37.8	100.0
	호남권	116	11.0	51.5	62.5	30.2	7.3	37.5	100.0
	영남권	306	4.5	41.7	46.2	44.8	9.1	53.8	100.0
	강원	35	38.3	32.8	71.0	26.7	2.3	29.0	100.0
	제주	14	16.1	27.7	43.8	49.9	6.3	56.2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9.6	50.8	60.4	35.5	4.0	39.6	100.0
	중/소도시	567	11.4	44.8	56.2	38.0	5.8	43.8	100.0
	읍/면	90	9.0	41.6	50.6	35.3	14.1	49.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5.4	48.2	63.6	31.8	4.6	36.4	100.0
	중도	577	8.2	48.2	56.3	39.1	4.6	43.7	100.0
	보수적	212	6.7	43.2	49.9	39.8	10.2	50.1	100.0
종교	불교	200	6.8	48.7	55.5	37.9	6.6	44.5	100.0
	기독교	232	10.7	52.0	62.7	32.7	4.7	37.3	100.0
	천주교	45	14.3	53.8	68.0	27.4	4.6	32.0	100.0
	기타	2	49.4	0.0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11.1	45.1	56.1	38.0	5.9	43.9	100.0
	모름/무응답	33	8.4	46.2	54.6	42.9	2.5	45.4	100.0

표9.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①+②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7	22.8	26.5	56.6	16.9	73.5	100.0		
성별	남자	607	5.2	22.8	28.1	55.4	16.5	71.9	100.0	
	여자	594	2.1	22.8	24.9	57.8	17.3	75.1	100.0	
연령별	19~29세	226	2.3	21.5	23.8	59.2	17.0	76.2	100.0	
	30대	222	4.8	23.1	27.9	55.6	16.5	72.1	100.0	
	40대	259	5.3	21.5	26.8	59.4	13.8	73.2	100.0	
	50대	260	3.8	23.0	26.8	57.5	15.7	73.2	100.0	
	60대	233	2.1	25.0	27.1	50.8	22.1	72.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2	21.9	23.0	46.4	30.5	77.0	100.0	
	고졸	560	3.2	21.6	24.8	58.7	16.5	75.2	100.0	
	대재 이상	531	4.7	24.3	29.0	56.4	14.6	71.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6	18.5	22.1	50.1	27.8	77.9	100.0	
	자영업	333	3.3	22.3	25.6	62.1	12.3	74.4	100.0	
	블루 칼라	325	4.1	22.9	27.0	52.7	20.3	73.0	100.0	
	화이트 칼라	241	5.0	25.1	30.2	54.4	15.4	69.8	100.0	
	전업 주부	170	1.9	23.7	25.6	57.9	16.5	74.4	100.0	
	학생/군인/무직	109	3.5	18.5	22.0	55.5	22.5	78.0	100.0	
	200만원 미만	74	2.1	23.3	25.4	51.8	22.8	74.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4.8	29.4	34.3	42.6	23.2	65.7	100.0	
	300~399 만원	374	3.2	17.7	20.9	62.9	16.3	79.1	100.0	
	400만원 이상	596	3.9	24.2	28.1	57.0	15.0	71.9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7	23.0	25.7	61.9	12.5	74.3	100.0	
	충청권	128	5.2	27.4	32.6	51.6	15.8	67.4	100.0	
	호남권	116	4.2	19.7	23.9	47.6	28.4	76.1	100.0	
	영남권	306	3.0	21.4	24.4	53.0	22.6	75.6	100.0	
	강원	35	21.4	30.0	51.4	40.2	8.4	48.6	100.0	
	제주	14	0.0	12.5	12.5	68.5	19.0	87.5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3.3	23.0	26.3	61.2	12.5	73.7	100.0
		중/소도시	567	4.2	23.3	27.5	53.0	19.5	72.5	100.0
읍/면		90	3.3	18.5	21.7	51.4	26.8	78.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5.2	23.1	28.3	56.4	15.3	71.7	100.0	
	중도	577	3.1	22.9	26.0	56.4	17.6	74.0	100.0	
	보수적	212	2.4	22.0	24.5	57.4	18.2	75.5	100.0	
종교	불교	200	2.9	23.7	26.6	56.6	16.7	73.4	100.0	
	기독교	232	4.3	26.2	30.5	58.1	11.4	69.5	100.0	
	천주교	45	4.6	24.2	28.7	52.3	19.0	71.3	100.0	
	기타	2	49.4	0.0	49.4	0.0	50.6	50.6	100.0	
	종교 없음	689	3.4	21.7	25.1	56.3	18.6	74.9	100.0	
	모름/무응답	33	7.0	16.1	23.0	60.2	16.7	77.0	100.0	

표10-1.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㉞ 빈부격차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6	10.0	11.5	25.7	39.6	23.1	62.7	100.0		
성별	남자	607	1.9	12.4	14.2	25.3	39.2	21.3	60.4	100.0	
	여자	594	1.3	7.5	8.8	26.2	40.1	24.9	65.0	100.0	
연령별	19~29세	226	1.3	8.6	9.9	26.2	44.5	19.5	64.0	100.0	
	30대	222	0.9	12.6	13.5	26.4	36.3	23.7	60.0	100.0	
	40대	259	2.6	9.5	12.1	25.9	37.8	24.3	62.0	100.0	
	50대	260	2.4	9.7	12.1	28.7	38.5	20.7	59.2	100.0	
	60대	233	0.6	9.5	10.1	21.1	41.4	27.3	68.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0	10.8	10.8	27.8	43.1	18.3	61.4	100.0	
	고졸	560	2.1	7.5	9.6	25.6	41.6	23.2	64.9	100.0	
	대재 이상	531	1.4	12.4	13.8	25.5	36.8	23.9	60.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8	6.2	8.1	46.0	14.7	31.2	45.9	100.0	
	자영업	333	1.5	10.4	12.0	21.4	41.8	24.8	66.6	100.0	
	블루 칼라	325	1.0	11.2	12.3	27.7	42.2	17.9	60.0	100.0	
	화이트 칼라	241	2.3	9.2	11.5	23.0	39.5	26.0	65.4	100.0	
	전업 주부	170	2.4	8.1	10.5	29.6	33.4	26.5	59.9	100.0	
	학생/군인/무직	109	0.4	10.2	10.6	28.7	40.5	20.1	60.6	100.0	
	200만원 미만	74	3.1	9.6	12.7	29.6	32.7	25.0	57.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2.8	7.6	10.4	30.8	42.5	16.3	58.7	100.0	
	300~399 만원	374	2.1	8.7	10.7	27.8	42.0	19.4	61.4	100.0	
	400만원 이상	596	0.8	11.3	12.1	22.6	38.3	27.0	65.3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0.4	9.4	9.8	18.7	48.6	23.0	71.6	100.0	
	충청권	128	2.4	6.3	8.7	35.1	33.3	22.9	56.2	100.0	
	호남권	116	2.1	10.1	12.2	39.1	26.1	22.6	48.7	100.0	
	영남권	306	2.3	12.5	14.8	29.5	31.9	23.8	55.7	100.0	
	강원	35	8.7	10.7	19.4	36.6	27.2	16.9	44.1	100.0	
	제주	14	9.0	9.9	18.8	21.4	24.4	35.4	59.8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9	11.0	12.9	22.4	42.0	22.7	64.6	100.0
		중/소도시	567	1.4	8.0	9.4	29.0	38.4	23.3	61.7	100.0
읍/면		90	0.9	15.9	16.7	25.4	33.5	24.3	57.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0	9.8	11.8	26.0	41.3	20.9	62.2	100.0	
	중도	577	1.6	10.9	12.5	27.1	37.4	23.0	60.4	100.0	
	보수적	212	0.7	7.8	8.6	21.4	42.4	27.6	70.0	100.0	
종교	불교	200	3.4	12.6	16.0	26.9	33.5	23.6	57.1	100.0	
	기독교	232	0.7	11.4	12.1	23.7	36.7	27.6	64.2	100.0	
	천주교	45	1.9	8.4	10.3	28.6	44.5	16.6	61.1	100.0	
	기타	2	0.0	0.0	0.0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1.3	8.8	10.1	25.6	42.2	22.1	64.3	100.0	
	모름/무응답	33	3.9	10.0	13.9	29.7	36.3	20.1	56.4	100.0	

표10-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부동산투기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전 체	1200	3.1	12.7	15.8	24.5	35.7	24.1	59.7	100.0	
성별	남자	607	2.6	13.4	16.0	24.0	34.4	25.5	59.9	100.0
	여자	594	3.6	12.0	15.6	24.9	36.9	22.6	59.5	100.0
연령별	19~29세	226	2.4	14.5	16.8	24.3	39.3	19.6	58.9	100.0
	30대	222	3.7	12.1	15.8	20.5	40.7	23.0	63.7	100.0
	40대	259	5.2	12.5	17.7	28.2	27.7	26.4	54.1	100.0
	50대	260	3.1	10.9	14.0	25.4	34.8	25.9	60.7	100.0
	60대	233	1.0	13.9	14.9	23.2	37.2	24.7	61.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0	15.0	15.0	30.5	32.2	22.2	54.4	100.0
	고졸	560	2.4	11.3	13.7	26.5	36.2	23.6	59.8	100.0
	대재 이상	531	4.5	13.7	18.2	21.1	35.8	24.9	60.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4.1	15.7	19.8	26.4	15.2	38.6	53.8	100.0
	자영업	333	2.8	13.5	16.4	24.6	33.1	26.0	59.1	100.0
	블루 칼라	325	2.6	13.6	16.3	22.8	41.4	19.6	61.0	100.0
	화이트 칼라	241	3.7	9.4	13.1	24.5	32.7	29.7	62.4	100.0
	전업 주부	170	4.5	14.1	18.5	24.9	36.4	20.1	56.5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8	12.1	13.8	27.9	36.2	22.1	58.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5.8	14.4	20.3	29.0	25.8	25.0	50.8
200~299 만원	155	2.4	18.9	21.4	30.7	28.6	19.3	47.9	100.0	
300~399 만원	374	3.8	12.2	16.1	26.6	35.7	21.6	57.4	100.0	
400만원 이상	596	2.5	11.2	13.7	21.0	38.6	26.7	65.3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7	9.4	12.1	20.5	42.7	24.6	67.3	100.0
	충청권	128	3.1	13.2	16.3	30.3	25.0	28.4	53.4	100.0
	호남권	116	3.5	12.9	16.4	32.4	28.8	22.4	51.2	100.0
	영남권	306	3.0	19.8	22.8	25.7	31.0	20.5	51.5	100.0
	강원	35	4.4	8.7	13.1	30.3	21.7	34.9	56.6	100.0
	제주	14	16.0	3.1	19.1	32.0	23.5	25.4	48.9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3.8	12.3	16.1	21.6	36.8	25.5	62.3
중/소도시	567	2.2	13.4	15.6	27.1	33.9	23.4	57.3	100.0	
읍/면	90	4.5	10.8	15.3	25.2	40.4	19.2	59.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8	14.0	16.8	24.8	34.7	23.6	58.3	100.0
	중도	577	3.8	11.4	15.2	24.2	36.7	23.9	60.6	100.0
	보수적	212	1.7	13.8	15.5	24.4	34.8	25.3	60.1	100.0
종교	불교	200	4.8	15.9	20.7	24.3	36.0	19.0	55.0	100.0
	기독교	232	3.9	10.7	14.5	21.9	35.9	27.6	63.5	100.0
	천주교	45	4.5	13.8	18.3	25.9	28.9	27.0	55.9	100.0
	기타	2	0.0	49.4	49.4	0.0	0.0	50.6	50.6	100.0
	종교 없음	689	2.1	12.7	14.8	25.2	35.6	24.4	60.0	100.0
	모름/무응답	33	6.9	3.9	10.8	27.2	45.0	17.0	62.0	100.0

표10-3.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㉕ 실업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전 체	1200	6.4	30.0	36.5	20.9	26.5	16.2	42.7	100.0	
성별	남자	607	6.1	31.4	37.6	22.5	23.9	16.1	40.0	100.0
	여자	594	6.7	28.6	35.3	19.3	29.2	16.2	45.4	100.0
연령별	19~29세	226	8.5	27.3	35.8	19.2	27.9	17.1	45.0	100.0
	30대	222	5.6	29.6	35.1	25.5	25.7	13.7	39.4	100.0
	40대	259	7.9	32.0	39.9	18.0	29.5	12.6	42.1	100.0
	50대	260	5.6	32.4	38.0	21.4	24.3	16.4	40.6	100.0
	60대	233	4.5	28.3	32.8	20.9	24.9	21.4	46.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3.4	27.8	31.2	24.7	25.9	18.2	44.1	100.0
	고졸	560	5.2	30.6	35.7	20.8	28.2	15.2	43.4	100.0
	대재 이상	531	8.4	29.9	38.3	20.2	24.8	16.8	41.5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1.7	27.3	39.0	22.3	4.0	34.7	38.8	100.0
	자영업	333	5.4	30.6	36.0	20.9	23.9	19.2	43.1	100.0
	블루 칼라	325	6.5	29.0	35.6	24.1	26.4	13.9	40.3	100.0
	화이트 칼라	241	6.9	34.5	41.4	17.0	28.0	13.6	41.6	100.0
	전업 주부	170	5.1	26.4	31.5	21.6	29.9	17.0	46.9	100.0
	학생/군인/무직	109	9.0	27.8	36.8	18.5	30.4	14.4	44.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9.2	28.0	37.2	23.7	20.6	18.5	39.1
200~299 만원	155	9.5	34.6	44.1	19.7	23.7	12.6	36.2	100.0	
300~399 만원	374	5.5	25.3	30.8	24.0	31.1	14.1	45.2	100.0	
400만원 이상	596	5.9	32.1	38.0	18.9	25.1	18.0	43.1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4.6	29.3	33.9	19.4	31.5	15.1	46.6	100.0
	충청권	128	13.0	31.7	44.7	17.7	25.2	12.4	37.6	100.0
	호남권	116	6.3	27.2	33.5	23.9	25.5	17.1	42.6	100.0
	영남권	306	6.5	32.3	38.8	24.3	18.3	18.6	36.9	100.0
	강원	35	10.9	25.8	36.7	21.3	22.1	19.9	42.0	100.0
	제주	14	12.5	29.7	42.2	12.0	20.1	25.7	45.8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6.1	28.7	34.8	22.7	28.0	14.4	42.5
중/소도시	567	6.8	32.3	39.0	18.7	24.3	18.0	42.3	100.0	
읍/면	90	6.1	23.9	30.1	23.9	30.8	15.2	46.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9.1	29.2	38.3	19.8	27.2	14.6	41.8	100.0
	중도	577	5.2	31.5	36.7	22.0	24.4	16.9	41.3	100.0
	보수적	212	4.5	27.5	32.1	20.1	30.6	17.3	47.9	100.0
종교	불교	200	5.7	32.9	38.6	26.0	19.9	15.6	35.4	100.0
	기독교	232	6.8	32.4	39.2	19.9	24.7	16.2	40.9	100.0
	천주교	45	8.6	30.7	39.2	13.6	29.7	17.4	47.2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6.2	28.8	35.0	20.1	28.9	16.1	45.0	100.0
	모름/무응답	33	7.8	20.4	28.2	25.8	26.3	19.6	45.9	100.0

표10-4.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㉞ 범죄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전 체	1200	1.5	6.8	8.3	27.1	43.9	20.6	64.6	100.0	
성별	남자	607	1.8	7.3	9.1	28.3	42.3	20.3	62.6	100.0
	여자	594	1.1	6.4	7.5	26.0	45.6	21.0	66.6	100.0
연령별	19~29세	226	0.5	6.9	7.4	22.8	47.5	22.3	69.8	100.0
	30대	222	0.9	6.3	7.2	29.0	44.5	19.4	63.8	100.0
	40대	259	3.0	5.6	8.6	27.1	45.0	19.4	64.4	100.0
	50대	260	0.8	8.5	9.3	30.4	42.2	18.1	60.3	100.0
	60대	233	1.9	6.8	8.7	26.0	40.9	24.4	65.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8	6.7	8.5	32.3	34.7	24.5	59.2	100.0
	고졸	560	1.4	6.5	7.9	25.5	45.4	21.2	66.5	100.0
	대재 이상	531	1.4	7.2	8.6	27.8	44.3	19.3	63.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8	2.3	4.1	14.9	34.1	46.8	80.9	100.0
	자영업	333	2.0	8.4	10.4	27.3	40.7	21.6	62.3	100.0
	블루 칼라	325	0.6	6.5	7.1	25.1	49.0	18.8	67.8	100.0
	화이트 칼라	241	2.7	6.5	9.2	28.7	41.2	20.9	62.1	100.0
	전업 주부	170	0.5	6.6	7.1	29.5	45.1	18.2	63.3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1	5.1	6.2	27.9	44.9	21.1	66.0	100.0
	200만원 미만	74	2.2	11.4	13.6	31.9	28.3	26.3	54.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3.0	9.8	12.8	30.8	37.5	18.9	56.4	100.0
	300~399 만원	374	1.7	6.4	8.0	30.1	41.4	20.5	61.9	100.0
	400만원 이상	596	0.9	5.8	6.7	23.8	49.1	20.5	69.6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0.5	6.1	6.7	24.6	51.1	17.6	68.7	100.0
	충청권	128	1.2	9.1	10.3	34.0	37.2	18.5	55.8	100.0
	호남권	116	1.4	8.6	10.0	31.2	38.4	20.5	58.8	100.0
	영남권	306	2.9	7.0	9.8	27.0	36.8	26.3	63.1	100.0
	강원	35	4.5	4.1	8.6	35.0	32.5	24.0	56.5	100.0
	제주	14	5.9	6.6	12.5	21.6	30.1	35.8	66.0	100.0
	대도시	542	2.3	6.0	8.2	26.0	47.3	18.4	65.7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0.9	6.9	7.8	28.6	42.1	21.5	63.6	100.0
	읍/면	90	0.0	11.7	11.7	24.7	35.3	28.3	63.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5	5.7	7.2	28.5	44.4	19.9	64.3	100.0
	중도	577	1.7	7.5	9.2	27.4	44.4	19.1	63.5	100.0
	보수적	212	0.9	7.2	8.1	23.9	41.7	26.3	68.0	100.0
종교	불교	200	2.6	9.6	12.2	31.3	36.9	19.6	56.5	100.0
	기독교	232	1.1	7.7	8.8	30.8	42.4	18.0	60.4	100.0
	천주교	45	3.6	7.4	11.0	20.7	41.0	27.3	68.3	100.0
	기타	2	0.0	0.0	0.0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1.0	5.9	6.9	25.7	46.7	20.7	67.4	100.0
	모름/무응답	33	3.9	3.9	7.8	13.4	44.0	34.9	78.9	100.0

표10-5.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㉞ 지역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전 체	1200	1.8	10.4	12.3	29.3	38.3	20.1	58.4	100.0	
성별	남자	607	1.8	11.7	13.5	31.9	35.4	19.2	54.6	100.0
	여자	594	1.8	9.1	11.0	26.7	41.2	21.1	62.3	100.0
연령별	19~29세	226	1.7	9.6	11.4	27.7	38.7	22.3	60.9	100.0
	30대	222	0.4	8.9	9.3	31.7	37.8	21.2	59.0	100.0
	40대	259	1.8	11.4	13.2	29.0	37.9	19.8	57.7	100.0
	50대	260	2.2	13.9	16.1	29.4	37.9	16.6	54.5	100.0
	60대	233	2.8	7.8	10.6	28.9	39.3	21.2	60.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8	10.9	11.7	29.8	41.6	16.9	58.5	100.0
	고졸	560	2.4	9.2	11.6	32.7	36.5	19.2	55.8	100.0
	대재 이상	531	1.5	11.6	13.1	25.7	39.5	21.7	61.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8	12.2	14.0	41.7	13.4	30.9	44.3	100.0
	자영업	333	2.8	12.4	15.2	26.4	41.5	16.9	58.4	100.0
	블루 칼라	325	1.3	10.2	11.5	37.3	35.3	15.9	51.2	100.0
	화이트 칼라	241	2.4	10.5	12.8	26.0	38.4	22.8	61.2	100.0
	전업 주부	170	1.4	7.2	8.5	25.2	42.0	24.3	66.3	100.0
	학생/군인/무직	109	0.0	9.8	9.8	25.7	36.5	28.0	64.5	100.0
	200만원 미만	74	4.3	8.5	12.8	30.1	32.6	24.5	57.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3.0	10.2	13.2	35.0	31.8	20.0	51.8	100.0
	300~399 만원	374	2.3	9.6	11.9	33.8	40.2	14.2	54.4	100.0
	400만원 이상	596	0.9	11.3	12.2	25.0	39.4	23.4	62.8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0	8.5	9.5	29.0	44.7	16.8	61.5	100.0
	충청권	128	3.8	13.0	16.8	30.7	30.1	22.4	52.5	100.0
	호남권	116	2.2	9.9	12.0	38.3	23.6	26.1	49.6	100.0
	영남권	306	1.9	13.8	15.7	26.0	36.0	22.4	58.4	100.0
	강원	35	6.6	8.5	15.2	32.7	33.4	18.7	52.1	100.0
	제주	14	2.8	9.2	12.0	18.3	24.6	45.0	69.7	100.0
	대도시	542	2.2	10.2	12.4	26.6	41.1	19.9	61.0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1.2	10.0	11.2	30.9	37.2	20.7	57.9	100.0
	읍/면	90	3.2	15.0	18.2	35.6	28.4	17.8	46.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1	9.7	10.9	32.3	40.0	16.9	56.8	100.0
	중도	577	2.1	11.8	13.9	28.0	36.9	21.2	58.1	100.0
	보수적	212	2.3	8.3	10.5	27.2	39.0	23.3	62.3	100.0
종교	불교	200	2.4	14.7	17.2	27.8	32.1	22.9	55.1	100.0
	기독교	232	1.4	12.7	14.1	29.0	37.8	19.1	56.8	100.0
	천주교	45	4.6	9.5	14.1	25.1	43.3	17.5	60.8	100.0
	기타	2	49.4	0.0	49.4	50.6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3	8.8	10.1	30.4	40.0	19.4	59.5	100.0
	모름/무응답	33	6.2	3.9	10.1	21.7	38.4	29.8	68.2	100.0

표10-6.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⑩ 이념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4	11.2	13.6	18.6	38.8	29.0	67.7	100.0
성별									
남자	607	2.7	11.7	14.4	21.5	36.1	28.0	64.1	100.0
여자	594	2.1	10.7	12.8	15.7	41.4	30.0	71.5	100.0
연령별									
19~29세	226	1.4	7.9	9.3	20.1	42.2	28.4	70.6	100.0
30대	222	1.9	12.4	14.3	20.0	34.9	30.8	65.7	100.0
40대	259	3.7	10.8	14.5	16.9	41.6	27.0	68.6	100.0
50대	260	2.0	15.0	17.1	19.6	37.2	26.1	63.4	100.0
60대	233	2.9	9.5	12.5	16.7	37.6	33.3	70.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2	15.2	16.4	17.8	43.6	22.2	65.8	100.0
고졸	560	2.3	9.5	11.8	19.5	37.6	31.0	68.6	100.0
대재 이상	531	2.8	12.2	15.0	17.8	38.9	28.3	67.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8	16.6	18.4	21.9	21.4	38.3	59.7	100.0
자영업	333	2.2	12.5	14.6	18.4	38.0	28.9	66.9	100.0
블루 칼라	325	1.5	10.1	11.6	20.5	39.0	28.9	67.9	100.0
화이트 칼라	241	4.6	12.8	17.4	15.0	39.1	28.6	67.7	100.0
전업 주부	170	3.1	8.8	11.9	19.2	39.0	29.9	68.9	100.0
학생/군인/무직	109	0.4	9.7	10.1	20.2	42.8	26.9	69.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5.9	11.8	17.7	17.9	32.5	31.9	64.4	100.0
200~299 만원	155	2.6	13.5	16.2	23.3	37.0	23.6	60.6	100.0
300~399 만원	374	2.2	11.0	13.2	18.9	42.2	25.8	67.9	100.0
400만원 이상	596	2.1	10.7	12.8	17.3	37.9	32.1	70.0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0	8.2	10.3	16.0	44.8	29.0	73.8	100.0
충청권	128	3.5	20.6	24.2	16.6	35.1	24.1	59.2	100.0
호남권	116	4.1	11.4	15.5	23.4	28.7	32.4	61.1	100.0
영남권	306	1.6	12.9	14.5	22.9	34.3	28.3	62.6	100.0
강원	35	4.4	15.6	20.0	15.3	28.3	36.5	64.8	100.0
제주	14	9.0	3.1	12.0	25.1	20.0	42.9	62.9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2.7	10.4	13.1	18.9	42.6	25.5	68.1	100.0
중/소도시	567	1.8	11.8	13.6	17.5	35.8	33.1	68.9	100.0
읍/면	90	4.9	12.2	17.1	24.3	34.3	24.3	58.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5	10.6	13.1	18.5	39.1	29.4	68.4	100.0
중도	577	2.4	12.9	15.3	19.0	39.5	26.3	65.8	100.0
보수적	212	2.3	7.9	10.2	18.0	36.2	35.6	71.8	100.0
종교									
불교	200	3.6	15.5	19.2	21.9	31.7	27.3	59.0	100.0
기독교	232	2.8	9.9	12.8	21.6	35.2	30.5	65.7	100.0
천주교	45	4.6	13.7	18.3	15.0	33.6	33.1	66.7	100.0
기타	2	49.4	0.0	49.4	0.0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1.6	10.2	11.8	17.3	43.0	27.8	70.8	100.0
모름/무응답	33	3.9	11.6	15.5	10.8	23.6	50.1	73.7	100.0

표11.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문) ○○님은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한의 현재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통일이 이루어 지지만 어떤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계
		%	%	%	%	%
전 체	1200	46.7	27.1	24.2	2.0	100.0
성별						
남자	607	45.7	27.0	25.1	2.2	100.0
여자	594	47.7	27.2	23.4	1.7	100.0
연령별						
19~29세	226	50.2	24.5	24.7	0.6	100.0
30대	222	40.7	29.5	28.7	1.0	100.0
40대	259	46.1	29.2	22.0	2.7	100.0
50대	260	43.7	27.1	25.5	3.7	100.0
60대	233	53.0	25.0	20.5	1.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55.9	22.8	18.3	3.1	100.0
고졸	560	48.5	24.6	25.5	1.5	100.0
대재 이상	531	42.9	30.6	24.1	2.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47.6	21.2	27.5	3.7	100.0
자영업	333	53.9	21.1	22.0	3.1	100.0
블루 칼라	325	43.2	29.5	26.0	1.3	100.0
화이트 칼라	241	40.6	35.7	22.4	1.3	100.0
전업 주부	170	47.0	26.8	24.5	1.6	100.0
학생/군인/무직	109	48.0	21.1	28.9	1.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48.5	28.2	17.9	5.4	100.0
200~299 만원	155	46.0	28.9	23.6	1.5	100.0
300~399 만원	374	46.1	28.7	23.3	1.8	100.0
400만원 이상	596	47.1	25.4	25.8	1.8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46.6	26.4	25.4	1.6	100.0
충청권	128	41.1	39.3	16.3	3.3	100.0
호남권	116	48.1	24.6	23.4	3.9	100.0
영남권	306	49.0	25.2	25.3	0.6	100.0
강원	35	43.2	23.7	26.4	6.6	100.0
제주	14	50.5	19.2	23.5	6.9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47.1	29.6	21.8	1.4	100.0
중/소도시	567	47.0	25.1	25.5	2.4	100.0
읍/면	90	42.4	24.2	31.1	2.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45.4	26.5	26.1	1.9	100.0
중도	577	46.9	29.6	21.7	1.8	100.0
보수적	212	48.5	21.4	27.6	2.5	100.0
종교						
불교	200	48.1	25.5	25.2	1.2	100.0
기독교	232	47.0	27.7	22.6	2.7	100.0
천주교	45	39.2	32.6	26.4	1.7	100.0
기타	2	50.6	49.4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47.5	26.3	24.4	1.8	100.0
모름/무응답	33	29.2	41.5	24.6	4.6	100.0

표12. 학교에서 통일에 대해 들었던 내용

문) ○○님께서 학교에서 들었던 통일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례수	반공 및 안보	북한에 대한 이해	탈북자와 다문화	자유 민주주의 가치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통일의 이익	계	
		%	%	%	%	%	%		
전 체	1200	64.6	10.1	7.6	11.2	4.3	2.2	100.0	
성별	남자	607	65.5	10.9	6.5	10.1	4.4	2.6	100.0
	여자	594	63.7	9.2	8.7	12.3	4.2	1.9	100.0
연령별	19~29세	226	35.5	11.8	17.8	19.0	9.8	6.1	100.0
	30대	222	51.8	13.5	10.9	15.0	6.3	2.6	100.0
	40대	259	67.5	12.9	4.5	10.7	2.5	2.0	100.0
	50대	260	81.1	6.5	2.9	5.9	2.7	0.9	100.0
	60대	233	83.3	6.1	3.2	6.6	0.8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77.9	8.8	6.9	4.8	1.6	0.0	100.0
	고졸	560	76.6	6.8	4.5	8.2	2.9	1.0	100.0
	대재 이상	531	49.2	13.8	11.0	15.7	6.3	4.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78.8	3.4	7.1	10.7	0.0	0.0	100.0
	자영업	333	77.6	8.3	3.4	7.9	2.3	0.5	100.0
	블루 칼라	325	67.1	8.6	8.3	10.4	4.4	1.2	100.0
	화이트 칼라	241	46.0	14.3	11.5	17.4	6.0	4.8	100.0
	전업 주부	170	76.1	9.3	4.7	7.6	1.7	0.7	100.0
	학생/군인/무직	109	38.0	13.1	14.5	15.7	11.0	7.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68.5	9.8	8.6	5.0	5.3	2.9	100.0
	200~299 만원	155	60.5	11.1	6.1	12.3	5.5	4.4	100.0
	300~399 만원	374	67.9	11.4	5.6	11.0	3.9	0.3	100.0
	400만원 이상	596	63.1	9.1	9.2	11.8	4.1	2.8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63.4	10.3	6.9	12.9	3.9	2.5	100.0
	충청권	128	60.7	9.8	5.6	13.6	6.9	3.4	100.0
	호남권	116	68.9	10.0	8.2	9.3	2.1	1.5	100.0
	영남권	306	67.0	9.7	10.1	8.0	4.0	1.2	100.0
	강원	35	62.5	10.5	6.1	6.5	8.2	6.2	100.0
	제주	14	67.9	10.2	0.0	13.1	8.9	0.0	100.0
	대도시	542	66.9	10.2	7.1	9.9	4.1	1.8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63.7	9.9	7.8	11.9	4.4	2.3	100.0
	읍/면	90	56.7	10.5	9.6	14.7	4.3	4.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63.9	8.9	9.9	9.5	5.0	2.9	100.0
	중도	577	62.6	11.5	7.2	13.3	3.5	1.9	100.0
	보수적	212	71.6	8.6	4.3	8.7	5.0	1.9	100.0
종교	불교	200	72.9	7.3	5.8	6.7	5.5	1.9	100.0
	기독교	232	63.2	9.3	7.3	13.5	4.1	2.7	100.0
	천주교	45	53.5	14.7	3.5	17.6	6.1	4.6	100.0
	기타	2	100.0	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63.4	11.0	8.3	11.3	4.0	2.1	100.0
	모름/무응답	33	64.0	8.9	12.2	12.5	2.5	0.0	100.0

표13. 종교/시민단체, 군대, 직장 등에서 통일에 대해 들었던 내용

문) ○○님께서 학교 이외에 종교/시민 단체, 군대, 직장 등에서 들었던 통일에 대한 내용 중 많이 들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례수	반공 및 안보	북한에 대한 이해	탈북자와 다문화	자유 민주주의 가치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통일의 이익	계	
		%	%	%	%	%	%		
전 체	1200	40.2	9.8	21.4	16.4	5.7	6.5	100.0	
성별	남자	607	44.4	10.0	20.1	13.4	5.2	6.9	100.0
	여자	594	35.9	9.6	22.8	19.4	6.1	6.2	100.0
연령별	19~29세	226	28.4	7.4	28.3	21.7	6.8	7.5	100.0
	30대	222	34.1	10.1	23.9	18.1	5.9	7.8	100.0
	40대	259	36.7	12.2	20.3	16.8	5.7	8.4	100.0
	50대	260	47.3	10.3	17.5	14.5	5.2	5.3	100.0
	60대	233	53.3	8.7	18.2	11.2	4.8	3.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56.6	10.5	17.6	8.5	4.5	2.3	100.0
	고졸	560	44.4	9.4	20.6	15.1	5.0	5.5	100.0
	대재 이상	531	32.3	10.1	23.1	19.3	6.6	8.5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4.0	15.7	26.4	18.7	11.2	4.0	100.0
	자영업	333	51.2	8.9	18.8	12.8	3.3	4.9	100.0
	블루 칼라	325	40.8	7.8	22.5	16.4	4.9	7.7	100.0
	화이트 칼라	241	28.5	14.2	20.4	19.7	8.8	8.3	100.0
	전업 주부	170	44.4	9.6	20.2	17.0	4.8	4.1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7.4	7.9	29.4	18.4	8.3	8.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46.5	8.1	20.1	9.9	10.5	4.9	100.0
	200~299 만원	155	39.8	13.3	19.3	12.9	6.1	8.6	100.0
	300~399 만원	374	41.0	10.6	21.0	16.4	5.9	5.2	100.0
	400만원 이상	596	39.0	8.5	22.5	18.1	4.8	7.1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41.0	7.9	22.8	15.2	4.2	8.9	100.0
	충청권	128	42.9	11.9	19.5	15.3	6.4	4.0	100.0
	호남권	116	32.0	8.9	20.6	23.8	9.0	5.7	100.0
	영남권	306	41.0	12.7	19.9	16.4	6.9	3.1	100.0
	강원	35	31.0	13.4	23.1	19.7	6.5	6.3	100.0
	제주	14	50.8	9.4	16.7	5.9	3.1	14.1	100.0
	대도시	542	41.6	8.4	17.7	20.2	5.3	6.9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40.3	9.8	25.4	13.9	4.9	5.8	100.0
	읍/면	90	31.2	18.2	19.1	9.2	12.9	9.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39.3	10.6	20.8	15.8	6.7	6.9	100.0
	중도	577	36.5	10.4	23.0	18.8	5.8	5.5	100.0
	보수적	212	51.8	6.7	18.5	11.1	3.3	8.7	100.0
종교	불교	200	47.5	7.6	18.5	14.6	8.5	3.2	100.0
	기독교	232	38.4	7.0	21.3	18.6	5.4	9.3	100.0
	천주교	45	22.4	18.2	27.7	16.1	8.2	7.3	100.0
	기타	2	50.6	0.0	0.0	0.0	0.0	49.4	100.0
	종교 없음	689	40.6	10.7	21.0	16.2	5.0	6.4	100.0
	모름/무응답	33	24.1	11.8	41.3	16.5	0.0	6.3	100.0

표14.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지원 대상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전 체	1200	16.4	54.6	4.3	14.4	10.3	100.0	
성별	남자	607	15.2	55.8	4.3	14.8	9.9	100.0
	여자	594	17.6	53.4	4.3	14.0	10.8	100.0
연령별	19~29세	226	15.1	56.4	3.5	14.7	10.3	100.0
	30대	222	14.0	57.3	4.3	14.1	10.3	100.0
	40대	259	15.3	55.0	5.1	15.6	9.1	100.0
	50대	260	18.4	55.6	4.7	10.6	10.7	100.0
	60대	233	18.7	48.9	3.7	17.3	11.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27.6	46.2	2.4	16.6	7.2	100.0
	고졸	560	17.8	50.7	4.2	14.4	12.9	100.0
	대재 이상	531	12.5	60.5	4.7	13.9	8.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4.9	25.9	17.6	13.9	7.7	100.0
	자영업	333	20.8	48.0	3.4	18.1	9.7	100.0
	블루 칼라	325	15.4	58.5	4.5	10.7	10.9	100.0
	화이트 칼라	241	9.6	63.2	2.7	16.1	8.5	100.0
	전업 주부	170	17.6	50.8	4.1	13.7	13.7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4.9	56.1	7.4	11.6	10.0	100.0
	200만원 미만	74	24.1	44.5	6.2	16.3	8.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19.4	50.7	6.2	13.3	10.3	100.0
	300~399 만원	374	16.2	52.4	5.3	14.8	11.3	100.0
	400만원 이상	596	14.7	58.2	2.9	14.2	10.0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1.6	57.6	5.0	15.3	10.4	100.0
	충청권	128	26.4	55.2	3.8	11.2	3.4	100.0
	호남권	116	24.0	60.2	5.4	8.4	2.0	100.0
	영남권	306	19.0	46.0	2.5	16.2	16.4	100.0
	강원	35	14.4	54.8	4.2	15.5	11.1	100.0
	제주	14	12.0	63.2	6.0	12.2	6.6	100.0
	대도시	542	15.0	58.7	3.6	12.8	9.9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17.1	51.5	3.8	16.4	11.2	100.0
	읍/면	90	19.3	50.1	11.7	11.2	7.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5.4	64.4	1.9	12.4	5.9	100.0
	중도	577	17.2	53.1	5.0	13.1	11.7	100.0
	보수적	212	15.9	40.0	7.0	21.8	15.4	100.0
종교	불교	200	20.0	46.4	5.6	13.4	14.5	100.0
	기독교	232	15.5	51.8	4.8	16.5	11.4	100.0
	천주교	45	17.4	54.5	8.3	12.3	7.6	100.0
	기타	2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5.2	57.7	3.5	14.3	9.3	100.0
	모름/무응답	33	24.0	58.9	2.5	11.7	2.9	100.0

표15.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문) ○○님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가능하다	② 어느 정도 가능하다	③ 별로 가능하지 않다	④ 전혀 가능하지 않다	③+④	계		
		①+②	③	④					
		%	%	%	%				
전 체	1200	4.4	50.3	54.7	41.8	3.6	45.3	100.0	
성별	남자	607	5.0	50.0	54.9	41.1	4.0	45.1	100.0
	여자	594	3.9	50.6	54.4	42.5	3.1	45.6	100.0
연령별	19~29세	226	4.2	53.1	57.3	42.7	0.0	42.7	100.0
	30대	222	2.8	49.2	52.0	43.3	4.7	48.0	100.0
	40대	259	6.4	53.4	59.8	36.8	3.4	40.2	100.0
	50대	260	4.7	49.0	53.7	43.5	2.8	46.3	100.0
	60대	233	3.6	46.5	50.1	42.9	7.0	49.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4.1	44.9	49.0	47.0	4.1	51.0	100.0
	고졸	560	3.2	50.1	53.4	42.6	4.1	46.6	100.0
	대재 이상	531	5.7	51.5	57.2	39.9	2.9	42.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4.4	48.2	52.5	45.3	2.1	47.5	100.0
	자영업	333	5.3	43.5	48.8	46.2	5.0	51.2	100.0
	블루 칼라	325	4.1	49.2	53.3	43.8	2.9	46.7	100.0
	화이트 칼라	241	5.8	55.8	61.6	34.4	4.0	38.4	100.0
	전업 주부	170	2.7	51.8	54.5	42.5	3.0	45.5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4	59.6	62.1	36.8	1.1	37.9	100.0
	200만원 미만	74	3.3	54.4	57.7	40.0	2.3	42.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4.5	52.1	56.6	39.8	3.6	43.4	100.0
	300~399 만원	374	4.2	46.8	51.0	45.2	3.8	49.0	100.0
	400만원 이상	596	4.7	51.4	56.1	40.4	3.6	43.9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3.2	49.2	52.4	44.1	3.5	47.6	100.0
	충청권	128	9.5	59.3	68.8	29.9	1.3	31.2	100.0
	호남권	116	7.9	63.6	71.4	28.6	0.0	28.6	100.0
	영남권	306	2.0	43.4	45.4	49.9	4.7	54.6	100.0
	강원	35	15.5	49.0	64.5	24.0	11.4	35.5	100.0
	제주	14	6.6	58.1	64.7	25.8	9.4	35.3	100.0
	대도시	542	3.4	49.8	53.2	44.0	2.9	46.8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5.0	50.5	55.5	40.8	3.7	44.5	100.0
	읍/면	90	6.6	51.8	58.4	34.5	7.1	41.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5.8	55.1	60.9	37.7	1.5	39.1	100.0
	중도	577	3.4	52.3	55.7	40.6	3.8	44.3	100.0
	보수적	212	4.6	35.5	40.0	52.9	7.0	60.0	100.0
종교	불교	200	5.4	50.2	55.6	39.3	5.1	44.4	100.0
	기독교	232	2.2	50.1	52.3	44.3	3.4	47.7	100.0
	천주교	45	12.6	48.5	61.0	28.7	10.2	39.0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4.3	50.6	54.9	42.2	2.9	45.1	100.0
	모름/무응답	33	2.4	47.8	50.2	49.8	0.0	49.8	100.0

표16.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다소 원한다	①+②	③ 별로 원하지 않는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8	36.1	40.9	51.0	8.1	59.1	100.0	
성별	남자	607	6.2	35.2	41.4	48.3	10.3	58.6	100.0
	여자	594	3.5	37.0	40.5	53.7	5.8	59.5	100.0
연령별	19~29세	226	5.0	33.2	38.3	54.2	7.5	61.7	100.0
	30대	222	3.4	33.2	36.7	54.7	8.7	63.3	100.0
	40대	259	6.5	35.8	42.2	51.8	6.0	57.8	100.0
	50대	260	3.6	43.6	47.2	44.5	8.4	52.8	100.0
	60대	233	5.6	33.6	39.2	50.8	10.1	60.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4.2	38.6	42.8	46.9	10.3	57.2	100.0
	고졸	560	4.0	32.9	36.9	54.7	8.5	63.1	100.0
	대재 이상	531	5.9	38.9	44.8	48.0	7.2	55.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0.0	26.8	26.8	57.6	15.7	73.2	100.0
	자영업	333	4.8	35.8	40.6	50.4	9.0	59.4	100.0
	블루 칼라	325	6.7	34.2	40.9	49.6	9.5	59.1	100.0
	화이트 칼라	241	4.4	38.4	42.7	51.4	5.8	57.3	100.0
	전업 주부	170	2.2	34.5	36.7	57.1	6.2	63.3	100.0
	학생/군인/무직	109	5.5	42.1	47.6	45.2	7.2	52.4	100.0
	200만원 미만	74	5.7	38.2	43.9	46.2	9.9	56.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7.3	38.7	46.0	44.7	9.3	54.0	100.0
	300~399 만원	374	3.0	34.0	37.0	56.2	6.8	63.0	100.0
	400만원 이상	596	5.3	36.5	41.8	49.9	8.4	58.2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6.3	29.8	36.0	56.5	7.4	64.0	100.0
	충청권	128	8.7	43.3	52.0	42.0	6.0	48.0	100.0
	호남권	116	3.5	46.6	50.1	42.4	7.5	49.9	100.0
	영남권	306	1.1	39.2	40.4	50.3	9.3	59.6	100.0
	강원	35	2.3	50.0	52.3	27.7	20.0	47.7	100.0
	제주	14	5.9	52.3	58.2	38.7	3.1	41.8	100.0
	대도시	542	4.2	31.7	35.8	57.5	6.7	64.2	100.0
	중/소도시	567	5.1	40.1	45.2	46.2	8.7	54.8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0	7.3	37.6	44.9	42.5	12.6	55.1	100.0
	진보적	411	5.5	37.5	43.0	50.2	6.8	57.0	100.0
	중도 보수적	577	4.2	37.5	41.8	50.4	7.8	58.2	100.0
종교	불교	212	5.2	29.5	34.7	54.2	11.1	65.3	100.0
	기독교	200	3.2	39.5	42.7	51.3	6.1	57.3	100.0
	기독교	232	6.5	34.3	40.8	54.0	5.2	59.2	100.0
	천주교	45	9.9	48.8	58.6	34.9	6.5	41.4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4.5	35.0	39.6	50.7	9.7	60.4	100.0
	모름/무응답	33	0.0	32.3	32.3	58.9	8.8	67.7	100.0

표17. 북한 정권의 안정화에 대한 견해

문) ○○님은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 한다	② 대체로 동의 한다	①+②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5	30.0	31.5	41.1	25.3	2.1	27.4	100.0	
성별	남자	607	2.0	32.3	34.3	37.7	26.4	1.6	28.0	100.0
	여자	594	1.1	27.6	28.7	44.5	24.2	2.7	26.9	100.0
연령별	19~29세	226	0.0	24.9	24.9	46.9	26.7	1.5	28.2	100.0
	30대	222	2.9	30.0	32.9	38.6	25.3	3.2	28.5	100.0
	40대	259	1.4	31.8	33.1	40.7	25.1	1.0	26.2	100.0
	50대	260	1.0	32.4	33.4	41.4	23.1	2.2	25.2	100.0
	60대	233	2.5	30.1	32.7	37.8	26.6	3.0	29.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5	24.7	26.2	42.7	30.0	1.2	31.1	100.0
	고졸	560	1.3	29.7	31.0	42.8	24.2	1.9	26.2	100.0
	대재 이상	531	1.8	31.3	33.1	38.9	25.5	2.6	28.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6	21.7	25.3	35.1	35.8	3.7	39.5	100.0
	자영업	333	2.1	30.8	32.9	36.0	29.4	1.6	31.1	100.0
	블루 칼라	325	1.4	28.7	30.1	44.1	23.8	1.9	25.7	100.0
	화이트 칼라	241	1.6	32.5	34.1	40.0	23.3	2.7	26.0	100.0
	전업 주부	170	1.3	26.9	28.2	47.7	21.4	2.6	24.1	100.0
	학생/군인/무직	109	0.0	32.0	32.0	40.4	25.4	2.3	27.6	100.0
	200만원 미만	74	1.1	25.0	26.1	40.4	31.4	2.1	33.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3.0	30.7	33.7	40.2	23.9	2.1	26.1	100.0
	300~399 만원	374	1.6	27.3	28.9	41.2	28.1	1.8	29.9	100.0
	400만원 이상	596	1.2	32.1	33.3	41.3	23.0	2.4	25.4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4	31.1	32.4	38.1	27.8	1.6	29.4	100.0
	충청권	128	3.2	40.9	44.1	31.9	19.5	4.5	24.0	100.0
	호남권	116	0.7	32.8	33.5	45.2	18.5	2.8	21.3	100.0
	영남권	306	1.2	23.0	24.1	48.3	26.3	1.2	27.5	100.0
	강원	35	2.3	28.7	30.9	38.8	23.9	6.4	30.3	100.0
	제주	14	6.6	15.3	21.9	62.0	9.4	6.6	16.0	100.0
	대도시	542	1.2	31.6	32.8	39.0	26.6	1.6	28.2	100.0
	중/소도시	567	1.4	29.1	30.5	43.4	23.4	2.7	26.1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0	4.3	25.7	30.1	38.4	29.4	2.2	31.6	100.0
	진보적	411	0.9	35.5	36.5	37.9	24.1	1.5	25.6	100.0
	중도 보수적	577	1.6	28.4	30.0	44.4	23.2	2.5	25.6	100.0
종교	불교	212	2.6	23.4	26.0	38.1	33.5	2.4	35.9	100.0
	기독교	200	1.9	30.3	32.2	49.9	16.5	1.4	17.8	100.0
	기독교	232	2.5	26.7	29.1	44.9	23.5	2.4	26.0	100.0
	천주교	45	0.0	42.7	42.7	38.3	16.2	2.8	19.0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2	30.2	31.4	37.2	29.0	2.3	31.4	100.0
	모름/무응답	33	0.0	27.6	27.6	45.4	27.0	0.0	27.0	100.0

표18.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문)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	%	%	%	%	%	%
전 체	1200	13.2	64.1	77.3	20.1	2.6	22.7	100.0
성별								
남자	607	12.9	64.5	77.3	20.1	2.5	22.7	100.0
여자	594	13.6	63.6	77.2	20.0	2.8	22.8	100.0
연령별								
19~29세	226	13.1	64.8	77.9	20.5	1.6	22.1	100.0
30대	222	11.0	66.2	77.2	19.0	3.8	22.8	100.0
40대	259	15.3	59.7	74.9	22.8	2.2	25.1	100.0
50대	260	17.7	63.3	81.0	18.2	0.8	19.0	100.0
60대	233	8.2	67.0	75.2	19.7	5.1	24.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1.5	65.6	77.1	14.4	8.5	22.9	100.0
고졸	560	11.5	64.4	75.9	22.8	1.2	24.1	100.0
대재 이상	531	15.4	63.4	78.7	18.3	2.9	21.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3.6	50.2	63.8	28.6	7.6	36.2	100.0
자영업	333	11.8	62.8	74.6	22.2	3.3	25.4	100.0
블루 칼라	325	12.2	69.3	81.5	16.6	1.8	18.5	100.0
화이트 칼라	241	15.3	61.4	76.7	21.9	1.4	23.3	100.0
전업 주부	170	14.4	63.9	78.2	18.3	3.4	21.8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4.1	61.1	75.2	20.9	3.9	24.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4.7	62.8	77.5	15.5	6.9	22.5	100.0
200~299 만원	155	15.3	64.0	79.3	18.8	1.9	20.7	100.0
300~399 만원	374	11.1	63.3	74.4	23.8	1.8	25.6	100.0
400만원 이상	596	13.8	64.6	78.5	18.6	2.9	21.5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3.6	61.0	74.6	22.7	2.7	25.4	100.0
충청권	128	19.9	62.1	82.0	14.6	3.4	18.0	100.0
호남권	116	14.8	72.9	87.8	10.9	1.4	12.2	100.0
영남권	306	6.5	71.0	77.5	21.6	0.9	22.5	100.0
강원	35	31.4	35.7	67.1	12.9	20.0	32.9	100.0
제주	14	22.9	58.0	80.9	19.1	0.0	19.1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0.0	68.6	78.7	20.3	1.0	21.3	100.0
중/소도시	567	16.1	61.8	77.8	18.5	3.7	22.2	100.0
읍/면	90	14.4	51.0	65.4	28.4	6.2	34.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9.3	62.3	81.6	16.9	1.5	18.4	100.0
중도	577	10.1	67.3	77.3	19.6	3.1	22.7	100.0
보수적	212	9.9	58.8	68.7	27.5	3.8	31.3	100.0
종교								
불교	200	12.8	61.2	74.0	24.3	1.7	26.0	100.0
기독교	232	13.5	65.0	78.5	18.1	3.5	21.5	100.0
천주교	45	18.0	43.1	61.1	32.8	6.2	38.9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3.3	66.3	79.6	17.9	2.4	20.4	100.0
모름/무응답	33	2.4	57.6	60.0	37.5	2.5	40.0	100.0

표19.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문)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약간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전 체	1200	7.4	48.7	56.1	40.2	3.7	43.9	100.0
성별								
남자	607	7.8	47.9	55.7	39.7	4.6	44.3	100.0
여자	594	7.0	49.4	56.4	40.7	2.8	43.6	100.0
연령별								
19~29세	226	8.8	48.8	57.6	39.2	3.2	42.4	100.0
30대	222	10.4	48.4	58.8	38.8	2.4	41.2	100.0
40대	259	7.4	45.8	53.1	43.3	3.6	46.9	100.0
50대	260	5.0	48.4	53.4	41.2	5.3	46.6	100.0
60대	233	5.9	52.2	58.1	38.1	3.8	41.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3.8	59.5	63.3	31.9	4.7	36.7	100.0
고졸	560	6.7	52.6	59.3	37.1	3.7	40.7	100.0
대재 이상	531	8.9	42.3	51.2	45.3	3.5	48.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8	66.7	70.5	24.0	5.5	29.5	100.0
자영업	333	8.4	45.7	54.2	40.4	5.4	45.8	100.0
블루 칼라	325	6.9	51.0	57.9	39.2	3.0	42.1	100.0
화이트 칼라	241	6.7	44.2	50.9	46.9	2.2	49.1	100.0
전업 주부	170	6.0	54.5	60.4	35.3	4.2	39.6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0.1	48.0	58.1	39.0	2.9	41.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5.3	61.3	66.6	30.1	3.3	33.4	100.0
200~299 만원	155	7.9	48.7	56.6	38.1	5.3	43.4	100.0
300~399 만원	374	5.7	50.4	56.1	41.3	2.6	43.9	100.0
400만원 이상	596	8.6	45.9	54.5	41.4	4.1	45.5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7.2	49.5	56.7	40.7	2.6	43.3	100.0
충청권	128	13.7	59.1	72.8	27.2	0.0	27.2	100.0
호남권	116	4.0	46.2	50.2	42.7	7.0	49.8	100.0
영남권	306	4.4	43.1	47.5	45.9	6.6	52.5	100.0
강원	35	24.2	47.7	71.9	28.1	0.0	28.1	100.0
제주	14	9.2	64.4	73.6	23.6	2.8	26.4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5.2	49.3	54.5	42.6	2.9	45.5	100.0
중/소도시	567	9.2	48.3	57.5	38.8	3.7	42.5	100.0
읍/면	90	8.9	47.5	56.5	34.5	9.0	43.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6.8	46.7	53.6	41.6	4.9	46.4	100.0
중도	577	6.8	50.4	57.2	40.2	2.6	42.8	100.0
보수적	212	10.1	47.6	57.7	37.8	4.5	42.3	100.0
종교								
불교	200	5.1	51.4	56.5	38.6	4.9	43.5	100.0
기독교	232	8.9	48.0	56.9	41.5	1.6	43.1	100.0
천주교	45	8.8	45.7	54.6	40.0	5.4	45.4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7.7	47.0	54.6	41.2	4.1	45.4	100.0
모름/무응답	33	2.5	75.1	77.5	22.5	0.0	22.5	100.0

표20-1.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선군정치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전 체	1200	5.6	24.4	39.7	30.3	100.0	
성별	남자	607	7.4	30.2	38.8	23.6	100.0
	여자	594	3.8	18.5	40.6	37.1	100.0
연령별	19~29세	226	6.6	19.5	32.4	41.5	100.0
	30대	222	5.9	25.9	40.0	28.2	100.0
	40대	259	5.0	23.0	43.0	29.0	100.0
	50대	260	5.7	28.8	40.6	24.9	100.0
	60대	233	4.9	24.3	41.9	28.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9	12.3	46.1	40.6	100.0
	고졸	560	3.9	27.9	38.1	30.1	100.0
	대재 이상	531	8.4	23.1	40.1	28.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0.0	36.8	16.4	46.7	100.0
	자영업	333	5.4	25.4	43.4	25.9	100.0
	블루 칼라	325	4.6	28.0	38.1	29.2	100.0
	화이트 칼라	241	4.6	25.9	41.3	28.2	100.0
	전업 주부	170	5.7	16.2	39.5	38.6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2.8	17.4	34.6	35.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4.2	19.5	31.8	44.5	100.0
	200~299 만원	155	4.4	24.0	40.5	31.2	100.0
	300~399 만원	374	4.9	26.2	38.3	30.5	100.0
	400만원 이상	596	6.6	23.9	41.3	28.2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7.1	31.1	39.2	22.5	100.0
	충청권	128	4.7	21.0	43.3	31.0	100.0
	호남권	116	3.4	9.3	37.5	49.8	100.0
	영남권	306	2.5	16.9	42.1	38.5	100.0
	강원	35	19.5	37.2	23.0	20.3	100.0
	제주	14	2.8	21.4	34.5	41.3	100.0
	대도시	542	4.4	27.0	41.6	27.0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6.7	21.7	37.8	33.8	100.0
	읍/면	90	6.1	25.6	40.5	27.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6.0	22.5	41.6	29.9	100.0
	중도	577	5.0	25.2	36.6	33.1	100.0
	보수적	212	6.5	25.7	44.4	23.3	100.0
종교	불교	200	5.8	20.2	39.2	34.8	100.0
	기독교	232	8.5	23.0	36.6	31.9	100.0
	천주교	45	7.7	32.5	41.0	18.8	100.0
	기타	2	0.0	0.0	100.0	0.0	100.0
	종교 없음	689	4.3	25.9	40.6	29.1	100.0
	모름/무응답	33	8.6	16.9	40.5	34.0	100.0

표20-2. 북한 사회 인지도 - ㉟ 주체사상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전 체	1200	9.6	31.6	40.8	18.1	100.0	
성별	남자	607	12.1	35.1	39.0	13.8	100.0
	여자	594	6.9	28.0	42.6	22.5	100.0
연령별	19~29세	226	7.7	24.8	43.8	23.7	100.0
	30대	222	11.2	31.4	40.7	16.8	100.0
	40대	259	11.2	31.4	40.5	16.9	100.0
	50대	260	9.3	38.2	39.5	12.9	100.0
	60대	233	8.2	31.2	39.7	21.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2.3	25.2	43.3	29.2	100.0
	고졸	560	7.6	34.5	39.4	18.6	100.0
	대재 이상	531	13.1	29.9	41.7	15.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8	21.9	50.4	23.9	100.0
	자영업	333	9.8	34.1	41.2	14.8	100.0
	블루 칼라	325	8.5	37.2	36.2	18.2	100.0
	화이트 칼라	241	10.2	31.5	39.3	19.0	100.0
	전업 주부	170	6.1	24.3	47.6	22.0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7.2	20.7	43.7	18.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7.3	27.0	29.2	36.5	100.0
	200~299 만원	155	7.1	28.4	49.5	15.0	100.0
	300~399 만원	374	8.0	32.9	43.2	15.9	100.0
	400만원 이상	596	11.3	32.2	38.5	18.0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2.1	34.8	37.6	15.5	100.0
	충청권	128	9.3	29.6	51.3	9.8	100.0
	호남권	116	3.4	27.8	42.4	26.3	100.0
	영남권	306	5.5	26.6	44.0	23.9	100.0
	강원	35	21.5	41.4	23.8	13.3	100.0
	제주	14	12.0	27.5	41.7	18.7	100.0
	대도시	542	9.9	36.7	37.9	15.5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9.9	27.2	42.6	20.4	100.0
	읍/면	90	5.3	28.7	46.7	19.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8.4	32.0	38.7	20.9	100.0
	중도	577	9.7	31.1	41.4	17.8	100.0
	보수적	212	11.3	32.1	43.1	13.5	100.0
종교	불교	200	9.2	30.4	39.3	21.1	100.0
	기독교	232	11.3	27.7	37.6	23.4	100.0
	천주교	45	17.7	30.2	38.2	13.8	100.0
	기타	2	0.0	10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8.9	32.6	42.3	16.3	100.0
	모름/무응답	33	3.0	43.5	46.5	7.0	100.0

표20-3.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천리마운동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전 체	1200	8.8	30.2	43.8	17.2	100.0	
성별	남자	607	10.3	33.1	44.5	12.1	100.0
	여자	594	7.2	27.2	43.1	22.4	100.0
연령별	19~29세	226	8.0	18.5	41.6	32.0	100.0
	30대	222	5.4	29.0	47.0	18.6	100.0
	40대	259	8.4	35.0	44.7	11.9	100.0
	50대	260	11.3	34.3	44.4	10.0	100.0
	60대	233	10.5	32.7	41.4	15.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2.1	32.2	43.3	22.4	100.0
	고졸	560	8.9	31.6	43.6	16.0	100.0
	대재 이상	531	10.1	28.3	44.2	17.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5.7	25.4	58.2	10.7	100.0
	자영업	333	9.2	33.1	47.9	9.8	100.0
	블루 칼라	325	7.6	33.5	42.2	16.7	100.0
	화이트 칼라	241	7.4	30.1	44.7	17.8	100.0
	전업 주부	170	9.0	25.7	40.1	25.1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4.4	19.5	37.3	28.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7.1	32.2	29.9	30.8	100.0
	200~299 만원	155	7.1	27.4	48.5	16.9	100.0
	300~399 만원	374	7.4	31.3	45.6	15.7	100.0
	400만원 이상	596	10.3	30.0	43.2	16.5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0.7	33.6	42.3	13.5	100.0
	충청권	128	7.1	29.8	48.4	14.7	100.0
	호남권	116	3.4	30.4	45.0	21.3	100.0
	영남권	306	6.5	24.6	44.8	24.1	100.0
	강원	35	19.7	26.2	42.8	11.2	100.0
	제주	14	9.1	20.7	41.6	28.6	100.0
	대도시	542	9.5	34.2	41.9	14.4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7.5	27.9	45.1	19.5	100.0
	읍/면	90	12.9	20.7	47.0	19.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5.6	30.0	47.1	17.3	100.0
	중도	577	9.7	29.9	41.6	18.8	100.0
	보수적	212	12.6	31.2	43.8	12.5	100.0
종교	불교	200	8.5	33.7	38.9	18.9	100.0
	기독교	232	11.6	24.2	45.9	18.3	100.0
	천주교	45	17.4	36.7	40.2	5.7	100.0
	기타	2	0.0	10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7.2	30.9	44.6	17.3	100.0
	모름/무응답	33	13.0	23.9	50.0	13.0	100.0

표20-4. 북한 사회 인지도 - ㉕ 고난의 행군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전 체	1200	7.9	24.5	39.5	28.1	100.0	
성별	남자	607	9.2	28.6	41.0	21.3	100.0
	여자	594	6.6	20.3	38.0	35.1	100.0
연령별	19~29세	226	6.4	17.3	37.5	38.8	100.0
	30대	222	7.5	22.3	43.2	27.0	100.0
	40대	259	8.9	28.5	37.7	24.9	100.0
	50대	260	8.9	24.8	44.1	22.1	100.0
	60대	233	7.4	28.9	34.7	29.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2.8	21.7	36.9	38.6	100.0
	고졸	560	7.2	25.3	39.3	28.3	100.0
	대재 이상	531	9.6	24.3	40.3	25.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0.0	17.1	51.8	31.0	100.0
	자영업	333	8.4	25.3	43.7	22.6	100.0
	블루 칼라	325	6.9	29.2	37.8	26.1	100.0
	화이트 칼라	241	7.3	25.4	40.7	26.5	100.0
	전업 주부	170	8.2	20.2	34.3	37.2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1.6	14.3	34.4	39.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5.4	20.7	32.0	41.9	100.0
	200~299 만원	155	7.8	23.7	36.4	32.1	100.0
	300~399 만원	374	5.6	26.2	43.3	24.8	100.0
	400만원 이상	596	9.5	24.2	38.9	27.4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0.7	26.9	38.6	23.8	100.0
	충청권	128	6.6	22.5	43.6	27.3	100.0
	호남권	116	0.7	24.1	39.1	36.0	100.0
	영남권	306	4.5	20.8	40.1	34.6	100.0
	강원	35	17.4	24.4	38.9	19.3	100.0
	제주	14	6.1	26.8	31.8	35.3	100.0
	대도시	542	8.3	29.0	36.1	26.5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6.9	21.9	42.6	28.6	100.0
	읍/면	90	11.8	14.2	39.9	34.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6.8	21.2	43.5	28.5	100.0
	중도	577	7.5	26.7	35.5	30.4	100.0
	보수적	212	11.1	25.1	42.6	21.2	100.0
종교	불교	200	6.1	24.8	36.1	33.0	100.0
	기독교	232	11.1	19.5	40.9	28.5	100.0
	천주교	45	14.0	25.3	42.1	18.6	100.0
	기타	2	0.0	50.6	0.0	49.4	100.0
	종교 없음	689	6.6	26.1	40.0	27.3	100.0
	모름/무응답	33	15.5	21.4	38.2	24.9	100.0

표20-5.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장마당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전 체	1200	8.3	24.4	39.7	27.7	100.0	
성별	남자	607	9.4	27.2	40.4	23.0	100.0
	여자	594	7.1	21.5	39.0	32.4	100.0
연령별	19~29세	226	7.8	20.8	35.4	36.1	100.0
	30대	222	10.7	19.3	42.4	27.7	100.0
	40대	259	6.7	28.5	37.8	27.0	100.0
	50대	260	6.7	26.3	42.4	24.6	100.0
	60대	233	9.9	25.9	40.5	23.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3.2	17.2	41.2	38.4	100.0
	고졸	560	6.9	25.6	42.1	25.4	100.0
	대재 이상	531	10.7	24.5	36.9	27.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0.0	9.1	38.3	52.5	100.0
	자영업	333	7.2	25.7	44.3	22.8	100.0
	블루 칼라	325	8.7	24.3	42.6	24.4	100.0
	화이트 칼라	241	8.4	25.1	36.1	30.4	100.0
	전업 주부	170	8.8	23.9	34.9	32.4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0.8	22.7	32.7	33.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5.6	23.9	29.2	41.4	100.0
	200~299 만원	155	4.7	25.3	41.6	28.3	100.0
	300~399 만원	374	7.0	20.9	44.0	28.1	100.0
	400만원 이상	596	10.3	26.4	37.7	25.6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1.5	24.3	45.6	18.5	100.0
	충청권	128	5.2	20.4	29.7	44.7	100.0
	호남권	116	3.3	21.5	29.5	45.6	100.0
	영남권	306	4.6	28.3	36.6	30.6	100.0
	강원	35	12.7	21.7	35.3	30.4	100.0
	제주	14	5.9	6.6	38.9	48.6	100.0
	대도시	542	10.2	29.0	37.6	23.2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6.5	21.2	43.3	29.0	100.0
	읍/면	90	7.5	16.7	29.4	46.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8.0	23.3	40.9	27.8	100.0
	중도	577	7.4	23.7	40.5	28.4	100.0
	보수적	212	11.0	28.3	35.3	25.3	100.0
종교	불교	200	8.8	28.4	37.7	25.0	100.0
	기독교	232	9.5	22.2	42.5	25.9	100.0
	천주교	45	13.6	28.6	41.5	16.3	100.0
	기타	2	0.0	0.0	0.0	100.0	100.0
	종교 없음	689	7.4	23.6	38.6	30.4	100.0
	모름/무응답	33	6.2	26.9	55.6	11.3	100.0

표20-6.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모란봉 악단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전 체	1200	12.6	41.5	38.6	7.3	100.0	
성별	남자	607	12.9	45.7	36.6	4.8	100.0
	여자	594	12.3	37.3	40.7	9.8	100.0
연령별	19~29세	226	11.8	34.3	39.3	14.6	100.0
	30대	222	10.7	42.4	42.7	4.2	100.0
	40대	259	14.6	45.2	36.0	4.3	100.0
	50대	260	12.5	41.7	40.6	5.3	100.0
	60대	233	13.0	43.4	34.9	8.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6.0	38.0	41.9	14.1	100.0
	고졸	560	12.5	42.8	38.2	6.5	100.0
	대재 이상	531	14.0	40.9	38.4	6.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1	36.2	37.5	24.3	100.0
	자영업	333	14.9	42.3	38.0	4.9	100.0
	블루 칼라	325	10.0	47.0	38.3	4.7	100.0
	화이트 칼라	241	13.8	39.5	41.5	5.1	100.0
	전업 주부	170	12.2	38.1	37.2	12.5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3.4	33.6	37.5	15.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2.8	37.9	33.0	16.4	100.0
	200~299 만원	155	7.3	41.9	43.0	7.7	100.0
	300~399 만원	374	9.4	43.2	40.1	7.2	100.0
	400만원 이상	596	15.8	40.9	37.3	6.1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8.2	40.5	37.6	3.8	100.0
	충청권	128	7.6	39.4	45.4	7.6	100.0
	호남권	116	14.8	52.6	30.6	2.0	100.0
	영남권	306	3.0	41.0	40.6	15.4	100.0
	강원	35	13.0	38.2	37.6	11.2	100.0
	제주	14	9.1	34.3	46.4	10.2	100.0
	대도시	542	15.9	43.9	35.7	4.5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9.4	38.4	43.1	9.1	100.0
	읍/면	90	12.3	46.9	28.3	12.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2.9	41.9	41.1	4.1	100.0
	중도	577	11.4	41.4	37.7	9.6	100.0
	보수적	212	15.3	41.3	36.2	7.2	100.0
종교	불교	200	7.9	42.2	42.2	7.7	100.0
	기독교	232	16.3	35.2	42.6	5.9	100.0
	천주교	45	27.6	37.8	30.4	4.2	100.0
	기타	2	49.4	0.0	50.6	0.0	100.0
	종교 없음	689	11.8	43.1	37.2	7.9	100.0
	모름/무응답	33	8.5	56.2	29.0	6.2	100.0

표21-1.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㉞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1200	2.4	97.6	100.0	
성별	남자	607	3.1	96.9	100.0
	여자	594	1.6	98.4	100.0
연령별	19~29세	226	0.4	99.6	100.0
	30대	222	2.2	97.8	100.0
	40대	259	1.5	98.5	100.0
	50대	260	3.2	96.8	100.0
	60대	233	4.5	95.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5.6	94.4	100.0
	고졸	560	2.0	98.0	100.0
	대재 이상	531	2.1	97.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7.1	92.9	100.0
	자영업	333	2.9	97.1	100.0
	블루 칼라	325	1.1	98.9	100.0
	화이트 칼라	241	3.8	96.2	100.0
	전업 주부	170	2.5	97.5	100.0
	학생/군인/무직	109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4.7	95.3
200~299 만원	155	2.7	97.3	100.0	
300~399 만원	374	2.3	97.7	100.0	
400만원 이상	596	2.1	97.9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5	98.5	100.0
	충청권	128	3.3	96.7	100.0
	호남권	116	4.2	95.8	100.0
	영남권	306	2.8	97.2	100.0
	강원	35	2.1	97.9	100.0
	제주	14	5.8	94.2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9	98.1	100.0
	중/소도시	567	1.9	98.1	100.0
	읍/면	90	8.2	91.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9	98.1	100.0
	중도	577	2.4	97.6	100.0
	보수적	212	3.2	96.8	100.0
종교	불교	200	2.4	97.6	100.0
	기독교	232	1.1	98.9	100.0
	천주교	45	5.9	94.1	100.0
	기타	2	50.6	49.4	100.0
	종교 없음	689	2.1	97.9	100.0
	모름/무응답	33	9.3	90.7	100.0

표21-2.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㉟ 탈북자(북한이탈주민)과 만남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1200	16.4	83.6	100.0	
성별	남자	607	17.6	82.4	100.0
	여자	594	15.2	84.8	100.0
연령별	19~29세	226	13.6	86.4	100.0
	30대	222	14.6	85.4	100.0
	40대	259	15.5	84.5	100.0
	50대	260	19.9	80.1	100.0
	60대	233	18.1	81.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4.0	86.0	100.0
	고졸	560	17.0	83.0	100.0
	대재 이상	531	16.3	83.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2.8	67.2	100.0
	자영업	333	17.8	82.2	100.0
	블루 칼라	325	12.5	87.5	100.0
	화이트 칼라	241	19.4	80.6	100.0
	전업 주부	170	14.8	85.2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6.5	83.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1.0	79.0
200~299 만원	155	16.2	83.8	100.0	
300~399 만원	374	12.5	87.5	100.0	
400만원 이상	596	18.3	81.7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6.3	83.7	100.0
	충청권	128	26.5	73.5	100.0
	호남권	116	13.0	87.0	100.0
	영남권	306	9.8	90.2	100.0
	강원	35	44.1	55.9	100.0
	제주	14	31.8	68.2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7.0	83.0	100.0
	중/소도시	567	15.9	84.1	100.0
	읍/면	90	16.0	84.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7.1	82.9	100.0
	중도	577	14.6	85.4	100.0
	보수적	212	20.0	80.0	100.0
종교	불교	200	20.0	80.0	100.0
	기독교	232	21.1	78.9	100.0
	천주교	45	18.2	81.8	100.0
	기타	2	50.6	49.4	100.0
	종교 없음	689	13.3	86.7	100.0
	모름/무응답	33	23.8	76.2	100.0

표21-3.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함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1200	20.6	79.4	100.0	
성별	남자	607	21.3	78.7	100.0
	여자	594	20.0	80.0	100.0
	19~29세	226	21.8	78.2	100.0
연령별	30대	222	20.3	79.7	100.0
	40대	259	22.3	77.7	100.0
	50대	260	19.3	80.7	100.0
	60대	233	19.3	80.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5.3	84.7	100.0
	고졸	560	18.8	81.2	100.0
	대재 이상	531	23.7	76.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3.6	86.4	100.0
	자영업	333	17.8	82.2	100.0
	블루 칼라	325	21.6	78.4	100.0
	화이트 칼라	241	25.2	74.8	100.0
	전업 주부	170	19.6	80.4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9.2	80.8	100.0
	200만원 미만	74	24.4	75.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17.7	82.3	100.0
	300~399 만원	374	21.4	78.6	100.0
	400만원 이상	596	20.4	79.6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5.1	84.9	100.0
	충청권	128	16.4	83.6	100.0
	호남권	116	27.0	73.0	100.0
	영남권	306	26.7	73.3	100.0
	강원	35	34.3	65.7	100.0
	제주	14	74.4	25.6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21.3	78.7	100.0
	중/소도시	567	21.1	78.9	100.0
	읍/면	90	13.8	86.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8.9	81.1	100.0
	중도	577	21.5	78.5	100.0
	보수적	212	21.5	78.5	100.0
종교	불교	200	28.2	71.8	100.0
	기독교	232	16.9	83.1	100.0
	천주교	45	27.7	72.3	100.0
	기타	2	0.0	100.0	100.0
	종교 없음	689	19.4	80.6	100.0
	모름/무응답	33	18.1	81.9	100.0

표21-4.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1200	1.6	98.4	100.0	
성별	남자	607	1.7	98.3	100.0
	여자	594	1.5	98.5	100.0
	19~29세	226	1.6	98.4	100.0
연령별	30대	222	1.4	98.6	100.0
	40대	259	0.3	99.7	100.0
	50대	260	1.7	98.3	100.0
	60대	233	2.9	97.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2.5	97.5	100.0
	고졸	560	1.2	98.8	100.0
	대재 이상	531	1.8	98.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9	96.1	100.0
	자영업	333	1.9	98.1	100.0
	블루 칼라	325	1.4	98.6	100.0
	화이트 칼라	241	1.7	98.3	100.0
	전업 주부	170	1.1	98.9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1	98.9	100.0
	200만원 미만	74	2.3	97.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0.6	99.4	100.0
	300~399 만원	374	1.8	98.2	100.0
	400만원 이상	596	1.6	98.4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1	98.9	100.0
	충청권	128	5.4	94.6	100.0
	호남권	116	1.9	98.1	100.0
	영남권	306	0.3	99.7	100.0
	강원	35	4.1	95.9	100.0
	제주	14	6.0	94.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5	98.5	100.0
	중/소도시	567	1.8	98.2	100.0
	읍/면	90	0.9	99.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6	98.4	100.0
	중도	577	1.3	98.7	100.0
	보수적	212	2.4	97.6	100.0
종교	불교	200	1.8	98.2	100.0
	기독교	232	2.2	97.8	100.0
	천주교	45	0.0	100.0	100.0
	기타	2	50.6	49.4	100.0
	종교 없음	689	1.4	98.6	100.0
	모름/무응답	33	0.0	100.0	100.0

표22-1.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㉞ 선거방식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전 체	1200	66.9	26.7	93.6	5.2	1.3	6.4	100.0	
성별	남자	607	67.1	26.1	93.2	6.0	0.8	6.8	100.0
	여자	594	66.6	27.3	93.9	4.4	1.7	6.1	100.0
연령별	19~29세	226	70.2	24.3	94.5	5.1	0.3	5.5	100.0
	30대	222	68.2	28.0	96.2	3.1	0.7	3.8	100.0
	40대	259	65.7	25.9	91.6	6.5	1.9	8.4	100.0
	50대	260	67.1	27.2	94.3	4.1	1.6	5.7	100.0
	60대	233	63.4	28.0	91.5	6.9	1.6	8.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60.4	30.5	90.9	6.9	2.3	9.1	100.0
	고졸	560	66.6	27.3	93.9	4.8	1.2	6.1	100.0
	대재 이상	531	68.5	25.3	93.7	5.2	1.1	6.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58.3	41.7	100.0	0.0	0.0	0.0	100.0
	자영업	333	68.6	24.8	93.4	5.5	1.1	6.6	100.0
	블루 칼라	325	68.1	26.0	94.0	5.3	0.7	6.0	100.0
	화이트 칼라	241	63.9	27.7	91.6	6.6	1.9	8.4	100.0
	전업 주부	170	65.3	28.8	94.1	3.6	2.3	5.9	100.0
	학생/군인/무직	109	68.7	26.1	94.8	4.6	0.6	5.2	100.0
	200만원 미만	74	60.2	31.1	91.3	7.6	1.1	8.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66.4	27.5	93.9	6.1	0.0	6.1	100.0
	300~399 만원	374	69.6	25.9	95.5	3.1	1.4	4.5	100.0
	400만원 이상	596	66.1	26.4	92.5	6.0	1.5	7.5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66.2	28.0	94.3	4.3	1.5	5.7	100.0
	충청권	128	74.3	20.7	95.0	3.1	1.9	5.0	100.0
	호남권	116	59.2	31.1	90.3	9.0	0.7	9.7	100.0
	영남권	306	66.2	25.9	92.1	7.2	0.7	7.9	100.0
	강원	35	78.1	19.6	97.7	0.0	2.3	2.3	100.0
	제주	14	75.4	21.6	97.0	3.0	0.0	3.0	100.0
	대도시	542	66.6	29.4	96.0	3.0	1.0	4.0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69.2	23.4	92.6	6.5	0.9	7.4	100.0
	읍/면	90	53.6	31.2	84.7	10.2	5.1	15.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70.9	21.9	92.8	5.8	1.4	7.2	100.0
	중도	577	62.9	30.1	93.0	5.6	1.4	7.0	100.0
	보수적	212	69.8	26.6	96.4	3.0	0.6	3.6	100.0
종교	불교	200	66.8	25.0	91.9	6.4	1.7	8.1	100.0
	기독교	232	71.4	22.4	93.8	4.8	1.4	6.2	100.0
	천주교	45	57.8	24.2	82.0	15.2	2.8	18.0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66.1	28.5	94.6	4.6	0.8	5.4	100.0
	모름/무응답	33	62.3	33.7	96.1	0.0	3.9	3.9	100.0

표22-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㉟ 사회복지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전 체	1200	65.5	29.6	95.1	3.3	1.6	4.9	100.0	
성별	남자	607	64.3	31.6	96.0	3.4	0.6	4.0	100.0
	여자	594	66.8	27.4	94.2	3.1	2.7	5.8	100.0
연령별	19~29세	226	70.9	25.7	96.5	2.6	0.8	3.5	100.0
	30대	222	64.8	31.6	96.4	2.9	0.7	3.6	100.0
	40대	259	66.3	27.6	93.9	2.8	3.4	6.1	100.0
	50대	260	63.8	31.5	95.3	3.6	1.1	4.7	100.0
	60대	233	62.1	31.5	93.6	4.4	1.9	6.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58.7	33.7	92.4	4.6	3.0	7.6	100.0
	고졸	560	64.8	30.1	94.9	3.8	1.2	5.1	100.0
	대재 이상	531	67.7	28.1	95.9	2.4	1.8	4.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62.1	34.3	96.4	3.6	0.0	3.6	100.0
	자영업	333	67.0	27.8	94.8	4.5	0.8	5.2	100.0
	블루 칼라	325	63.2	33.1	96.4	3.1	0.6	3.6	100.0
	화이트 칼라	241	63.8	30.9	94.7	2.7	2.6	5.3	100.0
	전업 주부	170	68.5	24.3	92.8	3.0	4.2	7.2	100.0
	학생/군인/무직	109	68.2	28.4	96.6	1.6	1.7	3.4	100.0
	200만원 미만	74	56.5	34.5	91.0	6.9	2.1	9.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66.9	28.2	95.1	4.9	0.0	4.9	100.0
	300~399 만원	374	67.2	28.2	95.4	3.5	1.0	4.6	100.0
	400만원 이상	596	65.2	30.2	95.4	2.2	2.4	4.6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61.4	34.7	96.0	1.9	2.1	4.0	100.0
	충청권	128	71.2	23.1	94.3	3.8	1.9	5.7	100.0
	호남권	116	58.6	34.5	93.1	4.8	2.1	6.9	100.0
	영남권	306	70.7	23.5	94.2	5.0	0.7	5.8	100.0
	강원	35	86.3	9.2	95.5	4.5	0.0	4.5	100.0
	제주	14	84.6	12.4	97.0	3.0	0.0	3.0	100.0
	대도시	542	63.4	32.8	96.2	2.6	1.2	3.8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69.1	25.9	95.0	3.4	1.6	5.0	100.0
	읍/면	90	56.4	33.0	89.4	6.1	4.5	10.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64.8	30.7	95.5	2.8	1.7	4.5	100.0
	중도	577	66.0	28.5	94.5	3.6	2.0	5.5	100.0
	보수적	212	65.9	30.3	96.2	3.3	0.6	3.8	100.0
종교	불교	200	66.4	25.6	92.0	5.2	2.7	8.0	100.0
	기독교	232	67.0	29.7	96.7	1.8	1.5	3.3	100.0
	천주교	45	61.2	20.4	81.6	9.9	8.4	18.4	100.0
	기타	2	50.6	49.4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65.3	31.1	96.5	2.7	0.8	3.5	100.0
	모름/무응답	33	60.7	31.6	92.3	3.8	3.9	7.7	100.0

표22-3.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언어사용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전 체	1200	28.7	55.1	83.7	13.8	2.5	16.3	100.0		
성별	남자	607	27.6	56.3	83.9	14.1	2.0	16.1	100.0	
	여자	594	29.7	53.8	83.5	13.5	3.0	16.5	100.0	
연령별	19~29세	226	26.3	55.5	81.8	14.3	3.9	18.2	100.0	
	30대	222	25.9	59.0	84.9	12.7	2.4	15.1	100.0	
	40대	259	28.8	55.0	83.8	13.3	2.9	16.2	100.0	
	50대	260	31.0	54.0	84.9	13.3	1.7	15.1	100.0	
	60대	233	30.9	52.2	83.1	15.3	1.6	16.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25.6	54.1	79.8	17.5	2.7	20.2	100.0	
	고졸	560	30.4	55.1	85.5	12.6	1.9	14.5	100.0	
	대재 이상	531	27.4	55.2	82.6	14.3	3.0	17.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6.1	31.8	67.9	32.1	0.0	32.1	100.0	
	자영업	333	28.8	56.9	85.7	12.9	1.3	14.3	100.0	
	블루 칼라	325	27.6	56.1	83.7	15.1	1.2	16.3	100.0	
	화이트 칼라	241	25.1	57.1	82.2	13.9	4.0	17.8	100.0	
	전업 주부	170	33.8	50.8	84.7	11.9	3.4	15.3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9.5	53.4	82.9	11.4	5.7	17.1	100.0	
	200만원 미만	74	34.0	45.6	79.6	17.3	3.1	20.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26.3	56.7	83.0	14.7	2.4	17.0	100.0	
	300~399 만원	374	31.7	54.5	86.2	12.9	0.9	13.8	100.0	
	400만원 이상	596	26.7	56.1	82.9	13.7	3.5	17.1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8.2	60.9	89.1	8.2	2.7	10.9	100.0	
	충청권	128	23.3	59.1	82.4	15.1	2.4	17.6	100.0	
	호남권	116	18.3	57.4	75.7	22.3	2.1	24.3	100.0	
	영남권	306	32.5	44.0	76.5	21.1	2.4	23.5	100.0	
	강원	35	51.5	33.6	85.1	12.6	2.3	14.9	100.0	
	제주	14	41.6	44.9	86.5	13.5	0.0	13.5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31.0	55.4	86.4	12.2	1.4	13.6	100.0
		중/소도시	567	26.2	55.5	81.7	15.0	3.3	18.3	100.0
읍/면		90	29.6	50.4	80.0	15.9	4.2	2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6.4	53.8	80.2	16.2	3.6	19.8	100.0	
	중도	577	27.1	57.7	84.8	13.2	2.0	15.2	100.0	
	보수적	212	37.2	50.4	87.6	10.6	1.8	12.4	100.0	
종교	불교	200	34.3	46.8	81.2	16.5	2.3	18.8	100.0	
	기독교	232	27.2	57.8	85.0	11.9	3.1	15.0	100.0	
	천주교	45	27.3	49.7	77.0	14.1	8.9	23.0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28.0	56.2	84.2	14.0	1.7	15.8	100.0	
	모름/무응답	33	21.2	66.6	87.9	5.7	6.4	12.1	100.0	

표22-4.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전 체	1200	23.8	52.6	76.4	21.4	2.2	23.6	100.0		
성별	남자	607	21.9	55.4	77.3	20.5	2.1	22.7	100.0	
	여자	594	25.8	49.6	75.4	22.4	2.2	24.6	100.0	
연령별	19~29세	226	24.6	51.1	75.8	21.1	3.1	24.2	100.0	
	30대	222	22.2	58.7	80.9	18.0	1.1	19.1	100.0	
	40대	259	28.1	47.3	75.5	21.9	2.7	24.5	100.0	
	50대	260	22.1	54.9	77.0	20.7	2.3	23.0	100.0	
	60대	233	21.8	51.3	73.1	25.4	1.5	26.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21.1	50.8	71.9	26.5	1.6	28.1	100.0	
	고졸	560	23.2	54.1	77.4	20.6	2.0	22.6	100.0	
	대재 이상	531	25.0	51.3	76.3	21.3	2.4	23.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1.9	42.9	64.8	19.3	15.9	35.2	100.0	
	자영업	333	23.7	51.4	75.1	23.4	1.6	24.9	100.0	
	블루 칼라	325	20.1	57.6	77.7	21.2	1.1	22.3	100.0	
	화이트 칼라	241	23.5	53.7	77.2	20.7	2.1	22.8	100.0	
	전업 주부	170	27.0	48.4	75.4	23.3	1.2	24.6	100.0	
	학생/군인/무직	109	31.3	47.0	78.4	15.4	6.2	21.6	100.0	
	200만원 미만	74	23.2	51.3	74.5	23.2	2.3	25.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22.3	53.7	76.0	22.8	1.2	24.0	100.0	
	300~399 만원	374	24.6	54.3	78.9	20.2	0.9	21.1	100.0	
	400만원 이상	596	23.8	51.3	75.1	21.7	3.2	24.9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9.0	53.1	72.1	25.2	2.7	27.9	100.0	
	충청권	128	26.4	58.9	85.3	12.6	2.1	14.7	100.0	
	호남권	116	17.2	63.8	81.0	19.0	0.0	19.0	100.0	
	영남권	306	30.9	46.9	77.9	20.1	2.0	22.1	100.0	
	강원	35	47.0	36.3	83.3	14.4	2.3	16.7	100.0	
	제주	14	45.5	45.3	90.8	9.2	0.0	9.2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27.5	53.0	80.5	18.3	1.2	19.5	100.0
		중/소도시	567	20.6	52.3	72.9	24.4	2.7	27.1	100.0
읍/면		90	22.2	51.1	73.3	21.9	4.8	26.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3.4	51.7	75.1	22.2	2.7	24.9	100.0	
	중도	577	23.7	54.0	77.7	20.2	2.0	22.3	100.0	
	보수적	212	25.0	50.3	75.3	23.3	1.4	24.7	100.0	
종교	불교	200	27.4	48.3	75.7	22.1	2.2	24.3	100.0	
	기독교	232	19.6	54.2	73.8	23.5	2.8	26.2	100.0	
	천주교	45	19.5	49.9	69.4	27.7	2.8	30.6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24.5	52.7	77.2	20.9	1.8	22.8	100.0	
	모름/무응답	33	24.6	65.2	89.7	6.3	3.9	10.3	100.0	

표22-5.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가족중시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전 체	1200	17.0	36.4	53.5	35.9	10.6	46.5	100.0
성별								
남자	607	15.3	38.7	54.1	37.2	8.7	45.9	100.0
여자	594	18.8	34.1	52.9	34.5	12.6	47.1	100.0
연령별								
19~29세	226	15.7	35.3	51.0	37.4	11.6	49.0	100.0
30대	222	17.5	34.4	51.9	40.1	8.1	48.1	100.0
40대	259	19.4	38.1	57.5	32.0	10.5	42.5	100.0
50대	260	17.7	38.7	56.3	34.0	9.7	43.7	100.0
60대	233	14.5	35.2	49.7	36.9	13.3	50.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8.1	29.2	47.3	36.9	15.8	52.7	100.0
고졸	560	16.8	38.8	55.6	33.5	10.9	44.4	100.0
대재 이상	531	17.0	35.5	52.5	38.2	9.3	47.5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5.8	19.1	44.9	42.6	12.5	55.1	100.0
자영업	333	18.9	33.2	52.1	35.2	12.7	47.9	100.0
블루 칼라	325	14.7	41.0	55.7	33.4	10.9	44.3	100.0
화이트 칼라	241	15.9	35.3	51.2	39.9	8.9	48.8	100.0
전업 주부	170	18.9	37.4	56.2	34.9	8.9	43.8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6.0	37.5	53.4	36.9	9.7	46.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7.7	34.6	52.3	38.3	9.4	47.7	100.0
200~299 만원	155	18.2	31.3	49.4	39.2	11.3	50.6	100.0
300~399 만원	374	19.3	39.6	58.9	30.6	10.5	41.1	100.0
400만원 이상	596	15.2	36.1	51.3	38.0	10.7	48.7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2.7	37.5	50.2	36.0	13.8	49.8	100.0
충청권	128	10.4	28.9	39.3	47.9	12.8	60.7	100.0
호남권	116	13.7	37.9	51.6	42.2	6.1	48.4	100.0
영남권	306	27.0	36.0	63.0	30.8	6.2	37.0	100.0
강원	35	33.0	41.7	74.7	19.3	6.0	25.3	100.0
제주	14	32.4	44.2	76.6	23.4	0.0	23.4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8.1	39.1	57.2	34.7	8.1	42.8	100.0
중/소도시	567	17.0	33.5	50.4	37.7	11.8	49.6	100.0
읍/면	90	11.0	39.1	50.1	31.7	18.1	49.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7.6	35.6	53.3	37.2	9.5	46.7	100.0
중도	577	16.4	35.6	52.0	36.7	11.2	48.0	100.0
보수적	212	17.6	40.2	57.8	31.0	11.2	42.2	100.0
종교								
불교	200	19.9	37.7	57.7	33.5	8.8	42.3	100.0
기독교	232	13.6	35.4	49.0	37.2	13.8	51.0	100.0
천주교	45	12.2	33.9	46.1	36.5	17.4	53.9	100.0
기타	2	0.0	0.0	0.0	0.0	100.0	100.0	100.0
종교 없음	689	18.1	36.1	54.2	36.1	9.7	45.8	100.0
모름/무응답	33	9.2	47.9	57.2	38.9	3.9	42.8	100.0

표22-6.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㉕ 돈에 대한 중시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전 체	1200	24.2	35.7	59.9	27.9	12.2	40.1	100.0
성별								
남자	607	24.7	35.7	60.3	29.6	10.1	39.7	100.0
여자	594	23.7	35.7	59.5	26.1	14.4	40.5	100.0
연령별								
19~29세	226	27.0	30.2	57.2	29.9	12.9	42.8	100.0
30대	222	21.6	36.9	58.5	32.6	8.9	41.5	100.0
40대	259	28.1	33.0	61.1	26.0	12.9	38.9	100.0
50대	260	21.4	39.8	61.2	25.8	13.0	38.8	100.0
60대	233	22.7	38.3	61.0	25.8	13.2	39.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21.7	38.2	59.9	26.7	13.4	40.1	100.0
고졸	560	23.6	38.3	62.0	24.5	13.5	38.0	100.0
대재 이상	531	25.3	32.4	57.7	31.6	10.7	42.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9.4	19.1	48.5	34.8	16.6	51.5	100.0
자영업	333	24.2	34.0	58.2	27.8	13.9	41.8	100.0
블루 칼라	325	22.4	39.6	62.0	26.7	11.2	38.0	100.0
화이트 칼라	241	23.9	32.3	56.2	31.0	12.8	43.8	100.0
전업 주부	170	24.6	37.8	62.4	27.8	9.8	37.6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8.6	36.7	65.3	23.1	11.7	34.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5.0	42.1	67.1	23.5	9.4	32.9	100.0
200~299 만원	155	27.0	32.3	59.4	26.2	14.5	40.6	100.0
300~399 만원	374	23.2	39.1	62.3	28.0	9.7	37.7	100.0
400만원 이상	596	23.9	33.7	57.6	28.8	13.6	42.4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0.3	34.7	55.1	28.8	16.2	44.9	100.0
충청권	128	20.1	27.7	47.8	34.9	17.3	52.2	100.0
호남권	116	25.0	42.7	67.7	27.3	5.0	32.3	100.0
영남권	306	29.8	36.9	66.8	26.6	6.7	33.2	100.0
강원	35	45.6	39.7	85.3	10.7	4.0	14.7	100.0
제주	14	43.8	53.1	96.9	3.1	0.0	3.1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23.9	40.2	64.1	26.9	9.0	35.9	100.0
중/소도시	567	25.4	30.9	56.3	29.5	14.2	43.7	100.0
읍/면	90	18.4	39.1	57.5	23.1	19.4	42.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4.0	36.1	60.2	27.8	12.0	39.8	100.0
중도	577	23.2	34.6	57.8	29.9	12.3	42.2	100.0
보수적	212	27.2	37.9	65.0	22.4	12.5	35.0	100.0
종교								
불교	200	27.3	38.0	65.3	23.4	11.3	34.7	100.0
기독교	232	25.2	30.6	55.8	27.6	16.6	44.2	100.0
천주교	45	23.8	25.2	49.0	38.0	13.0	51.0	100.0
기타	2	0.0	0.0	0.0	0.0	100.0	100.0	100.0
종교 없음	689	22.9	37.3	60.3	28.5	11.2	39.7	100.0
모름/무응답	33	26.7	39.4	66.1	30.0	3.9	33.9	100.0

표23.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문)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위협을 느낀다	② 다소 위협을 느낀다	①+②	③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④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2.4	56.2	78.6	19.5	2.0	21.4	100.0
성별								
남자	607	21.4	56.3	77.7	19.9	2.5	22.3	100.0
여자	594	23.4	56.0	79.5	19.1	1.5	20.5	100.0
연령별								
19~29세	226	22.4	57.8	80.2	16.9	2.9	19.8	100.0
30대	222	23.8	54.8	78.6	20.4	1.1	21.4	100.0
40대	259	20.3	54.8	75.0	23.5	1.5	25.0	100.0
50대	260	22.3	56.1	78.5	18.5	3.0	21.5	100.0
60대	233	23.5	57.5	81.0	17.7	1.3	19.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9.8	53.9	73.8	24.8	1.5	26.2	100.0
고졸	560	22.2	58.7	80.9	17.0	2.1	19.1	100.0
대재 이상	531	23.1	54.0	77.1	20.9	2.0	22.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5.9	62.9	68.7	24.0	7.3	31.3	100.0
자영업	333	17.9	58.7	76.7	21.3	2.0	23.3	100.0
블루 칼라	325	20.5	60.0	80.6	16.9	2.6	19.4	100.0
화이트 칼라	241	27.4	49.6	77.0	21.6	1.5	23.0	100.0
전업 주부	170	30.4	52.8	83.2	16.1	0.7	16.8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1.4	55.3	76.7	21.2	2.2	23.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6.3	53.4	79.7	18.2	2.1	20.3	100.0
200~299 만원	155	22.3	52.3	74.6	21.9	3.5	25.4	100.0
300~399 만원	374	22.6	53.5	76.1	21.6	2.3	23.9	100.0
400만원 이상	596	21.8	59.1	81.0	17.7	1.4	19.0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1.0	60.8	81.7	16.6	1.7	18.3	100.0
충청권	128	23.2	50.1	73.3	22.6	4.1	26.7	100.0
호남권	116	19.4	46.3	65.7	32.2	2.1	34.3	100.0
영남권	306	22.1	57.1	79.2	19.9	0.9	20.8	100.0
강원	35	52.0	32.6	84.6	8.8	6.6	15.4	100.0
제주	14	32.4	34.8	67.3	25.9	6.9	32.7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21.8	60.4	82.3	16.1	1.6	17.7	100.0
중/소도시	567	22.8	52.9	75.6	22.5	1.9	24.4	100.0
읍/면	90	23.1	51.4	74.5	20.8	4.7	25.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0.9	55.7	76.7	21.3	2.0	23.3	100.0
중도	577	21.6	57.2	78.8	19.5	1.7	21.2	100.0
보수적	212	27.3	54.2	81.4	15.9	2.7	18.6	100.0
종교								
불교	200	27.0	52.6	79.6	19.3	1.0	20.4	100.0
기독교	232	20.9	59.8	80.6	17.4	2.0	19.4	100.0
천주교	45	27.5	46.2	73.7	23.1	3.2	26.3	100.0
기타	2	49.4	0.0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21.4	56.3	77.7	20.0	2.3	22.3	100.0
모름/무응답	33	16.2	67.0	83.2	16.8	0.0	16.8	100.0

표24.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문)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 한다	② 다소 동의 한다	①+②	③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200	20.8	54.4	75.1	17.9	3.6	21.6	3.3	100.0
성별									
남자	607	22.2	52.4	74.7	19.6	3.3	22.9	2.4	100.0
여자	594	19.2	56.4	75.6	16.2	4.0	20.2	4.2	100.0
연령별									
19~29세	226	21.1	53.6	74.7	20.2	1.8	21.9	3.3	100.0
30대	222	25.0	50.8	75.8	18.9	4.1	23.0	1.3	100.0
40대	259	20.6	51.4	72.0	20.0	3.9	24.0	4.1	100.0
50대	260	18.4	57.5	75.9	15.6	5.0	20.6	3.5	100.0
60대	233	19.3	58.2	77.5	15.2	3.1	18.3	4.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4.8	54.5	69.3	17.8	3.0	20.8	9.8	100.0
고졸	560	23.2	55.0	78.2	15.6	3.9	19.5	2.3	100.0
대재 이상	531	19.4	53.7	73.1	20.5	3.4	23.9	3.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5.0	39.3	54.2	27.7	14.3	42.1	3.7	100.0
자영업	333	22.8	53.0	75.8	17.4	3.9	21.3	2.9	100.0
블루 칼라	325	20.2	57.3	77.5	16.2	2.9	19.1	3.4	100.0
화이트 칼라	241	20.9	54.0	74.9	20.7	2.3	23.0	2.1	100.0
전업 주부	170	19.1	54.3	73.4	16.3	6.2	22.5	4.1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9.6	53.8	73.4	19.3	1.9	21.2	5.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5.6	57.9	73.6	14.7	3.9	18.6	7.9	100.0
200~299 만원	155	14.3	53.4	67.6	22.4	5.9	28.3	4.1	100.0
300~399 만원	374	21.7	54.9	76.6	16.5	3.5	20.0	3.3	100.0
400만원 이상	596	22.5	53.8	76.3	18.1	3.1	21.2	2.5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1.9	53.4	75.3	18.8	3.2	22.0	2.7	100.0
충청권	128	20.0	54.8	74.8	19.2	2.7	21.9	3.3	100.0
호남권	116	9.3	67.2	76.6	16.4	5.0	21.3	2.1	100.0
영남권	306	21.5	53.1	74.6	16.1	3.9	20.0	5.3	100.0
강원	35	31.6	42.0	73.5	19.5	6.9	26.5	0.0	100.0
제주	14	28.3	45.8	74.1	19.8	3.1	22.8	3.1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20.6	58.4	79.0	15.2	2.3	17.5	3.5	100.0
중/소도시	567	21.1	49.4	70.4	22.3	4.1	26.4	3.2	100.0
읍/면	90	19.7	61.8	81.5	7.2	8.5	15.7	2.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9.1	54.8	73.9	21.3	2.6	23.8	2.3	100.0
중도	577	17.7	56.6	74.3	17.4	4.0	21.5	4.2	100.0
보수적	212	32.4	47.3	79.7	12.9	4.6	17.5	2.8	100.0
종교									
불교	200	22.1	52.4	74.5	17.6	2.7	20.3	5.2	100.0
기독교	232	20.1	56.3	76.4	16.5	3.9	20.4	3.2	100.0
천주교	45	19.8	47.0	66.8	24.7	8.5	33.2	0.0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21.2	54.1	75.4	18.0	3.5	21.5	3.2	100.0
모름/무응답	33	9.4	65.5	75.0	22.0	3.0	25.0	0.0	100.0

표25.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다소 찬성한다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한다	⑤ 매우 반대한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9.5	49.4	58.8	33.0	6.9	1.2	8.1	100.0		
성별	남자	607	9.9	47.2	57.0	33.9	7.6	1.5	9.1	100.0	
	여자	594	9.1	51.6	60.7	32.2	6.2	0.9	7.2	100.0	
연령별	19~29세	226	5.6	51.7	57.3	33.5	8.9	0.3	9.3	100.0	
	30대	222	12.7	48.6	61.3	30.0	6.9	1.7	8.7	100.0	
	40대	259	12.2	51.6	63.8	32.9	2.4	1.0	3.3	100.0	
	50대	260	9.3	48.4	57.7	33.6	7.1	1.6	8.6	100.0	
교육 수준별	60대	233	7.3	46.4	53.7	34.9	9.8	1.6	11.4	100.0	
	중졸 이하	109	9.0	40.5	49.5	36.7	11.6	2.2	13.8	100.0	
	고졸	560	5.9	51.5	57.5	33.4	7.7	1.4	9.1	100.0	
직업별	대재 이상	531	13.3	48.9	62.2	31.9	5.1	0.8	5.9	100.0	
	농/수/축산업	22	5.6	25.7	31.3	38.0	23.3	7.4	30.7	100.0	
	자영업	333	9.0	48.0	57.0	34.8	7.0	1.2	8.2	100.0	
	블루 칼라	325	8.9	52.1	61.0	31.5	6.2	1.3	7.5	100.0	
	화이트 칼라	241	12.9	47.5	60.4	32.8	6.0	0.8	6.9	100.0	
	전업 주부	170	6.6	52.4	59.0	33.0	7.1	0.9	8.1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0.3	49.7	60.0	31.5	7.2	1.3	8.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6.7	49.8	56.6	33.0	9.3	1.1	10.4	100.0	
	200~299 만원	155	10.3	50.1	60.4	28.8	8.6	2.2	10.8	100.0	
	300~399 만원	374	5.8	47.5	53.3	36.4	9.8	0.5	10.3	100.0	
	400만원 이상	596	11.9	50.3	62.2	31.9	4.4	1.4	5.9	100.0	
지역별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수도권	601	10.7	49.8	60.5	33.3	5.4	0.8	6.2	100.0	
	충청권	128	13.4	46.5	59.9	30.5	8.1	1.5	9.6	100.0	
	호남권	116	9.3	46.1	55.5	35.5	6.9	2.1	9.0	100.0	
	영남권	306	4.5	53.4	57.9	32.9	8.3	0.9	9.2	100.0	
	강원	35	15.8	30.6	46.5	26.4	18.7	8.4	27.1	100.0	
	제주	14	15.3	39.9	55.2	41.8	3.0	0.0	3.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8.0	53.6	61.6	32.0	5.5	0.9	6.4	100.0
		중/소도시	567	10.1	47.8	57.9	33.4	6.9	1.7	8.7	100.0
읍/면		90	14.8	33.5	48.2	36.6	15.2	0.0	15.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2.1	49.3	61.4	31.2	6.1	1.3	7.5	100.0	
	중도	577	8.1	52.9	61.0	33.2	5.1	0.7	5.8	100.0	
	보수적	212	8.1	39.9	48.0	36.1	13.3	2.6	15.9	100.0	
종교	불교	200	7.0	53.3	60.3	29.7	8.5	1.5	10.0	100.0	
	기독교	232	12.0	47.0	59.1	30.4	9.7	0.9	10.5	100.0	
	천주교	45	11.4	51.3	62.6	27.8	9.6	0.0	9.6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9.6	49.2	58.8	34.6	5.3	1.3	6.6	100.0	
	모름/무응답	33	2.4	38.7	41.2	47.4	9.0	2.5	11.5	100.0	

표26. 북한의 인권 상황

문) ○○님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다소 심각하다	①+②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35.5	46.8	82.3	15.4	2.1	0.2	2.4	100.0		
성별	남자	607	33.9	50.2	84.1	14.5	1.5	0.0	1.5	100.0	
	여자	594	37.2	43.3	80.5	16.3	2.8	0.4	3.3	100.0	
연령별	19~29세	226	35.5	48.2	83.7	13.5	2.8	0.0	2.8	100.0	
	30대	222	42.2	40.6	82.8	15.9	1.4	0.0	1.4	100.0	
	40대	259	30.0	47.8	77.7	19.5	2.4	0.4	2.8	100.0	
	50대	260	39.5	46.0	85.4	12.8	1.8	0.0	1.8	100.0	
교육 수준별	60대	233	30.9	51.1	82.0	14.9	2.3	0.7	3.1	100.0	
	중졸 이하	109	30.4	55.4	85.7	11.1	0.7	2.4	3.2	100.0	
	고졸	560	34.1	46.9	81.0	16.0	3.0	0.0	3.0	100.0	
직업별	대재 이상	531	38.1	44.9	82.9	15.5	1.6	0.0	1.6	100.0	
	농/수/축산업	22	27.6	51.2	78.7	10.5	3.4	7.4	10.7	100.0	
	자영업	333	34.8	48.8	83.6	15.0	1.4	0.0	1.4	100.0	
	블루 칼라	325	35.1	47.8	83.0	14.8	2.0	0.3	2.3	100.0	
	화이트 칼라	241	36.8	46.0	82.8	15.1	2.1	0.0	2.1	100.0	
	전업 주부	170	36.8	39.4	76.1	20.6	3.3	0.0	3.3	100.0	
	학생/군인/무직	109	35.5	49.7	85.2	11.7	3.0	0.0	3.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37.1	52.6	89.7	8.1	1.1	1.1	2.2	100.0	
	200~299 만원	155	32.7	48.0	80.8	16.3	2.4	0.5	2.9	100.0	
	300~399 만원	374	36.7	43.8	80.6	17.1	2.0	0.3	2.3	100.0	
	400만원 이상	596	35.2	47.6	82.8	14.9	2.3	0.0	2.3	100.0	
지역별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수도권	601	34.3	47.5	81.8	15.1	3.1	0.0	3.1	100.0	
	충청권	128	48.5	44.9	93.4	6.6	0.0	0.0	0.0	100.0	
	호남권	116	37.9	48.3	86.3	9.0	3.3	1.4	4.7	100.0	
	영남권	306	26.8	48.5	75.3	23.7	0.6	0.3	1.0	100.0	
	강원	35	60.7	32.8	93.5	4.2	2.3	0.0	2.3	100.0	
	제주	14	77.0	16.2	93.2	3.0	3.8	0.0	3.8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34.1	47.8	81.9	16.1	2.0	0.0	2.0	100.0
		중/소도시	567	37.5	46.8	84.2	14.0	1.5	0.3	1.8	100.0
읍/면		90	31.6	40.5	72.1	19.6	7.2	1.1	8.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38.5	47.4	85.8	12.7	1.3	0.2	1.5	100.0	
	중도	577	33.8	46.6	80.5	16.6	2.7	0.3	3.0	100.0	
	보수적	212	34.3	46.0	80.3	17.2	2.5	0.0	2.5	100.0	
종교	불교	200	30.9	49.9	80.8	17.7	1.5	0.0	1.5	100.0	
	기독교	232	41.4	43.2	84.6	13.3	2.1	0.0	2.1	100.0	
	천주교	45	26.2	40.3	66.5	30.7	2.8	0.0	2.8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36.0	47.3	83.3	13.9	2.4	0.4	2.8	100.0	
	모름/무응답	33	27.0	47.8	74.8	25.2	0.0	0.0	0.0	100.0	

표27. 북한의 인권 개선 방법

문) ○○님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다음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 간의 대화과 교류	대북 제재	북한의 민주화	계	
		%	%	%	%		
전 체	1200	13.9	46.2	10.5	29.4	100.0	
성별	남자	607	13.0	46.4	11.5	29.1	100.0
	여자	594	14.8	46.0	9.5	29.8	100.0
연령별	19~29세	226	11.4	44.9	10.3	33.4	100.0
	30대	222	10.8	48.6	10.2	30.4	100.0
	40대	259	17.8	41.9	11.1	29.2	100.0
	50대	260	15.3	49.4	7.8	27.5	100.0
	60대	233	13.2	46.4	13.2	27.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7.6	44.1	13.1	25.3	100.0
	고졸	560	14.6	44.8	11.0	29.5	100.0
	대재 이상	531	12.3	48.1	9.4	30.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1.9	28.9	22.8	36.4	100.0
	자영업	333	17.6	43.1	10.9	28.4	100.0
	블루 칼라	325	12.8	46.2	9.6	31.4	100.0
	화이트 칼라	241	12.4	47.7	9.7	30.2	100.0
	전업 주부	170	11.5	54.2	11.7	22.5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2.7	43.0	9.7	34.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9.8	54.0	12.8	23.4	100.0
	200~299 만원	155	17.0	40.5	15.3	27.2	100.0
	300~399 만원	374	14.3	46.7	8.8	30.3	100.0
	400만원 이상	596	13.3	46.3	10.1	30.3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5.5	45.2	9.5	29.8	100.0
	충청권	128	11.1	40.2	7.8	40.8	100.0
	호남권	116	14.8	56.5	7.5	21.3	100.0
	영남권	306	12.4	45.4	14.9	27.3	100.0
	강원	35	9.0	54.7	11.2	25.1	100.0
	제주	14	6.1	54.9	3.0	36.1	100.0
	대도시	542	13.5	49.3	8.9	28.4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13.8	43.3	11.5	31.3	100.0
	읍/면	90	16.2	45.6	14.1	24.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4.2	45.0	11.0	29.8	100.0
	중도	577	15.5	47.1	9.7	27.7	100.0
	보수적	212	8.6	46.0	11.8	33.5	100.0
종교	불교	200	15.5	43.5	8.0	33.0	100.0
	기독교	232	10.2	49.8	8.3	31.8	100.0
	천주교	45	12.3	55.6	14.5	17.7	100.0
	기타	2	0.0	50.6	0.0	49.4	100.0
	종교 없음	689	14.8	44.5	11.6	29.0	100.0
	모름/무응답	33	12.4	58.3	14.4	14.8	100.0

표28-1. 대북정책 도움 정도 - ① 인도적 대북지원

문)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약간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8.6	55.0	63.6	32.8	3.6	36.4	100.0	
성별	남자	607	7.9	57.6	65.5	31.1	3.3	34.5	100.0
	여자	594	9.4	52.2	61.6	34.5	3.9	38.4	100.0
연령별	19~29세	226	4.5	55.4	60.0	36.6	3.5	40.0	100.0
	30대	222	8.4	57.3	65.7	31.3	3.0	34.3	100.0
	40대	259	9.9	54.1	64.0	32.1	3.9	36.0	100.0
	50대	260	12.9	55.9	68.7	28.6	2.7	31.3	100.0
	60대	233	6.7	52.2	58.9	35.9	5.1	41.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0.7	54.9	65.7	29.9	4.4	34.3	100.0
	고졸	560	8.1	54.9	62.9	33.2	3.9	37.1	100.0
	대재 이상	531	8.8	55.0	63.8	32.9	3.2	36.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0.1	58.4	68.5	24.2	7.3	31.5	100.0
	자영업	333	8.4	55.8	64.2	32.3	3.5	35.8	100.0
	블루 칼라	325	9.7	55.4	65.1	32.0	2.9	34.9	100.0
	화이트 칼라	241	8.1	54.0	62.1	33.3	4.6	37.9	100.0
	전업 주부	170	9.2	52.7	61.9	34.7	3.4	38.1	100.0
	학생/군인/무직	109	6.2	55.9	62.1	34.2	3.7	37.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8.1	55.1	63.2	30.5	6.3	36.8	100.0
	200~299 만원	155	10.4	59.9	70.2	25.9	3.8	29.8	100.0
	300~399 만원	374	7.1	54.9	62.0	34.3	3.7	38.0	100.0
	400만원 이상	596	9.3	53.7	63.0	33.8	3.2	37.0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8.3	54.9	63.1	34.0	2.9	36.9	100.0
	충청권	128	7.5	59.6	67.1	27.8	5.1	32.9	100.0
	호남권	116	12.5	63.6	76.2	23.8	0.0	23.8	100.0
	영남권	306	6.6	50.6	57.2	37.6	5.2	42.8	100.0
	강원	35	17.3	48.0	65.3	24.0	10.7	34.7	100.0
	제주	14	24.4	55.9	80.3	16.6	3.1	19.7	100.0
	대도시	542	8.4	57.8	66.2	31.9	1.9	33.8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8.6	52.0	60.6	34.2	5.2	39.4	100.0
	읍/면	90	10.7	56.1	66.8	29.3	4.0	33.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2.1	53.4	65.4	32.1	2.5	34.6	100.0
	중도	577	6.7	55.5	62.2	34.3	3.5	37.8	100.0
	보수적	212	7.3	56.5	63.8	30.0	6.2	36.2	100.0
종교	불교	200	9.8	51.7	61.5	32.9	5.6	38.5	100.0
	기독교	232	7.8	53.8	61.7	36.9	1.4	38.3	100.0
	천주교	45	6.9	41.5	48.4	44.3	7.3	51.6	100.0
	기타	2	49.4	0.0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8.7	57.5	66.2	30.1	3.8	33.8	100.0
	모름/무응답	33	6.0	51.6	57.5	42.5	0.0	42.5	100.0

표28-2. 대북정책 도움 정도 - ㉔ 남북 사회문화교류

문)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전 체	1200	20.2	54.6	74.8	22.4	2.8	25.2	100.0	
성별	남자	607	22.2	54.6	76.7	20.8	2.5	23.3	100.0
	여자	594	18.2	54.7	72.9	24.0	3.2	27.1	100.0
연령별	19~29세	226	17.4	53.1	70.4	25.6	3.9	29.6	100.0
	30대	222	22.4	53.4	75.8	20.8	3.3	24.2	100.0
	40대	259	21.6	57.0	78.6	18.2	3.2	21.4	100.0
	50대	260	22.0	53.9	75.9	22.9	1.1	24.1	100.0
교육 수준별	60대	233	17.2	55.4	72.7	24.6	2.7	27.3	100.0
	중졸 이하	109	17.0	60.0	77.1	19.8	3.1	22.9	100.0
	고졸	560	16.8	57.3	74.1	23.2	2.7	25.9	100.0
직업별	대재 이상	531	24.4	50.7	75.1	22.0	2.9	24.9	100.0
	농/수/축산업	22	20.5	59.1	79.6	14.9	5.5	20.4	100.0
	자영업	333	19.7	54.1	73.8	24.3	1.9	26.2	100.0
	블루 칼라	325	19.3	57.3	76.6	21.1	2.3	23.4	100.0
	화이트 칼라	241	23.9	52.4	76.3	20.6	3.1	23.7	100.0
	전업 주부	170	18.8	56.3	75.0	21.0	4.0	25.0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8.4	49.7	68.1	27.7	4.2	31.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8.3	66.7	85.0	14.0	1.0	15.0	100.0
	200~299 만원	155	20.5	54.0	74.4	21.6	3.9	25.6	100.0
	300~399 만원	374	17.0	58.0	75.1	22.1	2.8	24.9	100.0
	400만원 이상	596	22.2	51.2	73.5	23.8	2.8	26.5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0.3	52.3	72.7	23.8	3.5	27.3	100.0
	충청권	128	23.7	66.7	90.4	8.8	0.7	9.6	100.0
	호남권	116	30.2	50.1	80.3	18.4	1.3	19.7	100.0
	영남권	306	12.7	57.1	69.8	27.9	2.3	30.2	100.0
	강원	35	26.9	51.4	78.2	15.4	6.4	21.8	100.0
	제주	14	44.8	36.5	81.3	12.4	6.3	18.7	100.0
	대도시	542	20.4	57.0	77.4	21.0	1.6	22.6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20.3	52.8	73.1	23.4	3.5	26.9	100.0
	읍/면	90	18.5	51.7	70.3	23.6	6.1	29.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6.4	53.8	80.2	17.1	2.7	19.8	100.0
	중도	577	17.4	55.7	73.1	23.8	3.1	26.9	100.0
	보수적	212	15.7	53.5	69.2	28.6	2.2	30.8	100.0
종교	불교	200	19.4	55.1	74.5	21.3	4.2	25.5	100.0
	기독교	232	23.9	50.9	74.8	23.1	2.1	25.2	100.0
	천주교	45	23.8	47.8	71.6	28.4	0.0	28.4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9.0	56.7	75.8	21.2	3.0	24.2	100.0
	모름/무응답	33	16.6	43.9	60.5	39.5	0.0	39.5	100.0

표28-3. 대북정책 도움 정도 - ㉕ 남북 경제협력

문)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전 체	1200	21.0	53.1	74.1	22.5	3.4	25.9	100.0	
성별	남자	607	22.8	53.0	75.8	21.5	2.7	24.2	100.0
	여자	594	19.1	53.3	72.4	23.5	4.1	27.6	100.0
연령별	19~29세	226	17.3	54.1	71.4	26.0	2.6	28.6	100.0
	30대	222	20.5	51.8	72.3	25.5	2.2	27.7	100.0
	40대	259	21.7	53.8	75.5	20.0	4.5	24.5	100.0
	50대	260	27.3	50.6	77.9	20.0	2.1	22.1	100.0
교육 수준별	60대	233	17.1	55.5	72.6	21.6	5.8	27.4	100.0
	중졸 이하	109	20.1	56.4	76.5	16.7	6.7	23.5	100.0
	고졸	560	20.1	52.7	72.8	24.1	3.1	27.2	100.0
직업별	대재 이상	531	22.0	53.0	75.0	21.9	3.1	25.0	100.0
	농/수/축산업	22	27.5	40.5	68.0	28.4	3.7	32.0	100.0
	자영업	333	21.5	52.0	73.5	23.2	3.3	26.5	100.0
	블루 칼라	325	23.2	52.9	76.1	21.5	2.4	23.9	100.0
	화이트 칼라	241	21.0	53.1	74.1	22.4	3.5	25.9	100.0
	전업 주부	170	17.5	55.0	72.5	21.3	6.2	27.5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6.5	57.1	73.6	23.9	2.5	26.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3.5	53.7	77.2	18.7	4.1	22.8	100.0
	200~299 만원	155	21.1	54.0	75.0	20.3	4.7	25.0	100.0
	300~399 만원	374	17.6	54.7	72.3	24.3	3.4	27.7	100.0
	400만원 이상	596	22.8	51.8	74.6	22.4	3.0	25.4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1.2	51.7	72.9	22.7	4.4	27.1	100.0
	충청권	128	26.7	57.6	84.3	15.7	0.0	15.7	100.0
	호남권	116	30.6	55.8	86.4	11.4	2.2	13.6	100.0
	영남권	306	12.0	54.9	67.0	30.0	3.0	33.0	100.0
	강원	35	37.1	39.4	76.5	15.1	8.4	23.5	100.0
	제주	14	34.9	46.3	81.3	15.7	3.1	18.7	100.0
	대도시	542	19.1	57.3	76.4	21.3	2.2	23.6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23.9	48.9	72.8	23.2	3.9	27.2	100.0
	읍/면	90	13.5	54.5	68.0	24.5	7.5	32.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6.1	53.7	79.8	18.6	1.5	20.2	100.0
	중도	577	17.7	53.9	71.6	25.2	3.2	28.4	100.0
	보수적	212	20.0	49.8	69.8	22.5	7.7	30.2	100.0
종교	불교	200	22.2	50.8	72.9	24.9	2.2	27.1	100.0
	기독교	232	23.6	52.5	76.1	19.6	4.3	23.9	100.0
	천주교	45	23.2	46.0	69.2	22.5	8.3	30.8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9.7	54.8	74.5	22.2	3.4	25.5	100.0
	모름/무응답	33	17.0	47.1	64.1	35.9	0.0	35.9	100.0

표28-4. 대북정책 도움 정도 - ㉔ 대북 제재

문)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약간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9.9	45.9	55.8	39.2	5.0	44.2	100.0	
성별	남자	607	9.6	46.5	56.1	39.7	4.2	43.9	100.0
	여자	594	10.2	45.3	55.6	38.6	5.8	44.4	100.0
연령별	19~29세	226	8.9	42.3	51.2	44.3	4.5	48.8	100.0
	30대	222	9.8	47.6	57.4	37.8	4.8	42.6	100.0
	40대	259	6.6	48.1	54.7	40.8	4.4	45.3	100.0
	50대	260	11.8	49.0	60.8	33.7	5.5	39.2	100.0
	60대	233	12.6	41.9	54.5	39.8	5.6	45.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2.9	39.9	52.7	41.9	5.4	47.3	100.0
	고졸	560	10.0	48.0	58.0	36.8	5.2	42.0	100.0
	대재 이상	531	9.3	44.9	54.2	41.2	4.7	45.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9.8	20.0	39.9	46.8	13.3	60.1	100.0
	자영업	333	8.9	47.6	56.5	39.5	4.0	43.5	100.0
	블루 칼라	325	10.8	50.7	61.5	35.0	3.5	38.5	100.0
	화이트 칼라	241	8.9	42.6	51.6	41.5	6.9	48.4	100.0
	전업 주부	170	10.3	42.2	52.5	41.2	6.3	47.5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0.2	44.6	54.8	41.0	4.2	45.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8.4	49.8	58.3	35.5	6.2	41.7
200~299 만원	155	8.9	40.5	49.4	43.2	7.4	50.6	100.0	
300~399 만원	374	7.4	49.8	57.2	37.4	5.4	42.8	100.0	
400만원 이상	596	12.0	44.4	56.4	39.7	3.9	43.6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1.4	41.3	52.8	42.3	4.9	47.2	100.0
	충청권	128	9.1	42.9	52.0	41.6	6.4	48.0	100.0
	호남권	116	2.9	44.8	47.8	45.2	7.0	52.2	100.0
	영남권	306	10.2	56.3	66.5	31.0	2.5	33.5	100.0
	강원	35	8.5	49.8	58.4	30.2	11.4	41.6	100.0
	제주	14	6.9	41.1	48.0	35.7	16.3	52.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0.0	47.5	57.5	38.3	4.2	42.5
중/소도시	567	10.3	44.2	54.6	40.6	4.8	45.4	100.0	
읍/면	90	6.7	47.1	53.7	36.0	10.3	46.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0.6	48.1	58.7	35.8	5.5	41.3	100.0
	중도	577	8.8	45.6	54.3	41.2	4.4	45.7	100.0
	보수적	212	11.7	42.6	54.3	40.3	5.5	45.7	100.0
종교	불교	200	11.0	50.2	61.2	33.7	5.1	38.8	100.0
	기독교	232	9.9	44.6	54.5	40.9	4.6	45.5	100.0
	천주교	45	8.5	40.6	49.1	40.9	10.0	50.9	100.0
	기타	2	0.0	0.0	0.0	50.6	49.4	100.0	100.0
	종교 없음	689	10.0	44.7	54.7	40.4	4.9	45.3	100.0
	모름/무응답	33	3.7	64.7	68.4	31.6	0.0	31.6	100.0

표29.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①+②	③ 다소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6.3	58.1	64.4	31.1	4.5	35.6	100.0	
성별	남자	607	7.4	56.9	64.4	31.4	4.2	35.6	100.0
	여자	594	5.1	59.3	64.4	30.7	4.9	35.6	100.0
연령별	19~29세	226	6.5	56.2	62.7	34.7	2.7	37.3	100.0
	30대	222	6.7	58.4	65.1	32.1	2.8	34.9	100.0
	40대	259	7.8	60.7	68.5	27.1	4.4	31.5	100.0
	50대	260	6.9	60.1	67.0	27.9	5.1	33.0	100.0
	60대	233	3.3	54.7	58.0	34.7	7.4	42.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3.5	55.2	58.7	34.6	6.7	41.3	100.0
	고졸	560	4.8	59.8	64.6	30.5	4.9	35.4	100.0
	대재 이상	531	8.4	56.9	65.3	31.0	3.7	34.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0.0	48.9	48.9	36.2	14.9	51.1	100.0
	자영업	333	6.7	54.2	60.8	33.6	5.6	39.2	100.0
	블루 칼라	325	6.1	59.6	65.7	31.2	3.1	34.3	100.0
	화이트 칼라	241	6.0	61.0	66.9	28.6	4.4	33.1	100.0
	전업 주부	170	5.2	60.8	66.0	29.5	4.4	34.0	100.0
	학생/군인/무직	109	9.1	57.2	66.3	30.1	3.6	33.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3.5	59.6	63.1	31.3	5.7	36.9
200~299 만원	155	10.1	60.5	70.6	26.4	3.0	29.4	100.0	
300~399 만원	374	3.6	55.1	58.7	35.6	5.7	41.3	100.0	
400만원 이상	596	7.3	59.3	66.6	29.4	4.0	33.4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6.7	54.2	60.9	33.9	5.1	39.1	100.0
	충청권	128	7.3	62.7	70.1	24.6	5.4	29.9	100.0
	호남권	116	8.6	80.3	88.9	8.3	2.8	11.1	100.0
	영남권	306	2.9	56.7	59.6	37.6	2.8	40.4	100.0
	강원	35	12.6	48.6	61.2	26.0	12.8	38.8	100.0
	제주	14	13.7	57.0	70.7	26.2	3.1	29.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7.3	57.3	64.6	31.8	3.6	35.4
중/소도시	567	5.2	59.7	65.0	30.0	5.1	35.0	100.0	
읍/면	90	6.7	53.0	59.6	33.7	6.7	40.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0.4	62.9	73.3	24.2	2.5	26.7	100.0
	중도	577	4.0	60.7	64.7	32.1	3.2	35.3	100.0
	보수적	212	4.4	41.7	46.1	41.7	12.2	53.9	100.0
종교	불교	200	7.7	59.8	67.5	27.2	5.3	32.5	100.0
	기독교	232	6.6	57.3	63.9	31.1	5.1	36.1	100.0
	천주교	45	10.0	62.5	72.5	24.5	2.9	27.5	100.0
	기타	2	49.4	0.0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5.6	57.7	63.3	32.4	4.3	36.7	100.0
	모름/무응답	33	2.1	59.8	61.9	35.6	2.5	38.1	100.0

표30-1.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㉞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전 체	1200	15.0	42.8	57.8	31.7	7.8	2.6	10.5	100.0
성별									
남자	607	15.4	43.2	58.5	30.3	8.2	2.9	11.1	100.0
여자	594	14.5	42.5	57.0	33.2	7.5	2.3	9.8	100.0
연령별									
19~29세	226	13.3	36.0	49.3	40.0	8.9	1.7	10.7	100.0
30대	222	12.2	47.9	60.1	32.4	6.9	0.6	7.5	100.0
40대	259	18.3	40.4	58.7	32.6	6.8	2.0	8.7	100.0
50대	260	18.1	42.9	61.0	27.9	7.8	3.3	11.2	100.0
60대	233	11.9	47.4	59.3	26.4	8.9	5.3	14.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0.2	54.6	64.7	23.4	7.8	4.0	11.9	100.0
고졸	560	12.8	42.0	54.8	34.1	8.3	2.8	11.1	100.0
대재 이상	531	18.2	41.3	59.5	30.9	7.4	2.2	9.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0.9	44.0	54.9	22.7	7.0	15.4	22.4	100.0
자영업	333	12.5	43.9	56.4	32.1	8.5	3.0	11.5	100.0
블루 칼라	325	12.2	44.3	56.5	34.7	7.9	0.9	8.8	100.0
화이트 칼라	241	20.6	41.6	62.2	28.9	8.0	0.9	8.9	100.0
전업 주부	170	17.9	43.1	60.9	27.5	6.4	5.2	11.5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4.4	37.2	51.6	36.5	7.9	4.0	11.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4.7	56.9	71.6	17.6	6.0	4.9	10.8	100.0
200~299 만원	155	15.6	46.4	62.0	27.0	7.9	3.1	11.1	100.0
300~399 만원	374	12.8	42.0	54.7	35.4	8.1	1.8	9.9	100.0
400만원 이상	596	16.1	40.8	56.9	32.5	7.9	2.8	10.6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3.0	40.5	53.5	36.2	7.9	2.4	10.3	100.0
충청권	128	27.9	46.5	74.5	19.7	5.2	0.6	5.8	100.0
호남권	116	25.5	56.5	82.0	16.0	2.1	0.0	2.1	100.0
영남권	306	7.7	42.7	50.4	34.8	11.3	3.5	14.8	100.0
강원	35	26.9	27.4	54.3	23.7	6.8	15.2	22.0	100.0
제주	14	22.1	40.5	62.6	31.5	2.8	3.1	5.9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4.0	44.4	58.4	30.7	8.3	2.7	11.0	100.0
중/소도시	567	14.6	41.9	56.5	33.5	7.5	2.5	9.9	100.0
읍/면	90	22.9	39.3	62.2	26.9	7.5	3.4	10.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9.2	47.6	66.9	26.9	5.0	1.2	6.2	100.0
중도	577	11.9	42.2	54.1	35.1	8.6	2.1	10.8	100.0
보수적	212	14.9	35.2	50.1	32.0	11.2	6.8	18.0	100.0
종교									
불교	200	12.2	51.6	63.7	24.8	9.4	2.0	11.4	100.0
기독교	232	14.0	42.8	56.8	32.1	8.6	2.5	11.1	100.0
천주교	45	23.9	47.6	71.5	17.3	9.7	1.5	11.2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5.6	39.6	55.2	34.7	7.1	2.9	10.0	100.0
모름/무응답	33	10.6	50.6	61.2	30.1	6.2	2.5	8.7	100.0

표30-2.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㉟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전 체	1200	18.8	43.2	62.0	28.6	7.9	1.5	9.4	100.0
성별									
남자	607	17.4	45.0	62.5	28.4	7.7	1.5	9.2	100.0
여자	594	20.2	41.4	61.6	28.9	8.1	1.4	9.5	100.0
연령별									
19~29세	226	17.1	39.3	56.4	33.1	9.3	1.3	10.6	100.0
30대	222	18.1	48.7	66.9	26.5	6.3	0.3	6.7	100.0
40대	259	19.3	43.8	63.1	30.4	5.7	0.9	6.6	100.0
50대	260	22.9	39.4	62.3	27.7	8.8	1.3	10.0	100.0
60대	233	16.1	45.4	61.4	25.5	9.6	3.5	13.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7.2	47.8	64.9	21.4	12.9	0.7	13.7	100.0
고졸	560	14.8	41.5	56.2	35.1	6.9	1.8	8.7	100.0
대재 이상	531	23.4	44.1	67.5	23.3	7.9	1.3	9.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0.9	63.2	74.1	11.0	11.0	3.9	14.9	100.0
자영업	333	17.7	40.2	57.9	32.5	7.9	1.8	9.6	100.0
블루 칼라	325	14.2	46.4	60.6	31.6	6.9	1.0	7.9	100.0
화이트 칼라	241	24.9	41.8	66.8	25.9	7.3	0.0	7.3	100.0
전업 주부	170	20.2	44.5	64.6	23.5	9.1	2.8	11.9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2.0	39.9	61.9	25.7	9.9	2.4	12.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0.7	50.3	70.9	20.5	8.6	0.0	8.6	100.0
200~299 만원	155	19.6	46.2	65.8	23.3	8.5	2.3	10.9	100.0
300~399 만원	374	16.0	44.5	60.5	30.6	8.0	0.8	8.9	100.0
400만원 이상	596	20.0	40.8	60.8	29.8	7.6	1.8	9.4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4.9	42.3	57.2	34.0	7.7	1.0	8.7	100.0
충청권	128	31.6	48.0	79.6	17.9	1.9	0.6	2.5	100.0
호남권	116	35.4	47.6	83.0	13.6	3.4	0.0	3.4	100.0
영남권	306	12.1	43.6	55.7	29.8	12.2	2.3	14.5	100.0
강원	35	30.9	30.1	60.9	17.4	13.2	8.5	21.7	100.0
제주	14	48.7	26.7	75.4	21.5	0.0	3.1	3.1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8.1	45.4	63.5	27.6	7.4	1.5	8.8	100.0
중/소도시	567	18.4	40.6	58.9	31.6	8.4	1.1	9.5	100.0
읍/면	90	26.0	46.4	72.4	16.2	8.1	3.4	11.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2.1	47.9	70.1	23.2	6.3	0.4	6.8	100.0
중도	577	17.4	43.1	60.5	29.7	8.5	1.3	9.8	100.0
보수적	212	16.2	34.4	50.6	36.3	9.3	3.8	13.2	100.0
종교									
불교	200	20.1	45.3	65.4	24.8	8.6	1.2	9.8	100.0
기독교	232	13.7	47.2	60.9	33.3	4.4	1.4	5.8	100.0
천주교	45	33.5	33.2	66.6	27.0	6.4	0.0	6.4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8.9	42.1	61.0	28.5	8.9	1.6	10.5	100.0
모름/무응답	33	19.9	42.1	62.0	25.3	10.2	2.5	12.6	100.0

표30-3.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전 체	1200	14.2	32.6	46.9	33.7	16.4	3.0	19.4	100.0	
성별	남자	607	15.2	31.7	46.9	32.6	16.8	3.7	20.5	100.0
	여자	594	13.2	33.7	46.9	34.8	16.0	2.2	18.3	100.0
연령별	19~29세	226	14.2	26.7	40.9	37.0	20.4	1.6	22.0	100.0
	30대	222	13.5	29.0	42.5	37.5	17.4	2.6	20.0	100.0
	40대	259	13.1	33.4	46.6	37.1	14.3	2.1	16.3	100.0
	50대	260	12.6	34.3	46.8	33.0	15.4	4.8	20.1	100.0
	60대	233	18.0	39.2	57.2	24.0	15.2	3.6	18.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2.0	45.7	57.7	22.2	17.5	2.6	20.1	100.0
	고졸	560	16.1	32.4	48.5	33.8	14.7	3.0	17.7	100.0
	대재 이상	531	12.7	30.2	42.9	36.1	18.1	2.9	21.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0.0	46.0	56.0	24.5	19.5	0.0	19.5	100.0
	자영업	333	14.8	32.0	46.7	33.7	15.7	3.9	19.6	100.0
	블루 칼라	325	14.3	33.0	47.2	35.0	14.8	3.0	17.8	100.0
	화이트 칼라	241	14.0	31.9	45.9	33.8	17.6	2.8	20.4	100.0
	전업 주부	170	15.5	35.6	51.1	28.5	17.4	3.0	20.4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2.0	28.2	40.2	40.0	18.8	1.1	19.9	100.0
	200만원 미만	74	15.2	43.5	58.6	28.1	10.2	3.1	13.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16.9	33.1	49.9	29.6	17.6	2.8	20.4	100.0
	300~399 만원	374	13.3	31.9	45.2	36.7	15.6	2.5	18.1	100.0
	400만원 이상	596	13.9	31.7	45.6	33.7	17.5	3.3	20.7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3.7	33.6	47.3	35.2	14.9	2.6	17.5	100.0
	충청권	128	13.7	25.3	39.0	30.0	27.3	3.7	31.0	100.0
	호남권	116	15.0	40.0	55.0	26.8	14.1	4.1	18.2	100.0
	영남권	306	14.3	33.7	48.0	36.4	14.4	1.2	15.6	100.0
	강원	35	25.7	16.9	42.6	15.0	28.5	13.9	42.4	100.0
	제주	14	6.1	15.8	21.9	49.2	15.9	13.0	28.9	100.0
	대도시	542	16.6	34.8	51.5	35.3	10.9	2.4	13.2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11.5	30.5	42.1	33.0	22.3	2.6	24.9	100.0
	읍/면	90	16.7	32.8	49.6	29.0	13.0	8.5	21.5	100.0
	진보적	411	15.1	32.2	47.3	32.3	17.2	3.3	20.5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77	11.6	31.4	43.0	37.5	17.2	2.2	19.4	100.0
	보수적	212	19.8	36.8	56.6	26.3	12.8	4.3	17.1	100.0
	불교	200	14.7	31.8	46.5	33.8	16.7	3.0	19.7	100.0
종교	기독교	232	12.4	32.0	44.4	31.9	18.5	5.3	23.7	100.0
	천주교	45	17.7	48.4	66.1	20.5	13.4	0.0	13.4	100.0
	기타	2	0.0	0.0	0.0	50.6	0.0	49.4	49.4	100.0
	종교 없음	689	14.9	31.7	46.7	34.9	16.2	2.3	18.4	100.0
	모름/무응답	33	5.4	41.9	47.3	39.7	10.5	2.5	12.9	100.0

표30-4.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대북배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전 체	1200	19.2	44.1	63.3	25.3	8.2	3.2	11.4	100.0	
성별	남자	607	19.0	42.7	61.7	25.5	9.5	3.3	12.8	100.0
	여자	594	19.4	45.5	65.0	25.1	6.9	3.0	9.9	100.0
연령별	19~29세	226	17.1	40.9	58.0	30.7	8.2	3.1	11.3	100.0
	30대	222	23.4	40.5	63.9	25.6	9.1	1.4	10.6	100.0
	40대	259	22.0	43.3	65.3	23.5	8.9	2.3	11.2	100.0
	50대	260	21.4	45.8	67.2	23.5	6.3	3.0	9.3	100.0
	60대	233	11.6	49.8	61.3	24.0	8.6	6.0	14.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1.4	47.9	59.3	25.2	9.5	5.9	15.5	100.0
	고졸	560	17.5	46.4	63.8	25.5	7.8	2.9	10.7	100.0
	대재 이상	531	22.6	41.0	63.6	25.2	8.4	2.8	11.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7.6	47.9	55.6	19.4	17.1	7.9	25.0	100.0
	자영업	333	18.9	49.0	67.9	21.8	7.1	3.3	10.4	100.0
	블루 칼라	325	22.8	42.2	65.1	25.2	7.4	2.3	9.7	100.0
	화이트 칼라	241	21.8	41.8	63.6	24.4	9.5	2.4	12.0	100.0
	전업 주부	170	14.1	42.5	56.6	29.7	10.0	3.8	13.8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3.7	41.9	55.7	32.9	6.3	5.1	11.4	100.0
	200만원 미만	74	18.0	40.9	58.9	28.2	10.1	2.8	12.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17.6	49.4	67.0	21.1	9.7	2.2	11.8	100.0
	300~399 만원	374	21.1	44.2	65.3	24.4	8.6	1.7	10.3	100.0
	400만원 이상	596	18.6	43.2	61.7	26.5	7.4	4.4	11.7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0.2	48.8	69.1	22.2	5.6	3.1	8.7	100.0
	충청권	128	26.2	44.9	71.1	26.1	2.8	0.0	2.8	100.0
	호남권	116	27.7	38.7	66.4	22.8	7.4	3.5	10.8	100.0
	영남권	306	10.5	40.3	50.8	31.5	14.8	2.9	17.8	100.0
	강원	35	17.9	18.9	36.8	30.5	17.8	14.9	32.7	100.0
	제주	14	33.2	27.3	60.5	24.2	9.2	6.2	15.3	100.0
	대도시	542	19.4	45.0	64.4	26.6	7.6	1.4	9.0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19.4	42.9	62.3	25.0	9.0	3.7	12.7	100.0
	읍/면	90	16.6	46.6	63.2	19.7	6.9	10.2	17.1	100.0
	진보적	411	25.3	39.8	65.1	25.1	6.2	3.5	9.8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77	16.0	46.2	62.2	25.8	9.7	2.3	12.0	100.0
	보수적	212	16.0	46.8	62.8	24.3	8.1	4.8	12.9	100.0
	불교	200	16.9	40.0	56.9	32.5	6.9	3.7	10.6	100.0
종교	기독교	232	15.2	49.2	64.4	24.4	7.1	4.1	11.2	100.0
	천주교	45	11.9	47.5	59.4	23.0	14.6	2.9	17.5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22.1	43.8	65.8	23.1	8.4	2.6	11.1	100.0
	모름/무응답	33	7.5	37.9	45.4	38.6	11.4	4.6	16.0	100.0

표30-5.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7.0	44.3	61.3	33.1	4.9	0.7	5.5	100.0	
성별	남자	607	16.4	46.4	62.8	31.7	5.1	0.4	5.5	100.0
	여자	594	17.6	42.2	59.8	34.6	4.6	0.9	5.6	100.0
연령별	19~29세	226	19.7	42.6	62.3	32.4	5.3	0.0	5.3	100.0
	30대	222	15.9	45.3	61.1	37.5	1.4	0.0	1.4	100.0
	40대	259	16.3	45.0	61.3	33.6	3.7	1.4	5.1	100.0
	50대	260	16.1	45.0	61.0	30.3	7.0	1.6	8.7	100.0
	60대	233	17.3	43.7	60.9	32.4	6.6	0.0	6.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3.2	43.1	56.3	35.9	7.8	0.0	7.8	100.0
	고졸	560	14.4	45.6	60.0	33.8	5.5	0.7	6.2	100.0
	대재 이상	531	20.5	43.2	63.8	31.9	3.6	0.8	4.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2.0	45.6	67.6	24.9	3.7	3.8	7.4	100.0
	자영업	333	13.7	47.9	61.6	32.6	5.5	0.3	5.8	100.0
	블루 칼라	325	14.5	47.6	62.1	32.6	5.0	0.4	5.4	100.0
	화이트 칼라	241	19.7	43.0	62.7	32.9	3.4	1.0	4.4	100.0
	전업 주부	170	20.8	34.9	55.7	36.1	6.7	1.5	8.2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1.6	41.1	62.7	34.2	3.1	0.0	3.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2.7	51.0	73.8	19.7	6.6	0.0	6.6	100.0
	200~299 만원	155	15.7	41.9	57.6	36.6	5.3	0.5	5.8	100.0
	300~399 만원	374	17.0	41.9	58.9	36.5	4.3	0.3	4.6	100.0
	400만원 이상	596	16.7	45.7	62.3	31.8	4.9	1.0	5.9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4.2	48.1	62.3	32.9	4.1	0.6	4.8	100.0
	충청권	128	26.4	50.2	76.5	22.2	0.6	0.6	1.2	100.0
	호남권	116	23.8	38.0	61.8	33.2	4.2	0.8	5.0	100.0
	영남권	306	12.1	39.0	51.1	40.6	8.4	0.0	8.4	100.0
	강원	35	41.0	34.5	75.4	17.6	2.4	4.6	7.0	100.0
	제주	14	42.7	22.8	65.4	18.3	10.0	6.3	16.3	100.0
	대도시	542	14.5	49.9	64.4	31.4	3.8	0.5	4.2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18.4	42.0	60.4	33.4	5.2	1.0	6.1	100.0
	읍/면	90	23.4	25.3	48.6	42.0	9.4	0.0	9.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2.0	45.6	67.5	28.4	3.4	0.6	4.0	100.0
	중도	577	12.9	44.4	57.3	36.4	5.6	0.7	6.4	100.0
	보수적	212	18.6	41.8	60.3	33.5	5.6	0.6	6.1	100.0
종교	불교	200	17.8	39.9	57.7	34.3	6.7	1.3	8.0	100.0
	기독교	232	18.9	43.7	62.6	32.6	4.3	0.5	4.8	100.0
	천주교	45	16.5	49.5	66.0	30.3	1.8	1.8	3.7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6.2	45.5	61.6	33.2	4.8	0.4	5.2	100.0
	모름/무응답	33	17.7	47.2	64.9	29.9	2.7	2.5	5.2	100.0

표30-6.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0.8	28.7	39.6	35.4	19.6	5.4	25.1	100.0	
성별	남자	607	9.8	30.8	40.6	34.6	19.4	5.5	24.8	100.0
	여자	594	11.9	26.6	38.5	36.2	19.9	5.4	25.3	100.0
연령별	19~29세	226	6.8	26.8	33.5	36.8	18.9	10.7	29.6	100.0
	30대	222	10.2	28.3	38.4	37.2	20.3	4.1	24.4	100.0
	40대	259	11.8	29.7	41.6	34.6	18.9	5.0	23.9	100.0
	50대	260	11.6	25.8	37.4	34.3	22.8	5.6	28.3	100.0
	60대	233	13.6	33.1	46.7	34.4	17.1	1.9	19.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6.7	33.7	40.4	31.9	24.6	3.1	27.7	100.0
	고졸	560	10.4	31.1	41.4	35.6	19.7	3.3	23.0	100.0
	대재 이상	531	12.2	25.2	37.4	35.9	18.6	8.1	26.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1.4	25.0	36.5	33.7	29.8	0.0	29.8	100.0
	자영업	333	9.2	31.8	41.0	37.2	19.9	2.0	21.8	100.0
	블루 칼라	325	9.5	29.8	39.3	37.2	19.2	4.3	23.5	100.0
	화이트 칼라	241	13.0	24.9	37.9	31.2	20.6	10.3	30.9	100.0
	전업 주부	170	14.6	28.0	42.6	35.0	18.4	4.1	22.4	100.0
	학생/군인/무직	109	9.0	26.4	35.4	34.7	18.1	11.8	29.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6.6	33.7	40.3	30.6	21.2	7.8	29.1	100.0
	200~299 만원	155	11.1	34.5	45.6	28.4	22.9	3.1	26.0	100.0
	300~399 만원	374	10.5	28.3	38.8	36.4	20.6	4.2	24.8	100.0
	400만원 이상	596	11.5	26.9	38.4	37.1	18.0	6.5	24.5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0.3	26.5	36.9	36.4	21.0	5.7	26.8	100.0
	충청권	128	10.4	28.6	39.0	34.1	19.7	7.1	26.9	100.0
	호남권	116	9.3	35.2	44.6	29.6	18.7	7.1	25.8	100.0
	영남권	306	10.7	30.8	41.4	38.4	17.9	2.3	20.2	100.0
	강원	35	24.2	28.3	52.5	22.3	14.5	10.8	25.3	100.0
	제주	14	19.1	26.0	45.1	19.6	18.8	16.5	35.3	100.0
	대도시	542	9.9	30.5	40.5	36.9	18.8	3.8	22.6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11.5	26.7	38.1	35.1	19.8	7.0	26.8	100.0
	읍/면	90	12.2	30.7	43.0	28.1	23.4	5.6	28.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0.5	25.0	35.5	33.2	24.7	6.6	31.3	100.0
	중도	577	9.3	28.8	38.1	39.7	16.4	5.8	22.2	100.0
	보수적	212	15.7	35.6	51.3	27.9	18.7	2.1	20.8	100.0
종교	불교	200	12.1	28.7	40.8	33.8	18.6	6.7	25.3	100.0
	기독교	232	14.5	28.2	42.7	34.6	19.0	3.7	22.7	100.0
	천주교	45	12.1	34.8	46.9	33.2	15.3	4.6	19.9	100.0
	기타	2	49.4	0.0	49.4	50.6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9.5	27.7	37.1	35.9	21.2	5.7	26.9	100.0
	모름/무응답	33	2.4	47.0	49.4	41.9	3.8	4.9	8.7	100.0

표31. 정부의 대북정책 영향력 정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크다	조금 크다	%	그저 그렇다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전 체	1200	15.7	53.4	69.1	27.3	3.1	0.5	3.6	100.0	
성별	남자	607	15.8	52.0	67.8	28.2	3.2	0.7	4.0	100.0
	여자	594	15.6	54.8	70.4	26.3	3.0	0.3	3.3	100.0
연령별	19~29세	226	12.8	54.9	67.7	30.6	0.9	0.9	1.7	100.0
	30대	222	18.3	52.4	70.6	26.8	2.3	0.3	2.6	100.0
	40대	259	16.8	57.3	74.1	22.4	3.4	0.0	3.4	100.0
	50대	260	19.8	48.8	68.6	26.8	3.8	0.8	4.6	100.0
	60대	233	10.3	53.6	63.8	30.5	4.9	0.7	5.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1.5	50.8	62.3	33.2	3.0	1.6	4.5	100.0
	고졸	560	14.9	54.4	69.3	26.7	4.0	0.0	4.0	100.0
	대재 이상	531	17.3	52.9	70.2	26.7	2.2	0.9	3.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0.2	38.3	48.5	34.2	9.7	7.6	17.3	100.0
	자영업	333	14.7	51.7	66.3	29.7	3.3	0.6	4.0	100.0
	블루 칼라	325	15.1	54.4	69.5	27.7	2.8	0.0	2.8	100.0
	화이트 칼라	241	17.3	53.9	71.2	25.9	2.4	0.5	2.9	100.0
	전업 주부	170	17.8	53.7	71.5	25.6	2.9	0.0	2.9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4.9	57.1	72.0	23.0	3.7	1.3	5.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4.7	50.5	65.2	28.5	4.1	2.3	6.4	100.0
	200~299 만원	155	15.4	55.7	71.1	25.6	3.3	0.0	3.3	100.0
	300~399 만원	374	13.9	52.8	66.7	29.0	3.8	0.5	4.3	100.0
	400만원 이상	596	17.0	53.6	70.6	26.4	2.5	0.4	2.9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3.1	54.1	67.2	29.3	3.1	0.4	3.5	100.0
	충청권	128	18.2	55.6	73.8	23.1	2.5	0.7	3.2	100.0
	호남권	116	20.9	63.1	84.0	15.3	0.0	0.7	0.7	100.0
	영남권	306	13.5	50.6	64.1	32.1	3.5	0.3	3.8	100.0
	강원	35	40.4	33.4	73.7	11.1	11.1	4.0	15.2	100.0
	제주	14	45.8	35.5	81.4	15.4	3.3	0.0	3.3	100.0
	대도시	542	18.3	50.4	68.7	28.2	2.6	0.5	3.1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13.4	57.9	71.3	25.5	2.7	0.5	3.2	100.0
	읍/면	90	14.4	43.5	57.9	32.5	8.8	0.9	9.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1.5	57.9	79.3	19.8	0.9	0.0	0.9	100.0
	중도	577	13.0	52.4	65.4	30.9	3.2	0.5	3.7	100.0
	보수적	212	11.9	47.3	59.2	32.0	7.1	1.6	8.8	100.0
종교	불교	200	15.2	53.1	68.3	27.7	4.0	0.0	4.0	100.0
	기독교	232	19.0	50.4	69.4	27.8	2.8	0.0	2.8	100.0
	천주교	45	25.8	46.7	72.4	27.6	0.0	0.0	0.0	100.0
	기타	2	49.4	0.0	49.4	50.6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4.3	54.2	68.6	27.3	3.2	0.9	4.1	100.0
	모름/무응답	33	8.2	70.7	78.9	18.6	2.5	0.0	2.5	100.0

표32-1. 2018 남북정상회담 영향 정도 - ㉞ 남북관계 개선

문) ○○님은 지난 4월 이루어진 2018 남북정상회담이 다음의 사항들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은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긍정적	약간 긍정적	%	긍정도 부정도 아님	약간 부정적	매우 부정적	%		
전 체	1200	14.4	64.0	78.4	19.1	2.0	0.5	2.5	100.0	
성별	남자	607	14.8	64.2	79.0	17.8	2.6	0.6	3.2	100.0
	여자	594	14.0	63.8	77.8	20.3	1.4	0.4	1.9	100.0
연령별	19~29세	226	14.3	69.8	84.1	13.5	2.0	0.4	2.4	100.0
	30대	222	12.3	65.9	78.2	20.4	1.0	0.3	1.3	100.0
	40대	259	17.5	59.2	76.8	19.6	3.1	0.6	3.7	100.0
	50대	260	17.1	61.5	78.6	19.4	1.1	0.9	2.0	100.0
	60대	233	10.0	64.8	74.8	22.1	2.7	0.4	3.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9.6	63.6	73.1	24.5	1.6	0.8	2.4	100.0
	고졸	560	14.0	63.6	77.6	20.1	1.9	0.4	2.4	100.0
	대재 이상	531	15.8	64.6	80.4	16.9	2.2	0.5	2.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0.2	42.5	52.7	35.7	7.6	3.9	11.5	100.0
	자영업	333	14.6	64.5	79.1	18.7	1.6	0.7	2.2	100.0
	블루 칼라	325	12.2	68.2	80.4	17.6	2.1	0.0	2.1	100.0
	화이트 칼라	241	19.7	57.2	76.9	19.1	3.7	0.3	4.1	100.0
	전업 주부	170	13.5	60.6	74.1	24.9	0.6	0.4	1.0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1.0	75.0	86.0	12.1	0.4	1.5	1.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1.6	66.3	77.8	18.7	2.3	1.2	3.5	100.0
	200~299 만원	155	18.8	60.4	79.2	18.3	1.9	0.6	2.5	100.0
	300~399 만원	374	11.9	66.6	78.5	20.7	0.3	0.4	0.8	100.0
	400만원 이상	596	15.2	63.0	78.2	18.3	3.1	0.5	3.5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1.3	67.5	78.7	19.0	2.1	0.2	2.3	100.0
	충청권	128	20.0	61.7	81.7	17.6	0.0	0.7	0.7	100.0
	호남권	116	27.7	63.4	91.1	8.2	0.7	0.0	0.7	100.0
	영남권	306	9.5	62.2	71.7	24.3	3.4	0.6	4.0	100.0
	강원	35	38.0	37.8	75.8	18.1	0.0	6.0	6.0	100.0
	제주	14	36.3	48.0	84.2	12.7	3.1	0.0	3.1	100.0
	대도시	542	11.5	68.7	80.2	18.2	1.4	0.2	1.6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16.3	61.1	77.4	19.6	2.3	0.7	3.0	100.0
	읍/면	90	20.5	54.0	74.5	20.6	3.8	1.1	4.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0.5	63.8	84.3	13.1	2.2	0.4	2.6	100.0
	중도	577	9.7	65.7	75.4	22.4	1.8	0.4	2.2	100.0
	보수적	212	15.5	59.9	75.4	21.5	2.0	1.1	3.1	100.0
종교	불교	200	16.6	56.2	72.8	24.9	1.7	0.5	2.2	100.0
	기독교	232	14.9	69.7	84.6	11.5	3.6	0.3	3.9	100.0
	천주교	45	17.8	64.1	81.9	15.2	2.8	0.0	2.8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3.4	64.4	77.8	19.9	1.6	0.6	2.3	100.0
	모름/무응답	33	12.4	62.8	75.2	24.8	0.0	0.0	0.0	100.0

표32-2. 2018 남북정상회담 영향 정도 - ㉔ 북한의 비핵화

문) ○○님은 지난 4월 이루어진 2018 남북정상회담이 다음의 사항들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은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약간 긍정적	①+②	③ 긍정도 부정도 아님	④ 약간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5.2	50.3	65.5	28.1	5.2	1.2	6.4	100.0
성별									
남자	607	14.9	47.7	62.6	30.0	6.4	1.0	7.4	100.0
여자	594	15.4	53.0	68.4	26.2	4.0	1.4	5.4	100.0
연령별									
19~29세	226	14.2	53.1	67.3	28.5	3.2	1.0	4.2	100.0
30대	222	16.2	48.1	64.3	30.2	4.8	0.7	5.5	100.0
40대	259	15.6	52.7	68.3	25.8	5.1	0.8	5.9	100.0
50대	260	16.7	53.0	69.6	22.9	5.4	2.0	7.4	100.0
60대	233	12.9	44.0	56.9	34.2	7.4	1.5	8.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2.3	44.5	56.8	37.9	3.6	1.7	5.3	100.0
고졸	560	15.5	52.0	67.5	25.6	5.6	1.3	6.9	100.0
대재 이상	531	15.4	49.7	65.1	28.8	5.1	1.0	6.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6.1	45.0	51.0	37.4	7.7	3.9	11.6	100.0
자영업	333	13.5	47.6	61.1	30.9	6.7	1.3	8.0	100.0
블루 칼라	325	16.2	51.1	67.3	28.0	3.9	0.8	4.7	100.0
화이트 칼라	241	16.2	52.2	68.3	24.8	6.5	0.3	6.8	100.0
전업 주부	170	18.0	48.4	66.4	27.4	3.7	2.4	6.2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2.5	55.8	68.3	26.7	3.1	1.9	5.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9.9	50.4	60.3	31.2	6.4	2.2	8.6	100.0
200~299 만원	155	16.4	49.0	65.4	26.3	6.6	1.7	8.3	100.0
300~399 만원	374	14.9	51.3	66.2	29.0	3.6	1.2	4.9	100.0
400만원 이상	596	15.7	50.1	65.8	27.6	5.7	1.0	6.6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4.0	54.5	68.5	27.1	3.3	1.0	4.3	100.0
충청권	128	15.7	45.9	61.6	29.5	6.8	2.1	8.9	100.0
호남권	116	18.1	54.3	72.3	23.7	4.0	0.0	4.0	100.0
영남권	306	13.8	45.6	59.4	31.4	8.4	0.8	9.2	100.0
강원	35	27.4	31.1	58.5	28.6	4.5	8.3	12.9	100.0
제주	14	32.6	28.7	61.4	23.3	12.2	3.1	15.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5.2	49.5	64.7	29.5	5.0	0.7	5.7	100.0
중/소도시	567	14.3	52.4	66.8	26.1	5.2	1.9	7.1	100.0
읍/면	90	20.3	41.3	61.5	32.3	6.2	0.0	6.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7.5	54.6	72.0	23.1	3.8	1.1	4.9	100.0
중도	577	13.4	49.7	63.1	31.0	5.1	0.9	5.9	100.0
보수적	212	15.6	43.5	59.1	30.2	8.2	2.5	10.7	100.0
불교	200	18.6	47.7	66.3	24.7	8.2	0.9	9.1	100.0
기독교	232	14.2	53.9	68.0	27.9	3.3	0.8	4.1	100.0
천주교	45	20.4	50.6	70.9	29.1	0.0	0.0	0.0	100.0
기타	2	0.0	49.4	49.4	50.6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4.7	50.4	65.1	28.0	5.4	1.5	6.9	100.0
모름/무응답	33	4.7	37.9	42.6	52.1	2.9	2.5	5.3	100.0

표32-3. 2018 남북정상회담 영향 정도 - ㉕ 한반도 평화 구축

문) ○○님은 지난 4월 이루어진 2018 남북정상회담이 다음의 사항들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은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약간 긍정적	①+②	③ 긍정도 부정도 아님	④ 약간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7.9	51.6	69.6	26.0	3.6	0.8	4.5	100.0
성별									
남자	607	18.2	49.2	67.5	29.0	2.9	0.7	3.5	100.0
여자	594	17.6	54.1	71.8	22.9	4.4	1.0	5.4	100.0
연령별									
19~29세	226	18.0	55.1	73.1	23.5	2.4	1.0	3.4	100.0
30대	222	16.8	50.9	67.7	28.0	4.3	0.0	4.3	100.0
40대	259	19.2	48.4	67.7	27.2	4.3	0.8	5.1	100.0
50대	260	21.1	50.6	71.7	24.2	2.8	1.3	4.1	100.0
60대	233	14.0	53.7	67.6	27.1	4.3	1.1	5.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5.0	52.8	67.8	28.1	2.6	1.6	4.1	100.0
고졸	560	16.6	53.7	70.3	25.5	3.5	0.7	4.3	100.0
대재 이상	531	20.0	49.2	69.2	26.0	3.9	0.8	4.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8.2	32.6	50.9	37.6	3.9	7.6	11.5	100.0
자영업	333	15.4	51.3	66.7	28.1	4.2	1.0	5.2	100.0
블루 칼라	325	18.0	53.5	71.6	25.8	2.6	0.0	2.6	100.0
화이트 칼라	241	23.7	47.2	70.9	24.5	4.4	0.3	4.7	100.0
전업 주부	170	16.0	55.6	71.6	22.0	4.4	2.0	6.4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5.9	54.4	70.3	26.9	1.9	0.9	2.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0.0	50.9	70.9	24.6	2.2	2.3	4.5	100.0
200~299 만원	155	22.4	48.3	70.7	25.6	2.5	1.1	3.7	100.0
300~399 만원	374	13.0	55.0	68.0	28.0	3.3	0.7	4.0	100.0
400만원 이상	596	19.7	50.4	70.1	25.0	4.3	0.6	4.9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5.4	55.4	70.8	24.4	4.1	0.6	4.8	100.0
충청권	128	26.5	45.1	71.6	25.1	2.6	0.7	3.3	100.0
호남권	116	29.1	46.2	75.3	22.5	1.4	0.7	2.1	100.0
영남권	306	13.5	50.4	64.0	31.2	4.0	0.7	4.8	100.0
강원	35	29.0	44.7	73.7	17.7	2.3	6.3	8.6	100.0
제주	14	26.1	37.3	63.4	33.5	3.1	0.0	3.1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7.6	53.6	71.2	26.0	2.3	0.5	2.8	100.0
중/소도시	567	17.5	51.7	69.2	25.2	4.3	1.3	5.6	100.0
읍/면	90	22.5	39.9	62.3	30.4	7.3	0.0	7.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2.9	51.1	74.0	22.2	3.0	0.8	3.8	100.0
중도	577	16.0	52.6	68.6	27.0	3.6	0.7	4.3	100.0
보수적	212	13.6	50.0	63.6	30.3	4.8	1.3	6.1	100.0
불교	200	19.4	50.5	69.9	26.0	3.8	0.3	4.1	100.0
기독교	232	14.8	57.3	72.1	23.8	3.8	0.3	4.1	100.0
천주교	45	24.0	50.6	74.6	20.5	4.9	0.0	4.9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8.4	50.3	68.7	26.8	3.4	1.1	4.6	100.0
모름/무응답	33	11.6	49.2	60.9	32.8	3.9	2.5	6.4	100.0

표32-4. 2018 남북정상회담 영향 정도 - ㉞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

문) ○○님은 지난 4월 이루어진 2018 남북정상회담이 다음의 사항들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은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약간 긍정적	①+②	③ 긍정도 부정도 아님	④ 약간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4.0	53.8	67.8	27.9	3.2	1.1	4.3	100.0	
성별	남자	607	14.3	54.0	68.3	28.3	2.3	1.0	3.3	100.0
	여자	594	13.7	53.5	67.2	27.5	4.1	1.2	5.3	100.0
연령별	19~29세	226	10.5	60.3	70.9	26.2	0.8	2.1	2.9	100.0
	30대	222	16.2	52.7	68.8	28.6	2.3	0.3	2.6	100.0
	40대	259	17.1	48.4	65.5	30.4	3.3	0.8	4.1	100.0
	50대	260	15.3	52.4	67.7	28.1	3.7	0.5	4.2	100.0
	60대	233	10.5	56.0	66.5	25.9	5.7	1.9	7.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1.6	57.1	68.7	23.2	7.4	0.7	8.1	100.0
	고졸	560	12.2	53.6	65.8	29.9	3.1	1.2	4.3	100.0
	대재 이상	531	16.4	53.3	69.7	26.8	2.5	1.0	3.5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8.3	35.3	53.5	25.8	20.6	0.0	20.6	100.0
	자영업	333	12.5	53.7	66.1	28.2	4.2	1.5	5.7	100.0
	블루 칼라	325	12.1	60.6	72.7	25.1	1.6	0.6	2.2	100.0
	화이트 칼라	241	18.9	46.2	65.1	32.3	1.8	0.8	2.6	100.0
	전업 주부	170	16.5	47.4	64.0	29.1	5.5	1.5	7.0	100.0
	학생/군인/무직	109	9.1	63.9	73.0	24.3	1.2	1.5	2.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1.7	60.8	72.5	19.1	8.4	0.0	8.4	100.0
	200~299 만원	155	16.4	54.9	71.3	24.2	3.3	1.1	4.4	100.0
	300~399 만원	374	11.6	53.1	64.7	31.9	2.9	0.5	3.4	100.0
	400만원 이상	596	15.2	53.0	68.2	27.5	2.7	1.6	4.3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0.2	54.2	64.4	31.4	2.7	1.4	4.1	100.0
	충청권	128	22.6	55.8	78.4	19.5	1.3	0.7	2.1	100.0
	호남권	116	31.4	49.9	81.3	15.8	2.9	0.0	2.9	100.0
	영남권	306	9.9	54.7	64.6	30.1	4.8	0.5	5.3	100.0
	강원	35	23.0	44.5	67.5	21.9	4.5	6.0	10.6	100.0
	제주	14	23.0	50.8	73.8	19.9	6.3	0.0	6.3	100.0
	대도시	542	14.5	54.2	68.7	28.6	1.5	1.1	2.6	100.0
	중/소도시	567	12.5	54.8	67.3	27.7	3.7	1.2	5.0	100.0
정치적 성향	음/면	90	20.5	44.4	64.9	24.8	10.3	0.0	10.3	100.0
	진보적	411	17.3	55.5	72.8	24.1	2.3	0.9	3.1	100.0
	중도 보수적	577	13.6	54.1	67.7	28.5	2.5	1.2	3.7	100.0
종교	불교	200	15.2	51.5	66.6	27.8	4.1	1.5	5.6	100.0
	기독교	232	10.4	57.8	68.2	27.1	3.8	0.9	4.7	100.0
	천주교	45	21.2	51.3	72.6	24.6	2.8	0.0	2.8	100.0
	기타	2	49.4	0.0	49.4	50.6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4.4	52.9	67.4	28.9	2.5	1.2	3.7	100.0
	모름/무응답	33	12.5	62.3	74.7	15.8	9.5	0.0	9.5	100.0

표32-5. 2018 남북정상회담 영향 정도 - ㉞ 개성공단 재개

문) ○○님은 지난 4월 이루어진 2018 남북정상회담이 다음의 사항들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은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약간 긍정적	①+②	③ 긍정도 부정도 아님	④ 약간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3.4	44.0	57.4	35.5	5.4	1.6	7.1	100.0	
성별	남자	607	12.0	43.8	55.8	36.0	6.5	1.7	8.1	100.0
	여자	594	14.8	44.3	59.0	35.0	4.4	1.6	6.0	100.0
연령별	19~29세	226	10.2	45.2	55.4	38.0	5.6	1.0	6.6	100.0
	30대	222	11.8	44.8	56.6	37.2	5.4	0.8	6.2	100.0
	40대	259	14.4	43.8	58.2	35.2	5.8	0.8	6.6	100.0
	50대	260	13.8	48.3	62.1	31.0	4.4	2.5	6.9	100.0
	60대	233	16.4	37.7	54.1	36.9	6.0	3.0	9.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8.9	40.0	58.9	32.9	4.3	3.9	8.2	100.0
	고졸	560	12.6	42.7	55.2	37.6	5.5	1.7	7.2	100.0
	대재 이상	531	13.1	46.3	59.4	33.9	5.5	1.2	6.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5.2	36.5	51.6	32.9	7.9	7.6	15.5	100.0
	자영업	333	11.7	43.2	54.9	36.3	6.7	2.1	8.8	100.0
	블루 칼라	325	14.4	44.8	59.2	36.5	3.1	1.3	4.4	100.0
	화이트 칼라	241	12.0	50.1	62.1	32.1	5.5	0.3	5.9	100.0
	전업 주부	170	16.0	41.1	57.1	34.6	6.1	2.3	8.4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4.3	37.1	51.4	39.8	6.8	1.9	8.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9.8	43.8	63.6	28.2	4.8	3.5	8.3	100.0
	200~299 만원	155	14.3	42.0	56.4	35.9	4.8	2.9	7.7	100.0
	300~399 만원	374	13.9	43.4	57.3	36.1	5.7	0.9	6.6	100.0
	400만원 이상	596	12.0	45.0	57.1	35.9	5.5	1.6	7.0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9.1	43.1	52.2	41.5	4.9	1.4	6.3	100.0
	충청권	128	16.1	55.1	71.2	24.3	3.2	1.3	4.5	100.0
	호남권	116	34.8	40.3	75.1	22.8	1.3	0.7	2.0	100.0
	영남권	306	10.0	44.1	54.1	35.3	8.8	1.8	10.5	100.0
	강원	35	28.9	31.9	60.7	22.2	8.7	8.3	17.1	100.0
	제주	14	31.7	42.7	74.4	22.5	0.0	3.1	3.1	100.0
	대도시	542	13.4	42.7	56.1	38.8	3.7	1.4	5.2	100.0
	중/소도시	567	11.7	45.7	57.4	34.6	6.2	1.8	8.0	100.0
정치적 성향	음/면	90	23.8	42.0	65.7	21.8	10.4	2.1	12.5	100.0
	진보적	411	17.7	44.3	62.0	33.3	4.1	0.6	4.7	100.0
	중도 보수적	577	10.3	47.6	57.9	34.8	5.9	1.3	7.3	100.0
종교	불교	200	14.2	42.7	56.9	36.0	6.0	1.2	7.1	100.0
	기독교	232	10.4	41.0	51.4	42.5	4.8	1.4	6.2	100.0
	천주교	45	18.0	50.5	68.5	28.7	2.8	0.0	2.8	100.0
	기타	2	49.4	0.0	49.4	50.6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3.8	44.9	58.7	33.4	5.9	2.0	7.9	100.0
	모름/무응답	33	14.0	47.7	61.7	35.8	0.0	2.5	2.5	100.0

표32-6. 2018 남북정상회담 영향 정도 - ㉞ 금강산 관광 재개

문) ○○님은 지난 4월 이루어진 2018 남북정상회담이 다음의 사항들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은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약간 긍정적	①+②	③ 긍정도 부정도 아님	④ 약간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3.7	44.3	58.0	36.7	4.0	1.4	5.3	100.0	
성별	남자	607	11.1	45.6	56.8	37.0	5.2	1.0	6.2	100.0
	여자	594	16.4	42.8	59.2	36.4	2.7	1.7	4.4	100.0
연령별	19~29세	226	12.2	41.7	53.9	41.1	4.0	1.0	5.0	100.0
	30대	222	10.4	48.8	59.1	37.0	3.5	0.3	3.8	100.0
	40대	259	14.5	42.4	57.0	39.3	2.9	0.8	3.7	100.0
	50대	260	17.9	43.4	61.3	32.9	4.1	1.7	5.7	100.0
	60대	233	12.9	45.4	58.2	33.4	5.4	3.0	8.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6.9	46.1	63.0	29.3	4.6	3.1	7.7	100.0
	고졸	560	12.2	41.8	53.9	40.7	4.0	1.4	5.4	100.0
	대재 이상	531	14.7	46.5	61.2	34.0	3.8	0.9	4.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9.1	47.5	66.5	21.9	3.9	7.6	11.5	100.0
	자영업	333	11.1	41.3	52.5	41.2	5.0	1.4	6.4	100.0
	블루 칼라	325	13.4	44.8	58.2	38.5	2.3	1.0	3.3	100.0
	화이트 칼라	241	14.1	47.2	61.3	33.3	5.1	0.3	5.4	100.0
	전업 주부	170	17.9	45.6	63.4	30.6	3.6	2.3	5.9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4.1	42.4	56.5	37.7	3.9	1.9	5.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0.0	41.8	61.8	31.2	4.8	2.3	7.0	100.0
	200~299 만원	155	14.7	46.5	61.2	34.2	2.3	2.2	4.6	100.0
	300~399 만원	374	12.1	44.0	56.1	39.1	3.7	1.1	4.8	100.0
	400만원 이상	596	13.8	44.1	57.8	36.5	4.4	1.2	5.6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9.3	41.0	50.3	45.2	3.5	1.0	4.6	100.0
	충청권	128	14.4	57.0	71.4	25.3	2.0	1.3	3.3	100.0
	호남권	116	38.5	38.6	77.1	20.8	1.4	0.7	2.1	100.0
	영남권	306	9.9	48.8	58.7	33.4	6.5	1.4	7.9	100.0
	강원	35	30.8	34.5	65.2	20.1	6.3	8.3	14.7	100.0
	제주	14	35.7	38.7	74.4	22.5	0.0	3.1	3.1	100.0
	대도시	542	14.1	46.3	60.4	36.4	2.2	1.0	3.1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11.9	43.5	55.4	38.9	4.1	1.7	5.7	100.0
	읍/면	90	23.2	36.6	59.8	24.4	13.7	2.1	15.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6.1	45.4	61.5	36.1	1.9	0.6	2.5	100.0
	중도	577	11.6	46.4	58.0	36.0	5.2	0.8	5.9	100.0
	보수적	212	15.0	36.1	51.2	39.7	4.8	4.4	9.2	100.0
종교	불교	200	13.2	47.6	60.9	32.6	5.8	0.7	6.6	100.0
	기독교	232	9.8	45.7	55.5	38.3	4.8	1.4	6.1	100.0
	천주교	45	18.9	47.8	66.7	33.3	0.0	0.0	0.0	100.0
	기타	2	49.4	0.0	49.4	50.6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4.6	42.5	57.1	37.7	3.6	1.6	5.2	100.0
	모름/무응답	33	16.5	48.3	64.7	32.8	0.0	2.5	2.5	100.0

표32-7. 2018 남북정상회담 영향 정도 - ㉟ 북한의 개혁, 개방

문) ○○님은 지난 4월 이루어진 2018 남북정상회담이 다음의 사항들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은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약간 긍정적	①+②	③ 긍정도 부정도 아님	④ 약간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9.8	45.4	55.2	36.6	7.5	0.7	8.2	100.0	
성별	남자	607	8.7	47.2	55.9	36.7	6.7	0.7	7.4	100.0
	여자	594	10.9	43.5	54.4	36.5	8.3	0.8	9.1	100.0
연령별	19~29세	226	6.2	42.3	48.4	42.3	8.2	1.0	9.2	100.0
	30대	222	7.0	50.1	57.2	37.8	4.7	0.3	5.0	100.0
	40대	259	11.7	44.6	56.3	36.8	5.8	1.0	6.9	100.0
	50대	260	12.0	44.5	56.5	33.7	9.3	0.5	9.8	100.0
	60대	233	11.4	45.6	57.0	33.0	9.3	0.7	1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3.1	41.5	54.7	34.4	10.1	0.8	10.9	100.0
	고졸	560	8.9	47.6	56.5	35.4	7.6	0.4	8.0	100.0
	대재 이상	531	10.0	43.8	53.8	38.3	6.8	1.0	7.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3.6	41.7	55.3	31.5	9.5	3.7	13.2	100.0
	자영업	333	8.8	41.3	50.2	40.4	8.4	1.0	9.4	100.0
	블루 칼라	325	8.7	51.1	59.7	34.7	5.5	0.0	5.5	100.0
	화이트 칼라	241	11.2	41.6	52.8	39.0	7.9	0.3	8.2	100.0
	전업 주부	170	12.8	48.0	60.8	30.4	7.6	1.2	8.8	100.0
	학생/군인/무직	109	7.6	45.8	53.3	36.2	9.0	1.5	10.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8.1	54.2	62.3	28.5	8.1	1.1	9.2	100.0
	200~299 만원	155	12.9	47.7	60.6	32.4	6.3	0.6	6.9	100.0
	300~399 만원	374	6.6	48.3	54.9	37.1	7.6	0.4	8.0	100.0
	400만원 이상	596	11.2	41.9	53.1	38.3	7.7	0.9	8.6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6.6	46.2	52.9	39.4	7.0	0.6	7.7	100.0
	충청권	128	13.5	51.4	64.9	31.1	3.3	0.7	4.0	100.0
	호남권	116	18.2	38.9	57.1	32.6	9.6	0.7	10.3	100.0
	영남권	306	9.6	44.4	54.0	37.2	8.6	0.3	8.8	100.0
	강원	35	20.2	42.9	63.0	20.4	10.6	6.0	16.6	100.0
	제주	14	20.2	33.8	54.0	28.6	17.4	0.0	17.4	100.0
	대도시	542	9.4	48.4	57.8	36.4	5.5	0.4	5.8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8.6	44.0	52.6	37.9	8.4	1.1	9.5	100.0
	읍/면	90	19.9	35.6	55.5	30.2	14.3	0.0	14.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4.1	47.2	61.2	32.2	5.9	0.7	6.6	100.0
	중도	577	7.0	43.1	50.1	41.1	8.2	0.6	8.8	100.0
	보수적	212	8.9	48.1	57.1	33.2	8.7	1.0	9.7	100.0
종교	불교	200	11.5	47.9	59.4	30.3	10.3	0.0	10.3	100.0
	기독교	232	9.3	44.0	53.4	41.3	5.0	0.3	5.3	100.0
	천주교	45	12.1	44.5	56.6	40.5	2.9	0.0	2.9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9.3	45.5	54.8	36.1	8.0	1.1	9.1	100.0
	모름/무응답	33	6.9	37.9	44.8	50.4	4.9	0.0	4.9	100.0

표32-8. 2018 남북정상회담 영향 정도 - ㉞ 북한의 인권 개선

문) ○○님은 지난 4월 이루어진 2018 남북정상회담이 다음의 사항들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은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약간 긍정적	①+②	③ 긍정도 부정도 아님	④ 약간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8.5	36.1	44.7	43.8	9.4	2.2	11.6	100.0	
성별	남자	607	6.9	37.9	44.8	44.3	8.7	2.2	10.9	100.0
	여자	594	10.3	34.3	44.6	43.2	10.2	2.1	12.3	100.0
연령별	19~29세	226	6.5	38.1	44.6	44.3	8.3	2.8	11.1	100.0
	30대	222	7.0	31.5	38.4	53.4	5.5	2.7	8.2	100.0
	40대	259	8.9	35.0	43.9	44.4	10.4	1.3	11.6	100.0
	50대	260	10.0	39.6	49.6	39.3	10.0	1.1	11.2	100.0
	60대	233	10.0	36.1	46.1	38.3	12.6	3.1	15.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1.0	32.6	43.6	41.6	13.3	1.6	14.8	100.0
	고졸	560	8.9	37.5	46.3	43.0	9.1	1.6	10.6	100.0
	대재 이상	531	7.7	35.4	43.2	44.9	9.0	2.9	11.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0.2	25.9	36.1	30.4	17.9	15.6	33.4	100.0
	자영업	333	8.7	32.4	41.1	47.3	9.3	2.4	11.6	100.0
	블루 칼라	325	8.2	40.1	48.3	43.5	7.8	0.4	8.2	100.0
	화이트 칼라	241	8.2	36.6	44.9	44.1	7.8	3.2	11.0	100.0
	전업 주부	170	11.9	37.2	49.1	37.4	11.6	1.9	13.5	100.0
	학생/군인/무직	109	4.1	35.1	39.2	45.3	13.3	2.2	15.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2.1	42.5	54.6	33.7	9.4	2.3	11.7	100.0
	200~299 만원	155	10.4	35.5	45.9	48.9	4.6	0.6	5.2	100.0
	300~399 만원	374	5.8	37.3	43.0	45.1	11.2	0.7	11.8	100.0
	400만원 이상	596	9.4	34.7	44.1	42.9	9.6	3.5	13.1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5.9	37.2	43.2	45.7	9.0	2.1	11.1	100.0
	충청권	128	13.5	33.3	46.9	44.4	5.9	2.8	8.7	100.0
	호남권	116	15.2	32.7	47.9	39.8	10.9	1.4	12.3	100.0
	영남권	306	7.1	37.6	44.7	43.3	10.3	1.7	12.0	100.0
	강원	35	22.6	23.7	46.3	32.9	12.7	8.1	20.8	100.0
	제주	14	15.5	42.0	57.5	25.1	17.4	0.0	17.4	100.0
	대도시	542	7.8	41.4	49.3	41.6	8.3	0.8	9.1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8.0	32.8	40.8	46.3	9.8	3.2	12.9	100.0
	읍/면	90	16.3	25.2	41.5	40.6	13.9	4.0	17.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1.1	35.7	46.7	42.2	8.7	2.3	11.1	100.0
	중도	577	6.8	35.8	42.6	47.4	8.5	1.6	10.1	100.0
	보수적	212	8.3	38.0	46.4	36.9	13.3	3.5	16.7	100.0
종교	불교	200	12.9	34.8	47.6	39.4	11.8	1.2	13.0	100.0
	기독교	232	8.7	33.5	42.2	47.0	8.8	1.9	10.8	100.0
	천주교	45	13.4	34.9	48.3	41.6	7.1	2.9	10.1	100.0
	기타	2	0.0	49.4	49.4	50.6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7.1	37.6	44.7	43.5	9.2	2.6	11.8	100.0
	모름/무응답	33	6.0	32.6	38.5	55.1	6.4	0.0	6.4	100.0

표32-9. 2018 남북정상회담 영향 정도 - ㉟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문) ○○님은 지난 4월 이루어진 2018 남북정상회담이 다음의 사항들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은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약간 긍정적	①+②	③ 긍정도 부정도 아님	④ 약간 부정적	⑤ 매우 부정적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2.6	46.8	59.4	35.9	3.6	1.1	4.7	100.0	
성별	남자	607	11.3	45.9	57.2	37.9	3.8	1.2	4.9	100.0
	여자	594	14.0	47.8	61.7	33.9	3.4	0.9	4.4	100.0
연령별	19~29세	226	12.1	40.6	52.8	42.4	4.0	0.8	4.8	100.0
	30대	222	12.9	46.1	59.0	38.2	2.5	0.3	2.8	100.0
	40대	259	13.5	49.1	62.6	33.9	3.2	0.3	3.5	100.0
	50대	260	14.3	49.4	63.7	31.5	3.3	1.5	4.8	100.0
	60대	233	9.9	48.2	58.1	34.5	5.0	2.3	7.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9.2	45.9	55.1	37.3	5.3	2.4	7.6	100.0
	고졸	560	13.7	48.0	61.7	34.0	3.2	1.1	4.3	100.0
	대재 이상	531	12.2	45.7	58.0	37.6	3.7	0.7	4.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9.7	33.4	43.1	29.6	4.1	23.3	27.3	100.0
	자영업	333	10.3	45.9	56.2	39.4	3.5	0.9	4.4	100.0
	블루 칼라	325	14.5	46.6	61.1	35.6	3.3	0.0	3.3	100.0
	화이트 칼라	241	13.3	49.2	62.5	33.2	3.5	0.7	4.2	100.0
	전업 주부	170	16.6	46.8	63.4	31.8	4.0	0.7	4.7	100.0
	학생/군인/무직	109	6.7	47.9	54.7	39.5	4.3	1.5	5.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7.8	53.1	60.9	34.4	1.3	3.5	4.7	100.0
	200~299 만원	155	15.8	49.8	65.7	30.1	3.6	0.6	4.2	100.0
	300~399 만원	374	10.1	44.7	54.8	41.7	2.7	0.7	3.4	100.0
	400만원 이상	596	14.0	46.6	60.6	33.8	4.5	1.1	5.6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1.6	50.3	61.9	34.3	3.3	0.4	3.7	100.0
	충청권	128	15.6	43.4	59.0	37.6	2.6	0.7	3.4	100.0
	호남권	116	15.7	52.3	68.0	25.9	4.7	1.5	6.2	100.0
	영남권	306	9.0	41.9	50.9	42.9	4.5	1.7	6.2	100.0
	강원	35	33.1	32.2	65.3	26.0	2.3	6.4	8.7	100.0
	제주	14	28.5	29.2	57.7	42.3	0.0	0.0	0.0	100.0
	대도시	542	12.3	46.7	58.9	38.5	2.0	0.6	2.6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12.7	48.6	61.3	33.1	4.4	1.2	5.6	100.0
	읍/면	90	14.3	36.9	51.1	37.5	8.3	3.0	11.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7.1	45.6	62.6	32.8	3.9	0.6	4.5	100.0
	중도	577	9.0	49.1	58.1	37.6	3.3	1.0	4.3	100.0
	보수적	212	13.7	43.1	56.8	37.3	3.8	2.1	5.9	100.0
종교	불교	200	15.9	46.1	62.1	32.9	4.5	0.5	5.0	100.0
	기독교	232	13.7	53.2	66.9	28.1	4.7	0.3	5.0	100.0
	천주교	45	5.4	59.9	65.3	24.3	8.5	1.8	10.4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1.6	45.0	56.6	39.2	2.7	1.5	4.2	100.0
	모름/무응답	33	18.2	22.1	40.3	57.2	2.5	0.0	2.5	100.0

표33-1.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㉞ 탈북자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0.9	26.6	27.5	47.4	22.6	2.5	25.1	100.0		
성별	남자	607	0.6	28.3	29.0	49.6	19.0	2.4	21.5	100.0	
	여자	594	1.1	24.8	25.9	45.2	26.2	2.6	28.9	100.0	
연령별	19~29세	226	0.9	21.6	22.5	48.4	25.6	3.6	29.2	100.0	
	30대	222	0.8	25.9	26.7	47.4	23.1	2.8	25.9	100.0	
	40대	259	1.3	27.5	28.8	45.6	24.1	1.4	25.5	100.0	
	50대	260	1.3	30.3	31.6	46.0	21.1	1.2	22.4	100.0	
	60대	233	0.0	26.9	26.9	50.0	19.1	3.9	23.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0	21.4	21.4	55.9	20.7	2.0	22.7	100.0	
	고졸	560	0.3	27.5	27.8	47.6	22.5	2.0	24.5	100.0	
	대재 이상	531	1.6	26.7	28.3	45.5	23.1	3.2	26.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8	20.7	24.4	58.4	15.0	2.1	17.1	100.0	
	자영업	333	0.9	25.6	26.6	48.7	20.8	3.9	24.8	100.0	
	블루 칼라	325	0.3	24.7	25.0	49.3	24.2	1.5	25.7	100.0	
	화이트 칼라	241	0.3	33.9	34.2	41.6	21.9	2.3	24.1	100.0	
	전업 주부	170	2.2	24.7	26.9	48.2	22.8	2.2	25.0	100.0	
	학생/군인/무직	109	0.9	23.3	24.2	47.3	26.1	2.4	28.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6	25.4	28.0	56.0	13.6	2.4	16.0	100.0
200~299 만원	155	0.3	27.0	27.3	49.8	21.3	1.6	22.9	100.0		
300~399 만원	374	0.9	27.7	28.6	45.1	24.5	1.7	26.2	100.0		
400만원 이상	596	0.8	26.0	26.7	47.1	22.9	3.3	26.2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0.8	24.5	25.4	45.6	26.4	2.6	29.0	100.0	
	충청권	128	0.0	24.2	24.2	52.6	20.7	2.6	23.3	100.0	
	호남권	116	0.7	29.4	30.1	53.6	14.8	1.5	16.3	100.0	
	영남권	306	0.3	30.5	30.9	45.7	20.8	2.6	23.4	100.0	
	강원	35	9.0	28.2	37.2	52.1	8.8	2.0	10.8	100.0	
	제주	14	3.1	21.7	24.8	52.5	16.4	6.3	22.8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0.9	30.1	31.1	46.6	20.0	2.3	22.3	100.0
	중/소도시	567	0.8	23.4	24.2	48.3	24.8	2.6	27.4	100.0	
읍/면	90	0.9	25.3	26.2	46.6	24.4	2.9	27.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3	27.6	29.0	42.2	28.3	0.5	28.8	100.0	
	중도	577	0.7	25.2	25.8	52.7	17.5	4.0	21.4	100.0	
	보수적	212	0.6	28.3	28.9	43.0	25.4	2.6	28.0	100.0	
종교	불교	200	0.0	30.5	30.5	49.7	16.1	3.7	19.8	100.0	
	기독교	232	1.2	20.9	22.1	51.0	25.4	1.5	26.9	100.0	
	천주교	45	6.8	31.4	38.2	38.0	23.8	0.0	23.8	100.0	
	기타	2	0.0	49.4	49.4	50.6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0.7	26.1	26.7	46.4	24.0	2.8	26.9	100.0	
	모름/무응답	33	0.0	45.6	45.6	43.0	11.4	0.0	11.4	100.0	

표33-2.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㉟ 조선족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0	21.0	22.0	43.3	26.3	8.3	34.6	100.0		
성별	남자	607	1.1	22.3	23.4	42.2	27.3	7.1	34.4	100.0	
	여자	594	1.0	19.6	20.6	44.5	25.2	9.6	34.8	100.0	
연령별	19~29세	226	0.0	16.7	16.7	39.3	31.0	13.0	44.0	100.0	
	30대	222	0.6	19.3	19.9	45.5	27.5	7.2	34.6	100.0	
	40대	259	1.8	24.0	25.8	38.5	27.5	8.2	35.7	100.0	
	50대	260	1.0	21.2	22.1	48.4	23.3	6.2	29.5	100.0	
	60대	233	1.7	23.3	25.0	44.9	22.7	7.4	30.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0	20.5	20.5	52.9	22.8	3.7	26.5	100.0	
	고졸	560	0.8	24.2	25.0	42.6	26.2	6.3	32.5	100.0	
	대재 이상	531	1.5	17.7	19.3	42.2	27.1	11.5	38.5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8	4.1	7.8	46.1	43.9	2.1	46.1	100.0	
	자영업	333	1.6	23.3	24.8	41.7	24.9	8.6	33.4	100.0	
	블루 칼라	325	0.7	24.5	25.2	45.3	24.3	5.2	29.5	100.0	
	화이트 칼라	241	0.9	17.2	18.0	43.1	27.5	11.4	38.8	100.0	
	전업 주부	170	1.2	22.0	23.2	46.0	23.8	7.0	30.8	100.0	
	학생/군인/무직	109	0.0	14.1	14.1	38.0	34.2	13.6	47.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6	19.0	20.7	52.7	23.6	3.0	26.6	100.0
200~299 만원	155	1.2	19.3	20.5	45.4	28.1	6.1	34.1	100.0		
300~399 만원	374	0.9	27.7	28.6	41.8	23.2	6.5	29.6	100.0		
400만원 이상	596	1.0	17.5	18.5	42.5	28.2	10.8	38.9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0	21.4	22.4	40.3	27.7	9.5	37.3	100.0	
	충청권	128	0.0	12.5	12.5	52.1	26.8	8.7	35.4	100.0	
	호남권	116	0.7	17.4	18.1	55.1	24.2	2.6	26.8	100.0	
	영남권	306	0.7	25.7	26.4	42.7	24.1	6.9	31.0	100.0	
	강원	35	9.4	19.4	28.8	35.9	23.4	11.8	35.3	100.0	
	제주	14	0.0	12.1	12.1	31.0	32.8	24.1	56.9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0.6	24.8	25.5	43.3	22.8	8.4	31.2	100.0
	중/소도시	567	1.2	17.7	18.9	42.9	29.6	8.5	38.2	100.0	
읍/면	90	2.3	18.8	21.1	45.8	26.4	6.7	33.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7	20.3	21.9	40.5	28.7	8.8	37.5	100.0	
	중도	577	0.6	20.1	20.7	45.8	25.4	8.1	33.5	100.0	
	보수적	212	1.0	24.8	25.8	42.2	23.9	8.1	32.0	100.0	
종교	불교	200	0.5	24.1	24.6	44.7	22.1	8.7	30.7	100.0	
	기독교	232	0.9	16.2	17.1	43.1	30.9	8.9	39.8	100.0	
	천주교	45	14.2	9.2	23.5	44.7	23.6	8.2	31.8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0.3	22.1	22.4	42.8	26.4	8.4	34.8	100.0	
	모름/무응답	33	0.0	27.1	27.1	48.3	22.3	2.3	24.6	100.0	

표33-3.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㉔ 중국인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0.5	12.8	13.3	41.0	35.0	10.8	45.8	100.0
성별									
남자	607	0.3	12.9	13.2	40.7	36.1	10.0	46.1	100.0
여자	594	0.7	12.6	13.3	41.3	33.8	11.5	45.4	100.0
연령별									
19~29세	226	0.3	9.2	9.5	37.2	38.9	14.4	53.3	100.0
30대	222	0.6	11.4	11.9	41.3	35.8	11.0	46.8	100.0
40대	259	0.8	15.1	16.0	40.6	33.3	10.2	43.5	100.0
50대	260	0.7	13.6	14.3	43.2	34.5	8.0	42.5	100.0
60대	233	0.0	14.0	14.0	42.4	32.9	10.8	43.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0	12.2	12.2	52.6	27.8	7.4	35.2	100.0
고졸	560	0.2	14.2	14.4	41.0	36.9	7.7	44.6	100.0
대재 이상	531	0.9	11.4	12.3	38.6	34.4	14.7	49.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0.0	0.0	0.0	51.1	34.7	14.2	48.9	100.0
자영업	333	0.4	13.6	14.0	41.3	32.8	11.9	44.8	100.0
블루 칼라	325	0.2	14.0	14.2	41.5	37.7	6.7	44.3	100.0
화이트 칼라	241	1.2	12.8	13.9	38.9	34.9	12.3	47.2	100.0
전업 주부	170	0.7	12.3	13.0	46.4	30.1	10.5	40.6	100.0
학생/군인/무직	109	0.0	10.0	10.0	32.7	41.5	15.8	57.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6	18.4	20.0	47.3	27.0	5.6	32.7	100.0
200~299 만원	155	0.0	13.4	13.4	46.2	33.1	7.4	40.4	100.0
300~399 만원	374	0.6	14.5	15.1	40.1	36.7	8.1	44.8	100.0
400만원 이상	596	0.4	10.7	11.1	39.5	35.4	14.0	49.4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0.4	10.8	11.2	37.9	38.6	12.3	50.9	100.0
충청권	128	0.0	8.4	8.4	50.1	31.0	10.4	41.4	100.0
호남권	116	0.0	15.3	15.3	55.0	26.4	3.3	29.7	100.0
영남권	306	0.6	18.2	18.8	37.4	33.9	9.8	43.7	100.0
강원	35	4.3	9.1	13.4	48.8	23.3	14.5	37.8	100.0
제주	14	0.0	6.2	6.2	34.0	39.3	20.6	59.9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0.2	14.1	14.3	42.8	30.9	11.9	42.9	100.0
중/소도시	567	0.6	11.2	11.8	40.4	38.0	9.8	47.8	100.0
읍/면	90	1.4	14.7	16.1	33.6	40.6	9.7	50.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0.2	11.1	11.3	35.9	39.4	13.4	52.8	100.0
중도	577	0.6	13.8	14.4	43.4	32.3	10.0	42.2	100.0
보수적	212	0.9	13.1	14.0	44.4	33.7	7.9	41.7	100.0
종교									
불교	200	0.5	16.8	17.3	41.9	30.7	10.1	40.8	100.0
기독교	232	0.3	9.6	10.0	40.4	37.2	12.4	49.6	100.0
천주교	45	2.7	14.0	16.7	36.0	26.1	21.3	47.3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0.4	12.6	13.1	41.3	35.7	10.0	45.6	100.0
모름/무응답	33	0.0	12.1	12.1	36.7	45.2	6.0	51.2	100.0

표33-4.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㉕ 미국인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0	33.0	34.9	43.1	18.3	3.7	22.0	100.0
성별									
남자	607	2.1	33.3	35.5	42.9	16.9	4.7	21.6	100.0
여자	594	1.8	32.6	34.4	43.2	19.7	2.7	22.4	100.0
연령별									
19~29세	226	1.3	31.9	33.3	43.9	20.5	2.4	22.9	100.0
30대	222	2.3	33.0	35.3	41.3	19.8	3.6	23.4	100.0
40대	259	1.6	37.0	38.6	42.0	17.2	2.2	19.4	100.0
50대	260	2.0	30.6	32.7	43.0	20.8	3.5	24.3	100.0
60대	233	2.6	32.0	34.6	45.3	13.2	6.9	20.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8	28.4	30.2	51.0	14.2	4.6	18.8	100.0
고졸	560	2.4	31.2	33.5	42.1	20.8	3.6	24.3	100.0
대재 이상	531	1.6	35.8	37.3	42.5	16.5	3.7	20.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6	11.9	15.5	52.7	18.6	13.2	31.8	100.0
자영업	333	1.9	33.4	35.3	41.4	18.8	4.5	23.3	100.0
블루 칼라	325	1.6	33.6	35.2	40.2	21.5	3.1	24.6	100.0
화이트 칼라	241	2.5	36.1	38.6	43.6	14.6	3.2	17.8	100.0
전업 주부	170	2.1	28.7	30.8	50.3	15.5	3.4	18.9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4	33.8	35.2	42.4	19.7	2.7	22.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3.8	26.7	30.5	43.6	18.0	7.8	25.8	100.0
200~299 만원	155	2.6	30.2	32.8	46.0	17.3	3.9	21.2	100.0
300~399 만원	374	2.2	27.8	30.0	41.7	23.4	4.9	28.3	100.0
400만원 이상	596	1.4	37.8	39.2	43.0	15.4	2.4	17.8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7	32.5	34.1	43.8	19.0	3.1	22.1	100.0
충청권	128	2.7	29.2	31.9	42.8	22.1	3.3	25.3	100.0
호남권	116	2.8	35.2	38.0	47.2	10.6	4.1	14.7	100.0
영남권	306	1.2	34.9	36.1	39.2	19.7	5.0	24.7	100.0
강원	35	8.7	39.7	48.4	43.5	6.2	2.0	8.1	100.0
제주	14	0.0	12.5	12.5	62.5	18.6	6.3	25.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7	34.2	35.9	44.1	15.9	4.0	19.9	100.0
중/소도시	567	1.7	33.6	35.3	43.3	18.6	2.9	21.5	100.0
읍/면	90	5.1	21.5	26.6	35.5	30.9	7.0	37.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5	34.4	36.0	40.6	19.3	4.1	23.4	100.0
중도	577	1.3	31.2	32.5	45.7	18.8	3.0	21.8	100.0
보수적	212	4.5	34.9	39.4	40.8	15.1	4.8	19.8	100.0
종교									
불교	200	1.4	29.7	31.2	45.9	18.5	4.4	22.9	100.0
기독교	232	1.7	43.8	45.5	39.1	12.9	2.5	15.4	100.0
천주교	45	6.2	34.5	40.7	42.4	11.9	5.0	17.0	100.0
기타	2	0.0	49.4	49.4	50.6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2.0	31.1	33.2	43.5	19.6	3.7	23.4	100.0
모름/무응답	33	0.0	11.0	11.0	46.6	37.0	5.4	42.4	100.0

표33-5.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㉔ 동남아시아인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0.8	18.2	19.0	42.7	34.1	4.2	38.3	100.0
성별									
남자	607	0.9	20.2	21.0	41.6	34.2	3.2	37.4	100.0
여자	594	0.7	16.2	16.9	43.7	34.1	5.2	39.3	100.0
연령별									
19~29세	226	0.4	18.6	19.0	39.0	38.7	3.3	42.0	100.0
30대	222	0.6	15.6	16.1	46.1	33.5	4.3	37.8	100.0
40대	259	1.8	19.6	21.4	42.4	32.3	3.8	36.2	100.0
50대	260	0.6	18.9	19.5	40.7	35.3	4.5	39.8	100.0
60대	233	0.4	18.0	18.5	45.5	31.0	5.1	36.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0	19.0	19.0	47.2	27.6	6.2	33.8	100.0
고졸	560	0.4	19.5	19.9	40.7	34.5	4.8	39.4	100.0
대재 이상	531	1.3	16.7	18.0	43.8	35.0	3.2	38.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8	30.9	34.7	28.3	31.4	5.5	37.0	100.0
자영업	333	0.6	19.4	20.0	42.3	33.4	4.3	37.7	100.0
블루 칼라	325	1.1	16.7	17.8	45.2	32.3	4.7	37.0	100.0
화이트 칼라	241	0.9	14.9	15.7	44.4	36.9	3.0	39.9	100.0
전업 주부	170	0.7	19.6	20.4	41.1	34.1	4.5	38.6	100.0
학생/군인/무직	109	0.0	21.4	21.4	37.8	36.4	4.4	40.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6	16.8	18.4	40.3	35.4	5.8	41.2	100.0
200~299 만원	155	0.0	26.4	26.4	34.4	31.4	7.8	39.2	100.0
300~399 만원	374	0.0	18.6	18.6	46.8	31.6	3.0	34.6	100.0
400만원 이상	596	1.4	16.1	17.4	42.4	36.3	3.8	40.1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0	14.8	15.8	46.3	34.8	3.0	37.9	100.0
충청권	128	0.7	29.8	30.5	32.7	34.2	2.6	36.8	100.0
호남권	116	0.0	19.7	19.7	48.7	27.6	4.0	31.6	100.0
영남권	306	0.3	18.3	18.7	37.3	36.7	7.3	44.0	100.0
강원	35	4.6	33.8	38.4	42.1	19.5	0.0	19.5	100.0
제주	14	0.0	3.1	3.1	48.0	35.4	13.5	48.9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1	19.4	20.5	42.6	33.9	3.0	36.9	100.0
중/소도시	567	0.6	18.3	19.0	44.1	32.4	4.6	36.9	100.0
읍/면	90	0.0	10.1	10.1	34.1	46.2	9.5	55.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3	20.7	22.1	44.1	30.0	3.9	33.9	100.0
중도	577	0.3	17.2	17.5	42.1	35.9	4.5	40.5	100.0
보수적	212	1.0	16.2	17.2	41.6	37.2	4.0	41.2	100.0
종교									
불교	200	0.0	23.5	23.5	43.4	28.2	4.9	33.1	100.0
기독교	232	0.3	19.8	20.1	44.6	33.8	1.6	35.3	100.0
천주교	45	9.5	17.2	26.7	36.9	32.3	4.1	36.4	100.0
기타	2	0.0	0.0	0.0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0.6	16.8	17.4	42.0	35.9	4.7	40.6	100.0
모름/무응답	33	0.0	7.9	7.9	47.2	37.1	7.9	44.9	100.0

표33-6.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㉕ 일본인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0.8	18.5	19.3	43.6	31.7	5.4	37.1	100.0
성별									
남자	607	0.9	17.8	18.7	45.3	31.6	4.5	36.0	100.0
여자	594	0.7	19.3	20.0	41.8	31.8	6.3	38.1	100.0
연령별									
19~29세	226	1.7	19.3	21.0	40.9	31.9	6.1	38.1	100.0
30대	222	0.4	23.1	23.4	39.4	33.1	4.1	37.2	100.0
40대	259	0.7	17.2	18.0	46.2	31.2	4.7	35.9	100.0
50대	260	0.3	17.7	18.0	45.1	31.3	5.6	36.9	100.0
60대	233	0.9	15.9	16.8	45.6	31.1	6.5	37.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0	12.8	12.8	48.7	30.5	8.0	38.6	100.0
고졸	560	0.6	20.2	20.8	44.1	30.2	4.9	35.1	100.0
대재 이상	531	1.2	18.0	19.1	42.0	33.5	5.4	38.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6	6.2	9.8	49.5	25.8	14.8	40.7	100.0
자영업	333	0.9	19.3	20.2	40.2	33.0	6.7	39.6	100.0
블루 칼라	325	0.0	16.4	16.4	49.9	30.3	3.4	33.7	100.0
화이트 칼라	241	0.3	20.3	20.6	46.1	28.5	4.8	33.3	100.0
전업 주부	170	1.1	20.2	21.3	36.2	35.7	6.8	42.5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6	18.7	21.3	40.3	33.7	4.7	38.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6	14.7	17.2	37.1	35.8	9.9	45.7	100.0
200~299 만원	155	0.5	19.1	19.6	43.2	31.2	6.0	37.2	100.0
300~399 만원	374	0.2	19.9	20.1	41.7	33.1	5.2	38.2	100.0
400만원 이상	596	1.0	18.1	19.1	45.8	30.3	4.8	35.2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0.6	21.5	22.2	43.9	30.9	3.1	34.0	100.0
충청권	128	1.3	7.7	9.0	37.0	44.9	9.0	54.0	100.0
호남권	116	0.7	11.2	11.9	54.6	24.9	8.6	33.5	100.0
영남권	306	0.0	20.3	20.3	42.7	31.8	5.2	37.0	100.0
강원	35	8.6	17.0	25.5	39.3	19.9	15.3	35.2	100.0
제주	14	0.0	16.0	16.0	31.3	29.4	23.3	52.7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0.6	22.7	23.3	42.0	29.4	5.3	34.7	100.0
중/소도시	567	0.9	15.1	16.0	46.7	32.8	4.5	37.3	100.0
읍/면	90	0.9	15.5	16.3	33.3	38.5	11.9	50.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0.9	19.9	20.8	43.2	29.7	6.2	35.9	100.0
중도	577	0.4	16.9	17.3	43.6	34.5	4.6	39.1	100.0
보수적	212	1.7	20.2	21.9	44.2	27.9	5.9	33.8	100.0
종교									
불교	200	0.8	20.7	21.5	42.3	29.2	7.0	36.2	100.0
기독교	232	1.2	17.6	18.9	47.6	30.3	3.3	33.6	100.0
천주교	45	7.2	18.4	25.6	30.9	36.8	6.7	43.4	100.0
기타	2	0.0	0.0	0.0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0.2	18.7	18.9	43.0	32.9	5.2	38.1	100.0
모름/무응답	33	0.0	10.4	10.4	53.2	23.3	13.1	36.4	100.0

표33-7.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④ 남아시아인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0.3	6.7	7.0	38.2	44.1	10.7	54.8	100.0
성별									
남자	607	0.1	7.5	7.6	38.4	44.5	9.5	54.0	100.0
여자	594	0.5	5.9	6.4	38.0	43.7	12.0	55.6	100.0
연령별									
19~29세	226	0.0	7.9	7.9	33.5	49.5	9.1	58.6	100.0
30대	222	0.0	3.5	3.5	37.9	47.3	11.2	58.5	100.0
40대	259	0.5	10.2	10.6	38.4	42.7	8.2	50.9	100.0
50대	260	0.9	5.1	6.1	38.2	43.9	11.8	55.8	100.0
60대	233	0.0	6.5	6.5	42.7	37.5	13.3	50.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0	5.6	5.6	46.6	36.0	11.8	47.8	100.0
고졸	560	0.2	6.4	6.6	35.9	47.0	10.5	57.5	100.0
대재 이상	531	0.5	7.3	7.7	38.8	42.7	10.7	53.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8	3.6	7.4	32.2	45.5	15.0	60.5	100.0
자영업	333	0.0	5.9	5.9	38.1	45.8	10.2	56.0	100.0
블루 칼라	325	0.0	7.0	7.0	37.0	46.6	9.4	56.0	100.0
화이트 칼라	241	0.3	7.2	7.6	40.1	40.7	11.6	52.3	100.0
전업 주부	170	1.2	5.8	7.0	43.4	37.2	12.4	49.6	100.0
학생/군인/무직	109	0.0	9.4	9.4	30.4	49.3	10.9	60.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6	9.1	10.7	34.8	32.2	22.3	54.5	100.0
200~299 만원	155	0.5	7.4	7.9	41.2	42.7	8.1	50.8	100.0
300~399 만원	374	0.0	6.3	6.3	38.2	46.1	9.3	55.5	100.0
400만원 이상	596	0.3	6.5	6.8	37.8	44.6	10.8	55.4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0.2	6.0	6.2	35.5	48.8	9.5	58.3	100.0
충청권	128	0.0	4.5	4.5	43.2	45.2	7.1	52.4	100.0
호남권	116	0.0	6.9	6.9	46.9	36.8	9.4	46.2	100.0
영남권	306	0.0	7.5	7.5	37.0	41.0	14.6	55.5	100.0
강원	35	6.9	21.6	28.5	50.4	17.1	4.0	21.1	100.0
제주	14	0.0	3.1	3.1	28.2	31.7	37.0	68.7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0.2	7.9	8.2	38.7	44.0	9.2	53.1	100.0
중/소도시	567	0.4	6.1	6.5	38.3	44.6	10.6	55.2	100.0
읍/면	90	0.0	3.1	3.1	34.3	41.7	20.8	62.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0.4	8.1	8.5	36.7	43.7	11.2	54.8	100.0
중도	577	0.1	5.9	6.0	38.3	45.3	10.3	55.6	100.0
보수적	212	0.6	6.3	6.8	40.6	41.7	10.9	52.6	100.0
종교									
불교	200	0.0	9.4	9.4	45.0	33.9	11.7	45.7	100.0
기독교	232	0.3	5.6	5.9	35.4	49.9	8.8	58.7	100.0
천주교	45	4.5	13.3	17.8	43.3	34.6	4.3	38.9	100.0
기타	2	0.0	0.0	0.0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0.0	6.1	6.1	37.0	45.5	11.4	56.8	100.0
모름/무응답	33	2.5	2.4	4.9	32.5	48.7	13.9	62.6	100.0

표34-1.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㉞ 동네 이웃

문)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1	10.7	11.8	50.3	32.8	5.1	37.9	100.0
성별									
남자	607	0.7	9.8	10.5	48.2	35.9	5.3	41.3	100.0
여자	594	1.5	11.5	13.0	52.5	29.6	4.8	34.4	100.0
연령별									
19~29세	226	0.6	10.9	11.5	55.7	25.9	6.9	32.7	100.0
30대	222	1.3	7.1	8.4	50.8	36.1	4.6	40.8	100.0
40대	259	0.2	8.3	8.5	50.5	34.9	6.1	41.0	100.0
50대	260	0.6	11.7	12.3	49.6	34.3	3.9	38.2	100.0
60대	233	2.9	15.4	18.3	45.3	32.5	3.9	36.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3.1	10.9	14.0	52.7	28.4	4.9	33.3	100.0
고졸	560	0.8	12.3	13.1	49.9	33.1	3.9	37.0	100.0
대재 이상	531	1.0	8.9	9.9	50.3	33.4	6.4	39.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7.4	7.5	14.9	48.7	25.3	11.0	36.3	100.0
자영업	333	0.6	12.4	13.0	47.0	34.7	5.2	39.9	100.0
블루 칼라	325	0.5	8.6	9.1	52.5	32.5	5.9	38.4	100.0
화이트 칼라	241	1.5	8.8	10.3	48.6	36.1	4.9	41.1	100.0
전업 주부	170	2.1	14.0	16.1	51.9	30.9	1.0	32.0	100.0
학생/군인/무직	109	0.6	11.1	11.7	55.6	25.2	7.5	32.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4	10.6	13.0	45.8	32.8	8.4	41.3	100.0
200~299 만원	155	2.8	13.5	16.3	51.2	26.9	5.5	32.5	100.0
300~399 만원	374	0.5	10.1	10.6	51.8	32.9	4.6	37.5	100.0
400만원 이상	596	0.9	10.2	11.0	49.8	34.3	4.8	39.1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0.6	9.8	10.4	53.7	32.4	3.6	35.9	100.0
충청권	128	0.6	13.1	13.7	49.4	28.1	8.7	36.8	100.0
호남권	116	2.1	6.2	8.2	45.1	33.7	13.0	46.7	100.0
영남권	306	1.8	13.0	14.9	46.7	35.6	2.8	38.5	100.0
강원	35	2.3	11.4	13.7	44.9	32.4	9.0	41.4	100.0
제주	14	0.0	9.9	9.9	52.3	27.6	10.2	37.8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4	10.3	11.7	50.4	32.7	5.3	37.9	100.0
중/소도시	567	1.0	10.8	11.8	52.7	31.1	4.4	35.4	100.0
읍/면	90	0.0	12.1	12.1	34.9	44.9	8.1	53.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1	7.4	8.5	51.1	35.1	5.4	40.4	100.0
중도	577	0.7	11.8	12.6	53.6	28.9	4.9	33.8	100.0
보수적	212	2.1	13.9	16.0	40.1	39.0	4.9	43.9	100.0
종교									
불교	200	1.8	14.9	16.7	39.9	39.2	4.2	43.4	100.0
기독교	232	0.5	9.0	9.6	50.2	36.8	3.5	40.2	100.0
천주교	45	0.0	11.2	11.2	41.0	40.2	7.6	47.8	100.0
기타	2	0.0	0.0	0.0	0.0	50.6	49.4	100.0	100.0
종교 없음	689	1.1	10.5	11.6	54.1	28.5	5.8	34.3	100.0
모름/무응답	33	2.5	0.0	2.5	51.2	46.4	0.0	46.4	100.0

표34-2.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㉑ 직장 동료

문)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7	11.2	12.8	49.8	31.9	5.4	37.3	100.0
성별									
남자	607	1.2	11.1	12.3	47.3	34.6	5.9	40.4	100.0
여자	594	2.2	11.2	13.4	52.4	29.2	5.0	34.2	100.0
연령별									
19~29세	226	1.2	13.6	14.8	52.7	25.2	7.2	32.4	100.0
30대	222	0.8	11.4	12.2	48.8	33.0	5.9	39.0	100.0
40대	259	0.4	10.7	11.0	50.2	32.9	5.9	38.8	100.0
50대	260	2.0	8.3	10.4	51.0	33.8	4.8	38.6	100.0
60대	233	4.0	12.3	16.3	46.2	34.1	3.4	37.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3.1	7.3	10.4	49.5	36.1	4.0	40.1	100.0
고졸	560	1.2	11.5	12.7	51.3	31.9	4.1	36.0	100.0
대재 이상	531	1.9	11.6	13.5	48.4	31.1	7.1	38.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7.4	2.1	9.5	48.2	31.2	11.0	42.3	100.0
자영업	333	1.7	10.2	11.9	52.1	30.9	5.1	36.0	100.0
블루 칼라	325	0.7	12.9	13.6	48.4	31.8	6.2	38.0	100.0
화이트 칼라	241	2.6	6.0	8.7	46.3	40.6	4.4	45.0	100.0
전업 주부	170	2.4	13.8	16.2	54.6	24.9	4.3	29.2	100.0
학생/군인/무직	109	0.0	17.8	17.8	48.1	27.1	7.1	34.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4	5.1	7.5	44.9	40.4	7.2	47.6	100.0
200~299 만원	155	2.2	15.1	17.3	48.9	28.9	5.0	33.9	100.0
300~399 만원	374	1.5	12.9	14.4	49.4	30.3	5.9	36.2	100.0
400만원 이상	596	1.6	9.8	11.4	50.9	32.7	5.0	37.7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8	11.2	13.0	53.8	28.7	4.5	33.2	100.0
충청권	128	0.6	8.0	8.6	53.0	29.7	8.7	38.4	100.0
호남권	116	2.8	6.1	8.9	38.9	40.6	11.6	52.2	100.0
영남권	306	1.1	14.4	15.5	46.3	35.8	2.4	38.2	100.0
강원	35	4.2	11.1	15.3	40.5	31.1	13.0	44.2	100.0
제주	14	3.1	10.1	13.2	44.6	31.6	10.6	42.2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6	11.0	12.6	52.7	28.8	6.0	34.7	100.0
중/소도시	567	1.6	11.6	13.2	49.3	32.7	4.8	37.5	100.0
읍/면	90	2.8	9.2	12.0	36.4	45.4	6.2	51.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0.7	10.3	11.0	50.4	33.7	4.8	38.6	100.0
중도	577	1.6	11.3	12.9	52.0	29.1	6.0	35.1	100.0
보수적	212	3.8	12.3	16.2	42.8	35.9	5.1	41.0	100.0
종교									
불교	200	1.6	7.8	9.3	46.3	39.8	4.5	44.4	100.0
기독교	232	1.6	10.9	12.5	52.3	30.8	4.3	35.2	100.0
천주교	45	2.8	7.6	10.4	41.3	40.7	7.6	48.3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0.0	100.0	100.0
종교 없음	689	1.6	12.9	14.5	50.8	28.6	6.1	34.7	100.0
모름/무응답	33	2.5	3.1	5.6	47.8	44.1	2.4	46.6	100.0

표34-3.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㉒ 사업 동업자

문)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7.8	34.3	42.1	37.5	16.8	3.5	20.4	100.0
성별									
남자	607	6.4	34.5	40.9	36.3	19.3	3.5	22.7	100.0
여자	594	9.2	34.1	43.3	38.8	14.3	3.6	17.9	100.0
연령별									
19~29세	226	6.0	31.6	37.6	41.2	16.0	5.2	21.2	100.0
30대	222	8.8	36.7	45.5	33.3	17.0	4.1	21.2	100.0
40대	259	4.3	31.0	35.3	43.4	17.1	4.2	21.3	100.0
50대	260	7.9	38.8	46.6	33.2	18.1	2.1	20.2	100.0
60대	233	12.3	33.4	45.7	36.4	15.6	2.3	18.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8.7	36.9	45.6	42.7	8.5	3.3	11.8	100.0
고졸	560	9.2	35.3	44.5	35.4	17.5	2.6	20.1	100.0
대재 이상	531	6.1	32.8	38.8	38.8	17.8	4.6	22.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3.6	19.2	32.8	42.1	21.4	3.7	25.1	100.0
자영업	333	8.9	40.1	49.0	33.8	15.0	2.2	17.2	100.0
블루 칼라	325	7.3	33.4	40.7	34.7	19.4	5.3	24.7	100.0
화이트 칼라	241	5.8	27.3	33.1	42.2	20.7	4.0	24.7	100.0
전업 주부	170	9.2	37.3	46.6	38.5	12.4	2.5	14.9	100.0
학생/군인/무직	109	6.9	33.3	40.2	44.6	12.0	3.3	15.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8.6	23.5	32.0	44.5	18.2	5.2	23.5	100.0
200~299 만원	155	9.8	33.5	43.3	35.2	17.1	4.4	21.5	100.0
300~399 만원	374	8.6	36.0	44.6	35.8	15.7	3.9	19.6	100.0
400만원 이상	596	6.7	34.8	41.5	38.3	17.3	2.9	20.2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7.4	37.2	44.7	36.0	16.3	3.0	19.4	100.0
충청권	128	7.7	35.1	42.7	41.0	10.7	5.6	16.3	100.0
호남권	116	5.3	22.4	27.7	47.2	16.4	8.7	25.1	100.0
영남권	306	9.4	36.1	45.5	33.9	19.5	1.1	20.6	100.0
강원	35	8.1	11.5	19.6	47.0	24.7	8.7	33.4	100.0
제주	14	9.4	19.8	29.2	48.4	18.3	4.0	22.4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8.1	37.2	45.3	35.1	16.2	3.4	19.6	100.0
중/소도시	567	7.5	33.8	41.3	40.2	15.3	3.2	18.5	100.0
읍/면	90	7.7	20.2	27.9	35.6	29.7	6.7	36.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7.5	32.7	40.2	41.2	16.0	2.6	18.6	100.0
중도	577	5.8	36.9	42.7	37.0	15.9	4.3	20.3	100.0
보수적	212	13.7	30.3	44.0	31.8	20.9	3.3	24.2	100.0
종교									
불교	200	8.1	32.7	40.8	36.8	19.1	3.4	22.4	100.0
기독교	232	7.1	36.7	43.8	35.8	16.7	3.7	20.4	100.0
천주교	45	4.8	16.5	21.3	43.2	32.7	2.8	35.5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8.4	35.1	43.5	38.0	14.7	3.8	18.5	100.0
모름/무응답	33	2.5	32.5	35.0	38.2	26.9	0.0	26.9	100.0

표34-4.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㉔ 결혼상대자

문)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7.0	40.5	57.5	28.4	11.2	3.0	14.1	100.0	
성별	남자	607	14.3	37.9	52.2	30.3	14.4	3.1	17.5	100.0
	여자	594	19.6	43.2	62.8	26.5	7.8	2.9	10.7	100.0
연령별	19~29세	226	20.2	40.7	60.8	27.7	8.5	2.9	11.5	100.0
	30대	222	17.9	43.4	61.3	24.3	11.7	2.8	14.4	100.0
	40대	259	16.1	36.2	52.3	31.6	12.5	3.5	16.1	100.0
	50대	260	14.4	42.4	56.7	28.1	11.8	3.3	15.2	100.0
	60대	233	16.8	40.3	57.1	29.8	10.9	2.3	13.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5.7	37.7	53.4	33.0	12.1	1.5	13.5	100.0
	고졸	560	17.9	43.4	61.3	25.7	9.9	3.1	13.0	100.0
	대재 이상	531	16.2	38.0	54.2	30.3	12.3	3.2	15.5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7.4	21.2	28.6	44.5	23.1	3.8	26.9	100.0
	자영업	333	17.2	46.0	63.2	25.9	8.7	2.2	11.0	100.0
	블루 칼라	325	18.6	36.8	55.4	27.6	13.2	3.9	17.0	100.0
	화이트 칼라	241	12.1	40.3	52.3	29.8	15.1	2.7	17.8	100.0
	전업 주부	170	20.3	41.3	61.5	30.0	5.8	2.6	8.5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9.0	37.9	56.9	29.7	9.6	3.8	13.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0.7	37.3	47.9	27.2	22.7	2.2	24.9	100.0
	200~299 만원	155	17.6	41.8	59.4	25.6	11.3	3.7	15.0	100.0
	300~399 만원	374	18.4	42.0	60.4	27.0	9.3	3.3	12.6	100.0
	400만원 이상	596	16.7	39.7	56.4	30.0	10.9	2.7	13.6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8.2	45.4	63.7	22.8	11.8	1.7	13.5	100.0
	충청권	128	13.9	47.7	61.6	27.1	7.4	3.9	11.3	100.0
	호남권	116	11.4	16.9	28.3	41.6	20.6	9.5	30.1	100.0
	영남권	306	18.1	39.6	57.7	33.7	7.1	1.6	8.7	100.0
	강원	35	15.0	21.6	36.6	32.4	17.9	13.0	31.0	100.0
	제주	14	16.2	25.5	41.8	45.7	12.5	0.0	12.5	100.0
	대도시	542	15.4	44.3	59.6	27.3	10.4	2.6	13.0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19.0	38.7	57.7	28.8	10.8	2.7	13.5	100.0
	읍/면	90	14.0	29.1	43.2	32.0	17.6	7.3	24.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7.0	40.7	57.7	28.4	10.5	3.4	13.9	100.0
	중도	577	16.1	40.9	57.0	29.8	10.8	2.5	13.3	100.0
	보수적	212	19.3	39.0	58.3	24.7	13.3	3.6	16.9	100.0
종교	불교	200	15.3	39.8	55.1	33.3	9.1	2.4	11.6	100.0
	기독교	232	14.5	38.3	52.8	30.9	14.9	1.4	16.3	100.0
	천주교	45	7.7	28.6	36.3	34.3	22.4	7.0	29.4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9.2	42.5	61.7	25.1	9.8	3.4	13.1	100.0
	모름/무응답	33	8.3	34.6	42.9	42.4	10.8	3.9	14.7	100.0

표35.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수용에 관한 견해

문)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계	
		%	%	%	%	
전 체	1200	28.2	56.9	14.9	100.0	
성별	남자	607	29.9	56.1	14.1	100.0
	여자	594	26.4	57.8	15.8	100.0
연령별	19~29세	226	24.2	58.0	17.9	100.0
	30대	222	22.4	66.2	11.3	100.0
	40대	259	30.3	57.3	12.4	100.0
	50대	260	30.9	55.3	13.8	100.0
	60대	233	32.1	48.5	19.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33.9	47.6	18.5	100.0
	고졸	560	26.7	57.8	15.5	100.0
	대재 이상	531	28.5	57.9	13.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42.7	42.8	14.5	100.0
	자영업	333	34.6	52.7	12.6	100.0
	블루 칼라	325	25.2	61.0	13.8	100.0
	화이트 칼라	241	25.4	61.4	13.2	100.0
	전업 주부	170	24.6	53.4	22.0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6.0	56.0	18.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33.5	52.0	14.5	100.0
	200~299 만원	155	30.1	52.0	18.0	100.0
	300~399 만원	374	24.6	59.7	15.7	100.0
	400만원 이상	596	29.3	57.0	13.7	100.0
	무응답	1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2.5	61.1	16.4	100.0
	충청권	128	34.9	57.9	7.1	100.0
	호남권	116	44.9	46.2	8.9	100.0
	영남권	306	27.4	55.0	17.7	100.0
	강원	35	51.8	37.2	11.0	100.0
	제주	14	28.8	50.6	20.6	100.0
	대도시	542	29.6	58.8	11.6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25.1	57.6	17.3	100.0
	읍/면	90	38.9	41.2	19.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9.3	57.5	13.2	100.0
	중도	577	27.4	59.2	13.5	100.0
	보수적	212	28.1	49.6	22.2	100.0
종교	불교	200	32.8	50.0	17.1	100.0
	기독교	232	29.5	61.4	9.1	100.0
	천주교	45	26.7	50.1	23.2	100.0
	기타	2	49.4	50.6	0.0	100.0
	종교 없음	689	26.4	57.6	16.0	100.0
	모름/무응답	33	28.2	63.2	8.6	100.0

표36-1.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6	58.6	62.1	33.3	4.6	37.9	100.0	
성별	남자	607	3.8	59.0	62.8	33.3	3.9	37.2	100.0
	여자	594	3.3	58.1	61.4	33.3	5.3	38.6	100.0
연령별	19~29세	226	2.2	54.7	57.0	37.9	5.2	43.0	100.0
	30대	222	3.4	64.1	67.5	28.6	3.9	32.5	100.0
	40대	259	2.7	61.4	64.1	31.4	4.5	35.9	100.0
	50대	260	5.8	58.2	64.0	31.8	4.3	36.0	100.0
	60대	233	3.6	54.3	57.8	37.1	5.1	42.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5.0	46.6	51.5	45.3	3.2	48.5	100.0
	고졸	560	3.3	59.8	63.1	32.7	4.2	36.9	100.0
	대재 이상	531	3.6	59.7	63.3	31.4	5.3	36.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6.1	49.1	55.1	37.5	7.4	44.9	100.0
	자영업	333	4.2	57.1	61.3	34.1	4.6	38.7	100.0
	블루 칼라	325	1.7	62.4	64.1	33.2	2.7	35.9	100.0
	화이트 칼라	241	3.4	60.5	63.9	31.3	4.8	36.1	100.0
	전업 주부	170	4.9	57.8	62.6	29.5	7.9	37.4	100.0
	학생/군인/무직	109	4.9	50.5	55.4	40.6	4.0	44.6	100.0
	200만원 미만	74	5.6	50.5	56.1	37.7	6.2	43.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5.1	54.8	60.0	36.8	3.2	40.0	100.0
	300~399 만원	374	3.7	58.0	61.7	34.6	3.7	38.3	100.0
	400만원 이상	596	2.8	61.0	63.8	30.9	5.3	36.2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3.7	62.8	66.4	29.5	4.1	33.6	100.0
	충청권	128	5.6	52.8	58.4	37.8	3.8	41.6	100.0
	호남권	116	0.8	49.4	50.1	43.7	6.2	49.9	100.0
	영남권	306	1.9	58.5	60.4	34.9	4.7	39.6	100.0
	강원	35	18.2	42.2	60.4	30.9	8.7	39.6	100.0
	제주	14	3.5	49.8	53.3	39.9	6.9	46.7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2.4	62.3	64.7	30.8	4.5	35.3	100.0
	중/소도시	567	4.7	56.7	61.4	33.6	5.0	38.6	100.0
	읍/면	90	3.4	48.1	51.5	46.1	2.4	48.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4.0	64.3	68.3	27.2	4.5	31.7	100.0
	중도	577	3.0	56.9	59.9	35.9	4.2	40.1	100.0
	보수적	212	4.2	52.1	56.3	37.9	5.8	43.7	100.0
종교	불교	200	3.3	59.1	62.4	33.0	4.6	37.6	100.0
	기독교	232	3.7	63.1	66.8	28.8	4.4	33.2	100.0
	천주교	45	8.7	58.0	66.7	30.3	2.9	33.3	100.0
	기타	2	0.0	49.4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3.4	57.5	60.9	34.5	4.6	39.1	100.0
	모름/무응답	33	0.0	48.0	48.0	43.7	8.4	52.0	100.0

표36-2.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 ㉕ 정부는 탈북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5.3	35.2	40.5	48.8	10.7	59.5	100.0	
성별	남자	607	5.7	37.4	43.2	47.3	9.5	56.8	100.0
	여자	594	4.9	32.8	37.7	50.4	11.9	62.3	100.0
연령별	19~29세	226	4.0	31.1	35.1	53.6	11.3	64.9	100.0
	30대	222	6.0	37.6	43.6	45.2	11.1	56.4	100.0
	40대	259	6.7	34.9	41.6	47.7	10.7	58.4	100.0
	50대	260	5.4	37.3	42.7	49.1	8.2	57.3	100.0
	60대	233	4.3	34.7	39.0	48.6	12.4	61.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2.4	38.7	41.1	49.6	9.3	58.9	100.0
	고졸	560	5.5	33.6	39.1	49.7	11.1	60.9	100.0
	대재 이상	531	5.7	36.0	41.8	47.7	10.5	58.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9	44.7	48.6	38.0	13.4	51.4	100.0
	자영업	333	4.9	33.9	38.8	50.5	10.7	61.2	100.0
	블루 칼라	325	5.3	36.0	41.3	47.9	10.7	58.7	100.0
	화이트 칼라	241	5.6	37.3	42.9	48.5	8.5	57.1	100.0
	전업 주부	170	6.2	32.4	38.6	49.3	12.1	61.4	100.0
	학생/군인/무직	109	4.7	34.1	38.9	48.6	12.6	61.1	100.0
	200만원 미만	74	5.2	33.7	38.8	55.4	5.8	61.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5.1	43.7	48.8	39.9	11.3	51.2	100.0
	300~399 만원	374	6.3	34.3	40.6	49.9	9.5	59.4	100.0
	400만원 이상	596	4.8	33.7	38.5	49.6	11.9	61.5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6.8	37.0	43.8	45.6	10.6	56.2	100.0
	충청권	128	4.7	32.7	37.3	55.4	7.3	62.7	100.0
	호남권	116	4.2	39.2	43.4	48.5	8.2	56.6	100.0
	영남권	306	2.3	29.5	31.8	54.4	13.8	68.2	100.0
	강원	35	13.2	48.0	61.2	32.0	6.8	38.8	100.0
	제주	14	3.1	37.7	40.8	49.1	10.1	59.2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4.9	37.2	42.0	46.5	11.4	58.0	100.0
	중/소도시	567	5.0	31.2	36.1	52.5	11.4	63.9	100.0
	읍/면	90	10.2	48.1	58.3	39.9	1.8	41.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5.8	39.3	45.2	44.1	10.7	54.8	100.0
	중도	577	5.1	32.3	37.5	52.3	10.3	62.5	100.0
	보수적	212	4.9	34.7	39.6	48.5	11.8	60.4	100.0
종교	불교	200	2.4	37.6	40.0	48.8	11.2	60.0	100.0
	기독교	232	4.1	35.3	39.4	51.0	9.6	60.6	100.0
	천주교	45	5.5	34.1	39.6	48.6	11.8	60.4	100.0
	기타	2	49.4	0.0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6.7	34.0	40.7	48.1	11.1	59.3	100.0
	모름/무응답	33	0.0	46.7	46.7	48.4	4.9	53.3	100.0

표36-3.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1	31.6	34.8	55.4	9.8	65.2	100.0	
성별	남자	607	3.5	28.7	32.2	58.2	9.6	67.8	100.0
	여자	594	2.7	34.7	37.4	52.6	10.0	62.6	100.0
연령별	19~29세	226	1.6	27.1	28.7	59.3	12.0	71.3	100.0
	30대	222	3.2	30.2	33.4	58.9	7.7	66.6	100.0
	40대	259	4.0	32.5	36.5	54.7	8.7	63.5	100.0
	50대	260	3.1	32.7	35.8	55.0	9.2	64.2	100.0
	60대	233	3.7	35.1	38.8	49.7	11.4	61.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2.3	43.7	46.1	49.3	4.6	53.9
	고졸	560	2.5	31.2	33.7	57.4	8.9	66.3	100.0
	대재 이상	531	4.0	29.6	33.6	54.6	11.8	66.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6	12.6	16.2	62.3	21.5	83.8	100.0
	자영업	333	3.0	30.0	33.0	55.6	11.4	67.0	100.0
	블루 칼라	325	3.2	30.6	33.8	58.0	8.2	66.2	100.0
	화이트 칼라	241	2.9	32.8	35.7	54.7	9.6	64.3	100.0
	전업 주부	170	4.0	38.9	42.8	49.9	7.2	57.2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5	29.8	32.3	56.0	11.7	67.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4.5	43.7	48.2	43.5	8.2	51.8	100.0
	200~299 만원	155	3.6	28.9	32.5	57.7	9.8	67.5	100.0
	300~399 만원	374	4.7	30.0	34.7	57.1	8.2	65.3	100.0
	400만원 이상	596	1.9	31.8	33.7	55.4	11.0	66.3	100.0
지역별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100.0	
	수도권	601	2.4	29.2	31.6	60.7	7.7	68.4	100.0
	충청권	128	2.7	36.6	39.3	41.4	19.3	60.7	100.0
	호남권	116	3.5	22.6	26.1	62.1	11.8	73.9	100.0
	영남권	306	4.6	38.9	43.5	48.2	8.3	56.5	100.0
	강원	35	4.7	24.4	29.0	55.9	15.1	71.0	100.0
	제주	14	0.0	25.7	25.7	58.3	16.0	74.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2.5	30.2	32.8	57.3	9.9	67.2	100.0
	중/소도시	567	3.5	32.2	35.7	53.8	10.5	64.3	100.0
	읍/면	90	4.5	36.1	40.6	54.7	4.7	59.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4	26.0	28.4	62.5	9.0	71.6	100.0
	중도	577	3.9	35.5	39.4	50.9	9.6	60.6	100.0
	보수적	212	2.4	32.0	34.4	54.0	11.6	65.6	100.0
종교	불교	200	4.2	36.3	40.5	48.4	11.1	59.5	100.0
	기독교	232	1.3	25.5	26.8	62.8	10.4	73.2	100.0
	천주교	45	8.9	37.7	46.5	43.7	9.7	53.5	100.0
	기타	2	0.0	50.6	50.6	49.4	0.0	49.4	100.0
	종교 없음	689	3.2	32.6	35.8	54.9	9.2	64.2	100.0
	모름/무응답	33	0.0	16.9	16.9	73.6	9.5	83.1	100.0

표36-4.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2.3	62.7	75.0	23.8	1.2	25.0	100.0	
성별	남자	607	11.7	62.9	74.7	24.2	1.1	25.3	100.0
	여자	594	12.9	62.4	75.3	23.4	1.3	24.7	100.0
연령별	19~29세	226	14.1	57.3	71.4	27.7	0.9	28.6	100.0
	30대	222	12.1	64.2	76.3	22.9	0.8	23.7	100.0
	40대	259	11.0	65.3	76.3	23.1	0.6	23.7	100.0
	50대	260	12.6	64.1	76.7	21.8	1.6	23.3	100.0
	60대	233	12.0	61.8	73.8	23.9	2.3	26.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3.9	61.6	75.5	23.0	1.5	24.5
	고졸	560	9.4	63.9	73.4	25.4	1.3	26.6	100.0
	대재 이상	531	15.1	61.5	76.6	22.3	1.1	23.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0.0	39.6	49.6	43.0	7.4	50.4	100.0
	자영업	333	10.0	65.0	75.0	22.9	2.1	25.0	100.0
	블루 칼라	325	10.4	63.4	73.8	25.6	0.6	26.2	100.0
	화이트 칼라	241	14.9	64.9	79.8	19.1	1.2	20.2	100.0
	전업 주부	170	14.6	60.7	75.3	24.3	0.5	24.7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6.3	56.4	72.7	26.6	0.6	27.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0.9	72.1	83.0	15.9	1.1	17.0	100.0
	200~299 만원	155	13.4	55.2	68.7	30.3	1.0	31.3	100.0
	300~399 만원	374	9.2	60.4	69.6	28.7	1.7	30.4	100.0
	400만원 이상	596	14.2	64.8	79.0	20.0	1.0	21.0	100.0
지역별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100.0	
	수도권	601	10.9	61.7	72.6	25.9	1.5	27.4	100.0
	충청권	128	14.1	69.3	83.3	14.8	1.8	16.7	100.0
	호남권	116	14.5	63.9	78.5	19.6	1.9	21.5	100.0
	영남권	306	13.5	62.1	75.6	24.1	0.2	24.4	100.0
	강원	35	15.4	52.9	68.2	29.5	2.3	31.8	100.0
	제주	14	6.3	68.8	75.2	24.8	0.0	24.8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3.6	61.7	75.3	23.5	1.2	24.7	100.0
	중/소도시	567	11.7	63.8	75.5	23.5	1.0	24.5	100.0
	읍/면	90	8.8	61.1	69.8	27.4	2.8	30.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3.9	57.7	71.7	26.6	1.7	28.3	100.0
	중도	577	10.9	68.0	78.8	20.3	0.9	21.2	100.0
	보수적	212	13.3	57.8	71.1	27.7	1.2	28.9	100.0
종교	불교	200	11.1	66.3	77.5	21.8	0.8	22.5	100.0
	기독교	232	13.0	60.1	73.1	24.7	2.2	26.9	100.0
	천주교	45	20.2	54.7	74.9	25.1	0.0	25.1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2.1	62.7	74.8	24.1	1.1	25.2	100.0
	모름/무응답	33	4.8	72.0	76.8	20.7	2.5	23.2	100.0

표37-1. 다문화 관련 인식 - ㉞ 다문화 포용성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전 체	1200	7.9	45.6	53.5	34.9	9.8	1.8	11.6	100.0	
성별	남자	607	9.2	44.0	53.2	33.6	11.3	1.9	13.2	100.0
	여자	594	6.7	47.1	53.8	36.1	8.3	1.7	10.0	100.0
연령별	19~29세	226	6.6	46.2	52.8	38.1	7.9	1.2	9.1	100.0
	30대	222	7.8	47.2	55.0	31.9	10.7	2.4	13.1	100.0
	40대	259	8.6	41.7	50.3	37.7	10.9	1.1	12.0	100.0
	50대	260	8.2	46.3	54.5	33.9	10.2	1.4	11.5	100.0
	60대	233	8.4	46.9	55.2	32.3	9.2	3.2	12.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8.2	49.4	57.6	33.3	7.5	1.7	9.2	100.0
	고졸	560	6.5	46.8	53.3	33.9	10.2	2.6	12.8	100.0
	대재 이상	531	9.5	43.5	52.9	36.2	9.9	1.1	10.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5.2	20.6	35.7	45.5	11.2	7.6	18.8	100.0
	자영업	333	9.4	43.8	53.2	36.6	8.5	1.6	10.1	100.0
	블루 칼라	325	4.6	49.4	54.0	35.1	9.3	1.6	10.9	100.0
	화이트 칼라	241	10.5	43.5	54.0	34.0	11.0	1.0	12.0	100.0
	전업 주부	170	6.7	47.1	53.8	32.8	10.3	3.1	13.4	100.0
	학생/군인/무직	109	8.1	47.0	55.1	31.7	11.5	1.7	13.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0.2	46.5	56.7	31.4	10.8	1.1	11.9	100.0
	200~299 만원	155	11.9	44.6	56.5	33.0	8.9	1.6	10.5	100.0
	300~399 만원	374	5.7	49.3	55.0	33.9	9.5	1.6	11.2	100.0
	400만원 이상	596	8.1	43.4	51.5	36.4	10.0	2.1	12.1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6.1	45.1	51.2	34.9	11.5	2.4	13.9	100.0
	충청권	128	16.2	42.8	59.0	31.7	9.3	0.0	9.3	100.0
	호남권	116	10.4	57.0	67.4	24.9	4.9	2.8	7.7	100.0
	영남권	306	6.0	44.4	50.4	40.3	8.7	0.5	9.2	100.0
	강원	35	20.2	42.7	62.9	28.4	6.3	2.3	8.6	100.0
	제주	14	2.8	29.7	32.5	38.2	16.3	12.9	29.2	100.0
	대도시	542	7.8	44.5	52.3	37.2	7.8	2.7	10.5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8.3	48.3	56.6	33.7	8.8	0.8	9.7	100.0
	읍/면	90	6.5	35.1	41.6	28.0	27.6	2.9	30.4	100.0
	진보적	411	11.0	47.2	58.3	30.9	9.4	1.5	10.9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77	5.6	46.4	52.0	36.7	9.3	2.0	11.3	100.0
	보수적	212	8.4	40.1	48.5	37.7	11.9	1.9	13.8	100.0
	불교	200	8.5	47.1	55.6	34.2	9.3	0.9	10.2	100.0
종교	기독교	232	7.8	39.0	46.8	39.6	10.6	3.0	13.6	100.0
	천주교	45	16.5	40.7	57.2	34.2	8.6	0.0	8.6	100.0
	기타	2	49.4	0.0	49.4	0.0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7.2	47.4	54.6	33.8	9.7	1.9	11.6	100.0
	모름/무응답	33	6.2	54.6	60.8	30.4	8.8	0.0	8.8	100.0

표37-2. 다문화 관련 인식 - ㉟ 다문화 수용성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전 체	1200	9.3	33.9	43.2	41.3	13.9	1.7	15.5	100.0	
성별	남자	607	8.9	33.0	42.0	43.1	13.0	1.9	15.0	100.0
	여자	594	9.6	34.9	44.4	39.5	14.7	1.4	16.1	100.0
연령별	19~29세	226	7.8	33.3	41.1	44.7	13.1	1.1	14.2	100.0
	30대	222	6.4	30.1	36.5	45.8	16.4	1.3	17.7	100.0
	40대	259	8.5	36.6	45.1	41.1	12.2	1.6	13.8	100.0
	50대	260	10.8	31.8	42.6	41.3	14.7	1.4	16.2	100.0
	60대	233	12.5	37.7	50.2	33.9	13.1	2.8	15.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8.9	44.3	53.2	30.7	13.8	2.3	16.1	100.0
	고졸	560	10.4	34.0	44.4	40.2	13.7	1.7	15.3	100.0
	대재 이상	531	8.1	31.7	39.9	44.6	14.0	1.5	15.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3.1	30.5	53.6	18.8	16.6	11.1	27.7	100.0
	자영업	333	9.1	34.3	43.4	39.3	14.8	2.5	17.3	100.0
	블루 칼라	325	8.3	35.0	43.4	42.6	12.1	1.9	14.0	100.0
	화이트 칼라	241	9.1	32.3	41.3	45.9	12.2	0.6	12.8	100.0
	전업 주부	170	10.8	32.8	43.6	39.3	16.3	0.9	17.1	100.0
	학생/군인/무직	109	7.6	35.8	43.4	41.0	15.6	0.0	15.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0.7	37.7	48.4	34.9	13.3	3.3	16.7	100.0
	200~299 만원	155	8.4	41.8	50.2	39.2	9.5	1.1	10.6	100.0
	300~399 만원	374	6.0	33.9	40.0	44.4	14.3	1.3	15.6	100.0
	400만원 이상	596	11.2	31.5	42.7	40.7	14.8	1.8	16.6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9.6	30.8	40.5	41.6	16.7	1.2	18.0	100.0
	충청권	128	4.5	43.6	48.1	36.2	15.0	0.7	15.7	100.0
	호남권	116	5.7	31.7	37.4	47.9	8.5	6.2	14.7	100.0
	영남권	306	11.9	38.4	50.3	39.8	9.6	0.3	9.9	100.0
	강원	35	4.4	26.1	30.5	41.2	19.6	8.8	28.3	100.0
	제주	14	18.6	21.6	40.2	53.2	3.5	3.1	6.6	100.0
	대도시	542	8.8	33.8	42.6	42.7	13.8	0.8	14.7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9.6	33.8	43.5	40.0	14.3	2.2	16.5	100.0
	읍/면	90	9.4	35.6	44.9	40.6	11.3	3.1	14.4	100.0
	진보적	411	8.8	33.8	42.5	41.5	14.5	1.5	16.0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77	9.7	33.2	42.9	42.7	12.9	1.5	14.4	100.0
	보수적	212	9.0	36.3	45.3	37.2	15.0	2.5	17.5	100.0
	불교	200	11.2	31.6	42.8	40.1	15.1	2.1	17.1	100.0
종교	기독교	232	11.0	39.7	50.7	33.9	13.3	2.1	15.3	100.0
	천주교	45	8.4	24.0	32.3	47.3	16.8	3.5	20.3	100.0
	기타	2	0.0	50.6	50.6	0.0	49.4	0.0	49.4	100.0
	종교 없음	689	8.3	33.3	41.6	43.6	13.4	1.4	14.8	100.0
	모름/무응답	33	5.9	33.3	39.2	46.4	14.4	0.0	14.4	100.0

표37-3. 다문화 관련 인식 - ㉔ 생활습관 변화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전 체	1200	4.6	27.4	32.0	43.0	23.4	1.5	24.9	100.0	
성별	남자	607	4.3	26.8	31.1	45.3	22.1	1.5	23.6	100.0
	여자	594	5.0	28.0	33.0	40.7	24.7	1.6	26.2	100.0
연령별	19~29세	226	5.1	26.9	32.0	41.9	24.5	1.5	26.0	100.0
	30대	222	4.7	26.7	31.4	43.1	24.2	1.3	25.5	100.0
	40대	259	3.8	31.7	35.5	42.4	20.4	1.7	22.1	100.0
	50대	260	5.3	20.1	25.4	47.2	25.9	1.5	27.4	100.0
	60대	233	4.3	31.8	36.2	40.2	22.0	1.6	23.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2.0	36.6	38.6	41.2	17.9	2.2	20.1	100.0
	고졸	560	5.1	25.8	31.0	44.5	23.8	0.7	24.5	100.0
	대재 이상	531	4.7	27.1	31.8	41.8	24.1	2.3	26.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5.5	26.7	32.3	41.5	15.0	11.1	26.2	100.0
	자영업	333	5.2	25.0	30.2	46.5	22.5	0.7	23.2	100.0
	블루 칼라	325	3.3	26.2	29.5	47.0	22.7	0.8	23.5	100.0
	화이트 칼라	241	4.5	30.0	34.4	38.1	25.5	2.0	27.5	100.0
	전업 주부	170	6.1	31.0	37.1	36.2	25.1	1.6	26.7	100.0
	학생/군인/무직	109	4.7	27.2	31.9	42.5	22.3	3.3	25.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3.4	37.2	40.6	37.8	19.5	2.1	21.6	100.0
	200~299 만원	155	3.9	33.1	37.0	44.8	16.0	2.2	18.2	100.0
	300~399 만원	374	3.5	28.9	32.4	45.1	21.6	0.9	22.5	100.0
	400만원 이상	596	5.7	23.8	29.5	41.9	27.0	1.7	28.6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9	26.8	29.6	44.6	24.7	1.0	25.8	100.0
	충청권	128	2.6	26.2	28.8	43.4	26.7	1.2	27.9	100.0
	호남권	116	12.0	28.2	40.1	39.9	16.5	3.5	20.0	100.0
	영남권	306	5.7	28.6	34.3	42.9	22.0	0.8	22.8	100.0
	강원	35	4.2	32.4	36.6	28.8	26.3	8.2	34.6	100.0
	제주	14	17.0	19.4	36.4	38.6	16.0	8.9	25.0	100.0
	대도시	542	5.6	25.4	31.1	41.8	26.1	1.0	27.2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3.4	27.0	30.5	45.5	22.0	2.0	24.0	100.0
	읍/면	90	6.2	41.5	47.7	34.9	15.9	1.5	17.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7.3	25.7	33.0	40.6	24.2	2.2	26.4	100.0
	중도	577	3.0	26.7	29.7	44.4	24.5	1.4	25.9	100.0
	보수적	212	3.7	32.7	36.4	44.1	18.9	0.7	19.6	100.0
종교	불교	200	6.1	24.2	30.3	42.5	25.8	1.4	27.2	100.0
	기독교	232	4.1	25.0	29.1	46.3	23.5	1.2	24.6	100.0
	천주교	45	1.8	29.7	31.4	37.7	27.1	3.8	30.9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0.0	100.0	100.0
	종교 없음	689	4.4	29.3	33.7	42.7	22.1	1.5	23.6	100.0
	모름/무응답	33	8.7	22.8	31.5	40.4	24.9	3.1	28.0	100.0

표37-4. 다문화 관련 인식 - ㉕ 동등한 대우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전 체	1200	8.5	43.4	51.8	41.1	6.1	1.0	7.1	100.0	
성별	남자	607	8.3	42.1	50.4	43.1	5.6	0.9	6.5	100.0
	여자	594	8.6	44.7	53.3	39.0	6.6	1.1	7.7	100.0
연령별	19~29세	226	9.0	39.8	48.8	42.2	7.0	2.1	9.1	100.0
	30대	222	8.0	44.5	52.5	40.4	7.1	0.0	7.1	100.0
	40대	259	8.8	44.4	53.2	40.6	5.5	0.7	6.2	100.0
	50대	260	7.7	45.3	52.9	42.1	4.7	0.3	5.0	100.0
	60대	233	8.8	42.5	51.3	40.1	6.5	2.1	8.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8.8	50.1	58.8	35.1	2.7	3.3	6.0	100.0
	고졸	560	6.4	43.2	49.5	43.1	6.6	0.7	7.4	100.0
	대재 이상	531	10.6	42.2	52.8	40.2	6.2	0.8	7.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3.2	43.4	56.6	28.6	7.4	7.4	14.8	100.0
	자영업	333	6.9	44.1	51.0	42.7	5.3	1.0	6.3	100.0
	블루 칼라	325	6.5	46.8	53.3	41.5	4.5	0.8	5.2	100.0
	화이트 칼라	241	10.9	39.2	50.1	42.9	6.3	0.7	7.0	100.0
	전업 주부	170	10.5	41.3	51.8	39.6	8.1	0.5	8.6	100.0
	학생/군인/무직	109	9.6	43.1	52.7	35.7	9.5	2.1	11.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1.4	49.5	61.0	34.3	1.7	3.0	4.7	100.0
	200~299 만원	155	7.0	42.1	49.1	42.4	6.7	1.7	8.4	100.0
	300~399 만원	374	6.9	45.7	52.6	40.7	6.2	0.5	6.7	100.0
	400만원 이상	596	9.4	41.4	50.8	41.8	6.4	0.9	7.3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6.2	44.5	50.7	43.0	5.4	0.8	6.3	100.0
	충청권	128	16.3	49.6	66.0	30.1	3.9	0.0	3.9	100.0
	호남권	116	10.2	53.2	63.3	29.2	6.0	1.4	7.5	100.0
	영남권	306	7.4	36.5	43.9	46.9	8.0	1.2	9.2	100.0
	강원	35	19.2	34.7	53.9	33.5	8.4	4.2	12.6	100.0
	제주	14	14.2	28.7	42.9	47.4	6.6	3.1	9.7	100.0
	대도시	542	8.0	41.3	49.3	45.2	5.0	0.5	5.5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8.6	45.6	54.2	38.9	5.3	1.6	6.9	100.0
	읍/면	90	10.2	41.9	52.1	29.9	18.0	0.0	18.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0.1	45.4	55.5	36.4	7.0	1.1	8.1	100.0
	중도	577	7.8	41.8	49.6	43.8	5.5	1.2	6.6	100.0
	보수적	212	7.1	43.7	50.8	42.7	6.1	0.4	6.5	100.0
종교	불교	200	6.5	41.1	47.7	43.5	7.1	1.7	8.9	100.0
	기독교	232	9.3	44.6	53.9	37.9	7.1	1.1	8.2	100.0
	천주교	45	7.8	37.5	45.4	39.9	14.7	0.0	14.7	100.0
	기타	2	0.0	0.0	0.0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9.0	43.8	52.9	41.7	4.6	0.8	5.4	100.0
	모름/무응답	33	3.1	49.0	52.1	36.1	9.3	2.5	11.8	100.0

표38. 탈북자 인식(같은 민족)

문) ○○님은 현재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②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	①+②	③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④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4.3	72.4	86.7	12.4	0.9	13.3	100.0
성별								
남자	607	16.2	72.1	88.3	11.4	0.3	11.7	100.0
여자	594	12.4	72.7	85.1	13.4	1.5	14.9	100.0
연령별								
19~29세	226	12.4	72.0	84.4	14.6	1.0	15.6	100.0
30대	222	12.9	73.2	86.1	13.0	0.9	13.9	100.0
40대	259	14.0	74.5	88.5	10.5	1.1	11.5	100.0
50대	260	16.6	72.1	88.6	11.4	0.0	11.4	100.0
60대	233	15.2	70.1	85.3	12.9	1.8	14.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2.2	68.1	80.4	18.0	1.7	19.6	100.0
고졸	560	12.1	76.0	88.1	11.2	0.7	11.9	100.0
대재 이상	531	17.0	69.5	86.5	12.5	1.0	13.5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9.6	55.9	75.5	17.2	7.3	24.5	100.0
자영업	333	12.2	75.1	87.3	12.0	0.8	12.7	100.0
블루 칼라	325	12.5	76.0	88.5	10.5	0.9	11.5	100.0
화이트 칼라	241	16.7	69.2	85.9	13.4	0.7	14.1	100.0
전업 주부	170	17.2	69.6	86.8	13.2	0.0	13.2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5.1	68.2	83.4	14.6	2.1	16.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0.7	66.1	86.8	12.1	1.1	13.2	100.0
200~299 만원	155	10.4	70.6	81.0	18.4	0.6	19.0	100.0
300~399 만원	374	11.6	75.0	86.6	12.0	1.4	13.4	100.0
400만원 이상	596	16.2	72.0	88.2	11.1	0.7	11.8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4.3	73.0	87.3	11.7	1.1	12.7	100.0
충청권	128	21.2	66.5	87.7	10.9	1.4	12.3	100.0
호남권	116	17.4	69.0	86.4	12.9	0.7	13.6	100.0
영남권	306	7.4	77.2	84.6	15.0	0.3	15.4	100.0
강원	35	37.6	53.7	91.3	6.4	2.3	8.7	100.0
제주	14	16.1	71.0	87.1	9.1	3.8	12.9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3.4	75.7	89.1	10.5	0.4	10.9	100.0
중/소도시	567	14.8	71.5	86.2	13.1	0.7	13.8	100.0
읍/면	90	16.4	58.5	74.9	19.1	6.0	25.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8.1	72.9	91.0	8.1	0.9	9.0	100.0
중도	577	12.3	73.5	85.9	13.3	0.8	14.1	100.0
보수적	212	12.2	68.3	80.5	18.2	1.3	19.5	100.0
종교								
불교	200	12.1	71.8	83.9	14.7	1.4	16.1	100.0
기독교	232	17.5	72.3	89.9	8.5	1.6	10.1	100.0
천주교	45	13.9	68.6	82.5	14.7	2.8	17.5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4.2	72.5	86.7	12.8	0.5	13.3	100.0
모름/무응답	33	4.9	80.7	85.6	14.4	0.0	14.4	100.0

표39. 탈북자 인식(대한민국 시민)

문) ○○님은 현재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을 대한민국 시민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②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	①+②	③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④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4.1	68.9	83.0	15.2	1.8	17.0	100.0
성별								
남자	607	15.5	69.1	84.7	14.1	1.3	15.3	100.0
여자	594	12.6	68.7	81.3	16.4	2.3	18.7	100.0
연령별								
19~29세	226	10.7	70.7	81.5	15.3	3.3	18.5	100.0
30대	222	10.8	66.7	77.5	21.2	1.3	22.5	100.0
40대	259	17.8	67.5	85.3	13.0	1.6	14.7	100.0
50대	260	15.3	71.6	86.9	12.6	0.5	13.1	100.0
60대	233	15.0	67.8	82.9	14.7	2.4	17.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2.3	70.4	82.8	15.6	1.6	17.2	100.0
고졸	560	14.2	70.3	84.5	14.5	1.0	15.5	100.0
대재 이상	531	14.4	67.1	81.5	15.9	2.6	18.5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1.8	70.1	81.8	14.5	3.7	18.2	100.0
자영업	333	14.9	69.5	84.4	14.6	1.0	15.6	100.0
블루 칼라	325	11.7	72.5	84.2	14.4	1.4	15.8	100.0
화이트 칼라	241	14.6	66.0	80.6	17.0	2.4	19.4	100.0
전업 주부	170	13.4	69.3	82.7	16.0	1.3	17.3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9.2	62.0	81.2	14.7	4.1	18.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5.8	70.5	86.3	11.5	2.2	13.7	100.0
200~299 만원	155	11.3	64.2	75.6	21.6	2.8	24.4	100.0
300~399 만원	374	14.5	67.8	82.4	16.4	1.2	17.6	100.0
400만원 이상	596	14.3	70.6	84.9	13.3	1.8	15.1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2.9	70.7	83.6	14.3	2.1	16.4	100.0
충청권	128	20.5	63.2	83.8	13.0	3.2	16.2	100.0
호남권	116	18.7	64.8	83.4	15.1	1.4	16.6	100.0
영남권	306	9.4	71.3	80.8	18.6	0.6	19.2	100.0
강원	35	34.9	56.8	91.7	8.3	0.0	8.3	100.0
제주	14	19.6	54.4	74.0	19.1	6.9	26.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3.6	70.9	84.5	14.7	0.8	15.5	100.0
중/소도시	567	14.2	69.0	83.2	14.9	1.9	16.8	100.0
읍/면	90	16.6	56.4	73.0	20.2	6.8	27.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6.1	72.3	88.4	10.1	1.5	11.6	100.0
중도	577	13.4	68.1	81.5	16.8	1.8	18.5	100.0
보수적	212	12.1	64.7	76.7	20.8	2.4	23.3	100.0
종교								
불교	200	10.6	70.8	81.4	15.4	3.2	18.6	100.0
기독교	232	16.9	68.1	85.0	13.4	1.6	15.0	100.0
천주교	45	16.5	61.3	77.8	19.4	2.8	22.2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4.3	68.7	83.0	15.5	1.4	17.0	100.0
모름/무응답	33	5.5	79.2	84.7	15.3	0.0	15.3	100.0

표40-1. 국가 정체성 관련 중요도 - ㉞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사례수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다소 중요하다	①+②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29.8	51.8	81.6	17.1	1.3	18.4	100.0	
성별	남자	607	28.1	53.7	81.9	16.9	1.3	18.1	100.0
	여자	594	31.5	49.9	81.4	17.3	1.3	18.6	100.0
연령별	19~29세	226	26.8	47.5	74.3	23.6	2.1	25.7	100.0
	30대	222	25.9	53.5	79.4	19.5	1.1	20.6	100.0
	40대	259	31.0	54.2	85.2	13.4	1.5	14.8	100.0
	50대	260	29.6	51.8	81.4	17.7	0.9	18.6	100.0
교육 수준별	60대	233	35.2	51.8	87.1	12.0	0.9	12.9	100.0
	중졸 이하	109	31.1	54.3	85.4	13.7	0.8	14.6	100.0
	고졸	560	31.3	53.2	84.5	14.9	0.6	15.5	100.0
	대재 이상	531	27.9	49.9	77.8	20.1	2.1	22.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9.2	43.3	72.5	23.6	3.9	27.5	100.0
	자영업	333	30.3	54.4	84.7	14.8	0.6	15.3	100.0
	블루 칼라	325	31.1	51.1	82.2	17.6	0.2	17.8	100.0
	화이트 칼라	241	29.4	48.0	77.4	20.2	2.4	22.6	100.0
	전업 주부	170	29.9	56.5	86.4	12.2	1.5	13.6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5.0	49.3	74.3	22.1	3.6	25.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34.8	46.6	81.4	16.9	1.7	18.6	100.0
	200~299 만원	155	34.0	48.3	82.3	16.6	1.1	17.7	100.0
	300~399 만원	374	27.6	55.9	83.5	15.9	0.6	16.5	100.0
	400만원 이상	596	29.4	50.9	80.2	18.0	1.7	19.8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8.3	51.0	79.3	19.1	1.6	20.7	100.0
	충청권	128	19.3	49.6	68.9	29.1	2.0	31.1	100.0
	호남권	116	46.2	42.8	89.0	10.2	0.8	11.0	100.0
	영남권	306	29.5	59.5	89.0	10.7	0.3	11.0	100.0
	강원	35	37.9	43.0	80.9	17.1	1.9	19.1	100.0
	제주	14	37.5	37.9	75.4	17.5	7.1	24.6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29.9	51.3	81.2	17.4	1.4	18.8	100.0
	중/소도시	567	30.9	52.0	82.8	16.0	1.2	17.2	100.0
	읍/면	90	22.0	54.4	76.5	22.5	1.0	23.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32.3	49.0	81.2	16.5	2.2	18.8	100.0
	중도	577	26.1	53.5	79.6	19.3	1.1	20.4	100.0
	보수적	212	35.0	52.9	87.9	12.1	0.0	12.1	100.0
종교	불교	200	36.0	48.9	84.9	14.7	0.5	15.1	100.0
	기독교	232	26.1	57.7	83.8	15.1	1.1	16.2	100.0
	천주교	45	37.3	34.4	71.7	28.3	0.0	28.3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29.3	51.6	80.8	17.4	1.8	19.2	100.0
	모름/무응답	33	17.5	58.3	75.8	24.2	0.0	24.2	100.0

표40-2. 국가 정체성 관련 중요도 - ㉟ 한국 국적을 갖는 것

	사례수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다소 중요하다	①+②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50.4	40.6	91.0	8.7	0.4	9.0	100.0	
성별	남자	607	48.3	42.5	90.8	8.7	0.5	9.2	100.0
	여자	594	52.5	38.6	91.1	8.7	0.2	8.9	100.0
연령별	19~29세	226	41.7	46.3	88.0	10.8	1.2	12.0	100.0
	30대	222	46.6	45.0	91.6	8.4	0.0	8.4	100.0
	40대	259	50.7	39.7	90.3	9.0	0.6	9.7	100.0
	50대	260	53.4	37.9	91.3	8.7	0.0	8.7	100.0
교육 수준별	60대	233	58.7	34.8	93.5	6.5	0.0	6.5	100.0
	중졸 이하	109	47.6	43.1	90.8	9.2	0.0	9.2	100.0
	고졸	560	53.1	38.9	92.0	7.8	0.2	8.0	100.0
	대재 이상	531	48.1	41.8	89.9	9.5	0.6	10.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40.1	36.1	76.1	23.9	0.0	23.9	100.0
	자영업	333	53.8	38.4	92.2	7.6	0.3	7.8	100.0
	블루 칼라	325	50.8	41.1	91.8	8.0	0.2	8.2	100.0
	화이트 칼라	241	43.2	47.2	90.5	8.5	1.1	9.5	100.0
	전업 주부	170	56.0	35.4	91.4	8.6	0.0	8.6	100.0
	학생/군인/무직	109	48.1	40.0	88.2	11.4	0.4	11.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49.3	44.7	94.0	6.0	0.0	6.0	100.0
	200~299 만원	155	51.8	36.1	87.9	11.1	1.1	12.1	100.0
	300~399 만원	374	48.2	41.2	89.4	10.6	0.0	10.6	100.0
	400만원 이상	596	51.5	40.9	92.3	7.2	0.5	7.7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51.5	41.8	93.3	6.7	0.0	6.7	100.0
	충청권	128	38.2	45.1	83.3	14.7	2.0	16.7	100.0
	호남권	116	60.8	31.1	91.8	7.4	0.7	8.2	100.0
	영남권	306	48.6	40.4	89.0	11.0	0.0	11.0	100.0
	강원	35	58.7	36.9	95.7	4.3	0.0	4.3	100.0
	제주	14	47.9	37.4	85.3	7.6	7.1	14.7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52.6	38.9	91.5	8.2	0.3	8.5	100.0
	중/소도시	567	50.6	40.4	91.0	8.5	0.5	9.0	100.0
	읍/면	90	35.9	51.6	87.5	12.5	0.0	12.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52.4	39.2	91.6	8.2	0.2	8.4	100.0
	중도	577	45.1	44.5	89.6	10.0	0.4	10.4	100.0
	보수적	212	61.0	32.6	93.6	6.0	0.4	6.4	100.0
종교	불교	200	55.3	35.3	90.6	9.4	0.0	9.4	100.0
	기독교	232	53.9	39.9	93.9	6.1	0.0	6.1	100.0
	천주교	45	55.5	37.6	93.0	7.0	0.0	7.0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47.5	43.4	90.9	8.5	0.6	9.1	100.0
	모름/무응답	33	50.1	20.4	70.5	29.5	0.0	29.5	100.0

표40-3. 국가 정체성 관련 중요도 - ㉑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사례수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다소 중요하다	①+②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23.9	50.3	74.3	24.0	1.7	25.7	100.0	
성별	남자	607	24.2	49.6	73.8	25.0	1.2	26.2	100.0
	여자	594	23.7	51.1	74.7	23.0	2.3	25.3	100.0
연령별	19~29세	226	20.1	50.5	70.6	25.8	3.6	29.4	100.0
	30대	222	26.6	48.0	74.6	24.2	1.1	25.4	100.0
	40대	259	22.2	49.5	71.7	27.3	1.1	28.3	100.0
	50대	260	23.8	51.1	75.0	23.8	1.2	25.0	100.0
교육 수준별	60대	233	27.1	52.4	79.6	18.7	1.8	20.4	100.0
	중졸 이하	109	27.0	56.4	83.4	15.1	1.6	16.6	100.0
	고졸	560	24.4	50.1	74.4	24.2	1.4	25.6	100.0
직업별	대재 이상	531	22.8	49.4	72.2	25.7	2.1	27.8	100.0
	농/수/축산업	22	20.8	41.4	62.3	33.6	4.1	37.7	100.0
직업별	자영업	333	22.9	50.7	73.7	24.9	1.4	26.3	100.0
	블루 칼라	325	23.0	50.5	73.5	24.7	1.8	26.5	100.0
	화이트 칼라	241	25.3	50.1	75.4	21.4	3.2	24.6	100.0
	전업 주부	170	30.5	48.7	79.2	20.8	0.0	20.8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7.2	53.5	70.7	28.0	1.3	29.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8.9	52.2	81.1	16.0	2.9	18.9	100.0
	200~299 만원	155	28.5	47.2	75.7	21.1	3.2	24.3	100.0
	300~399 만원	374	21.5	51.9	73.4	25.9	0.7	26.6	100.0
	400만원 이상	596	23.7	49.9	73.6	24.6	1.9	26.4	100.0
지역별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수도권	601	18.8	53.7	72.5	25.7	1.9	27.5	100.0
	충청권	128	15.0	46.5	61.5	35.7	2.8	38.5	100.0
	호남권	116	35.3	49.1	84.4	14.9	0.7	15.6	100.0
	영남권	306	31.3	47.3	78.6	20.5	0.9	21.4	100.0
	강원	35	39.8	40.9	80.7	16.9	2.4	19.3	100.0
	제주	14	31.4	41.5	72.9	16.4	10.6	27.1	100.0
	대도시	542	24.6	49.2	73.8	24.5	1.8	26.2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23.0	51.9	74.9	23.4	1.7	25.1	100.0
	읍/면	90	25.6	47.7	73.3	25.3	1.4	26.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4.5	50.4	74.9	23.5	1.5	25.1	100.0
	중도	577	22.9	48.3	71.2	26.6	2.2	28.8	100.0
	보수적	212	25.6	55.7	81.3	17.9	0.8	18.7	100.0
종교	불교	200	27.1	49.6	76.8	20.9	2.3	23.2	100.0
	기독교	232	21.5	54.3	75.8	22.7	1.5	24.2	100.0
	천주교	45	29.5	53.9	83.3	16.7	0.0	16.7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24.4	48.9	73.2	25.2	1.5	26.8	100.0
	모름/무응답	33	3.1	52.7	55.8	38.0	6.2	44.2	100.0

표40-4. 국가 정체성 관련 중요도 - ㉒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사례수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다소 중요하다	①+②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34.4	53.4	87.9	11.5	0.6	12.1	100.0	
성별	남자	607	35.9	51.8	87.6	11.8	0.6	12.4	100.0
	여자	594	33.0	55.1	88.1	11.2	0.7	11.9	100.0
연령별	19~29세	226	30.1	56.5	86.6	12.3	1.1	13.4	100.0
	30대	222	33.8	53.3	87.1	12.9	0.0	12.9	100.0
	40대	259	34.2	52.2	86.4	12.5	1.1	13.6	100.0
	50대	260	35.0	52.4	87.5	12.2	0.3	12.5	100.0
교육 수준별	60대	233	38.9	53.0	91.9	7.5	0.5	8.1	100.0
	중졸 이하	109	42.8	47.8	90.6	8.2	1.2	9.4	100.0
	고졸	560	35.6	53.3	88.9	10.9	0.2	11.1	100.0
직업별	대재 이상	531	31.6	54.7	86.3	12.8	1.0	13.7	100.0
	농/수/축산업	22	28.0	58.6	86.6	13.4	0.0	13.4	100.0
직업별	자영업	333	35.6	54.5	90.1	9.4	0.5	9.9	100.0
	블루 칼라	325	34.2	53.1	87.4	12.5	0.2	12.6	100.0
	화이트 칼라	241	32.2	50.1	82.3	16.1	1.6	17.7	100.0
	전업 주부	170	40.8	50.1	90.9	8.6	0.5	9.1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8.1	62.4	90.5	9.1	0.4	9.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41.7	49.1	90.8	9.2	0.0	9.2	100.0
	200~299 만원	155	39.2	50.2	89.4	9.2	1.4	10.6	100.0
	300~399 만원	374	35.0	52.5	87.5	12.0	0.5	12.5	100.0
	400만원 이상	596	32.0	55.5	87.5	11.9	0.6	12.5	100.0
지역별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수도권	601	30.0	57.9	88.0	11.6	0.4	12.0	100.0
	충청권	128	37.8	49.2	86.9	11.8	1.3	13.1	100.0
	호남권	116	43.0	45.1	88.1	11.3	0.6	11.9	100.0
	영남권	306	36.0	52.3	88.4	11.6	0.0	11.6	100.0
	강원	35	54.9	32.2	87.0	10.7	2.3	13.0	100.0
	제주	14	37.5	45.8	83.3	6.1	10.6	16.7	100.0
	대도시	542	34.4	53.2	87.7	12.1	0.3	12.3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34.8	53.4	88.2	10.9	0.8	11.8	100.0
	읍/면	90	32.1	54.7	86.8	11.8	1.4	13.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34.2	51.5	85.6	13.7	0.6	14.4	100.0
	중도	577	32.8	55.1	87.9	11.3	0.8	12.1	100.0
	보수적	212	39.5	52.7	92.2	7.8	0.0	7.8	100.0
종교	불교	200	38.6	50.9	89.4	10.6	0.0	10.6	100.0
	기독교	232	32.0	56.6	88.6	11.4	0.0	11.4	100.0
	천주교	45	49.9	43.1	93.0	7.0	0.0	7.0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33.7	52.9	86.6	12.4	1.0	13.4	100.0
	모름/무응답	33	17.5	74.5	92.0	5.5	2.5	8.0	100.0

표40-5. 국가 정체성 관련 중요도 - ㉠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사례수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다소 중요하다	①+②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37.4	49.5	86.9	12.5	0.6	13.1	100.0	
성별	남자	607	36.8	49.5	86.3	13.1	0.6	13.7	100.0
	여자	594	38.0	49.5	87.5	11.9	0.6	12.5	100.0
연령별	19~29세	226	30.4	54.4	84.8	13.5	1.7	15.2	100.0
	30대	222	36.2	49.2	85.3	14.7	0.0	14.7	100.0
	40대	259	37.8	49.3	87.1	11.4	1.5	12.9	100.0
	50대	260	37.5	51.4	89.0	11.0	0.0	11.0	100.0
	60대	233	44.6	43.2	87.7	12.3	0.0	12.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49.0	43.3	92.3	7.7	0.0	7.7	100.0
	고졸	560	40.1	48.5	88.6	11.2	0.2	11.4	100.0
	대재 이상	531	32.1	51.8	83.9	14.8	1.3	16.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49.8	38.9	88.7	11.3	0.0	11.3	100.0
	자영업	333	40.8	46.7	87.4	12.3	0.3	12.6	100.0
	블루 칼라	325	36.2	49.9	86.1	13.2	0.7	13.9	100.0
	화이트 칼라	241	32.3	53.3	85.6	12.9	1.6	14.4	100.0
	전업 주부	170	40.3	47.4	87.7	12.3	0.0	12.3	100.0
	학생/군인/무직	109	34.6	54.1	88.7	10.7	0.7	11.3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43.4	50.2	93.6	6.4	0.0	6.4	100.0
	200~299 만원	155	42.5	41.9	84.4	14.6	1.0	15.6	100.0
	300~399 만원	374	33.5	53.0	86.5	13.1	0.3	13.5	100.0
	400만원 이상	596	37.7	49.3	87.0	12.2	0.8	13.0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35.5	51.5	86.9	12.6	0.4	13.1	100.0
	충청권	128	41.4	44.1	85.5	12.6	1.9	14.5	100.0
	호남권	116	42.7	44.9	87.5	12.5	0.0	12.5	100.0
	영남권	306	35.8	52.1	87.9	11.5	0.7	12.1	100.0
	강원	35	46.6	33.5	80.1	17.9	2.1	19.9	100.0
	제주	14	49.1	37.2	86.3	13.7	0.0	13.7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38.6	48.9	87.6	12.0	0.5	12.4	100.0
	중/소도시	567	36.3	50.2	86.5	12.6	0.9	13.5	100.0
	읍/면	90	36.2	48.7	84.9	15.1	0.0	15.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38.5	48.4	86.9	12.2	0.9	13.1	100.0
	중도	577	33.4	52.2	85.6	13.8	0.6	14.4	100.0
	보수적	212	45.9	44.3	90.1	9.5	0.3	9.9	100.0
종교	불교	200	39.7	46.0	85.7	13.9	0.4	14.3	100.0
	기독교	232	39.2	48.8	88.0	11.5	0.5	12.0	100.0
	천주교	45	37.6	51.3	88.9	11.1	0.0	11.1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36.1	50.4	86.5	12.7	0.8	13.5	100.0
	모름/무응답	33	35.7	55.2	90.9	9.1	0.0	9.1	100.0

표40-6. 국가 정체성 관련 중요도 - ㉡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사례수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다소 중요하다	①+②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51.3	39.3	90.6	9.1	0.2	9.4	100.0	
성별	남자	607	50.5	39.8	90.4	9.4	0.2	9.6	100.0
	여자	594	52.1	38.8	90.9	8.8	0.3	9.1	100.0
연령별	19~29세	226	50.5	38.9	89.4	10.6	0.0	10.6	100.0
	30대	222	49.6	40.6	90.2	9.4	0.4	9.8	100.0
	40대	259	48.4	44.0	92.4	7.3	0.3	7.6	100.0
	50대	260	50.8	37.4	88.2	11.4	0.5	11.8	100.0
	60대	233	57.7	35.4	93.1	6.9	0.0	6.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53.9	38.5	92.4	7.6	0.0	7.6	100.0
	고졸	560	49.7	40.7	90.4	9.3	0.4	9.6	100.0
	대재 이상	531	52.5	38.1	90.6	9.3	0.1	9.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47.9	41.2	89.1	10.9	0.0	10.9	100.0
	자영업	333	50.7	41.7	92.4	7.6	0.0	7.6	100.0
	블루 칼라	325	50.1	39.4	89.5	9.8	0.6	10.5	100.0
	화이트 칼라	241	49.2	39.8	89.1	10.6	0.3	10.9	100.0
	전업 주부	170	56.8	35.4	92.3	7.7	0.0	7.7	100.0
	학생/군인/무직	109	53.5	36.2	89.8	10.2	0.0	10.2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55.0	41.2	96.2	3.8	0.0	3.8	100.0
	200~299 만원	155	54.5	33.0	87.5	12.0	0.5	12.5	100.0
	300~399 만원	374	48.7	40.0	88.7	11.1	0.2	11.3	100.0
	400만원 이상	596	51.8	40.3	92.1	7.7	0.2	7.9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48.8	43.2	92.0	7.8	0.2	8.0	100.0
	충청권	128	52.3	36.5	88.8	10.0	1.2	11.2	100.0
	호남권	116	55.0	37.6	92.6	7.4	0.0	7.4	100.0
	영남권	306	53.4	34.6	88.0	12.0	0.0	12.0	100.0
	강원	35	56.7	31.8	88.6	11.4	0.0	11.4	100.0
	제주	14	60.8	36.1	96.9	3.1	0.0	3.1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51.9	38.2	90.2	9.5	0.3	9.8	100.0
	중/소도시	567	51.0	39.6	90.5	9.5	0.0	9.5	100.0
	읍/면	90	49.8	44.2	94.0	4.6	1.4	6.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53.7	38.5	92.3	7.7	0.0	7.7	100.0
	중도	577	47.6	40.8	88.4	11.2	0.4	11.6	100.0
	보수적	212	56.8	36.7	93.5	6.2	0.4	6.5	100.0
종교	불교	200	53.7	35.6	89.3	10.3	0.4	10.7	100.0
	기독교	232	53.5	37.8	91.3	8.7	0.0	8.7	100.0
	천주교	45	49.3	37.5	86.8	13.2	0.0	13.2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50.0	40.9	90.9	8.8	0.3	9.1	100.0
	모름/무응답	33	51.5	40.4	91.9	8.1	0.0	8.1	100.0

표40-7. 국가 정체성 관련 중요도 - ㉔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사례수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다소 중요하다	①+②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38,6	52,6	91,2	8,2	0,6	8,8	100,0	
성별	남자	607	37,9	52,8	90,7	8,6	0,8	9,3	100,0
	여자	594	39,3	52,4	91,7	7,8	0,5	8,3	100,0
연령별	19~29세	226	39,1	53,6	92,7	6,4	0,9	7,3	100,0
	30대	222	38,1	50,6	88,6	11,4	0,0	11,4	100,0
	40대	259	32,9	57,8	90,7	8,5	0,8	9,3	100,0
	50대	260	41,0	48,8	89,8	9,1	1,1	10,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38,8	55,2	94,0	4,9	1,1	6,0	100,0
	고졸	560	38,5	53,3	91,8	7,8	0,4	8,2	100,0
	대재 이상	531	38,6	51,3	89,9	9,3	0,8	10,1	100,0
	응/수/축산업	22	54,0	37,0	91,0	6,8	2,1	9,0	100,0
직업별	자영업	333	38,1	54,6	92,7	7,1	0,3	7,3	100,0
	블루 칼라	325	39,8	50,4	90,2	9,0	0,8	9,8	100,0
	화이트 칼라	241	34,8	51,6	86,4	12,7	0,9	13,6	100,0
	전업 주부	170	40,5	54,6	95,1	4,0	0,9	4,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50,7	47,1	97,8	1,2	1,0	2,2	100,0
	200~299 만원	155	41,5	49,0	90,5	7,7	1,9	9,5	100,0
	300~399 만원	374	38,1	53,5	91,6	8,1	0,3	8,4	100,0
	400만원 이상	596	36,6	53,6	90,3	9,3	0,4	9,7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31,7	58,4	90,1	9,3	0,6	9,9	100,0
	충청권	128	49,1	43,0	92,1	7,3	0,6	7,9	100,0
	호남권	116	46,2	45,8	91,9	6,7	1,4	8,1	100,0
	영남권	306	42,4	49,7	92,1	7,9	0,0	7,9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36,8	55,7	92,5	7,4	0,1	7,5	100,0
	중/소도시	567	39,2	51,7	90,8	8,4	0,7	9,2	100,0
	읍/면	90	45,7	39,6	85,3	12,0	2,7	14,7	100,0
	진보적	411	38,7	52,9	91,7	7,5	0,8	8,3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77	36,3	54,0	90,3	9,2	0,5	9,7	100,0
	보수적	212	44,5	48,1	92,6	6,8	0,6	7,4	100,0
	불교	200	46,4	45,8	92,2	7,2	0,6	7,8	100,0
	기독교	232	40,4	52,6	92,9	6,0	1,1	7,1	100,0
종교	천주교	45	38,1	51,4	89,6	10,4	0,0	10,4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36,1	54,2	90,2	9,3	0,4	9,8	100,0
	모름/무응답	33	30,2	63,5	93,7	3,9	2,5	6,3	100,0

표40-8. 국가 정체성 관련 중요도 - ㉕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사례수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다소 중요하다	①+②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25,4	44,3	69,7	27,3	3,0	30,3	100,0	
성별	남자	607	23,2	43,8	67,0	29,1	3,9	33,0	100,0
	여자	594	27,7	44,9	72,6	25,4	2,1	27,4	100,0
연령별	19~29세	226	18,0	45,5	63,4	31,6	5,0	36,6	100,0
	30대	222	20,9	42,0	62,9	33,4	3,7	37,1	100,0
	40대	259	24,2	45,4	69,7	26,5	3,9	30,3	100,0
	50대	260	28,7	46,0	74,7	22,7	2,6	25,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36,0	45,5	81,5	17,8	0,7	18,5	100,0
	고졸	560	27,5	46,3	73,8	25,4	0,8	26,2	100,0
	대재 이상	531	21,0	42,0	63,0	31,2	5,8	37,0	100,0
	농/수/축산업	22	33,3	27,1	60,4	31,5	8,1	39,6	100,0
직업별	자영업	333	25,3	44,9	70,2	27,5	2,2	29,8	100,0
	블루 칼라	325	25,3	46,5	71,8	25,9	2,3	28,2	100,0
	화이트 칼라	241	19,5	42,7	62,2	32,0	5,9	37,8	100,0
	전업 주부	170	37,5	42,7	80,2	19,4	0,4	19,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33,3	44,7	78,0	19,8	2,2	22,0	100,0
	200~299 만원	155	31,5	40,7	72,2	24,5	3,4	27,8	100,0
	300~399 만원	374	21,7	51,4	73,0	24,4	2,5	27,0	100,0
	400만원 이상	596	25,2	40,9	66,1	30,6	3,3	33,9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9,6	44,7	64,3	32,8	2,9	35,7	100,0
	충청권	128	22,8	34,4	57,1	36,0	6,9	42,9	100,0
	호남권	116	37,3	40,6	77,9	20,0	2,1	22,1	100,0
	영남권	306	32,5	50,9	83,4	16,2	0,4	16,6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28,3	43,5	71,8	25,9	2,3	28,2	100,0
	중/소도시	567	22,6	45,4	68,0	28,1	3,9	32,0	100,0
	읍/면	90	25,5	42,8	68,3	30,3	1,5	31,7	100,0
	진보적	411	23,4	43,9	67,3	29,5	3,2	32,7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77	25,4	44,5	69,9	26,7	3,3	30,1	100,0
	보수적	212	29,2	44,6	73,9	24,4	1,7	26,1	100,0
	불교	200	31,8	45,7	77,6	20,1	2,3	22,4	100,0
	기독교	232	22,7	42,1	64,9	32,9	2,2	35,1	100,0
종교	천주교	45	22,8	46,0	68,8	29,3	1,8	31,2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24,7	44,2	68,8	27,5	3,7	31,2	100,0
	모름/무응답	33	22,7	52,3	75,0	25,0	0,0	25,0	100,0

표40-9. 국가 정체성 관련 중요도 - 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사례수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다소 중요하다	①+②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7.9	57.0	74.9	23.7	1.4	25.1	100.0
성별								
남자	607	17.1	57.3	74.4	24.1	1.6	25.6	100.0
여자	594	18.7	56.7	75.4	23.3	1.2	24.6	100.0
연령별								
19~29세	226	12.5	56.3	68.8	27.8	3.4	31.2	100.0
30대	222	15.3	52.7	68.0	31.6	0.4	32.0	100.0
40대	259	16.6	60.5	77.1	20.4	2.5	22.9	100.0
50대	260	17.4	59.4	76.8	22.9	0.3	23.2	100.0
60대	233	27.7	55.1	82.8	16.8	0.4	17.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32.6	53.1	85.7	13.5	0.8	14.3	100.0
고졸	560	17.6	57.6	75.2	23.5	1.3	24.8	100.0
대재 이상	531	15.2	57.1	72.4	26.0	1.7	27.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2.4	41.4	63.8	28.1	8.1	36.2	100.0
자영업	333	19.4	59.5	78.9	20.9	0.3	21.1	100.0
블루 칼라	325	15.0	57.8	72.8	26.2	1.0	27.2	100.0
화이트 칼라	241	16.4	52.6	69.1	28.1	2.9	30.9	100.0
전업 주부	170	25.2	55.5	80.7	18.7	0.6	19.3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3.1	62.0	75.2	22.2	2.6	24.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34.3	47.6	81.9	16.9	1.1	18.1	100.0
200~299 만원	155	21.4	61.8	83.2	13.0	3.8	16.8	100.0
300~399 만원	374	16.3	54.2	70.4	28.3	1.2	29.6	100.0
400만원 이상	596	16.0	58.8	74.8	24.3	0.9	25.2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1.2	59.3	70.5	28.6	0.9	29.5	100.0
충청권	128	13.1	55.1	68.2	27.2	4.6	31.8	100.0
호남권	116	27.9	50.0	77.8	21.5	0.6	22.2	100.0
영남권	306	27.0	58.5	85.5	13.7	0.8	14.5	100.0
강원	35	29.2	45.2	74.5	21.2	4.4	25.5	100.0
제주	14	38.9	31.7	70.6	26.3	3.1	29.4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8.6	58.0	76.6	22.0	1.4	23.4	100.0
중/소도시	567	17.6	55.5	73.2	25.4	1.5	26.8	100.0
읍/면	90	15.5	60.2	75.7	23.4	0.9	24.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6.7	50.6	67.3	30.2	2.5	32.7	100.0
중도	577	15.9	61.5	77.4	21.4	1.1	22.6	100.0
보수적	212	25.8	57.1	82.9	17.1	0.0	17.1	100.0
종교								
불교	200	26.1	51.0	77.1	21.7	1.2	22.9	100.0
기독교	232	14.3	64.7	79.0	19.3	1.7	21.0	100.0
천주교	45	16.6	66.5	83.1	16.9	0.0	16.9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7.4	54.4	71.8	26.7	1.5	28.2	100.0
모름/무응답	33	4.7	81.2	85.9	14.1	0.0	14.1	100.0

표41.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문)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사례수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계
		%	%	%	%	%	%
전 체	1200	72.5	4.5	19.1	3.7	0.1	100.0
성별							
남자	607	74.4	3.5	19.1	2.9	0.1	100.0
여자	594	70.5	5.6	19.2	4.5	0.2	100.0
연령별							
19~29세	226	74.8	9.2	11.8	4.2	0.0	100.0
30대	222	71.9	3.1	20.2	4.8	0.0	100.0
40대	259	67.4	4.3	24.7	3.6	0.0	100.0
50대	260	72.5	3.4	20.0	3.7	0.4	100.0
60대	233	76.3	2.9	18.1	2.4	0.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69.9	1.4	27.4	1.3	0.0	100.0
고졸	560	72.6	4.4	18.2	4.6	0.2	100.0
대재 이상	531	72.8	5.3	18.4	3.3	0.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46.9	2.1	47.3	0.0	3.6	100.0
자영업	333	75.5	4.2	16.6	3.7	0.0	100.0
블루 칼라	325	72.9	3.9	17.1	5.8	0.3	100.0
화이트 칼라	241	72.2	3.7	21.2	2.9	0.0	100.0
전업 주부	170	69.0	3.8	24.9	2.3	0.0	100.0
학생/군인/무직	109	73.1	10.9	13.9	2.2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66.6	1.4	32.0	0.0	0.0	100.0
200~299 만원	155	67.5	4.6	23.4	3.9	0.6	100.0
300~399 만원	374	75.4	3.9	17.5	3.0	0.2	100.0
400만원 이상	596	72.7	5.3	17.4	4.6	0.0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79.6	3.8	13.6	3.0	0.0	100.0
충청권	128	63.1	5.3	27.8	3.8	0.0	100.0
호남권	116	61.6	3.2	28.4	6.8	0.0	100.0
영남권	306	68.7	5.5	21.8	3.7	0.3	100.0
강원	35	57.6	7.9	26.0	6.1	2.3	100.0
제주	14	61.0	9.4	25.8	3.8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71.5	5.4	18.9	4.0	0.2	100.0
중/소도시	567	72.1	4.2	20.0	3.6	0.1	100.0
읍/면	90	80.5	1.6	15.4	2.5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70.5	4.0	21.3	4.3	0.0	100.0
중도	577	73.0	4.3	19.1	3.7	0.0	100.0
보수적	212	74.9	6.3	15.3	2.7	0.8	100.0
종교							
불교	200	70.8	3.8	20.4	4.1	0.9	100.0
기독교	232	76.1	2.7	19.1	2.1	0.0	100.0
천주교	45	69.8	3.8	24.6	1.8	0.0	100.0
기타	2	49.4	0.0	50.6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71.6	5.6	18.5	4.3	0.0	100.0
모름/무응답	33	80.4	0.0	17.2	2.5	0.0	100.0

표42.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문)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계		
		%	%	%	%	%	%		
전 체	1200	5.2	13.8	32.8	46.4	1.8	100.0		
성별	남자	607	5.0	13.9	32.4	46.8	1.9	100.0	
	여자	594	5.4	13.8	33.2	45.9	1.7	100.0	
연령별	19~29세	226	5.1	16.1	32.0	45.3	1.4	100.0	
	30대	222	5.6	13.2	34.3	46.0	0.8	100.0	
	40대	259	5.7	15.5	33.5	43.5	1.9	100.0	
	50대	260	6.2	13.7	30.1	47.9	2.1	100.0	
	60대	233	3.2	10.4	34.4	49.2	2.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4.3	7.3	37.1	46.9	4.3	100.0	
	고졸	560	4.7	12.5	33.0	47.9	1.9	100.0	
	대재 이상	531	5.9	16.5	31.7	44.7	1.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7.4	8.8	28.9	51.7	3.2	100.0	
	자영업	333	5.5	10.9	36.2	45.5	1.9	100.0	
	블루 칼라	325	4.7	15.0	30.6	48.9	0.8	100.0	
	화이트 칼라	241	6.0	15.0	33.8	43.9	1.2	100.0	
	전업 주부	170	4.5	15.4	28.5	47.7	3.9	100.0	
	학생/군인/무직	109	4.5	15.4	34.2	43.7	2.1	100.0	
	200만원 미만	74	6.1	8.5	37.0	44.9	3.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3.6	19.1	33.4	40.6	3.3	100.0	
	300~399 만원	374	3.2	14.0	28.5	52.1	2.2	100.0	
	400만원 이상	596	6.7	13.0	34.9	44.4	1.0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4.4	14.6	33.2	47.2	0.5	100.0	
	충청권	128	4.4	16.8	37.1	39.6	2.1	100.0	
	호남권	116	11.9	12.9	30.4	40.3	4.5	100.0	
	영남권	306	4.0	10.0	31.4	51.2	3.4	100.0	
	강원	35	8.7	24.0	28.3	39.1	0.0	100.0	
	제주	14	6.1	18.4	37.0	38.5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4.8	12.4	31.4	49.3	2.0	100.0
		중/소도시	567	5.3	15.0	35.3	42.7	1.6	100.0
읍/면		90	6.6	15.2	25.2	51.7	1.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6.2	16.2	30.3	46.0	1.2	100.0	
	중도	577	5.3	12.8	31.8	48.2	1.8	100.0	
	보수적	212	2.9	12.0	40.2	42.1	2.8	100.0	
종교	불교	200	5.6	17.0	25.0	48.2	4.2	100.0	
	기독교	232	5.0	15.4	37.0	41.8	0.7	100.0	
	천주교	45	11.9	9.1	38.8	37.4	2.8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100.0	
	종교 없음	689	4.7	13.2	33.0	47.8	1.4	100.0	
	모름/무응답	33	4.8	4.4	41.0	47.6	2.2	100.0	

표43. 북·미 월드컵 경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문)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사례수	북한 팀	미국 팀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계		
		%	%	%	%	%		
전 체	1200	57.8	8.6	17.9	15.7	100.0		
성별	남자	607	55.4	10.0	18.7	15.8	100.0	
	여자	594	60.2	7.1	17.1	15.6	100.0	
연령별	19~29세	226	46.1	11.2	20.6	22.1	100.0	
	30대	222	55.7	11.2	16.0	17.0	100.0	
	40대	259	63.5	5.8	17.2	13.5	100.0	
	50대	260	63.3	4.9	19.1	12.7	100.0	
	60대	233	58.4	10.6	16.6	14.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59.8	10.5	18.0	11.8	100.0	
	고졸	560	58.5	7.4	18.5	15.6	100.0	
	대재 이상	531	56.6	9.4	17.2	16.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69.0	3.9	18.8	8.2	100.0	
	자영업	333	63.5	9.1	13.9	13.5	100.0	
	블루 칼라	325	55.1	8.0	19.7	17.2	100.0	
	화이트 칼라	241	55.2	9.3	20.0	15.5	100.0	
	전업 주부	170	61.1	6.7	17.0	15.2	100.0	
	학생/군인/무직	109	46.3	10.9	21.2	21.5	100.0	
	200만원 미만	74	60.3	9.8	17.3	12.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51.4	10.7	20.9	16.9	100.0	
	300~399 만원	374	53.7	9.1	19.6	17.5	100.0	
	400만원 이상	596	61.6	7.5	16.2	14.7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57.2	6.8	20.0	15.9	100.0	
	충청권	128	57.4	9.4	18.4	14.8	100.0	
	호남권	116	66.3	12.5	16.3	4.9	100.0	
	영남권	306	54.1	10.2	14.2	21.4	100.0	
	강원	35	65.8	10.9	15.2	8.1	100.0	
	제주	14	70.7	3.1	23.1	3.1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58.5	7.5	18.3	15.8	100.0
		중/소도시	567	56.8	10.0	17.6	15.6	100.0
읍/면		90	59.5	6.5	17.4	16.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66.2	5.8	15.8	12.2	100.0	
	중도	577	56.0	8.4	18.5	17.1	100.0	
	보수적	212	46.2	14.5	20.4	18.9	100.0	
종교	불교	200	57.9	7.9	15.6	18.6	100.0	
	기독교	232	59.2	10.4	16.6	13.8	100.0	
	천주교	45	72.1	2.8	10.5	14.6	100.0	
	기타	2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56.4	8.6	19.4	15.5	100.0	
	모름/무응답	33	52.8	8.0	20.7	18.4	100.0	

표44-1.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㉔ 미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전 체	1200	81.0	10.3	8.3	0.4	100.0	
성별	남자	607	80.6	11.0	8.0	0.4	100.0
	여자	594	81.5	9.4	8.6	0.4	100.0
연령별	19~29세	226	81.2	11.1	7.8	0.0	100.0
	30대	222	82.1	10.1	7.5	0.4	100.0
	40대	259	80.0	10.3	8.7	1.0	100.0
	50대	260	79.7	9.7	10.6	0.0	100.0
	60대	233	82.4	10.2	6.6	0.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79.6	12.4	7.2	0.8	100.0
	고졸	560	83.1	8.9	7.4	0.6	100.0
	대재 이상	531	79.1	11.2	9.5	0.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75.5	7.3	13.5	3.7	100.0
	자영업	333	82.6	10.5	6.4	0.5	100.0
	블루 칼라	325	80.9	11.7	6.9	0.5	100.0
	화이트 칼라	241	80.0	9.1	10.6	0.3	100.0
	전업 주부	170	79.1	11.4	9.5	0.0	100.0
	학생/군인/무직	109	83.0	6.6	10.4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72.8	15.3	11.9	0.0	100.0
	200~299 만원	155	78.8	13.4	6.2	1.6	100.0
	300~399 만원	374	81.6	11.2	6.8	0.4	100.0
	400만원 이상	596	82.2	8.2	9.4	0.2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85.9	8.4	5.6	0.0	100.0
	충청권	128	74.9	12.5	10.8	1.8	100.0
	호남권	116	81.5	4.2	13.6	0.7	100.0
	영남권	306	73.6	15.5	10.3	0.6	100.0
	강원	35	78.2	10.5	11.3	0.0	100.0
	제주	14	90.5	3.0	6.5	0.0	100.0
	대도시	542	85.3	8.2	6.1	0.4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76.7	13.2	9.6	0.5	100.0
	읍/면	90	82.7	4.3	13.0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80.9	9.6	8.9	0.6	100.0
	중도 보수적	577	80.1	10.1	9.5	0.3	100.0
종교	불교	200	76.5	14.0	8.7	0.8	100.0
	기독교	232	82.8	8.3	8.9	0.0	100.0
	천주교	45	75.4	4.3	20.3	0.0	100.0
	기타	2	49.4	50.6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82.1	10.3	7.1	0.5	100.0
	모름/무응답	33	82.6	5.8	11.6	0.0	100.0

표44-2.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㉕ 일본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전 체	1200	13.4	48.5	31.3	6.8	100.0	
성별	남자	607	14.1	50.4	28.2	7.3	100.0
	여자	594	12.6	46.6	34.5	6.3	100.0
연령별	19~29세	226	13.9	47.6	31.2	7.4	100.0
	30대	222	15.2	50.4	27.1	7.3	100.0
	40대	259	11.1	53.1	30.2	5.7	100.0
	50대	260	13.6	46.9	33.8	5.7	100.0
	60대	233	13.5	44.5	33.9	8.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0.0	46.0	33.6	10.4	100.0
	고졸	560	14.0	50.2	31.1	4.8	100.0
	대재 이상	531	13.4	47.4	31.0	8.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9.8	39.8	33.6	6.9	100.0
	자영업	333	15.0	47.4	29.3	8.2	100.0
	블루 칼라	325	12.8	50.8	32.7	3.6	100.0
	화이트 칼라	241	12.0	48.7	30.9	8.4	100.0
	전업 주부	170	9.3	47.4	38.4	4.9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8.0	48.3	22.3	11.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0.8	47.1	33.2	8.9	100.0
	200~299 만원	155	20.0	49.9	20.8	9.3	100.0
	300~399 만원	374	12.9	50.4	31.2	5.5	100.0
	400만원 이상	596	12.3	47.2	33.9	6.7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8.9	55.4	30.8	5.0	100.0
	충청권	128	10.4	43.8	36.1	9.6	100.0
	호남권	116	13.6	47.8	28.4	10.2	100.0
	영남권	306	21.1	40.8	30.9	7.2	100.0
	강원	35	23.6	26.5	37.0	13.0	100.0
	제주	14	36.3	30.8	25.8	7.1	100.0
	대도시	542	9.1	51.8	33.7	5.4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14.4	47.0	30.4	8.3	100.0
	읍/면	90	32.7	39.0	22.7	5.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0.7	48.2	33.0	8.1	100.0
	중도 보수적	577	13.9	48.2	31.6	6.3	100.0
종교	불교	200	13.0	45.2	33.2	8.5	100.0
	기독교	232	11.8	45.7	35.4	7.2	100.0
	천주교	45	16.5	35.2	40.4	7.9	100.0
	기타	2	0.0	10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3.6	52.1	28.2	6.1	100.0
	모름/무응답	33	17.7	30.7	45.7	5.9	100.0

표44-3.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㉔ 중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전 체	1200	13.3	28.4	50.3	8.1	100.0	
성별	남자	607	12.7	27.0	51.4	8.9	100.0
	여자	594	13.8	29.8	49.2	7.2	100.0
연령별	19~29세	226	16.2	26.6	50.4	6.9	100.0
	30대	222	13.6	27.7	51.5	7.3	100.0
	40대	259	11.2	30.2	51.2	7.3	100.0
	50대	260	15.0	27.4	49.7	7.9	100.0
	60대	233	10.5	29.8	48.8	11.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7.2	29.0	49.8	14.0	100.0
	고졸	560	12.1	27.4	52.8	7.7	100.0
	대재 이상	531	15.7	29.3	47.8	7.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1.6	18.1	62.5	7.8	100.0
	자영업	333	12.7	29.6	49.3	8.4	100.0
	블루 칼라	325	12.0	26.0	54.4	7.6	100.0
	화이트 칼라	241	16.0	25.1	50.3	8.6	100.0
	전업 주부	170	11.0	33.2	48.7	7.2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6.9	33.4	41.1	8.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0.0	29.1	49.7	11.1	100.0
	200~299 만원	155	11.1	31.9	48.4	8.6	100.0
	300~399 만원	374	12.5	30.3	50.8	6.4	100.0
	400만원 이상	596	14.8	26.0	50.6	8.6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9.1	25.6	55.7	9.7	100.0
	충청권	128	17.0	26.3	49.0	7.7	100.0
	호남권	116	24.4	30.8	41.3	3.5	100.0
	영남권	306	13.6	33.7	46.5	6.2	100.0
	강원	35	19.5	30.4	36.7	13.4	100.0
	제주	14	43.0	25.8	25.1	6.2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1.3	24.8	54.7	9.2	100.0
	중/소도시	567	13.7	30.6	48.2	7.5	100.0
	읍/면	90	22.8	35.4	37.3	4.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4.3	24.3	54.3	7.1	100.0
	중도	577	13.9	29.9	47.3	8.9	100.0
	보수적	212	9.5	31.9	50.8	7.7	100.0
종교	불교	200	11.4	34.9	44.6	9.2	100.0
	기독교	232	9.7	25.1	58.9	6.4	100.0
	천주교	45	19.0	27.5	42.0	11.4	100.0
	기타	2	49.4	0.0	50.6	0.0	100.0
	종교 없음	689	14.5	28.2	49.2	8.1	100.0
	모름/무응답	33	14.6	16.9	59.4	9.1	100.0

표44-4.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㉕ 러시아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전 체	1200	16.1	32.4	47.0	4.5	100.0	
성별	남자	607	16.9	33.2	44.8	5.1	100.0
	여자	594	15.2	31.7	49.3	3.8	100.0
연령별	19~29세	226	19.9	31.9	44.1	4.1	100.0
	30대	222	18.1	29.2	48.7	4.0	100.0
	40대	259	15.6	36.2	45.3	3.0	100.0
	50대	260	15.1	32.3	48.1	4.5	100.0
	60대	233	12.0	32.0	49.0	7.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8.8	27.8	56.5	6.9	100.0
	고졸	560	13.9	34.6	46.8	4.8	100.0
	대재 이상	531	19.8	31.1	45.4	3.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1.9	25.6	58.8	3.7	100.0
	자영업	333	15.8	32.7	47.1	4.5	100.0
	블루 칼라	325	14.5	36.3	45.8	3.4	100.0
	화이트 칼라	241	20.2	25.2	49.4	5.3	100.0
	전업 주부	170	11.6	33.6	49.1	5.7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0.4	35.7	39.7	4.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3.6	30.5	52.9	3.1	100.0
	200~299 만원	155	15.1	30.9	49.3	4.7	100.0
	300~399 만원	374	14.0	38.3	43.3	4.4	100.0
	400만원 이상	596	17.9	29.3	48.1	4.6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0.5	33.3	50.4	5.8	100.0
	충청권	128	24.1	28.8	43.5	3.6	100.0
	호남권	116	25.0	32.8	40.9	1.4	100.0
	영남권	306	18.0	32.6	46.5	2.9	100.0
	강원	35	25.1	32.5	33.6	8.7	100.0
	제주	14	40.0	21.7	32.2	6.1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2.3	27.6	53.4	6.7	100.0
	중/소도시	567	18.7	35.7	43.0	2.6	100.0
	읍/면	90	22.0	40.9	34.3	2.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6.2	33.7	46.3	3.8	100.0
	중도	577	17.0	31.8	46.8	4.5	100.0
	보수적	212	13.3	31.9	49.1	5.8	100.0
종교	불교	200	15.5	34.3	44.9	5.4	100.0
	기독교	232	13.2	31.3	53.1	2.4	100.0
	천주교	45	19.7	29.1	44.4	6.8	100.0
	기타	2	49.4	0.0	50.6	0.0	100.0
	종교 없음	689	16.8	33.5	45.1	4.7	100.0
	모름/무응답	33	18.4	13.9	61.0	6.7	100.0

표45-1.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 ㉞ 미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북한을	자국의 이익에	중립을	계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따를 것이다	지킬 것이다		
		%	%	%	%	%	
전 체	1200	66.1	2.4	29.7	1.7	100.0	
성별	남자	607	67.3	1.9	28.8	2.0	100.0
	여자	594	64.9	3.0	30.7	1.4	100.0
	19~29세	226	70.1	1.8	26.1	1.9	100.0
연령별	30대	222	66.8	0.9	29.6	2.6	100.0
	40대	259	62.1	4.4	32.3	1.2	100.0
	50대	260	68.2	2.1	28.6	1.1	100.0
	60대	233	63.8	2.5	31.6	2.1	100.0
	중졸 이하	109	63.1	1.8	31.0	4.2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60	67.4	2.8	28.7	1.2	100.0
	대재 이상	531	65.4	2.2	30.6	1.8	100.0
	농/수/축산업	22	62.1	3.6	34.3	0.0	100.0
직업별	자영업	333	62.6	2.5	33.4	1.4	100.0
	블루 칼라	325	70.6	2.4	25.4	1.6	100.0
	화이트 칼라	241	68.9	1.2	28.4	1.6	100.0
	전업 주부	170	60.6	2.9	34.1	2.4	100.0
	학생/군인/무직	109	66.7	3.8	26.7	2.8	100.0
	200만원 미만	74	60.7	2.9	34.3	2.1	100.0
	200~299만원	155	52.9	4.6	40.3	2.2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74	65.0	1.8	30.7	2.5	100.0
	400만원 이상	596	70.9	2.2	25.8	1.1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수도권	601	74.3	2.5	21.8	1.4	100.0
지역별	충청권	128	58.2	2.6	37.8	1.3	100.0
	호남권	116	70.6	0.0	28.0	1.4	100.0
	영남권	306	51.4	3.0	43.0	2.6	100.0
	강원	35	68.6	4.2	27.2	0.0	100.0
	제주	14	66.9	0.0	26.3	6.9	100.0
	대도시	542	72.7	2.1	24.0	1.1	100.0
	중/소도시	567	62.8	2.9	32.3	2.0	100.0
지역 크기별	읍/면	90	47.3	1.4	48.0	3.3	100.0
	진보적	411	67.0	2.1	29.1	1.8	100.0
	중도	577	66.3	2.8	28.6	2.3	100.0
정치적 성향	보수적	212	64.1	2.0	33.9	0.0	100.0
	불교	200	55.2	3.0	39.4	2.4	100.0
	기독교	232	71.6	1.3	25.1	2.0	100.0
종교	천주교	45	59.8	4.3	33.7	2.2	100.0
	기타	2	0.0	0.0	49.4	50.6	100.0
	종교 없음	689	68.8	2.6	27.4	1.2	100.0
	모름/무응답	33	49.7	0.0	46.6	3.7	100.0

표45-2.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 ㉟ 일본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북한을	자국의 이익에	중립을	계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따를 것이다	지킬 것이다		
		%	%	%	%	%	
전 체	1200	7.2	4.9	80.9	6.9	100.0	
성별	남자	607	8.9	4.3	80.1	6.7	100.0
	여자	594	5.5	5.6	81.8	7.1	100.0
	19~29세	226	7.3	5.9	78.2	8.6	100.0
연령별	30대	222	6.4	2.4	85.0	6.1	100.0
	40대	259	5.8	6.6	80.9	6.7	100.0
	50대	260	8.3	4.4	80.7	6.6	100.0
	60대	233	8.5	5.3	79.9	6.3	100.0
	중졸 이하	109	4.6	3.8	83.7	7.9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60	7.3	4.8	81.3	6.7	100.0
	대재 이상	531	7.7	5.4	80.0	6.9	100.0
	농/수/축산업	22	11.5	3.2	75.4	10.0	100.0
직업별	자영업	333	8.8	4.6	80.9	5.6	100.0
	블루 칼라	325	5.1	4.1	81.6	9.2	100.0
	화이트 칼라	241	7.1	6.0	80.9	6.0	100.0
	전업 주부	170	6.5	4.2	83.9	5.3	100.0
	학생/군인/무직	109	9.4	7.8	75.5	7.3	100.0
	200만원 미만	74	9.2	2.7	81.2	6.9	100.0
	200~299만원	155	7.1	5.8	81.4	5.8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74	6.7	5.4	79.3	8.5	100.0
	400만원 이상	596	7.4	4.7	81.8	6.1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수도권	601	5.8	6.5	83.6	4.1	100.0
지역별	충청권	128	9.2	0.6	79.7	10.5	100.0
	호남권	116	7.5	5.3	74.1	13.1	100.0
	영남권	306	7.9	3.9	80.3	8.0	100.0
	강원	35	15.9	4.2	75.5	4.4	100.0
	제주	14	15.3	0.0	61.9	22.8	100.0
	대도시	542	5.6	5.2	82.4	6.8	100.0
	중/소도시	567	9.2	3.9	79.5	7.4	100.0
지역 크기별	읍/면	90	4.7	9.8	81.4	4.0	100.0
	진보적	411	6.4	3.9	82.6	7.2	100.0
	중도	577	6.9	5.3	79.9	7.9	100.0
정치적 성향	보수적	212	10.0	6.1	80.4	3.5	100.0
	불교	200	4.7	5.3	78.9	11.0	100.0
	기독교	232	9.2	5.3	80.9	4.6	100.0
종교	천주교	45	9.9	14.2	70.9	5.1	100.0
	기타	2	0.0	0.0	100.0	0.0	100.0
	종교 없음	689	7.2	4.1	82.0	6.6	100.0
	모름/무응답	33	6.4	4.7	83.7	5.3	100.0

표45-3.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 ㉠ 중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북한을	자국의 이익에	중립을	계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따를 것이다	지킬 것이다		
		%	%	%	%	%	
전 체	1200	1.2	51.7	41.4	5.6	100.0	
성별	남자	607	1.6	50.4	43.5	4.5	100.0
	여자	594	0.9	53.1	39.3	6.7	100.0
연령별	19~29세	226	1.1	55.7	37.9	5.3	100.0
	30대	222	0.8	47.0	47.0	5.2	100.0
	40대	259	1.9	47.5	42.8	7.9	100.0
	50대	260	0.9	54.1	40.4	4.7	100.0
	60대	233	1.5	54.5	39.2	4.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8	53.8	41.4	3.9	100.0
	고졸	560	1.5	54.3	38.0	6.2	100.0
	대재 이상	531	1.0	48.5	45.1	5.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0.0	39.5	52.8	7.7	100.0
	자영업	333	1.2	52.5	40.8	5.5	100.0
	블루 칼라	325	1.1	54.3	39.3	5.3	100.0
	화이트 칼라	241	1.5	50.5	43.0	5.0	100.0
	전업 주부	170	0.5	47.4	44.7	7.3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4	53.8	38.7	5.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3.6	49.3	45.4	1.7	100.0
	200~299 만원	155	1.7	44.1	49.0	5.1	100.0
	300~399 만원	374	0.9	51.8	41.5	5.8	100.0
	400만원 이상	596	1.0	53.9	39.0	6.1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0.6	59.0	33.8	6.6	100.0
	충청권	128	4.1	41.8	50.1	4.0	100.0
	호남권	116	1.3	60.2	34.9	3.5	100.0
	영남권	306	1.5	38.2	55.3	5.0	100.0
	강원	35	0.0	54.2	41.4	4.4	100.0
	제주	14	0.0	48.2	41.9	9.8	100.0
	대도시	542	1.0	58.7	35.6	4.7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1.7	48.5	43.9	5.9	100.0
	읍/면	90	0.0	29.8	61.3	8.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0.7	50.0	44.1	5.2	100.0
	중도	577	1.3	51.6	40.6	6.4	100.0
	보수적	212	2.0	55.3	38.5	4.2	100.0
종교	불교	200	0.9	48.3	44.8	6.0	100.0
	기독교	232	1.7	60.8	31.3	6.1	100.0
	천주교	45	4.5	44.9	43.4	7.2	100.0
	기타	2	0.0	0.0	10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0	50.7	43.0	5.3	100.0
	모름/무응답	33	0.0	42.0	54.9	3.1	100.0

표45-4.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 ㉡ 러시아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북한을	자국의 이익에	중립을	계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따를 것이다	지킬 것이다		
		%	%	%	%	%	
전 체	1200	1.9	25.9	58.0	14.2	100.0	
성별	남자	607	1.7	25.4	58.3	14.6	100.0
	여자	594	2.1	26.3	57.7	13.8	100.0
연령별	19~29세	226	1.8	24.7	56.6	16.9	100.0
	30대	222	1.7	20.3	62.9	15.1	100.0
	40대	259	3.0	25.1	58.5	13.4	100.0
	50대	260	1.5	27.1	57.8	13.6	100.0
	60대	233	1.5	31.7	54.4	12.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8	30.8	55.4	12.1	100.0
	고졸	560	1.5	27.0	57.1	14.3	100.0
	대재 이상	531	2.4	23.6	59.4	14.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0.0	6.2	84.5	9.2	100.0
	자영업	333	1.6	27.0	58.3	13.1	100.0
	블루 칼라	325	1.5	26.6	57.4	14.5	100.0
	화이트 칼라	241	3.2	22.4	60.8	13.6	100.0
	전업 주부	170	0.5	28.7	54.6	16.2	100.0
	학생/군인/무직	109	3.5	27.5	52.8	16.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5.3	23.0	57.4	14.4	100.0
	200~299 만원	155	3.2	25.9	56.7	14.2	100.0
	300~399 만원	374	1.2	24.6	60.6	13.6	100.0
	400만원 이상	596	1.6	27.1	56.7	14.6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2	31.2	53.3	14.3	100.0
	충청권	128	5.9	11.6	68.2	14.3	100.0
	호남권	116	2.2	25.8	58.7	13.2	100.0
	영남권	306	1.9	21.0	62.5	14.6	100.0
	강원	35	0.0	33.2	56.4	10.4	100.0
	제주	14	0.0	13.9	66.8	19.3	100.0
	대도시	542	1.3	33.6	53.4	11.7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2.4	20.6	60.4	16.6	100.0
	읍/면	90	3.0	12.4	70.1	14.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2	20.4	62.8	15.5	100.0
	중도	577	2.8	27.3	56.5	13.3	100.0
	보수적	212	0.8	32.5	52.6	14.1	100.0
종교	불교	200	1.9	24.6	60.7	12.8	100.0
	기독교	232	1.7	34.6	48.8	14.9	100.0
	천주교	45	4.5	16.7	61.8	17.1	100.0
	기타	2	0.0	0.0	10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9	24.1	59.5	14.5	100.0
	모름/무응답	33	0.0	22.5	68.6	8.9	100.0

표46-1.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㉞ 미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전 체	1200	5.1	42.0	47.1	43.4	9.5	52.9	100.0
성별								
남자	607	5.0	41.6	46.6	43.7	9.7	53.4	100.0
여자	594	5.2	42.4	47.6	43.2	9.2	52.4	100.0
연령별								
19~29세	226	5.1	37.8	42.9	46.4	10.7	57.1	100.0
30대	222	5.0	40.5	45.5	43.6	10.9	54.5	100.0
40대	259	5.8	45.3	51.1	40.4	8.5	48.9	100.0
50대	260	5.6	42.2	47.8	42.9	9.3	52.2	100.0
60대	233	3.8	43.6	47.4	44.4	8.2	52.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4.2	40.2	44.4	46.5	9.1	55.6	100.0
고졸	560	5.9	41.9	47.9	42.7	9.5	52.1	100.0
대재 이상	531	4.4	42.4	46.8	43.6	9.6	53.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5.5	24.3	29.8	50.7	19.6	70.2	100.0
자영업	333	6.1	42.9	49.0	41.9	9.1	51.0	100.0
블루 칼라	325	4.5	42.4	46.8	43.1	10.0	53.2	100.0
화이트 칼라	241	4.8	40.2	45.0	44.8	10.2	55.0	100.0
전업 주부	170	5.3	49.0	54.4	38.7	6.9	45.6	100.0
학생/군인/무직	109	4.2	34.5	38.7	51.9	9.3	61.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4.4	35.0	39.4	49.7	10.9	60.6	100.0
200~299 만원	155	6.8	37.6	44.3	41.8	13.8	55.7	100.0
300~399 만원	374	4.2	46.9	51.1	42.1	6.8	48.9	100.0
400만원 이상	596	5.3	41.0	46.3	43.9	9.8	53.7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5.4	48.6	53.9	39.5	6.5	46.1	100.0
충청권	128	6.2	36.6	42.8	47.6	9.6	57.2	100.0
호남권	116	5.8	40.1	45.9	39.6	14.5	54.1	100.0
영남권	306	3.1	31.8	34.9	51.5	13.6	65.1	100.0
강원	35	8.9	36.9	45.8	43.4	10.8	54.2	100.0
제주	14	12.5	58.2	70.7	29.3	0.0	29.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5.7	42.2	47.9	42.9	9.2	52.1	100.0
중/소도시	567	4.4	43.2	47.6	43.6	8.8	52.4	100.0
읍/면	90	5.6	33.3	39.0	45.4	15.7	61.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6.7	38.2	44.9	43.7	11.4	55.1	100.0
중도	577	3.7	44.3	48.0	42.2	9.8	52.0	100.0
보수적	212	5.7	43.1	48.9	46.2	4.9	51.1	100.0
종교								
불교	200	2.8	36.5	39.2	51.2	9.6	60.8	100.0
기독교	232	4.5	41.8	46.3	46.8	6.9	53.7	100.0
천주교	45	9.9	28.0	37.9	49.3	12.8	62.1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종교 없음	689	5.5	44.5	50.1	39.8	10.1	49.9	100.0
모름/무응답	33	8.6	45.2	53.8	37.1	9.1	46.2	100.0

표46-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㉟ 일본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	%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전 체	1200	0.7	9.6	10.3	58.9	30.8	89.7	100.0
성별								
남자	607	1.0	9.6	10.6	56.3	33.1	89.4	100.0
여자	594	0.3	9.7	10.0	61.5	28.5	90.0	100.0
연령별								
19~29세	226	0.0	6.8	6.8	58.3	34.9	93.2	100.0
30대	222	0.8	7.0	7.8	60.6	31.6	92.2	100.0
40대	259	1.1	12.1	13.3	60.6	26.2	86.7	100.0
50대	260	1.3	9.1	10.4	57.9	31.7	89.6	100.0
60대	233	0.0	12.7	12.7	57.0	30.3	87.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0	15.8	15.8	59.7	24.5	84.2	100.0
고졸	560	1.2	10.1	11.3	57.0	31.7	88.7	100.0
대재 이상	531	0.3	7.9	8.2	60.6	31.2	91.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0.0	7.6	7.6	61.0	31.4	92.4	100.0
자영업	333	1.2	10.6	11.8	52.1	36.1	88.2	100.0
블루 칼라	325	0.7	10.0	10.7	54.4	34.8	89.3	100.0
화이트 칼라	241	0.3	8.9	9.2	64.4	26.4	90.8	100.0
전업 주부	170	0.7	10.2	10.9	70.0	19.1	89.1	100.0
학생/군인/무직	109	0.0	6.8	6.8	62.6	30.6	93.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6	14.0	15.6	53.2	31.2	84.4	100.0
200~299 만원	155	0.6	14.1	14.7	55.3	30.0	85.3	100.0
300~399 만원	374	0.6	8.7	9.3	61.6	29.1	90.7	100.0
400만원 이상	596	0.6	8.5	9.2	58.8	32.0	90.8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0.8	6.7	7.4	62.0	30.6	92.6	100.0
충청권	128	0.0	14.4	14.4	50.1	35.4	85.6	100.0
호남권	116	1.4	14.8	16.2	64.7	19.1	83.8	100.0
영남권	306	0.6	10.5	11.1	54.7	34.2	88.9	100.0
강원	35	0.0	4.3	4.3	58.7	37.0	95.7	100.0
제주	14	0.0	45.6	45.6	47.2	7.1	54.4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0	8.4	9.4	59.4	31.2	90.6	100.0
중/소도시	567	0.3	10.2	10.5	58.5	31.0	89.5	100.0
읍/면	90	0.8	14.1	14.9	57.7	27.4	85.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0.4	7.8	8.2	54.7	37.1	91.8	100.0
중도	577	0.7	9.7	10.4	61.5	28.0	89.6	100.0
보수적	212	1.2	13.0	14.1	59.7	26.2	85.9	100.0
종교								
불교	200	0.0	11.8	11.8	56.9	31.4	88.2	100.0
기독교	232	0.9	7.8	8.7	62.1	29.3	91.3	100.0
천주교	45	4.5	7.2	11.6	61.6	26.8	88.4	100.0
기타	2	0.0	0.0	0.0	0.0	100.0	100.0	100.0
종교 없음	689	0.4	10.0	10.4	58.4	31.2	89.6	100.0
모름/무응답	33	3.8	7.0	10.8	56.6	32.5	89.2	100.0

표46-3.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중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0.4	8.8	9.3	56.3	34.5	90.7	100.0
성별								
남자	607	0.7	7.8	8.5	56.4	35.1	91.5	100.0
여자	594	0.2	9.8	10.0	56.2	33.8	90.0	100.0
연령별								
19~29세	226	0.6	6.8	7.4	58.4	34.2	92.6	100.0
30대	222	0.8	7.3	8.1	60.7	31.2	91.9	100.0
40대	259	0.4	9.1	9.5	57.7	32.8	90.5	100.0
50대	260	0.4	8.7	9.1	54.9	36.0	90.9	100.0
60대	233	0.0	12.1	12.1	49.9	38.0	87.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0	10.4	10.4	57.7	31.9	89.6	100.0
고졸	560	0.7	9.6	10.2	52.0	37.7	89.8	100.0
대재 이상	531	0.2	7.7	8.0	60.5	31.6	92.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0.0	8.9	8.9	36.2	54.8	91.1	100.0
자영업	333	0.8	7.3	8.1	56.7	35.2	91.9	100.0
블루 칼라	325	0.4	9.6	10.0	50.1	39.9	90.0	100.0
화이트 칼라	241	0.0	9.4	9.4	60.7	29.9	90.6	100.0
전업 주부	170	0.0	10.5	10.5	60.3	29.1	89.5	100.0
학생/군인/무직	109	0.9	7.3	8.2	61.3	30.5	91.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0.0	9.1	9.1	60.6	30.3	90.9	100.0
200~299 만원	155	0.6	12.8	13.4	52.7	33.9	86.6	100.0
300~399 만원	374	0.2	9.8	10.0	58.1	31.8	90.0	100.0
400만원 이상	596	0.5	7.2	7.7	55.6	36.7	92.3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0.2	3.0	3.1	58.9	38.0	96.9	100.0
충청권	128	0.0	17.8	17.8	52.7	29.5	82.2	100.0
호남권	116	0.7	18.9	19.6	51.8	28.5	80.4	100.0
영남권	306	0.9	12.8	13.7	54.2	32.1	86.3	100.0
강원	35	0.0	4.3	4.3	52.4	43.2	95.7	100.0
제주	14	3.1	20.5	23.6	67.4	9.0	76.4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0.7	9.2	9.8	56.8	33.4	90.2	100.0
중/소도시	567	0.2	8.5	8.6	55.5	35.9	91.4	100.0
읍/면	90	0.5	9.2	9.7	58.0	32.2	90.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0.2	8.5	8.7	51.3	40.1	91.3	100.0
중도	577	0.6	8.7	9.3	59.9	30.8	90.7	100.0
보수적	212	0.5	9.9	10.3	56.0	33.7	89.7	100.0
불교	200	0.0	13.0	13.0	57.2	29.8	87.0	100.0
기독교	232	0.4	4.7	5.1	59.7	35.2	94.9	100.0
천주교	45	1.8	12.6	14.4	58.4	27.2	85.6	100.0
기타	2	0.0	0.0	0.0	50.6	49.4	100.0	100.0
종교 없음	689	0.5	8.9	9.4	54.4	36.2	90.6	100.0
모름/무응답	33	0.0	6.8	6.8	62.1	31.2	93.2	100.0

표46-4.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㉕ 러시아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0.7	11.8	12.5	66.6	20.9	87.5	100.0
성별								
남자	607	1.3	10.7	12.0	68.6	19.4	88.0	100.0
여자	594	0.1	13.0	13.1	64.5	22.4	86.9	100.0
연령별								
19~29세	226	1.7	12.6	14.2	66.1	19.6	85.8	100.0
30대	222	0.8	9.2	10.0	70.7	19.3	90.0	100.0
40대	259	0.5	12.5	12.9	69.7	17.4	87.1	100.0
50대	260	0.6	10.7	11.3	67.4	21.3	88.7	100.0
60대	233	0.0	14.1	14.1	58.7	27.2	85.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0	16.6	16.6	57.9	25.5	83.4	100.0
고졸	560	0.4	10.9	11.3	66.5	22.2	88.7	100.0
대재 이상	531	1.1	11.9	13.0	68.5	18.6	87.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0.0	5.3	5.3	55.7	39.0	94.7	100.0
자영업	333	1.2	9.9	11.1	69.1	19.8	88.9	100.0
블루 칼라	325	0.5	10.8	11.3	64.7	23.9	88.7	100.0
화이트 칼라	241	0.0	14.0	14.0	67.5	18.5	86.0	100.0
전업 주부	170	0.3	12.4	12.7	65.4	21.9	87.3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9	16.4	18.3	66.6	15.1	81.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0.0	18.1	18.1	56.3	25.6	81.9	100.0
200~299 만원	155	1.1	14.2	15.2	63.6	21.2	84.8	100.0
300~399 만원	374	0.0	10.7	10.7	70.8	18.5	89.3	100.0
400만원 이상	596	1.1	11.2	12.3	66.0	21.8	87.7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0.8	6.4	7.2	72.1	20.7	92.8	100.0
충청권	128	0.6	25.0	25.6	54.2	20.2	74.4	100.0
호남권	116	0.7	23.2	23.9	58.0	18.1	76.1	100.0
영남권	306	0.3	12.2	12.5	65.9	21.6	87.5	100.0
강원	35	0.0	10.1	10.1	54.6	35.2	89.9	100.0
제주	14	6.6	26.7	33.2	60.9	5.9	66.8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0.3	9.2	9.5	69.4	21.0	90.5	100.0
중/소도시	567	0.9	14.7	15.7	63.4	21.0	84.3	100.0
읍/면	90	1.3	9.3	10.6	69.7	19.7	89.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0.5	11.4	12.0	63.9	24.2	88.0	100.0
중도	577	0.8	12.7	13.6	66.7	19.7	86.4	100.0
보수적	212	0.6	10.1	10.7	71.6	17.8	89.3	100.0
불교	200	0.6	12.7	13.3	65.1	21.6	86.7	100.0
기독교	232	0.5	9.1	9.6	71.7	18.6	90.4	100.0
천주교	45	1.8	17.2	19.0	64.7	16.3	81.0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종교 없음	689	0.7	12.4	13.1	65.3	21.5	86.9	100.0
모름/무응답	33	0.0	6.8	6.8	66.6	26.6	93.2	100.0

표47-1.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㉞ 미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전 체	1200	48.6	44.1	92.6	6.4	1.0	7.4	100.0	
성별	남자	607	48.7	44.1	92.8	6.1	1.0	7.2	100.0
	여자	594	48.4	44.0	92.4	6.6	1.0	7.6	100.0
연령별	19~29세	226	48.1	42.8	90.9	8.1	0.9	9.1	100.0
	30대	222	47.0	47.0	94.0	6.0	0.0	6.0	100.0
	40대	259	46.5	44.4	90.9	7.6	1.5	9.1	100.0
	50대	260	51.8	42.0	93.8	4.4	1.8	6.2	100.0
	60대	233	49.2	44.3	93.5	5.8	0.7	6.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42.6	49.9	92.5	6.1	1.4	7.5	100.0
	고졸	560	50.6	43.5	94.0	5.2	0.8	6.0	100.0
	대재 이상	531	47.7	43.5	91.2	7.7	1.2	8.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8.3	47.0	85.3	11.0	3.7	14.7	100.0
	자영업	333	48.4	47.3	95.7	3.5	0.8	4.3	100.0
	블루 칼라	325	51.0	41.3	92.3	6.9	0.8	7.7	100.0
	화이트 칼라	241	45.3	46.6	91.9	7.0	1.0	8.1	100.0
	전업 주부	170	49.0	42.4	91.4	7.7	0.9	8.6	100.0
가구 소득 수준	학생/군인/무직	109	50.1	38.9	89.0	9.0	2.0	11.0	100.0
	200만원 미만	74	46.3	47.0	93.3	5.7	1.0	6.7	100.0
	200~299 만원	155	39.9	51.2	91.1	6.4	2.5	8.9	100.0
	300~399 만원	374	47.0	47.4	94.4	5.3	0.3	5.6	100.0
	400만원 이상	596	52.1	39.7	91.9	7.0	1.1	8.1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51.1	40.8	91.9	7.0	1.0	8.1	100.0
	충청권	128	44.5	49.6	94.0	4.5	1.5	6.0	100.0
	호남권	116	40.0	51.0	91.0	7.7	1.4	9.0	100.0
	영남권	306	46.4	47.2	93.5	6.1	0.3	6.5	100.0
	강원	35	63.2	30.0	93.2	2.3	4.5	6.8	100.0
	제주	14	57.5	42.5	100.0	0.0	0.0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48.8	45.8	94.6	4.9	0.5	5.4	100.0
	중/소도시	567	50.3	41.2	91.5	7.1	1.4	8.5	100.0
	읍/면	90	36.4	51.4	87.8	10.0	2.2	12.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51.0	41.7	92.7	6.7	0.6	7.3	100.0
	중도	577	45.9	46.2	92.1	6.4	1.5	7.9	100.0
	보수적	212	51.2	42.7	93.9	5.7	0.4	6.1	100.0
종교	불교	200	47.9	44.8	92.8	5.9	1.4	7.2	100.0
	기독교	232	51.0	38.7	89.8	7.9	2.4	10.2	100.0
	천주교	45	44.7	47.4	92.1	7.9	0.0	7.9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49.1	44.4	93.5	6.0	0.5	6.5	100.0
	모름/무응답	33	29.2	64.4	93.6	3.9	2.5	6.4	100.0

표47-2.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㉟ 일본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전 체	1200	9.3	50.9	60.2	34.1	5.7	39.8	100.0	
성별	남자	607	8.4	52.0	60.4	34.0	5.6	39.6	100.0
	여자	594	10.2	49.9	60.1	34.2	5.8	39.9	100.0
연령별	19~29세	226	8.0	53.4	61.5	32.9	5.7	38.5	100.0
	30대	222	7.8	53.4	61.2	33.8	5.0	38.8	100.0
	40대	259	6.2	47.6	53.8	38.9	7.3	46.2	100.0
	50대	260	11.4	53.1	64.5	29.4	6.0	35.5	100.0
	60대	233	13.0	47.6	60.6	35.4	4.0	39.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8.6	55.5	64.1	29.4	6.5	35.9	100.0
	고졸	560	10.4	51.0	61.4	35.8	2.9	38.6	100.0
	대재 이상	531	8.3	50.0	58.3	33.3	8.4	41.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1.8	48.6	70.4	22.2	7.4	29.6	100.0
	자영업	333	10.5	49.1	59.6	35.5	4.8	40.4	100.0
	블루 칼라	325	7.5	57.5	65.0	31.4	3.6	35.0	100.0
	화이트 칼라	241	7.9	47.0	54.9	35.3	9.8	45.1	100.0
	전업 주부	170	10.3	50.2	60.5	34.8	4.7	39.5	100.0
가구 소득 수준	학생/군인/무직	109	10.4	47.0	57.3	36.5	6.2	42.7	100.0
	200만원 미만	74	10.9	43.3	54.2	40.6	5.2	45.8	100.0
	200~299 만원	155	9.3	51.4	60.7	34.2	5.1	39.3	100.0
	300~399 만원	374	9.2	51.1	60.3	35.5	4.2	39.7	100.0
	400만원 이상	596	9.2	51.7	60.9	32.3	6.8	39.1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6.1	50.2	56.3	38.7	5.0	43.7	100.0
	충청권	128	12.9	43.9	56.7	35.6	7.7	43.3	100.0
	호남권	116	4.2	50.7	54.9	38.1	7.0	45.1	100.0
	영남권	306	14.1	57.3	71.4	24.7	3.8	28.6	100.0
	강원	35	19.9	31.2	51.1	27.4	21.5	48.9	100.0
	제주	14	25.4	58.0	83.4	12.6	4.0	16.6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7.6	53.0	60.5	36.0	3.5	39.5	100.0
	중/소도시	567	9.7	49.2	58.8	34.3	6.9	41.2	100.0
	읍/면	90	17.5	49.9	67.5	21.5	11.0	32.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6.7	52.3	59.0	34.5	6.6	41.0	100.0
	중도	577	10.5	48.9	59.3	34.5	6.1	40.7	100.0
	보수적	212	11.2	54.1	65.2	32.2	2.6	34.8	100.0
종교	불교	200	9.2	55.5	64.7	29.8	5.5	35.3	100.0
	기독교	232	7.4	54.5	61.9	31.0	7.1	38.1	100.0
	천주교	45	6.6	46.5	53.1	34.0	12.9	46.9	100.0
	기타	2	49.4	0.0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9.9	48.8	58.7	36.5	4.8	41.3	100.0
	모름/무응답	33	11.9	51.9	63.8	31.6	4.6	36.2	100.0

표47-3.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㉔ 중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 하다	필요한 편이다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전 체	1200	27.2	54.0	81.2	14.8	4.0	18.8	100.0	
성별	남자	607	27.0	54.3	81.3	14.4	4.3	18.7	100.0
	여자	594	27.4	53.7	81.0	15.3	3.7	19.0	100.0
연령별	19~29세	226	28.7	51.5	80.1	15.0	4.9	19.9	100.0
	30대	222	28.8	56.7	85.4	12.1	2.4	14.6	100.0
	40대	259	25.9	50.6	76.4	19.4	4.2	23.6	100.0
	50대	260	28.5	57.4	86.0	8.9	5.1	14.0	100.0
교육 수준별	60대	233	24.4	53.7	78.1	18.8	3.1	21.9	100.0
	중졸 이하	109	25.0	55.5	80.5	16.3	3.2	19.5	100.0
	고졸	560	26.0	56.2	82.2	15.0	2.9	17.8	100.0
직업별	대재 이상	531	29.0	51.3	80.3	14.4	5.3	19.7	100.0
	농/수/축산업	22	21.8	48.5	70.3	18.9	10.8	29.7	100.0
	자영업	333	27.3	53.6	80.8	16.1	3.0	19.2	100.0
	블루 칼라	325	25.9	59.4	85.3	11.6	3.1	14.7	100.0
	화이트 칼라	241	27.4	48.9	76.3	18.5	5.3	23.7	100.0
	전업 주부	170	27.2	55.6	82.8	13.7	3.6	17.2	100.0
	학생/군인/무직	109	31.9	48.6	80.5	13.4	6.1	19.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6.3	68.0	84.3	14.7	1.0	15.7	100.0
	200~299 만원	155	23.4	56.4	79.8	15.6	4.6	20.2	100.0
	300~399 만원	374	26.8	53.7	80.4	17.4	2.1	19.6	100.0
	400만원 이상	596	29.9	51.8	81.7	12.9	5.4	18.3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3.3	54.1	77.4	17.6	5.0	22.6	100.0
	충청권	128	32.4	51.9	84.3	13.5	2.2	15.7	100.0
	호남권	116	27.1	51.7	78.8	15.6	5.6	21.2	100.0
	영남권	306	31.6	55.3	86.9	11.6	1.5	13.1	100.0
	강원	35	32.5	54.0	86.4	2.3	11.3	13.6	100.0
	제주	14	39.1	54.7	93.9	6.1	0.0	6.1	100.0
	대도시	542	29.4	52.3	81.8	15.4	2.8	18.2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25.8	55.4	81.3	14.1	4.6	18.7	100.0
	읍/면	90	22.7	54.4	77.1	15.9	7.0	22.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4.2	56.4	80.6	14.5	4.9	19.4	100.0
	중도	577	28.1	52.6	80.7	15.8	3.5	19.3	100.0
	보수적	212	30.7	53.0	83.7	12.8	3.5	16.3	100.0
종교	불교	200	25.2	59.1	84.3	12.2	3.5	15.7	100.0
	기독교	232	26.5	52.3	78.7	15.6	5.7	21.3	100.0
	천주교	45	31.1	36.3	67.4	25.2	7.4	32.6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28.1	53.5	81.6	15.1	3.3	18.4	100.0
	모름/무응답	33	20.1	68.6	88.6	6.8	4.6	11.4	100.0

표47-4.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㉔ 러시아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 하다	필요한 편이다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전 체	1200	11.8	57.2	69.1	26.6	4.3	30.9	100.0	
성별	남자	607	11.3	57.1	68.4	26.7	4.9	31.6	100.0
	여자	594	12.4	57.3	69.7	26.6	3.6	30.3	100.0
연령별	19~29세	226	12.4	56.9	69.3	26.4	4.3	30.7	100.0
	30대	222	15.4	62.4	77.8	20.1	2.1	22.2	100.0
	40대	259	9.9	54.2	64.1	31.6	4.3	35.9	100.0
	50대	260	12.0	57.3	69.2	25.4	5.4	30.8	100.0
교육 수준별	60대	233	10.0	55.9	65.9	29.0	5.2	34.1	100.0
	중졸 이하	109	10.6	56.2	66.7	26.8	6.5	33.3	100.0
	고졸	560	10.6	58.4	69.0	27.1	4.0	31.0	100.0
직업별	대재 이상	531	13.5	56.2	69.6	26.2	4.2	30.4	100.0
	농/수/축산업	22	17.9	45.1	63.0	29.6	7.4	37.0	100.0
	자영업	333	10.0	58.6	68.6	26.4	5.0	31.4	100.0
	블루 칼라	325	10.3	64.9	75.1	21.0	3.8	24.9	100.0
	화이트 칼라	241	14.2	52.2	66.4	29.2	4.4	33.6	100.0
	전업 주부	170	11.9	54.7	66.6	30.4	3.1	33.4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5.7	47.8	63.5	31.8	4.6	36.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9.6	53.8	63.4	31.5	5.1	36.6	100.0
	200~299 만원	155	11.2	56.4	67.6	28.3	4.1	32.4	100.0
	300~399 만원	374	10.8	59.3	70.1	25.3	4.6	29.9	100.0
	400만원 이상	596	13.0	56.7	69.6	26.3	4.0	30.4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9.2	57.0	66.2	29.5	4.4	33.8	100.0
	충청권	128	16.8	54.8	71.6	23.4	5.0	28.4	100.0
	호남권	116	6.6	60.2	66.9	29.6	3.6	33.1	100.0
	영남권	306	14.9	58.1	73.0	23.4	3.7	27.0	100.0
	강원	35	21.6	52.5	74.1	17.0	8.9	25.9	100.0
	제주	14	32.8	57.0	89.8	6.1	4.0	10.2	100.0
	대도시	542	10.5	58.0	68.4	27.3	4.3	31.6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12.5	57.3	69.8	25.6	4.6	30.2	100.0
	읍/면	90	16.2	52.2	68.4	29.4	2.2	31.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1.4	58.7	70.0	26.0	3.9	30.0	100.0
	중도	577	11.7	56.9	68.6	27.4	4.0	31.4	100.0
	보수적	212	13.0	55.4	68.5	25.8	5.7	31.5	100.0
종교	불교	200	12.3	54.2	66.5	28.4	5.1	33.5	100.0
	기독교	232	8.8	60.0	68.8	26.7	4.6	31.2	100.0
	천주교	45	6.8	51.5	58.3	35.1	6.6	41.7	100.0
	기타	2	49.4	0.0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13.0	57.3	70.3	25.8	3.8	29.7	100.0
	모름/무응답	33	11.1	65.0	76.1	19.3	4.6	23.9	100.0

표48.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중 중요한 것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현재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 간 협력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모두 중요하다	계	
		%	%	%	%	%	
전 체	1200	35.3	23.4	3.8	37.4	100.0	
성별	남자	607	34.9	24.3	4.2	36.6	100.0
	여자	594	35.7	22.5	3.5	38.3	100.0
연령별	19~29세	226	32.3	23.5	5.3	38.8	100.0
	30대	222	36.3	20.4	5.8	37.5	100.0
	40대	259	35.8	23.8	3.5	36.9	100.0
	50대	260	33.1	22.6	2.3	41.9	100.0
	60대	233	39.2	26.6	2.4	31.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39.8	24.9	3.7	31.6	100.0
	고졸	560	36.8	21.9	3.2	38.2	100.0
	대재 이상	531	32.9	24.7	4.5	37.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47.5	26.3	3.4	22.9	100.0
	자영업	333	36.0	21.5	3.3	39.2	100.0
	블루 칼라	325	34.0	21.3	4.5	40.2	100.0
	화이트 칼라	241	35.1	28.1	3.3	33.5	100.0
	전업 주부	170	40.0	23.0	2.1	35.0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8.1	25.3	7.2	39.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52.0	21.7	2.4	23.9	100.0
	200~299 만원	155	39.6	16.5	8.0	36.0	100.0
	300~399 만원	374	34.8	24.0	4.7	36.5	100.0
	400만원 이상	596	32.4	25.1	2.3	40.2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36.7	25.3	2.3	35.7	100.0
	충청권	128	46.0	10.1	2.0	41.9	100.0
	호남권	116	29.5	26.9	9.6	34.0	100.0
	영남권	306	28.9	24.4	5.6	41.1	100.0
	강원	35	41.1	19.1	4.1	35.6	100.0
	제주	14	52.3	22.3	0.0	25.3	100.0
	대도시	542	33.6	23.0	3.4	40.1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37.5	21.9	4.1	36.5	100.0
	읍/면	90	32.1	35.7	4.7	27.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40.6	19.8	4.9	34.7	100.0
	중도	577	31.6	25.6	3.0	39.8	100.0
	보수적	212	35.3	24.4	4.0	36.3	100.0
종교	불교	200	36.7	27.7	2.4	33.2	100.0
	기독교	232	38.0	17.8	2.9	41.2	100.0
	천주교	45	40.0	32.3	0.0	27.7	100.0
	기타	2	49.4	50.6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34.0	23.4	4.8	37.8	100.0
	모름/무응답	33	29.3	24.1	3.1	43.5	100.0

표49. 북한비핵화를 위한 한미와 한중협력

문) ○○님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현재 '한미 간 협력'과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모두 강화해야 한다	계	
		%	%	%	%	
전 체	1200	39.3	8.6	52.2	100.0	
성별	남자	607	38.8	9.3	51.9	100.0
	여자	594	39.7	7.8	52.5	100.0
연령별	19~29세	226	39.9	8.1	52.0	100.0
	30대	222	34.6	7.7	57.7	100.0
	40대	259	40.6	9.0	50.4	100.0
	50대	260	38.2	8.4	53.4	100.0
	60대	233	42.7	9.5	47.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45.7	9.7	44.6	100.0
	고졸	560	37.8	8.7	53.5	100.0
	대재 이상	531	39.5	8.2	52.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7.7	20.8	41.4	100.0
	자영업	333	40.6	7.6	51.8	100.0
	블루 칼라	325	36.6	8.8	54.6	100.0
	화이트 칼라	241	38.5	9.4	52.1	100.0
	전업 주부	170	44.7	7.6	47.7	100.0
	학생/군인/무직	109	36.6	7.8	55.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41.8	11.5	46.7	100.0
	200~299 만원	155	34.8	14.5	50.7	100.0
	300~399 만원	374	39.0	7.2	53.8	100.0
	400만원 이상	596	40.3	7.5	52.2	100.0
무응답	1	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43.8	4.9	51.4	100.0
	충청권	128	31.9	5.7	62.4	100.0
	호남권	116	45.8	15.7	38.5	100.0
	영남권	306	31.2	14.4	54.3	100.0
	강원	35	43.1	8.2	48.7	100.0
	제주	14	26.1	6.6	67.2	100.0
	대도시	542	37.7	5.6	56.7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40.7	11.1	48.2	100.0
	읍/면	90	39.7	10.7	49.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40.4	5.7	53.8	100.0
	중도	577	38.6	9.1	52.3	100.0
	보수적	212	38.7	12.6	48.8	100.0
종교	불교	200	38.2	10.9	51.0	100.0
	기독교	232	44.3	5.1	50.7	100.0
	천주교	45	47.3	9.3	43.4	100.0
	기타	2	49.4	50.6	0.0	100.0
	종교 없음	689	37.5	8.8	53.7	100.0
	모름/무응답	33	36.0	11.5	52.4	100.0

표50.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평화

문) ○○님은 중국의 부상(강대국화 및 주변국 영향력 확대)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도움이 되지도 않지도 않을 것이다	④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⑤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④+⑤	계		
		%	%	%	%	%	%	%		
전 체	1200	1.5	20.5	22.0	28.5	39.9	9.6	49.5	100.0	
성별	남자	607	1.1	21.2	22.3	28.8	38.5	10.4	48.9	100.0
	여자	594	2.0	19.8	21.8	28.1	41.4	8.7	50.1	100.0
연령별	19~29세	226	2.3	18.0	20.3	26.6	42.7	10.4	53.1	100.0
	30대	222	1.3	22.4	23.7	30.5	37.8	8.0	45.8	100.0
	40대	259	0.8	21.9	22.7	28.6	40.4	8.3	48.7	100.0
	50대	260	2.5	20.5	23.0	28.1	38.8	10.1	48.9	100.0
	60대	233	0.5	19.7	20.3	28.7	40.0	11.0	51.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0	22.9	22.9	26.1	40.2	10.8	51.0	100.0
	고졸	560	1.1	20.8	22.0	30.9	36.8	10.3	47.1	100.0
	대재 이상	531	2.2	19.7	21.9	26.4	43.1	8.5	51.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0.0	16.2	16.2	42.1	22.0	19.7	41.7	100.0
	자영업	333	1.6	24.0	25.5	21.4	41.8	11.4	53.1	100.0
	블루 칼라	325	1.2	21.6	22.8	35.5	33.9	7.8	41.7	100.0
	화이트 칼라	241	2.2	18.0	20.3	31.3	40.0	8.5	48.5	100.0
	전업 주부	170	0.9	18.8	19.7	26.7	43.6	9.9	53.5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0	16.1	18.0	23.2	49.7	9.1	58.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0.0	23.9	23.9	31.2	30.6	14.3	44.8	100.0
	200~299 만원	155	0.9	23.1	24.0	34.1	31.4	10.5	41.9	100.0
	300~399 만원	374	1.9	22.1	24.0	26.4	39.0	10.6	49.6	100.0
	400만원 이상	596	1.6	18.5	20.1	28.1	43.8	8.1	51.9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2	17.6	18.8	27.8	46.2	7.2	53.4	100.0
	충청권	128	0.6	22.6	23.3	25.1	38.3	13.3	51.6	100.0
	호남권	116	2.7	32.9	35.6	30.2	29.5	4.7	34.2	100.0
	영남권	306	0.6	21.1	21.7	31.1	33.4	13.7	47.1	100.0
	강원	35	10.6	12.9	23.5	22.1	38.9	15.5	54.4	100.0
	제주	14	7.3	32.4	39.7	34.0	16.4	9.9	26.3	100.0
	대도시	542	1.4	20.6	22.0	26.1	41.6	10.3	51.9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1.1	19.7	20.9	29.5	40.8	8.9	49.7	100.0
	읍/면	90	4.4	25.2	29.6	36.9	24.1	9.4	33.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7	24.8	26.5	21.3	42.5	9.7	52.2	100.0
	중도	577	1.8	18.3	20.1	33.2	38.6	8.0	46.6	100.0
	보수적	212	0.3	18.3	18.6	29.5	38.4	13.4	51.9	100.0
종교	불교	200	1.1	21.3	22.4	33.5	32.0	12.1	44.1	100.0
	기독교	232	1.3	20.2	21.5	21.0	48.7	8.8	57.5	100.0
	천주교	45	1.5	25.8	27.3	27.9	33.8	11.0	44.8	100.0
	기타	2	0.0	0.0	0.0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1.7	19.4	21.2	29.3	40.4	9.2	49.5	100.0
	모름/무응답	33	0.0	36.1	36.1	34.0	24.4	5.5	29.9	100.0

표51. 미중 갈등 시 한국의 입장

문) ○○님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미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계	
		%	%	%	%	
전 체	1200	39.2	7.6	53.2	100.0	
성별	남자	607	39.5	8.6	51.9	100.0
	여자	594	39.0	6.6	54.4	100.0
연령별	19~29세	226	36.0	6.6	57.3	100.0
	30대	222	38.4	5.9	55.7	100.0
	40대	259	41.3	8.5	50.2	100.0
	50대	260	42.2	4.6	53.2	100.0
	60대	233	37.4	12.6	5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37.2	11.6	51.3	100.0
	고졸	560	42.6	8.2	49.2	100.0
	대재 이상	531	36.1	6.2	57.7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5.5	21.6	52.9	100.0
	자영업	333	42.5	7.2	50.3	100.0
	블루 칼라	325	37.1	8.4	54.6	100.0
	화이트 칼라	241	38.1	5.6	56.3	100.0
	전업 주부	170	43.1	5.0	51.9	100.0
	학생/군인/무직	109	34.8	12.5	52.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35.8	12.3	52.0	100.0
	200~299 만원	155	31.7	11.4	56.9	100.0
	300~399 만원	374	39.1	8.7	52.1	100.0
	400만원 이상	596	41.6	5.3	53.1	100.0
무응답	1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44.6	7.5	47.9	100.0
	충청권	128	32.5	3.9	63.7	100.0
	호남권	116	38.7	8.2	53.2	100.0
	영남권	306	33.8	10.0	56.1	100.0
	강원	35	30.6	2.3	67.1	100.0
	제주	14	16.2	3.0	80.8	100.0
	대도시	542	43.4	4.4	52.2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35.3	9.8	54.9	100.0
	읍/면	90	39.1	12.9	48.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37.3	8.9	53.8	100.0
	중도	577	38.7	6.2	55.1	100.0
	보수적	212	44.4	9.0	46.6	100.0
종교	불교	200	36.7	7.3	56.0	100.0
	기독교	232	42.7	8.9	48.3	100.0
	천주교	45	42.3	7.2	50.4	100.0
	기타	2	0.0	50.6	49.4	100.0
	종교 없음	689	38.8	7.0	54.3	100.0
	모름/무응답	33	37.5	11.8	50.7	100.0

표52-1.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㉞ 빈부격차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7.2	48.3	95.4	4.0	0.6	4.6	100.0
성별								
남자	607	46.9	48.0	94.9	4.9	0.2	5.1	100.0
여자	594	47.5	48.5	96.0	3.1	0.9	4.0	100.0
연령별								
19~29세	226	46.7	49.0	95.7	3.7	0.6	4.3	100.0
30대	222	50.3	44.2	94.5	5.5	0.0	5.5	100.0
40대	259	43.1	54.2	97.4	2.6	0.0	2.6	100.0
50대	260	48.3	48.0	96.3	2.5	1.2	3.7	100.0
60대	233	47.8	45.2	93.0	6.1	0.9	7.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50.3	45.7	96.1	3.9	0.0	3.9	100.0
고졸	560	44.8	49.8	94.6	4.7	0.7	5.4	100.0
대재 이상	531	49.0	47.2	96.2	3.3	0.5	3.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9.0	52.6	81.5	18.5	0.0	18.5	100.0
자영업	333	48.1	47.3	95.4	3.7	1.0	4.6	100.0
블루 칼라	325	46.0	50.5	96.5	3.5	0.0	3.5	100.0
화이트 칼라	241	50.1	46.7	96.8	3.2	0.0	3.2	100.0
전업 주부	170	45.6	48.8	94.4	4.4	1.2	5.6	100.0
학생/군인/무직	109	47.5	46.4	93.9	4.9	1.2	6.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49.7	50.3	100.0	0.0	0.0	0.0	100.0
200~299 만원	155	53.4	41.0	94.4	4.4	1.2	5.6	100.0
300~399 만원	374	46.6	50.4	97.0	3.0	0.0	3.0	100.0
400만원 이상	596	45.5	48.7	94.2	5.0	0.8	5.8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45.1	49.8	94.9	4.3	0.8	5.1	100.0
충청권	128	59.9	35.2	95.1	4.2	0.7	4.9	100.0
호남권	116	50.9	45.7	96.6	3.4	0.0	3.4	100.0
영남권	306	42.5	53.2	95.6	4.0	0.3	4.4	100.0
강원	35	59.5	38.2	97.7	2.3	0.0	2.3	100.0
제주	14	58.1	41.9	100.0	0.0	0.0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47.8	49.9	97.8	1.4	0.8	2.2	100.0
중/소도시	567	49.0	45.5	94.4	5.2	0.4	5.6	100.0
읍/면	90	31.6	56.1	87.7	12.3	0.0	12.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50.6	46.9	97.5	2.5	0.0	2.5	100.0
중도	577	43.0	51.3	94.3	5.1	0.6	5.7	100.0
보수적	212	52.0	42.7	94.6	3.9	1.5	5.4	100.0
종교								
불교	200	46.2	49.3	95.5	4.5	0.0	4.5	100.0
기독교	232	47.5	46.9	94.4	4.2	1.4	5.6	100.0
천주교	45	42.1	50.3	92.4	7.6	0.0	7.6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47.9	48.0	95.9	3.6	0.5	4.1	100.0
모름/무응답	33	40.6	55.5	96.1	3.9	0.0	3.9	100.0

표52-2.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㉟ 부통산투기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7.1	45.3	92.4	6.7	0.9	7.6	100.0
성별								
남자	607	46.5	45.4	92.0	6.8	1.2	8.0	100.0
여자	594	47.7	45.1	92.8	6.5	0.6	7.2	100.0
연령별								
19~29세	226	51.4	43.4	94.8	4.7	0.4	5.2	100.0
30대	222	50.9	44.4	95.3	3.8	0.9	4.7	100.0
40대	259	47.3	45.1	92.4	7.2	0.5	7.6	100.0
50대	260	44.8	46.5	91.2	8.0	0.7	8.8	100.0
60대	233	41.9	46.8	88.7	9.3	2.1	11.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41.1	50.3	91.4	7.9	0.8	8.6	100.0
고졸	560	44.9	45.4	90.3	8.5	1.2	9.7	100.0
대재 이상	531	50.7	44.1	94.8	4.5	0.6	5.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6.3	45.6	81.9	10.8	7.3	18.1	100.0
자영업	333	44.8	47.9	92.7	5.9	1.3	7.3	100.0
블루 칼라	325	46.1	45.4	91.5	7.8	0.6	8.5	100.0
화이트 칼라	241	51.5	43.6	95.0	4.1	0.9	5.0	100.0
전업 주부	170	49.2	40.7	89.9	9.6	0.5	10.1	100.0
학생/군인/무직	109	46.5	47.5	94.0	6.0	0.0	6.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49.1	44.2	93.3	6.7	0.0	6.7	100.0
200~299 만원	155	49.9	40.7	90.6	7.8	1.6	9.4	100.0
300~399 만원	374	48.9	43.5	92.4	7.4	0.2	7.6	100.0
400만원 이상	596	45.0	47.8	92.7	6.0	1.3	7.3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45.7	48.2	93.9	5.0	1.1	6.1	100.0
충청권	128	49.0	38.8	87.7	10.2	2.0	12.3	100.0
호남권	116	49.9	41.0	90.9	8.4	0.7	9.1	100.0
영남권	306	46.6	44.6	91.2	8.8	0.0	8.8	100.0
강원	35	61.1	34.6	95.8	2.0	2.3	4.2	100.0
제주	14	45.7	54.3	100.0	0.0	0.0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53.1	41.9	94.9	4.3	0.8	5.1	100.0
중/소도시	567	42.4	47.8	90.2	9.0	0.8	9.8	100.0
읍/면	90	40.9	50.0	90.8	6.8	2.3	9.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49.8	45.1	94.9	4.4	0.7	5.1	100.0
중도	577	45.0	46.0	91.0	8.1	0.9	9.0	100.0
보수적	212	47.7	43.7	91.4	7.3	1.3	8.6	100.0
종교								
불교	200	46.5	45.0	91.5	8.1	0.4	8.5	100.0
기독교	232	44.7	46.3	91.0	8.2	0.9	9.0	100.0
천주교	45	61.1	26.1	87.2	10.0	2.8	12.8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47.6	45.9	93.6	5.4	1.0	6.4	100.0
모름/무응답	33	38.4	51.5	89.9	10.1	0.0	10.1	100.0

표52-3.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실업문제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68.2	26.8	95.0	4.0	0.9	5.0	100.0
성별								
남자	607	66.1	28.2	94.3	4.7	1.0	5.7	100.0
여자	594	70.4	25.4	95.8	3.3	0.9	4.2	100.0
연령별								
19~29세	226	69.5	25.2	94.7	4.8	0.4	5.3	100.0
30대	222	71.5	25.0	96.4	3.0	0.6	3.6	100.0
40대	259	65.1	29.4	94.5	5.0	0.5	5.5	100.0
50대	260	68.5	25.7	94.2	4.0	1.8	5.8	100.0
60대	233	67.1	28.4	95.5	3.1	1.4	4.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68.8	27.4	96.2	3.8	0.0	3.8	100.0
고졸	560	68.0	27.0	95.0	3.6	1.4	5.0	100.0
대재 이상	531	68.3	26.5	94.8	4.5	0.7	5.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54.9	30.9	85.9	14.1	0.0	14.1	100.0
자영업	333	73.3	22.1	95.4	3.9	0.7	4.6	100.0
블루 칼라	325	66.0	29.4	95.4	3.2	1.4	4.6	100.0
화이트 칼라	241	66.3	28.5	94.8	4.2	1.0	5.2	100.0
전업 주부	170	69.1	26.1	95.1	3.6	1.2	4.9	100.0
학생/군인/무직	109	64.9	30.0	94.9	5.1	0.0	5.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69.6	27.2	96.7	3.3	0.0	3.3	100.0
200~299 만원	155	65.7	24.7	90.5	8.3	1.2	9.5	100.0
300~399 만원	374	69.7	27.0	96.7	3.3	0.0	3.3	100.0
400만원 이상	596	67.7	27.2	94.9	3.5	1.6	5.1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65.5	29.9	95.4	3.0	1.6	4.6	100.0
충청권	128	74.6	20.8	95.4	3.9	0.7	4.6	100.0
호남권	116	68.7	23.8	92.5	7.5	0.0	7.5	100.0
영남권	306	71.2	23.4	94.6	5.0	0.3	5.4	100.0
강원	35	67.9	30.1	97.9	2.1	0.0	2.1	100.0
제주	14	60.1	36.8	96.9	3.1	0.0	3.1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70.6	25.7	96.3	2.5	1.2	3.7	100.0
중/소도시	567	68.1	26.5	94.7	5.2	0.2	5.3	100.0
읍/면	90	54.7	34.9	89.6	6.2	4.2	10.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67.9	28.6	96.5	2.9	0.5	3.5	100.0
중도	577	67.8	26.5	94.3	4.7	1.0	5.7	100.0
보수적	212	69.8	24.2	94.0	4.4	1.6	6.0	100.0
종교								
불교	200	70.4	26.8	97.2	2.8	0.0	2.8	100.0
기독교	232	68.6	25.0	93.6	4.5	2.0	6.4	100.0
천주교	45	56.0	34.8	90.7	6.5	2.8	9.3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67.8	27.4	95.3	3.9	0.8	4.7	100.0
모름/무응답	33	75.7	17.3	93.0	7.0	0.0	7.0	100.0

표52-4.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범죄문제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7.5	55.9	83.4	15.1	1.5	16.6	100.0
성별								
남자	607	25.8	55.4	81.2	17.4	1.4	18.8	100.0
여자	594	29.2	56.5	85.6	12.7	1.7	14.4	100.0
연령별								
19~29세	226	30.9	51.6	82.5	16.1	1.4	17.5	100.0
30대	222	26.2	58.6	84.8	13.9	1.3	15.2	100.0
40대	259	25.4	56.6	82.0	17.1	0.9	18.0	100.0
50대	260	25.3	58.4	83.7	15.5	0.8	16.3	100.0
60대	233	30.1	54.0	84.1	12.5	3.4	15.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37.0	46.4	83.4	12.6	4.0	16.6	100.0
고졸	560	25.2	59.1	84.3	14.5	1.2	15.7	100.0
대재 이상	531	27.9	54.5	82.4	16.2	1.4	17.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43.4	49.2	92.7	3.7	3.7	7.3	100.0
자영업	333	26.9	56.4	83.3	14.0	2.7	16.7	100.0
블루 칼라	325	24.4	56.8	81.2	18.1	0.7	18.8	100.0
화이트 칼라	241	30.3	53.8	84.1	15.4	0.5	15.9	100.0
전업 주부	170	27.1	59.7	86.8	11.9	1.3	13.2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9.4	52.1	81.5	15.8	2.7	18.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37.7	48.7	86.4	12.2	1.4	13.6	100.0
200~299 만원	155	27.4	51.6	78.9	18.6	2.5	21.1	100.0
300~399 만원	374	25.1	59.6	84.8	14.9	0.3	15.2	100.0
400만원 이상	596	27.7	55.6	83.3	14.7	2.1	16.7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0.5	62.2	82.7	15.7	1.6	17.3	100.0
충청권	128	40.6	45.3	85.9	12.8	1.3	14.1	100.0
호남권	116	44.5	47.2	91.7	7.6	0.7	8.3	100.0
영남권	306	26.6	53.0	79.5	18.9	1.6	20.5	100.0
강원	35	38.6	49.0	87.7	8.3	4.0	12.3	100.0
제주	14	55.1	38.8	93.8	6.2	0.0	6.2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28.3	57.4	85.6	13.0	1.3	14.4	100.0
중/소도시	567	25.7	56.2	81.9	16.9	1.2	18.1	100.0
읍/면	90	34.0	45.4	79.4	15.5	5.0	20.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7.5	57.8	85.3	13.2	1.5	14.7	100.0
중도	577	28.1	56.2	84.3	14.6	1.2	15.7	100.0
보수적	212	25.9	51.5	77.3	20.0	2.6	22.7	100.0
종교								
불교	200	29.2	50.3	79.5	18.5	2.0	20.5	100.0
기독교	232	22.4	63.4	85.8	13.3	1.0	14.2	100.0
천주교	45	31.8	51.7	83.5	14.2	2.3	16.5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28.7	54.8	83.5	14.9	1.6	16.5	100.0
모름/무응답	33	21.5	65.4	86.9	13.1	0.0	13.1	100.0

표52-5.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지역갈등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4.3	46.9	61.2	35.7	3.1	38.8	100.0
성별								
남자	607	14.2	47.7	61.8	35.2	3.0	38.2	100.0
여자	594	14.5	46.1	60.6	36.2	3.2	39.4	100.0
연령별								
19~29세	226	14.3	42.4	56.8	39.6	3.6	43.2	100.0
30대	222	12.2	47.3	59.5	38.8	1.7	40.5	100.0
40대	259	11.3	51.1	62.5	34.2	3.4	37.5	100.0
50대	260	17.9	45.3	63.2	33.8	3.0	36.8	100.0
60대	233	15.7	47.9	63.5	32.8	3.7	36.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9.8	43.3	63.1	30.9	6.0	36.9	100.0
고졸	560	14.2	46.3	60.5	36.9	2.6	39.5	100.0
대재 이상	531	13.3	48.2	61.6	35.4	3.0	38.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5.1	47.6	72.7	23.6	3.7	27.3	100.0
자영업	333	12.8	48.5	61.3	36.0	2.7	38.7	100.0
블루 칼라	325	12.3	45.3	57.6	39.7	2.7	42.4	100.0
화이트 칼라	241	14.2	49.2	63.4	33.9	2.7	36.6	100.0
전업 주부	170	18.8	46.3	65.1	31.1	3.8	34.9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6.4	42.3	58.7	36.4	4.8	41.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2.6	45.2	67.7	29.6	2.7	32.3	100.0
200~299 만원	155	11.8	44.0	55.8	40.8	3.3	44.2	100.0
300~399 만원	374	12.3	46.2	58.5	40.0	1.5	41.5	100.0
400만원 이상	596	15.3	48.2	63.5	32.4	4.1	36.5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3.4	49.2	62.6	33.9	3.5	37.4	100.0
충청권	128	21.3	49.3	70.5	28.8	0.7	29.5	100.0
호남권	116	14.9	44.1	59.0	39.5	1.4	41.0	100.0
영남권	306	11.3	40.9	52.2	43.6	4.2	47.8	100.0
강원	35	28.7	48.0	76.7	21.3	2.1	23.3	100.0
제주	14	16.3	74.3	90.6	9.4	0.0	9.4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4.4	48.4	62.8	34.4	2.7	37.2	100.0
중/소도시	567	13.9	45.5	59.4	37.3	3.3	40.6	100.0
읍/면	90	16.5	46.3	62.8	33.0	4.2	37.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5.9	46.0	61.9	34.6	3.5	38.1	100.0
중도	577	13.6	46.1	59.7	37.3	3.0	40.3	100.0
보수적	212	13.4	50.8	64.1	33.3	2.6	35.9	100.0
종교								
불교	200	14.4	49.5	63.9	32.3	3.8	36.1	100.0
기독교	232	12.0	56.1	68.1	28.4	3.5	31.9	100.0
천주교	45	23.2	44.4	67.6	27.3	5.1	32.4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종교 없음	689	14.7	43.2	58.0	39.3	2.8	42.0	100.0
모름/무응답	33	10.7	48.1	58.8	41.2	0.0	41.2	100.0

표52-6.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㉕ 이념갈등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5.9	43.8	59.7	36.0	4.3	40.3	100.0
성별								
남자	607	17.0	41.4	58.4	37.3	4.3	41.6	100.0
여자	594	14.7	46.3	61.0	34.7	4.2	39.0	100.0
연령별								
19~29세	226	17.9	40.0	57.9	38.0	4.1	42.1	100.0
30대	222	13.4	44.4	57.7	39.1	3.1	42.3	100.0
40대	259	15.5	44.6	60.1	36.4	3.5	39.9	100.0
50대	260	15.7	44.8	60.5	34.8	4.7	39.5	100.0
60대	233	16.9	45.0	61.9	32.2	5.9	38.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9.7	43.5	63.2	29.7	7.2	36.8	100.0
고졸	560	14.5	41.8	56.3	39.4	4.3	43.7	100.0
대재 이상	531	16.6	46.0	62.6	33.8	3.6	37.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7.7	35.0	52.6	43.7	3.7	47.4	100.0
자영업	333	14.2	44.2	58.4	37.0	4.5	41.6	100.0
블루 칼라	325	12.5	40.9	53.5	42.0	4.5	46.5	100.0
화이트 칼라	241	18.3	48.3	66.6	30.4	3.0	33.4	100.0
전업 주부	170	18.1	47.6	65.7	30.0	4.3	34.3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1.7	37.4	59.1	35.4	5.4	40.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7.7	36.6	64.3	30.0	5.7	35.7	100.0
200~299 만원	155	13.6	42.9	56.6	37.9	5.6	43.4	100.0
300~399 만원	374	14.4	38.2	52.6	44.5	2.9	47.4	100.0
400만원 이상	596	15.9	48.4	64.3	31.1	4.6	35.7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5.7	44.2	59.8	35.7	4.5	40.2	100.0
충청권	128	22.4	43.9	66.3	31.2	2.5	33.7	100.0
호남권	116	12.8	43.0	55.8	42.3	2.0	44.2	100.0
영남권	306	13.6	42.9	56.5	37.7	5.8	43.5	100.0
강원	35	21.7	43.7	65.4	32.6	2.1	34.6	100.0
제주	14	26.5	55.0	81.4	15.5	3.1	18.6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6.0	46.5	62.4	34.4	3.2	37.6	100.0
중/소도시	567	16.0	41.4	57.4	37.4	5.2	42.6	100.0
읍/면	90	14.7	43.3	58.0	37.5	4.6	42.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7.8	41.0	58.8	36.4	4.8	41.2	100.0
중도	577	14.7	47.2	61.9	33.9	4.2	38.1	100.0
보수적	212	15.5	40.1	55.6	41.1	3.4	44.4	100.0
종교								
불교	200	15.1	44.9	60.1	33.6	6.3	39.9	100.0
기독교	232	13.1	50.1	63.2	32.7	4.1	36.8	100.0
천주교	45	18.8	42.5	61.3	31.5	7.2	38.7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종교 없음	689	17.0	41.6	58.7	37.6	3.7	41.3	100.0
모름/무응답	33	13.1	42.5	55.6	44.4	0.0	44.4	100.0

표52-7.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환경파괴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6.9	43.7	80.6	17.5	1.9	19.4	100.0	
성별	남자	607	35.7	44.0	79.6	18.0	2.3	20.4	100.0
	여자	594	38.1	43.5	81.6	16.9	1.5	18.4	100.0
연령별	19~29세	226	37.1	46.1	83.2	15.1	1.7	16.8	100.0
	30대	222	31.0	48.5	79.5	16.7	3.8	20.5	100.0
	40대	259	37.2	42.0	79.2	20.4	0.4	20.8	100.0
	50대	260	40.6	40.2	80.8	18.2	1.0	19.2	100.0
	60대	233	37.8	42.8	80.6	16.3	3.1	19.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47.3	31.6	78.9	16.5	4.7	21.1	100.0
	고졸	560	34.5	46.2	80.7	18.0	1.3	19.3	100.0
	대재 이상	531	37.2	43.7	80.9	17.1	2.0	19.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45.4	32.8	78.2	14.2	7.6	21.8	100.0
	자영업	333	35.9	43.4	79.2	19.3	1.4	20.8	100.0
	블루 칼라	325	33.9	46.2	80.2	18.2	1.6	19.8	100.0
	화이트 칼라	241	39.8	43.0	82.7	15.1	2.2	17.3	100.0
	전업 주부	170	36.5	43.1	79.6	18.2	2.1	20.4	100.0
	학생/군인/무직	109	41.2	42.4	83.6	14.0	2.4	16.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54.0	36.4	90.4	9.6	0.0	9.6	100.0
	200~299 만원	155	40.1	40.1	80.2	17.3	2.4	19.8	100.0
	300~399 만원	374	35.5	46.5	82.1	15.4	2.6	17.9	100.0
	400만원 이상	596	34.7	43.9	78.6	19.8	1.6	21.4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34.5	44.1	78.7	19.3	2.0	21.3	100.0
	충청권	128	51.9	29.4	81.3	17.3	1.4	18.7	100.0
	호남권	116	52.2	31.3	83.5	15.8	0.7	16.5	100.0
	영남권	306	26.3	54.8	81.1	16.6	2.3	18.9	100.0
	강원	35	59.4	32.2	91.6	6.4	2.0	8.4	100.0
	제주	14	48.5	48.0	96.5	0.0	3.5	3.5	100.0
	대도시	542	36.4	46.9	83.3	15.5	1.1	16.7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37.7	41.8	79.5	18.4	2.2	20.5	100.0
	읍/면	90	35.0	36.6	71.6	23.2	5.1	28.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39.3	42.2	81.5	16.5	2.0	18.5	100.0
	중도	577	36.7	44.3	81.1	17.1	1.8	18.9	100.0
	보수적	212	32.5	45.2	77.7	20.3	2.0	22.3	100.0
종교	불교	200	31.8	50.6	82.3	16.3	1.4	17.7	100.0
	기독교	232	37.8	43.6	81.4	17.3	1.3	18.6	100.0
	천주교	45	37.0	40.6	77.6	22.4	0.0	22.4	100.0
	기타	2	49.4	0.0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37.5	42.5	79.9	17.5	2.5	20.1	100.0
	모름/무응답	33	48.6	36.2	84.8	15.2	0.0	15.2	100.0

표52-8.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9.7	42.8	52.5	40.3	7.1	47.5	100.0	
성별	남자	607	10.5	43.3	53.8	39.5	6.7	46.2	100.0
	여자	594	8.8	42.4	51.2	41.3	7.5	48.8	100.0
연령별	19~29세	226	11.2	38.1	49.4	42.5	8.1	50.6	100.0
	30대	222	8.2	45.5	53.7	38.8	7.5	46.3	100.0
	40대	259	10.8	43.6	54.4	38.7	6.9	45.6	100.0
	50대	260	7.3	42.6	49.9	43.1	7.0	50.1	100.0
	60대	233	11.0	44.4	55.4	38.4	6.2	44.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5.9	39.3	55.2	37.0	7.8	44.8	100.0
	고졸	560	9.0	42.5	51.5	41.7	6.8	48.5	100.0
	대재 이상	531	9.2	43.9	53.1	39.6	7.3	46.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14.5	28.1	42.5	50.1	7.3	57.5	100.0
	자영업	333	8.1	43.1	51.2	42.6	6.2	48.8	100.0
	블루 칼라	325	9.6	40.1	49.7	42.0	8.3	50.3	100.0
	화이트 칼라	241	9.1	48.1	57.2	35.9	6.9	42.8	100.0
	전업 주부	170	12.4	46.6	59.0	35.3	5.7	41.0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1.0	35.7	46.7	44.3	9.0	53.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6.3	47.7	64.0	30.0	6.0	36.0	100.0
	200~299 만원	155	12.2	41.4	53.6	38.7	7.7	46.4	100.0
	300~399 만원	374	7.2	43.8	50.9	43.4	5.7	49.1	100.0
	400만원 이상	596	9.8	42.1	51.9	40.1	8.0	48.1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7.5	45.8	53.3	40.1	6.6	46.7	100.0
	충청권	128	12.9	40.9	53.8	39.0	7.2	46.2	100.0
	호남권	116	6.8	28.5	35.3	49.8	14.9	64.7	100.0
	영남권	306	12.2	43.4	55.5	38.6	5.9	44.5	100.0
	강원	35	17.3	40.5	57.8	40.2	2.1	42.2	100.0
	제주	14	23.8	48.3	72.2	24.7	3.1	27.8	100.0
	대도시	542	10.3	45.4	55.8	38.0	6.2	44.2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9.5	39.8	49.3	42.7	8.0	50.7	100.0
	읍/면	90	7.4	46.1	53.5	39.7	6.8	46.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9.5	41.6	51.1	40.5	8.4	48.9	100.0
	중도	577	9.3	44.6	53.8	39.9	6.2	46.2	100.0
	보수적	212	11.2	40.7	51.9	41.1	7.0	48.1	100.0
종교	불교	200	11.3	35.8	47.1	44.1	8.8	52.9	100.0
	기독교	232	9.7	46.7	56.4	37.1	6.6	43.6	100.0
	천주교	45	6.3	46.9	53.2	34.3	12.5	46.8	100.0
	기타	2	0.0	49.4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9.8	43.9	53.7	39.9	6.4	46.3	100.0
	모름/무응답	33	2.5	30.8	33.3	59.0	7.7	66.7	100.0

표52-9.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저출산/고령화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58.9	33.0	92.0	6.8	1.2	8.0	100.0	
성별	남자	607	58.6	32.2	90.8	7.6	1.6	9.2	100.0
	여자	594	59.3	33.8	93.1	6.1	0.8	6.9	100.0
연령별	19~29세	226	56.7	35.5	92.2	7.5	0.3	7.8	100.0
	30대	222	60.2	30.9	91.1	6.8	2.1	8.9	100.0
	40대	259	58.4	33.2	91.5	8.0	0.5	8.5	100.0
	50대	260	59.3	33.7	92.9	5.3	1.7	7.1	100.0
	60대	233	60.1	31.8	92.0	6.6	1.4	8.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63.2	29.2	92.4	5.7	1.9	7.6	100.0
	고졸	560	55.7	36.4	92.1	7.3	0.6	7.9	100.0
	대재 이상	531	61.5	30.3	91.8	6.5	1.7	8.2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64.6	21.0	85.5	10.8	3.7	14.5	100.0
	자영업	333	59.9	34.2	94.0	4.6	1.4	6.0	100.0
	블루 칼라	325	53.4	36.1	89.4	9.9	0.7	10.6	100.0
	화이트 칼라	241	66.1	25.2	91.3	6.4	2.3	8.7	100.0
	전업 주부	170	56.9	36.8	93.7	5.6	0.7	6.3	100.0
	학생/군인/무직	109	59.0	34.3	93.3	6.7	0.0	6.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66.4	30.6	97.0	3.0	0.0	3.0	100.0
	200~299 만원	155	63.9	22.5	86.4	11.0	2.6	13.6	100.0
	300~399 만원	374	59.5	32.2	91.7	7.4	0.9	8.3	100.0
	400만원 이상	596	56.4	36.5	93.0	5.8	1.2	7.0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51.5	39.8	91.3	6.9	1.8	8.7	100.0
	충청권	128	69.6	27.2	96.8	2.6	0.6	3.2	100.0
	호남권	116	62.2	26.2	88.4	10.9	0.7	11.6	100.0
	영남권	306	65.1	26.4	91.6	7.8	0.7	8.4	100.0
	강원	35	82.4	17.6	100.0	0.0	0.0	0.0	100.0
	제주	14	58.0	36.1	94.0	6.0	0.0	6.0	100.0
	대도시	542	61.1	31.4	92.4	6.4	1.2	7.6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58.9	33.4	92.3	7.1	0.5	7.7	100.0
	읍/면	90	46.1	40.7	86.8	7.6	5.6	13.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58.5	33.5	92.0	7.3	0.7	8.0	100.0
	중도	577	59.2	33.3	92.5	5.9	1.6	7.5	100.0
	보수적	212	59.1	31.5	90.5	8.4	1.0	9.5	100.0
종교	불교	200	62.1	30.8	92.9	6.7	0.4	7.1	100.0
	기독교	232	56.9	33.3	90.2	8.8	1.0	9.8	100.0
	천주교	45	62.2	30.0	92.3	4.9	2.8	7.7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58.6	33.8	92.3	6.2	1.5	7.7	100.0
	모름/무응답	33	54.8	35.3	90.1	9.9	0.0	9.9	100.0

표52-10.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㉕ 부정부패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4.1	55.7	89.8	9.4	0.8	10.2	100.0	
성별	남자	607	33.6	56.1	89.7	9.2	1.1	10.3	100.0
	여자	594	34.6	55.2	89.9	9.6	0.6	10.1	100.0
연령별	19~29세	226	39.2	51.9	91.1	8.5	0.4	8.9	100.0
	30대	222	37.5	52.9	90.4	9.6	0.0	9.6	100.0
	40대	259	32.9	57.2	90.1	9.4	0.5	9.9	100.0
	50대	260	30.7	58.9	89.7	9.4	1.0	10.3	100.0
	60대	233	31.0	56.6	87.6	10.1	2.3	12.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39.6	52.7	92.2	4.7	3.1	7.8	100.0
	고졸	560	31.0	57.5	88.5	10.9	0.6	11.5	100.0
	대재 이상	531	36.3	54.3	90.6	8.7	0.6	9.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3.6	52.0	85.5	6.8	7.6	14.5	100.0
	자영업	333	31.3	58.2	89.4	9.4	1.1	10.6	100.0
	블루 칼라	325	31.5	56.5	88.0	11.6	0.4	12.0	100.0
	화이트 칼라	241	39.6	51.1	90.7	8.4	0.9	9.3	100.0
	전업 주부	170	33.0	58.6	91.6	7.7	0.7	8.4	100.0
	학생/군인/무직	109	40.3	51.7	91.9	8.1	0.0	8.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39.3	54.2	93.6	5.3	1.1	6.4	100.0
	200~299 만원	155	38.7	48.4	87.0	12.5	0.5	13.0	100.0
	300~399 만원	374	32.5	58.4	90.9	8.8	0.3	9.1	100.0
	400만원 이상	596	33.4	56.1	89.4	9.4	1.2	10.6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31.4	59.9	91.3	7.4	1.2	8.7	100.0
	충청권	128	57.8	34.3	92.1	7.2	0.7	7.9	100.0
	호남권	116	31.5	57.7	89.2	10.1	0.7	10.8	100.0
	영남권	306	25.7	58.8	84.6	15.2	0.3	15.4	100.0
	강원	35	69.2	28.9	98.0	2.0	0.0	2.0	100.0
	제주	14	52.3	47.7	100.0	0.0	0.0	0.0	100.0
	대도시	542	31.1	61.5	92.6	6.8	0.6	7.4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39.3	48.1	87.4	12.2	0.4	12.6	100.0
	읍/면	90	19.6	68.1	87.7	7.1	5.1	12.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38.4	53.4	91.8	8.0	0.2	8.2	100.0
	중도	577	31.6	58.0	89.6	9.0	1.4	10.4	100.0
	보수적	212	32.6	53.7	86.3	13.1	0.6	13.7	100.0
종교	불교	200	32.9	57.2	90.2	9.2	0.6	9.8	100.0
	기독교	232	33.6	55.9	89.5	10.5	0.0	10.5	100.0
	천주교	45	29.8	54.0	83.8	13.4	2.8	16.2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35.2	55.1	90.4	8.5	1.1	9.6	100.0
	모름/무응답	33	27.1	57.3	84.3	15.7	0.0	15.7	100.0

표53. 한국의 경제 상황 만족도

문)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①+②	③ 다소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0.5	20.8	21.2	56.4	22.4	78.8	100.0
성별								
남자	607	0.6	21.7	22.3	55.5	22.2	77.7	100.0
여자	594	0.3	19.9	20.2	57.2	22.6	79.8	100.0
연령별								
19~29세	226	0.3	21.9	22.3	60.5	17.2	77.7	100.0
30대	222	0.9	16.7	17.7	59.6	22.7	82.3	100.0
40대	259	0.7	25.2	25.9	54.9	19.2	74.1	100.0
50대	260	0.4	21.6	22.0	54.7	23.4	78.0	100.0
60대	233	0.0	17.7	17.7	52.8	29.6	82.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0	20.2	20.2	53.2	26.5	79.8	100.0
고졸	560	0.2	20.6	20.7	55.6	23.6	79.3	100.0
대재 이상	531	0.9	21.1	22.0	57.8	20.2	78.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0.0	14.1	14.1	66.6	19.3	85.9	100.0
자영업	333	1.0	17.5	18.5	56.8	24.8	81.5	100.0
블루 칼라	325	0.2	25.3	25.6	53.5	21.0	74.4	100.0
화이트 칼라	241	0.7	17.7	18.4	62.0	19.6	81.6	100.0
전업 주부	170	0.0	22.7	22.7	51.7	25.6	77.3	100.0
학생/군인/무직	109	0.0	22.4	22.4	56.2	21.4	77.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0.0	14.0	14.0	57.1	28.9	86.0	100.0
200~299 만원	155	0.8	19.3	20.1	58.7	21.3	79.9	100.0
300~399 만원	374	0.2	21.6	21.8	53.9	24.3	78.2	100.0
400만원 이상	596	0.6	21.6	22.2	57.1	20.7	77.8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0.4	17.9	18.3	61.9	19.9	81.7	100.0
충청권	128	0.0	11.7	11.7	65.9	22.4	88.3	100.0
호남권	116	0.7	37.0	37.7	53.3	9.0	62.3	100.0
영남권	306	0.3	24.2	24.6	42.0	33.4	75.4	100.0
강원	35	4.5	23.8	28.2	52.4	19.3	71.8	100.0
제주	14	0.0	11.9	11.9	79.2	8.9	88.1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0.3	20.4	20.7	58.7	20.5	79.3	100.0
중/소도시	567	0.7	20.2	20.8	54.4	24.8	79.2	100.0
읍/면	90	0.0	26.9	26.9	54.3	18.8	73.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0.4	22.0	22.5	57.6	20.0	77.5	100.0
중도	577	0.5	22.1	22.6	55.8	21.6	77.4	100.0
보수적	212	0.3	14.9	15.3	55.4	29.3	84.7	100.0
종교								
불교	200	0.0	22.0	22.0	53.0	25.0	78.0	100.0
기독교	232	0.4	20.9	21.3	58.3	20.5	78.7	100.0
천주교	45	2.3	20.4	22.7	55.7	21.6	77.3	100.0
기타	2	0.0	0.0	0.0	49.4	50.6	100.0	100.0
종교 없음	689	0.4	20.5	20.9	56.9	22.2	79.1	100.0
모름/무응답	33	2.4	21.0	23.5	52.8	23.8	76.5	100.0

표54.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문)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자랑스럽다	② 다소 자랑스럽다	①+②	③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④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7.8	62.4	80.2	18.7	1.1	19.8	100.0
성별								
남자	607	18.6	59.3	77.9	21.2	1.0	22.1	100.0
여자	594	17.0	65.6	82.6	16.2	1.2	17.4	100.0
연령별								
19~29세	226	19.1	56.9	76.0	22.9	1.1	24.0	100.0
30대	222	16.6	55.7	72.4	26.3	1.3	27.6	100.0
40대	259	18.5	62.4	80.9	18.3	0.8	19.1	100.0
50대	260	16.5	67.6	84.1	14.1	1.8	15.9	100.0
60대	233	18.2	68.5	86.7	13.0	0.4	13.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3.8	70.1	83.9	15.4	0.8	16.1	100.0
고졸	560	19.5	62.6	82.1	17.3	0.6	17.9	100.0
대재 이상	531	16.8	60.7	77.5	20.9	1.6	22.5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1	60.3	62.4	30.1	7.4	37.6	100.0
자영업	333	16.7	65.9	82.6	17.1	0.3	17.4	100.0
블루 칼라	325	19.0	62.0	81.0	18.2	0.9	19.0	100.0
화이트 칼라	241	16.0	58.4	74.4	23.5	2.2	25.6	100.0
전업 주부	170	21.4	64.2	85.6	13.4	1.0	14.4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8.8	59.8	78.6	20.8	0.6	21.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2.8	74.2	87.0	11.9	1.1	13.0	100.0
200~299 만원	155	18.2	53.9	72.1	26.9	1.1	27.9	100.0
300~399 만원	374	21.2	61.0	82.1	16.8	1.0	17.9	100.0
400만원 이상	596	16.2	64.1	80.2	18.6	1.1	19.8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19.1	61.8	80.9	18.5	0.6	19.1	100.0
충청권	128	15.4	55.8	71.2	28.2	0.6	28.8	100.0
호남권	116	17.5	67.4	84.9	12.4	2.8	15.1	100.0
영남권	306	15.9	64.7	80.6	18.2	1.2	19.4	100.0
강원	35	19.6	58.4	78.0	17.3	4.6	22.0	100.0
제주	14	21.7	68.1	89.8	10.2	0.0	10.2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17.2	66.9	84.1	15.0	0.9	15.9	100.0
중/소도시	567	19.0	58.2	77.2	21.5	1.3	22.8	100.0
읍/면	90	13.6	62.0	75.6	23.5	0.9	24.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4.5	57.5	82.0	17.6	0.4	18.0	100.0
중도	577	12.8	65.7	78.5	20.1	1.5	21.5	100.0
보수적	212	18.3	63.0	81.3	17.3	1.3	18.7	100.0
종교								
불교	200	15.2	68.3	83.5	15.6	0.9	16.5	100.0
기독교	232	19.0	64.7	83.8	14.0	2.2	16.2	100.0
천주교	45	19.6	69.1	88.7	9.5	1.8	11.3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18.2	60.0	78.2	21.2	0.6	21.8	100.0
모름/무응답	33	10.5	53.2	63.7	33.8	2.5	36.3	100.0

표55. 남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문) 그림, 현재 남한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1	2	3	4	5	6	7	8	9	10	계	평균	
		%	%	%	%	%	%	%	%	%	%	%	점	
전 체	1200	0.2	1.1	1.7	2.4	10.3	20.2	32.2	24.6	5.9	1.5	100.0	6.8	
성별	남자	607	0.2	0.5	2.1	2.7	11.9	21.1	29.2	24.4	6.0	1.9	100.0	6.8
	여자	594	0.1	1.8	1.2	2.1	8.7	19.3	35.2	24.7	5.8	1.1	100.0	6.8
연령별	19~29세	226	0.0	1.1	0.8	4.4	8.0	17.0	31.7	28.2	7.8	1.1	100.0	6.9
	30대	222	0.0	1.1	3.0	2.8	11.4	18.2	36.0	21.3	4.8	1.4	100.0	6.7
	40대	259	0.3	0.8	1.0	1.0	11.7	21.5	30.6	25.9	6.2	1.0	100.0	6.8
	50대	260	0.0	1.3	2.4	1.5	11.3	19.0	31.5	25.6	5.2	2.2	100.0	6.8
	60대	233	0.5	1.2	1.2	2.7	8.9	25.1	31.3	21.6	5.6	1.7	100.0	6.7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0	0.7	0.8	1.7	10.8	18.2	34.9	24.5	6.6	1.7	100.0	6.9
	고졸	560	0.4	0.7	1.2	1.7	9.5	21.8	33.5	24.2	5.6	1.4	100.0	6.8
	대재 이상	531	0.0	1.6	2.3	3.3	11.0	19.0	30.2	25.0	6.0	1.6	100.0	6.7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0.0	0.0	7.4	0.0	14.7	30.8	25.4	14.6	7.1	0.0	100.0	6.4
	자영업	333	0.4	0.8	1.4	2.5	10.9	18.6	31.6	26.6	5.6	1.7	100.0	6.8
	블루 칼라	325	0.0	1.0	1.3	2.7	10.0	21.1	31.1	25.3	6.5	1.0	100.0	6.8
	화이트 칼라	241	0.3	1.1	3.4	1.6	13.7	19.3	33.1	21.0	5.0	1.5	100.0	6.6
	전업 주부	170	0.0	1.5	0.7	1.6	6.2	21.6	37.0	23.2	6.3	1.8	100.0	6.9
	학생/군인/무직	109	0.0	2.2	0.0	4.9	7.3	20.0	28.7	28.3	6.2	2.2	100.0	6.9
	200만원 미만	74	0.0	1.7	2.8	2.5	9.1	25.3	28.8	17.8	9.6	2.4	100.0	6.7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0.0	1.1	0.8	2.4	15.8	19.2	28.3	25.7	5.3	1.4	100.0	6.7
	300~399 만원	374	0.3	0.5	0.8	0.7	9.6	19.4	34.9	27.4	4.6	1.7	100.0	6.9
	400만원 이상	596	0.1	1.4	2.3	3.5	9.5	20.3	31.8	23.4	6.4	1.3	100.0	6.7
	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7.0
지역별	수도권	601	0.2	1.7	2.2	1.7	10.6	21.1	36.7	20.9	4.1	0.8	100.0	6.7
	충청권	128	0.6	1.5	2.0	5.8	10.1	22.0	31.2	24.3	1.9	0.6	100.0	6.5
	호남권	116	0.0	0.7	1.5	1.3	11.0	28.8	19.2	22.7	12.8	2.0	100.0	6.9
	영남권	306	0.0	0.3	0.2	2.5	8.9	14.4	29.0	34.2	7.8	2.7	100.0	7.2
	강원	35	0.0	0.0	4.6	4.2	11.4	17.0	32.4	13.2	12.5	4.6	100.0	6.8
	제주	14	0.0	0.0	0.0	7.1	19.0	29.3	21.3	17.3	6.1	0.0	100.0	6.4
	대도시	542	0.1	1.0	1.9	2.8	11.2	19.7	31.1	26.1	5.2	0.8	100.0	6.8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0.2	1.2	1.5	2.2	9.7	19.9	33.2	23.0	6.8	2.1	100.0	6.8
	읍/면	90	0.0	0.8	1.0	1.1	8.2	25.0	31.8	25.6	4.5	1.8	100.0	6.9
	진보적	411	0.2	1.5	2.2	0.4	6.6	20.3	34.7	24.5	7.9	1.7	100.0	6.9
정치적 성향	중도	577	0.0	0.8	1.4	3.5	13.0	19.4	32.2	24.4	4.1	1.2	100.0	6.7
	보수적	212	0.6	1.3	1.4	3.2	10.1	22.1	27.1	25.3	7.1	1.9	100.0	6.8
	불교	200	0.4	1.6	1.4	1.5	9.1	16.9	27.8	32.6	6.3	2.3	100.0	7.0
종교	기독교	232	0.0	1.1	0.3	2.0	12.7	22.5	33.9	19.4	6.4	1.6	100.0	6.8
	천주교	45	0.0	2.9	1.8	0.0	13.9	13.6	33.2	29.8	0.0	4.8	100.0	6.8
	기타	2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8.0
	종교 없음	689	0.2	0.9	2.2	2.7	9.5	21.0	33.3	23.4	5.8	1.1	100.0	6.8
	모름/무응답	33	0.0	0.0	0.0	9.0	13.6	18.1	22.9	25.6	10.8	0.0	100.0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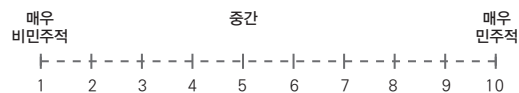


표56. 한반도 전쟁 가능성

문)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약간 있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2.7	32.2	34.9	55.0	10.1	65.1	
성별	남자	607	2.1	32.8	34.9	53.8	11.3	65.1
	여자	594	3.4	31.5	34.9	56.2	8.9	65.1
연령별	19~29세	226	3.7	35.5	39.2	52.1	8.7	60.8
	30대	222	1.8	30.9	32.6	57.7	9.6	67.4
	40대	259	1.6	32.4	34.0	59.2	6.8	66.0
	50대	260	2.3	31.0	33.4	52.6	14.0	66.6
	60대	233	4.5	31.1	35.7	53.2	11.2	64.3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2.0	31.7	33.7	54.4	12.0	66.3
	고졸	560	3.3	31.8	35.1	55.9	9.0	64.9
	대재 이상	531	2.3	32.7	35.0	54.2	10.8	65.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0.0	62.9	62.9	33.4	3.7	37.1
	자영업	333	2.9	34.0	36.9	50.5	12.6	63.1
	블루 칼라	325	2.0	27.7	29.8	59.9	10.3	70.2
	화이트 칼라	241	1.8	33.0	34.8	57.7	7.5	65.2
	전업 주부	170	3.6	32.2	35.8	54.8	9.4	64.2
	학생/군인/무직	109	5.6	31.8	37.4	52.7	9.9	62.6
	200만원 미만	74	4.6	34.1	38.7	56.7	4.6	61.3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55	1.9	34.3	36.3	53.9	9.8	63.7
	300~399 만원	374	2.2	31.1	33.3	54.7	12.0	66.7
	400만원 이상	596	3.1	31.9	35.0	55.3	9.6	65.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지역별	수도권	601	2.9	32.8	35.7	56.3	8.0	64.3
	충청권	128	7.3	45.1	52.4	40.4	7.2	47.6
	호남권	116	2.1	32.0	34.1	51.9	14.0	65.9
	영남권	306	0.0	23.2	23.2	62.6	14.3	76.8
	강원	35	8.7	45.7	54.4	37.3	8.3	45.6
	제주	14	6.2	49.8	56.0	37.7	6.3	44.0
	대도시	542	2.4	31.1	33.5	58.5	8.0	66.5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3.2	32.8	36.0	51.4	12.6	64.0
	읍/면	90	1.9	34.6	36.5	56.6	6.9	63.5
	진보적	411	2.9	28.7	31.6	58.2	10.2	68.4
정치적 성향	중도	577	1.9	35.0	36.8	53.6	9.5	63.2
	보수적	212	4.8	31.3	36.1	52.6	11.4	63.9
	불교	200	2.1	35.7	37.8	51.9	10.3	62.2
종교	기독교	232	3.0	34.7	37.7	53.4	8.9	62.3
	천주교	45	5.8	30.7	36.4	52.8	10.8	63.6
	기타	2	0.0	50.6	50.6	0.0	49.4	49.4
	종교 없음	689	2.7	30.1	32.8	56.5	10.8	67.2
	모름/무응답	33	2.5	37.3	39.8	60.2	0.0	60.2

표57.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문)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다소 관심이 있다	①+②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5.1	34.2	39.3	51.5	9.1	60.7	100.0	
성별	남자	607	7.2	40.7	47.9	44.8	7.4	52.1	100.0
	여자	594	3.0	27.6	30.6	58.5	11.0	69.4	100.0
연령별	19~29세	226	5.3	23.3	28.7	56.5	14.9	71.3	100.0
	30대	222	4.9	27.3	32.3	57.4	10.3	67.7	100.0
	40대	259	3.9	40.7	44.7	48.3	7.0	55.3	100.0
	50대	260	3.7	40.3	44.0	47.9	8.1	56.0	100.0
교육 수준별	60대	233	8.0	37.2	45.2	48.9	5.9	54.8	100.0
	중졸 이하	109	7.4	30.9	38.4	52.7	8.9	61.6	100.0
	고졸	560	4.2	35.2	39.5	54.8	5.7	60.5	100.0
직업별	대재 이상	531	5.6	33.8	39.4	47.8	12.8	60.6	100.0
	농/수/축산업	22	14.3	54.1	68.4	24.0	7.5	31.6	100.0
직업별	자영업	333	6.5	39.4	46.0	45.5	8.5	54.0	100.0
	블루 칼라	325	4.0	31.6	35.6	56.6	7.8	64.4	100.0
	화이트 칼라	241	4.4	35.0	39.4	47.8	12.8	60.6	100.0
	전업 주부	170	3.6	30.1	33.7	59.2	7.1	66.3	100.0
가구 소득 수준	학생/군인/무직	109	6.5	26.4	32.9	56.7	10.4	67.1	100.0
	200만원 미만	74	6.9	40.0	46.9	46.1	7.0	53.1	100.0
	200~299 만원	155	7.1	33.0	40.1	49.3	10.7	59.9	100.0
	300~399 만원	374	3.8	34.0	37.8	53.2	9.0	62.2	100.0
지역별	400만원 이상	596	5.3	33.8	39.1	51.8	9.1	60.9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4.9	34.0	38.9	54.1	7.1	61.1	100.0
	충청권	128	6.0	42.9	48.9	39.6	11.5	51.1	100.0
	호남권	116	8.3	32.8	41.1	55.0	3.9	58.9	100.0
	영남권	306	2.2	30.4	32.6	52.9	14.5	67.4	100.0
지역 크기별	강원	35	17.4	40.6	58.0	35.0	7.0	42.0	100.0
	제주	14	12.3	42.7	54.9	35.9	9.2	45.1	100.0
	대도시	542	3.6	35.5	39.1	54.5	6.4	60.9	100.0
정치적 성향	중/소도시	567	6.8	33.7	40.4	47.4	12.2	59.6	100.0
	읍/면	90	4.2	29.6	33.8	60.1	6.2	66.2	100.0
종교	진보적	411	8.1	41.6	49.7	43.7	6.6	50.3	100.0
	중도	577	1.8	28.2	29.9	58.8	11.2	70.1	100.0
	보수적	212	8.4	36.2	44.7	46.8	8.5	55.3	100.0
	불교	200	5.2	39.1	44.3	49.4	6.3	55.7	100.0
종교	기독교	232	4.3	36.7	41.0	51.1	7.9	59.0	100.0
	천주교	45	8.6	43.7	52.2	33.4	14.4	47.8	100.0
	기타	2	49.4	50.6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4.9	31.9	36.8	53.1	10.1	63.2	100.0
모름/무응답	33	8.4	20.1	28.5	62.0	9.5	71.5	100.0	

표58. 정치적 성향

문)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진보적	② 약간 진보적	①+②	③ 중도	④ 약간 보수적	⑤ 매우 보수적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3.4	30.8	34.3	48.1	15.3	2.3	17.7	100.0	
성별	남자	607	3.5	32.1	35.6	45.6	16.4	2.4	18.8	100.0
	여자	594	3.4	29.5	32.9	50.5	14.3	2.3	16.6	100.0
연령별	19~29세	226	6.6	40.4	47.0	45.4	6.4	1.2	7.6	100.0
	30대	222	1.8	44.6	46.4	45.8	6.1	1.7	7.7	100.0
	40대	259	3.4	32.3	35.8	51.3	11.3	1.7	12.9	100.0
	50대	260	3.3	21.7	25.0	54.1	19.6	1.2	20.8	100.0
교육 수준별	60대	233	2.1	16.8	18.9	42.5	32.6	6.0	38.6	100.0
	중졸 이하	109	1.5	16.6	18.2	44.0	32.9	4.9	37.9	100.0
	고졸	560	2.5	28.8	31.3	47.7	18.0	3.0	21.0	100.0
직업별	대재 이상	531	4.8	35.8	40.6	49.3	9.0	1.0	10.0	100.0
	농/수/축산업	22	5.3	27.3	32.5	39.8	20.1	7.5	27.6	100.0
직업별	자영업	333	3.6	24.2	27.8	47.3	20.8	4.1	25.0	100.0
	블루 칼라	325	2.8	32.8	35.6	48.0	15.3	1.0	16.4	100.0
	화이트 칼라	241	4.9	39.8	44.6	48.5	5.9	1.0	6.9	100.0
	전업 주부	170	2.2	23.5	25.7	50.8	21.0	2.5	23.5	100.0
가구 소득 수준	학생/군인/무직	109	3.3	37.6	41.0	47.2	9.7	2.2	11.8	100.0
	200만원 미만	74	2.7	17.0	19.7	48.6	26.4	5.3	31.7	100.0
	200~299 만원	155	3.3	24.0	27.2	41.0	26.8	5.0	31.8	100.0
	300~399 만원	374	3.8	28.5	32.4	50.2	14.2	3.2	17.4	100.0
지역별	400만원 이상	596	3.3	35.8	39.1	48.4	11.7	0.7	12.4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3.8	34.6	38.4	44.6	15.0	2.1	17.0	100.0
	충청권	128	2.7	27.4	30.1	55.7	12.8	1.4	14.2	100.0
	호남권	116	5.8	33.0	38.8	50.6	8.5	2.1	10.6	100.0
	영남권	306	1.6	23.9	25.6	51.6	19.9	3.0	22.9	100.0
지역 크기별	강원	35	6.6	32.2	38.8	37.5	17.4	6.3	23.7	100.0
	제주	14	9.2	28.4	37.6	56.1	6.3	0.0	6.3	100.0
	대도시	542	2.3	31.1	33.3	48.5	16.3	1.9	18.2	100.0
정치적 성향	중/소도시	567	4.3	32.1	36.4	47.2	13.7	2.6	16.4	100.0
	읍/면	90	5.2	21.0	26.2	50.8	19.8	3.2	22.9	100.0
종교	진보적	411	10.1	89.9	100.0	0.0	0.0	0.0	0.0	100.0
	중도	577	0.0	0.0	0.0	100.0	0.0	0.0	0.0	100.0
	보수적	212	0.0	0.0	0.0	0.0	86.9	13.1	100.0	100.0
	불교	200	1.6	22.5	24.1	48.2	24.6	3.1	27.7	100.0
종교	기독교	232	3.2	35.0	38.2	40.0	19.2	2.5	21.8	100.0
	천주교	45	4.1	25.6	29.7	54.7	10.1	5.5	15.5	100.0
	기타	2	49.4	0.0	49.4	50.6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3.9	32.3	36.2	49.8	12.1	1.9	14.0	100.0
모름/무응답	33	4.6	28.9	33.6	58.2	8.2	0.0	8.2	100.0	

표59. 지지정당

문) ○○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사례수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기타 정당	지지 정당 없음	계	
		%	%	%	%	%	%	%		
전 체	1200	38.3	9.4	2.1	1.1	2.9	1.4	44.7	100.0	
성별	남자	607	38.3	10.1	2.1	1.4	2.7	1.8	43.6	100.0
	여자	594	38.4	8.7	2.2	0.8	3.1	1.0	45.8	100.0
연령별	19~29세	226	35.8	3.7	1.1	0.5	3.4	1.5	54.0	100.0
	30대	222	44.1	4.4	1.3	1.4	2.0	1.7	45.1	100.0
	40대	259	37.9	6.9	4.4	1.4	2.9	1.4	45.1	100.0
	50대	260	39.3	10.8	1.6	1.8	4.8	1.6	40.1	100.0
	60대	233	34.8	21.0	2.0	0.4	1.3	0.5	39.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37.6	18.0	2.8	0.9	2.9	0.0	37.9	100.0
	고졸	560	38.2	12.1	2.0	1.2	3.6	1.9	41.1	100.0
	대재 이상	531	38.6	4.9	2.1	1.1	2.3	1.1	49.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45.3	0.0	0.0	3.5	7.0	0.0	44.2	100.0
	자영업	333	34.9	11.5	3.8	0.6	2.8	1.8	44.6	100.0
	블루 칼라	325	38.2	10.6	2.0	0.9	2.9	1.5	43.8	100.0
	화이트 칼라	241	43.8	3.7	0.4	1.6	3.2	1.9	45.4	100.0
	전업 주부	170	35.6	14.9	2.4	1.7	2.3	0.0	43.0	100.0
	학생/군인/무직	109	39.7	5.6	1.1	0.9	3.1	0.9	48.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9.7	19.6	1.1	0.0	1.4	0.0	48.1	100.0
	200~299 만원	155	39.4	13.0	2.4	1.3	3.3	0.8	39.8	100.0
	300~399 만원	374	38.6	11.6	3.1	1.2	2.9	2.5	40.0	100.0
	400만원 이상	596	38.9	5.8	1.6	1.1	3.1	1.0	48.5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39.8	9.1	2.9	0.0	2.5	2.4	43.3	100.0
	충청권	128	35.1	3.4	0.8	0.0	2.8	1.4	56.7	100.0
	호남권	116	64.5	0.0	0.7	1.4	6.2	0.0	27.2	100.0
	영남권	306	25.9	16.2	1.9	3.9	1.9	0.0	50.2	100.0
	강원	35	41.0	11.0	2.4	0.0	10.6	0.0	35.0	100.0
	제주	14	52.3	3.1	0.0	0.0	0.0	0.0	44.6	100.0
	대도시	542	37.0	10.3	2.3	1.8	1.7	1.8	45.1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38.3	8.7	2.2	0.6	3.7	1.2	45.3	100.0
	읍/면	90	46.6	8.9	1.1	0.0	5.4	0.0	38.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63.8	3.3	0.6	0.5	4.5	1.5	25.9	100.0
	중도	577	27.7	4.0	3.6	1.8	2.7	0.9	59.3	100.0
	보수적	212	18.0	36.1	1.2	0.4	0.7	2.3	41.3	100.0
종교	불교	200	37.6	15.3	1.5	2.9	3.6	1.1	37.9	100.0
	기독교	232	38.9	9.7	2.2	0.8	2.6	1.1	44.8	100.0
	천주교	45	34.7	9.7	5.0	0.0	1.5	0.0	49.0	100.0
	기타	2	49.4	0.0	0.0	0.0	0.0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39.4	7.9	2.0	0.9	3.0	1.7	45.1	100.0
	모름/무응답	33	21.0	3.1	3.7	0.0	2.1	0.0	70.0	100.0

표60. 현 대통령 직무 평가

문) ○○님은 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	①+②	③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④ 매우 잘못하고 있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12.0	61.0	73.0	23.8	3.2	27.0	100.0	
성별	남자	607	12.3	60.3	72.6	24.2	3.2	27.4	100.0
	여자	594	11.7	61.7	73.5	23.4	3.2	26.5	100.0
연령별	19~29세	226	11.4	64.8	76.2	22.9	0.9	23.8	100.0
	30대	222	13.8	63.6	77.4	21.7	0.9	22.6	100.0
	40대	259	11.7	64.5	76.2	20.9	2.9	23.8	100.0
	50대	260	11.3	60.5	71.9	25.7	2.4	28.1	100.0
	60대	233	12.0	51.5	63.5	27.6	8.8	36.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4.0	53.3	67.3	26.7	6.0	32.7	100.0
	고졸	560	8.7	58.3	67.0	29.1	4.0	33.0	100.0
	대재 이상	531	15.2	65.4	80.6	17.6	1.8	19.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5.3	57.0	62.2	21.9	15.8	37.8	100.0
	자영업	333	11.1	59.2	70.3	26.2	3.5	29.7	100.0
	블루 칼라	325	9.7	60.5	70.2	26.7	3.1	29.8	100.0
	화이트 칼라	241	13.6	67.6	81.2	17.6	1.2	18.8	100.0
	전업 주부	170	16.3	54.1	70.4	25.8	3.8	29.6	100.0
	학생/군인/무직	109	13.1	65.1	78.1	18.6	3.3	21.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1.4	52.9	64.3	29.8	5.9	35.7	100.0
	200~299 만원	155	19.8	54.1	73.8	22.9	3.3	26.2	100.0
	300~399 만원	374	11.1	57.1	68.1	27.7	4.2	31.9	100.0
	400만원 이상	596	10.7	66.2	76.9	20.9	2.2	23.1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8.0	63.4	71.4	25.9	2.7	28.6	100.0
	충청권	128	14.1	66.4	80.5	17.5	2.0	19.5	100.0
	호남권	116	32.8	62.3	95.2	4.8	0.0	4.8	100.0
	영남권	306	8.6	54.2	62.8	31.8	5.4	37.2	100.0
	강원	35	28.4	54.3	82.7	9.1	8.3	17.3	100.0
	제주	14	25.0	65.6	90.6	9.4	0.0	9.4	100.0
	대도시	542	11.3	61.0	72.3	24.8	2.9	27.7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10.9	62.8	73.7	23.5	2.8	26.3	100.0
	읍/면	90	23.3	49.4	72.7	19.9	7.4	27.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8.9	68.6	87.5	12.5	0.0	12.5	100.0
	중도	577	8.8	65.6	74.4	23.2	2.4	25.6	100.0
	보수적	212	7.5	33.7	41.2	47.2	11.6	58.8	100.0
종교	불교	200	16.7	53.6	70.3	26.9	2.8	29.7	100.0
	기독교	232	11.1	64.3	75.4	22.0	2.6	24.6	100.0
	천주교	45	18.0	60.9	78.9	21.1	0.0	21.1	100.0
	기타	2	49.4	0.0	49.4	50.6	0.0	50.6	100.0
	종교 없음	689	10.3	62.0	72.3	23.8	3.9	27.7	100.0
	모름/무응답	33	15.9	65.6	81.5	18.5	0.0	18.5	100.0

표61. 매체 이용 경로

문) ○○님은 뉴스나 정보를 얻기 위해 다음 중 어느 매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사례수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계	
		%	%	%	%	%	
전 체	1200	58.7	1.4	0.8	39.1	100.0	
성별	남자	607	55.3	1.8	1.0	42.0	100.0
	여자	594	62.3	1.0	0.6	36.1	100.0
연령별	19~29세	226	22.5	0.3	0.0	77.1	100.0
	30대	222	34.1	1.3	0.8	63.8	100.0
	40대	259	59.6	0.8	0.8	38.9	100.0
	50대	260	79.2	2.3	1.6	16.8	100.0
	60대	233	93.4	2.2	0.5	3.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93.0	1.6	2.0	3.4	100.0
	고졸	560	76.5	1.2	0.8	21.5	100.0
	대재 이상	531	33.0	1.6	0.5	64.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79.2	11.6	6.8	2.3	100.0
	자영업	333	76.0	1.8	0.6	21.6	100.0
	블루 칼라	325	62.4	0.6	0.7	36.3	100.0
	화이트 칼라	241	31.5	0.5	1.4	66.5	100.0
	전업 주부	170	75.2	2.3	0.0	22.6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5.6	1.0	0.0	73.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88.4	2.3	1.7	7.6	100.0
	200~299 만원	155	64.9	0.6	2.5	32.1	100.0
	300~399 만원	374	63.4	2.0	0.8	33.8	100.0
	400만원 이상	596	50.6	1.1	0.2	48.1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58.4	1.0	0.8	39.8	100.0
	충청권	128	48.9	1.4	0.8	49.0	100.0
	호남권	116	71.5	0.0	1.3	27.2	100.0
	영남권	306	61.3	0.9	0.6	37.2	100.0
	강원	35	39.9	13.1	0.0	47.0	100.0
	제주	14	51.3	9.4	0.0	39.3	100.0
	대도시	542	61.3	0.5	0.2	38.0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56.4	2.5	1.4	39.7	100.0
	읍/면	90	57.9	0.0	0.0	42.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45.8	0.3	0.5	53.3	100.0
	중도	577	63.1	1.1	0.9	34.9	100.0
	보수적	212	72.0	4.3	0.8	22.9	100.0
종교	불교	200	77.2	2.8	1.1	18.8	100.0
	기독교	232	54.9	0.8	1.5	42.8	100.0
	천주교	45	63.9	1.9	0.0	34.2	100.0
	기타	2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54.7	1.1	0.5	43.7	100.0
	모름/무응답	33	47.7	3.8	0.0	48.5	100.0

표62. 매체 이용 횟수

문) ○○님은 뉴스나 정보를 얻기 위해 위에서 응답하신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사례수	하루에 한 번 이상	일주일에 5-6번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1-2번	한 달에 한두 번 이하	계	
		%	%	%	%	%	%	
전 체	1200	67.6	17.3	10.7	3.1	1.2	100.0	
성별	남자	607	71.3	16.6	8.8	2.0	1.3	100.0
	여자	594	63.9	18.0	12.6	4.3	1.2	100.0
연령별	19~29세	226	61.9	13.3	18.1	5.1	1.6	100.0
	30대	222	65.7	17.2	12.6	3.7	0.7	100.0
	40대	259	63.1	22.4	9.7	4.0	0.8	100.0
	50대	260	72.2	17.0	7.5	1.7	1.6	100.0
	60대	233	75.0	15.9	6.4	1.2	1.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74.9	13.6	5.8	2.7	3.0	100.0
	고졸	560	67.6	19.9	9.6	2.5	0.4	100.0
	대재 이상	531	66.2	15.3	12.8	3.8	1.8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63.3	8.0	21.6	3.4	3.8	100.0
	자영업	333	73.5	17.3	8.0	0.4	0.8	100.0
	블루 칼라	325	60.2	22.4	11.7	4.7	1.0	100.0
	화이트 칼라	241	67.9	14.8	11.9	4.5	1.0	100.0
	전업 주부	170	70.7	15.5	8.9	2.6	2.3	100.0
	학생/군인/무직	109	67.4	12.4	13.9	4.5	1.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67.7	15.6	7.9	5.5	3.2	100.0
	200~299 만원	155	67.8	14.2	6.7	8.1	3.2	100.0
	300~399 만원	374	67.2	15.9	13.4	3.1	0.4	100.0
	400만원 이상	596	67.8	19.2	10.4	1.6	1.0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62.6	21.1	12.7	3.1	0.4	100.0
	충청권	128	76.6	6.8	8.2	5.2	3.2	100.0
	호남권	116	70.7	16.8	8.4	1.3	2.7	100.0
	영남권	306	72.8	15.6	8.3	3.0	0.3	100.0
	강원	35	63.0	8.9	14.5	2.0	11.7	100.0
	제주	14	74.6	12.1	10.3	3.1	0.0	100.0
	대도시	542	71.0	17.0	8.9	2.9	0.1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7	65.5	17.1	11.8	3.0	2.5	100.0
	읍/면	90	60.9	19.8	14.2	5.1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63.6	19.0	14.3	2.5	0.6	100.0
	중도	577	67.7	17.2	9.8	3.6	1.8	100.0
	보수적	212	75.4	14.3	6.2	3.0	1.1	100.0
종교	불교	200	73.7	13.0	10.3	2.6	0.4	100.0
	기독교	232	65.9	17.8	12.3	3.1	0.9	100.0
	천주교	45	45.3	31.9	12.7	6.3	3.7	100.0
	기타	2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68.1	17.3	10.2	3.2	1.2	100.0
	모름/무응답	33	62.9	21.4	9.3	0.0	6.4	100.0

표63. 소셜미디어 이용 횟수

문) ○○님은 뉴스나 정보를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SNS, 블로그, 인터넷 댓글 등 소셜 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사례수	하루에 한 번 이상	일주일에 5-6번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1-2번	한 달에 한두 번 이하 (또는 이용 안함)	계
		%	%	%	%	%	%
전 체	1200	24.3	7.4	12.1	15.9	40.3	100.0
성별							
남자	607	24.1	7.5	14.9	15.9	37.6	100.0
여자	594	24.5	7.4	9.2	15.9	43.0	100.0
연령별							
19~29세	226	39.5	11.8	17.1	16.7	14.9	100.0
30대	222	37.2	5.9	16.7	19.8	20.5	100.0
40대	259	22.2	9.4	10.6	21.7	36.2	100.0
50대	260	15.1	5.3	12.1	15.2	52.2	100.0
60대	233	10.0	4.8	4.4	5.8	74.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10.5	3.7	3.0	1.7	81.0	100.0
고졸	560	14.5	6.0	11.7	18.0	49.7	100.0
대재 이상	531	37.5	9.7	14.3	16.6	22.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3	4.1	9.7	11.2	72.8	100.0
자영업	333	20.6	6.1	10.2	14.8	48.3	100.0
블루 칼라	325	18.0	6.7	17.0	19.4	38.9	100.0
화이트 칼라	241	35.7	9.9	11.6	17.9	24.8	100.0
전업 주부	170	18.0	5.3	6.4	12.2	58.0	100.0
학생/군인/무직	109	43.6	12.3	13.3	11.1	19.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9.4	8.5	5.1	2.3	74.7	100.0
200~299 만원	155	17.7	7.7	6.9	5.8	61.9	100.0
300~399 만원	374	21.2	6.3	12.9	21.4	38.2	100.0
400만원 이상	596	29.8	8.0	13.8	16.8	31.7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0.1	8.1	16.1	21.7	34.0	100.0
충청권	128	37.5	8.1	6.8	10.0	37.6	100.0
호남권	116	21.0	4.5	5.0	13.9	55.6	100.0
영남권	306	26.4	8.0	9.0	8.9	47.7	100.0
강원	35	35.4	0.0	12.7	11.0	40.9	100.0
제주	14	40.7	3.1	12.7	3.8	39.8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22.9	6.3	11.7	16.8	42.4	100.0
중/소도시	567	26.1	7.3	12.8	16.3	37.5	100.0
읍/면	90	21.5	15.6	10.0	8.0	44.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7.9	9.1	14.1	16.0	33.0	100.0
중도	577	24.8	7.7	12.9	16.1	38.5	100.0
보수적	212	16.0	3.7	5.9	15.2	59.1	100.0
종교							
불교	200	16.5	4.2	9.0	8.9	61.5	100.0
기독교	232	23.4	8.9	12.7	19.1	35.8	100.0
천주교	45	29.5	8.3	15.4	12.5	34.4	100.0
기타	2	0.0	0.0	0.0	0.0	100.0	100.0
종교 없음	689	26.4	7.9	12.5	17.3	35.9	100.0
모름/무응답	33	28.4	7.1	13.3	12.2	39.0	100.0

표64. 결혼 여부

문) ○○님은 결혼하셨습니다?

	사례수	미혼	기혼	이혼/별거	사별	계
		%	%	%	%	%
전 체	1200	27.1	70.6	1.8	0.6	100.0
성별						
남자	607	31.2	67.4	1.2	0.2	100.0
여자	594	22.9	73.8	2.3	1.0	100.0
연령별						
19~29세	226	93.4	5.4	0.8	0.4	100.0
30대	222	35.9	63.4	0.7	0.0	100.0
40대	259	11.0	87.5	0.9	0.6	100.0
50대	260	1.4	94.8	3.5	0.3	100.0
60대	233	0.9	94.7	2.9	1.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9	90.1	4.8	4.2	100.0
고졸	560	14.7	82.6	2.4	0.3	100.0
대재 이상	531	45.5	53.9	0.5	0.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0.0	96.8	3.2	0.0	100.0
자영업	333	11.7	86.0	2.1	0.3	100.0
블루 칼라	325	31.5	66.2	2.1	0.2	100.0
화이트 칼라	241	38.1	60.6	1.1	0.3	100.0
전업 주부	170	0.0	96.2	2.2	1.6	100.0
학생/군인/무직	109	84.2	13.4	0.7	1.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10.4	77.4	8.5	3.8	100.0
200~299 만원	155	28.8	67.0	4.2	0.0	100.0
300~399 만원	374	19.3	79.2	1.0	0.4	100.0
400만원 이상	596	33.6	65.2	0.8	0.4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8.5	69.9	1.6	0.0	100.0
충청권	128	31.0	65.7	3.3	0.0	100.0
호남권	116	22.6	71.4	4.0	2.1	100.0
영남권	306	24.4	73.7	0.6	1.2	100.0
강원	35	22.1	75.9	0.0	2.0	100.0
제주	14	38.6	54.3	7.0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27.0	71.0	1.7	0.2	100.0
중/소도시	567	27.9	69.5	1.8	0.8	100.0
읍/면	90	22.1	74.3	1.8	1.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35.6	63.2	0.8	0.4	100.0
중도	577	26.4	71.1	1.9	0.6	100.0
보수적	212	12.5	83.5	3.2	0.8	100.0
종교						
불교	200	7.0	90.1	1.6	1.4	100.0
기독교	232	27.2	70.6	2.2	0.0	100.0
천주교	45	11.2	84.9	3.8	0.0	100.0
기타	2	0.0	10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33.6	64.3	1.6	0.5	100.0
모름/무응답	33	34.4	61.3	2.2	2.1	100.0

표65. 가구 소득 계층

문)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 댁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중간 보다 훨씬 높다	중간 보다 약간 높다	%	중간과 비슷 하다	중간 보다 약간 낮다	중간 보다 훨씬 낮다	%	%
전 체	1200	0.5	5.4	5.9	49.0	40.1	5.0	45.1	100.0
성별									
남자	607	0.6	4.9	5.5	47.1	42.2	5.2	47.4	100.0
여자	594	0.5	5.8	6.3	50.9	37.9	4.8	42.7	100.0
연령별									
19~29세	226	0.0	6.9	6.9	58.7	31.8	2.6	34.4	100.0
30대	222	0.9	4.9	5.8	51.6	40.7	1.9	42.6	100.0
40대	259	0.7	2.5	3.3	51.2	41.9	3.6	45.6	100.0
50대	260	0.7	8.1	8.8	47.4	41.0	2.7	43.8	100.0
60대	233	0.3	4.4	4.8	36.3	44.4	14.5	58.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9	2.7	3.6	31.9	43.6	20.9	64.5	100.0
고졸	560	0.6	3.2	3.9	42.3	48.6	5.3	53.9	100.0
대재 이상	531	0.4	8.1	8.5	59.6	30.4	1.5	31.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0.0	6.1	6.1	29.4	41.5	23.0	64.5	100.0
자영업	333	0.5	5.8	6.4	48.5	41.5	3.6	45.1	100.0
블루 칼라	325	0.8	3.7	4.5	40.6	50.5	4.3	54.9	100.0
화이트 칼라	241	0.2	7.7	7.9	61.4	28.1	2.6	30.7	100.0
전업 주부	170	0.5	4.2	4.6	44.0	40.5	10.9	51.3	100.0
학생/군인/무직	109	0.8	5.3	6.1	59.7	30.1	4.1	34.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0.0	0.0	0.0	21.5	46.5	32.0	78.5	100.0
200~299 만원	155	1.1	2.1	3.2	32.7	52.5	11.6	64.1	100.0
300~399 만원	374	0.6	2.2	2.8	43.2	50.4	3.5	53.9	100.0
400만원 이상	596	0.4	8.7	9.1	60.3	29.6	0.9	30.5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0.0	5.3	5.3	48.3	43.3	3.0	46.3	100.0
충청권	128	0.6	4.7	5.3	54.5	34.1	6.1	40.2	100.0
호남권	116	0.7	4.0	4.7	50.9	37.5	6.9	44.4	100.0
영남권	306	1.2	4.1	5.3	45.8	40.6	8.3	48.9	100.0
강원	35	2.3	21.9	24.1	52.2	21.4	2.3	23.7	100.0
제주	14	3.0	9.4	12.4	71.0	13.4	3.3	16.6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0.1	3.7	3.9	49.5	41.9	4.7	46.6	100.0
중/소도시	567	0.7	7.1	7.8	48.5	38.9	4.8	43.7	100.0
읍/면	90	2.0	4.2	6.2	49.0	36.7	8.2	44.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0.7	6.9	7.6	50.7	39.2	2.5	41.7	100.0
중도	577	0.5	4.5	5.0	50.0	40.3	4.8	45.1	100.0
보수적	212	0.4	4.8	5.1	42.9	41.2	10.8	51.9	100.0
종교									
불교	200	0.4	4.6	5.0	49.6	36.1	9.4	45.4	100.0
기독교	232	0.3	5.9	6.3	53.6	36.3	3.8	40.1	100.0
천주교	45	0.0	10.2	10.2	52.5	33.1	4.2	37.3	100.0
기타	2	0.0	0.0	0.0	50.6	0.0	49.4	49.4	100.0
종교 없음	689	0.6	5.4	5.9	47.2	42.6	4.2	46.9	100.0
모름/무응답	33	2.5	0.0	2.5	44.7	49.7	3.1	52.8	100.0

표66. 사회 계층

문) ○○님은 자신이 한국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⑤	⑥	⑤+⑥	계
		상위 상	상위 하	%	중위 상	중위 하	%	%	하위 상	하위 하	%
전 체	1200	0.2	1.1	1.3	21.9	56.5	78.3	17.7	2.7	20.4	100.0
성별											
남자	607	0.1	1.3	1.4	20.8	55.6	76.4	20.0	2.3	22.2	100.0
여자	594	0.2	0.9	1.2	22.9	57.4	80.3	15.5	3.0	18.5	100.0
연령별											
19~29세	226	0.0	1.5	1.5	28.3	56.8	85.1	11.6	1.8	13.4	100.0
30대	222	0.2	0.6	0.8	19.3	63.6	82.9	14.5	1.9	16.4	100.0
40대	259	0.0	0.8	0.8	19.9	59.0	78.9	18.5	1.7	20.2	100.0
50대	260	0.3	1.2	1.5	25.4	57.1	82.5	14.6	1.3	16.0	100.0
60대	233	0.4	1.4	1.8	16.3	45.8	62.0	29.4	6.8	36.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0.9	0.0	0.9	15.1	33.7	48.9	39.2	11.0	50.2	100.0
고졸	560	0.2	0.0	0.2	17.7	59.9	77.6	20.4	1.8	22.2	100.0
대재 이상	531	0.1	2.5	2.5	27.6	57.5	85.1	10.5	1.8	12.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0.0	0.0	0.0	14.9	51.3	66.2	30.6	3.2	33.8	100.0
자영업	333	0.0	0.9	0.9	21.5	58.2	79.7	17.8	1.7	19.5	100.0
블루 칼라	325	0.0	1.6	1.6	17.7	56.7	74.4	21.7	2.4	24.0	100.0
화이트 칼라	241	0.2	0.8	1.0	27.4	57.7	85.1	12.3	1.7	14.0	100.0
전업 주부	170	0.6	1.9	2.5	17.0	53.8	70.8	20.6	6.1	26.7	100.0
학생/군인/무직	109	0.8	0.0	0.8	32.2	52.9	85.2	10.9	3.1	14.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0.0	0.0	0.0	6.5	31.0	37.5	45.6	16.8	62.5	100.0
200~299 만원	155	0.7	0.0	0.7	12.2	51.3	63.5	31.5	4.4	35.8	100.0
300~399 만원	374	0.1	0.0	0.1	16.2	61.8	78.0	20.1	1.8	21.9	100.0
400만원 이상	596	0.2	2.2	2.3	29.7	57.7	87.4	9.2	1.0	10.2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0.0	0.8	0.8	20.4	61.4	81.8	16.8	0.6	17.4	100.0
충청권	128	0.0	0.8	0.8	25.3	57.8	83.1	12.3	3.8	16.2	100.0
호남권	116	0.0	0.7	0.7	26.5	45.4	71.9	23.4	4.0	27.4	100.0
영남권	306	0.6	1.3	1.9	19.3	52.0	71.3	21.3	5.4	26.7	100.0
강원	35	0.0	6.9	6.9	38.9	40.8	79.7	8.7	4.7	13.4	100.0
제주	14	3.0	0.0	3.0	27.6	60.1	87.7	6.1	3.3	9.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0.2	0.9	1.1	21.2	58.4	79.6	17.0	2.3	19.3	100.0
중/소도시	567	0.2	1.3	1.5	22.8	55.2	78.0	17.6	2.8	20.5	100.0
읍/면	90	0.0	0.9	0.9	19.6	53.0	72.6	23.2	3.4	26.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0.3	1.2	1.5	26.6	54.8	81.4	14.7	2.3	17.0	100.0
중도	577	0.2	1.1	1.3	20.2	56.7	76.9	18.7	3.1	21.8	100.0
보수적	212	0.0	0.9	0.9	17.2	58.9	76.1	21.0	2.0	23.1	100.0
종교											
불교	200	0.0	1.6	1.6	19.5	55.3	74.8	17.6	6.0	23.7	100.0
기독교	232	0.0	1.6	1.6	22.2	60.4	82.6	15.1	0.7	15.8	100.0
천주교	45	0.0	1.9	1.9	36.6	44.6	81.2	14.9	2.0	16.9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0.3	0.6	1.0	21.9	56.6	78.6	18.6	1.8	20.5	100.0
모름/무응답	33	0.0	3.9	3.9	12.5	45.7	58.2	23.5	14.3	37.9	100.0

표67. 생활 수준 개선도

문)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훨씬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①+②	③ 차이가 거의 없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훨씬 나빠졌다	④+⑤	잘 모르겠다	계
		%	%	%	%	%	%	%	%	%
전 체	1200	23.1	43.6	66.8	22.4	7.1	2.0	9.1	1.7	100.0
성별										
남자	607	19.8	46.5	66.3	21.9	8.1	2.7	10.8	1.1	100.0
여자	594	26.6	40.7	67.3	22.8	6.1	1.3	7.5	2.4	100.0
연령별										
19~29세	226	23.8	44.1	67.8	22.4	5.5	0.9	6.4	3.4	100.0
30대	222	17.6	51.1	68.7	20.5	8.6	1.1	9.7	1.1	100.0
40대	259	24.7	39.9	64.7	23.2	8.6	2.0	10.6	1.5	100.0
50대	260	25.2	43.8	68.9	23.1	5.7	0.9	6.6	1.3	100.0
60대	233	23.8	40.0	63.9	22.3	7.1	5.2	12.3	1.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25.2	36.4	61.6	22.1	9.1	5.4	14.5	1.7	100.0
고졸	560	21.7	42.7	64.4	24.5	7.1	1.9	9.0	2.1	100.0
대재 이상	531	24.3	46.1	70.3	20.2	6.7	1.5	8.2	1.3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26.3	36.8	63.1	26.7	3.4	6.8	10.2	0.0	100.0
자영업	333	21.3	41.4	62.7	25.6	7.8	2.5	10.3	1.4	100.0
블루 칼라	325	23.8	44.2	67.9	20.6	7.5	1.3	8.8	2.7	100.0
화이트 칼라	241	25.3	46.7	72.0	20.1	5.7	1.9	7.6	0.3	100.0
전업 주부	170	22.0	44.3	66.3	22.1	7.3	2.3	9.6	2.0	100.0
학생/군인/무직	109	23.4	42.3	65.8	22.4	7.3	1.9	9.1	2.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20.8	31.5	52.3	26.6	7.9	6.3	14.1	7.0	100.0
200~299 만원	155	16.9	37.6	54.5	31.2	10.9	1.2	12.1	2.3	100.0
300~399 만원	374	18.3	49.0	67.3	22.5	5.9	2.3	8.1	2.1	100.0
400만원 이상	596	28.0	43.4	71.4	19.5	6.8	1.6	8.4	0.7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1	21.3	45.7	67.0	22.4	7.3	1.2	8.5	2.1	100.0
충청권	128	17.7	43.3	61.1	30.3	3.9	0.7	4.6	4.0	100.0
호남권	116	36.0	36.2	72.2	15.2	8.6	2.6	11.2	1.4	100.0
영남권	306	20.6	43.5	64.1	23.5	8.3	3.8	12.1	0.3	100.0
강원	35	46.1	40.9	87.0	6.0	2.4	4.7	7.0	0.0	100.0
제주	14	40.3	31.2	71.5	22.4	3.1	0.0	3.1	3.1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21.1	43.5	64.5	22.3	9.2	3.5	12.7	0.5	100.0
중/소도시	567	25.3	44.6	69.9	22.1	4.4	0.6	5.0	3.0	100.0
읍/면	90	22.1	38.5	60.5	24.0	11.8	2.2	14.0	1.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28.7	42.9	71.6	19.4	6.8	1.1	7.8	1.2	100.0
중도	577	20.4	42.8	63.2	25.0	7.6	2.0	9.5	2.2	100.0
보수적	212	19.8	47.3	67.1	21.0	6.5	4.0	10.5	1.4	100.0
종교										
불교	200	23.5	39.2	62.7	22.7	10.4	2.9	13.3	1.3	100.0
기독교	232	27.8	46.5	74.3	15.4	5.7	2.5	8.1	2.2	100.0
천주교	45	37.5	34.0	71.5	18.1	8.4	2.0	10.4	0.0	100.0
기타	2	50.6	0.0	50.6	49.4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21.3	44.3	65.6	24.3	6.9	1.3	8.2	1.8	100.0
모름/무응답	33	5.5	51.5	57.0	32.0	0.0	8.4	8.4	2.5	100.0

표68.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 지역

문) ○○님께서 만15세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은 어디이십니까?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	%	%	%	%	%	%	%	%
전 체	1200	16.0	5.7	4.4	5.4	2.6	2.8	1.9	14.3	4.2
성별										
남자	607	14.3	5.7	4.1	5.2	2.9	3.0	2.4	14.9	4.5
여자	594	17.7	5.7	4.7	5.6	2.2	2.5	1.4	13.7	3.9
연령별										
19~29세	226	21.5	7.2	5.3	5.5	3.4	2.4	2.6	20.4	3.5
30대	222	20.6	7.2	3.8	5.4	2.5	2.1	2.5	18.7	3.3
40대	259	19.2	5.5	4.5	7.6	4.2	3.8	1.2	11.8	4.2
50대	260	9.7	5.9	4.4	5.8	1.7	3.5	2.2	10.9	5.6
60대	233	9.7	3.0	3.9	2.4	0.9	1.8	1.3	10.8	4.2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3.2	1.6	5.4	3.0	0.7	2.4	2.0	6.4	3.5
고졸	560	12.4	6.6	3.6	6.2	2.2	2.2	1.7	15.7	4.4
대재 이상	531	22.4	5.6	5.0	5.1	3.4	3.4	2.2	14.5	4.1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0.0	0.0	0.0	0.0	3.2	0.0	0.0	0.0	7.4
자영업	333	12.5	5.4	2.1	5.9	2.0	2.6	1.3	17.3	4.3
블루 칼라	325	14.4	5.7	5.5	6.4	2.8	2.2	3.4	16.4	3.5
화이트 칼라	241	23.5	4.1	4.9	3.5	4.2	4.7	1.4	12.5	4.6
전업 주부	170	15.7	9.1	6.3	5.3	0.9	1.6	1.0	5.1	4.6
학생/군인/무직	109	18.6	6.2	4.5	6.2	2.6	3.0	2.6	20.0	4.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74	8.3	2.1	4.4	0.0	1.0	2.2	1.0	4.7	2.2
200~299 만원	155	10.1	6.5	5.4	0.0	0.9	2.5	1.1	10.9	1.5
300~399 만원	374	12.8	7.5	3.1	6.3	3.0	2.9	2.0	16.2	3.7
400만원 이상	596	20.5	4.9	4.9	6.9	2.9	2.8	2.2	15.2	5.4
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역별										
수도권	601	30.0	0.6	0.4	10.6	0.9	1.5	0.4	27.4	4.4
충청권	128	4.0	0.6	1.3	0.0	0.6	18.4	0.0	2.8	0.0
호남권	116	0.0	0.7	0.0	0.0	18.4	0.0	0.0	0.0	0.0
영남권	306	1.6	20.7	15.8	0.0	1.0	0.3	6.8	0.6	0.9
강원	35	4.3	0.0	0.0	1.9	0.0	0.0	0.0	3.9	61.0
제주	14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2	23.5	10.8	8.4	8.8	4.5	4.9	3.9	8.0	1.9
중/소도시	567	10.0	1.8	1.2	2.8	1.0	1.0	0.4	19.1	6.9
읍/면	90	8.4	0.0	0.0	1.4	0.9	1.1	0.0	22.5	1.4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18.4	5.1	2.5	3.9	2.4	2.6	2.0	19.2	6.4
중도	577	15.1	6.9	6.2	6.3	3.0	3.6	1.7	12.3	2.9
보수적	212	13.8	3.8	3.2	5.7	1.6	0.9	2.3	10.3	3.4
종교										
불교	200	6.6	13.8	6.5	0.6	0.8	2.2	4.3	6.2	5.3
기독교	232	25.8	0.4	3.3	7.3	2.2	1.3	1.0	14.5	4.4
천주교	45	20.6	2.8	2.0	8.4	5.3	3.3	0.0	14.1	6.9
기타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종교 없음	689	15.5	5.2	4.0	6.2	2.9	3.2	1.8	16.7	3.6
모름/무응답	33	7.7	9.3	9.0	0.0	4.6	7.0	0.0	12.8	4.6

	사례수	충청	충청	전라	전라	경상	경상	제주도	북한	외국	계	
		북도	남도	북도	남도	북도	남도					
		%	%	%	%	%	%	%	%	%	%	
전 체	1200	4.0	7.5	6.7	7.0	8.8	6.9	1.4	0.3	0.2	100.0	
성별	남자	607	3.8	8.3	6.6	6.3	9.1	7.0	1.2	0.5	0.2	100.0
	여자	594	4.2	6.7	6.9	7.7	8.4	6.8	1.6	0.0	0.2	100.0
연령별	19~29세	226	3.3	5.5	4.8	3.0	5.2	5.1	1.1	0.0	0.0	100.0
	30대	222	3.8	7.1	3.1	4.4	7.5	5.6	1.2	0.0	1.1	100.0
	40대	259	4.5	5.5	7.1	5.7	6.1	7.0	1.8	0.5	0.0	100.0
	50대	260	3.5	8.8	9.1	9.8	10.2	7.5	1.2	0.3	0.0	100.0
	60대	233	4.9	10.6	8.9	11.6	14.6	9.1	1.6	0.4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9	5.8	9.8	10.9	14.4	19.2	9.4	1.3	0.9	0.0	100.0
	고졸	560	3.9	8.8	7.0	8.0	7.8	7.9	1.3	0.0	0.4	100.0
	대재 이상	531	3.7	5.7	5.6	4.4	7.7	5.4	1.6	0.4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2	3.3	24.7	21.1	14.3	19.7	0.0	6.3	0.0	0.0	100.0
	자영업	333	3.9	9.0	7.2	6.5	12.6	6.2	1.0	0.3	0.0	100.0
	블루 칼라	325	3.0	7.0	6.3	8.1	4.6	8.7	1.3	0.3	0.5	100.0
	화이트 칼라	241	3.9	6.1	5.9	6.6	6.9	4.8	1.8	0.5	0.0	100.0
	전업 주부	170	4.5	5.9	6.6	9.6	11.7	10.3	1.2	0.0	0.5	100.0
가구 소득 수준	학생/군인/무직	109	6.8	6.6	5.8	0.8	6.6	4.4	1.2	0.0	0.0	100.0
	200만원 미만	74	7.6	12.7	5.4	14.0	17.5	12.3	3.2	1.4	0.0	100.0
	200~299 만원	155	5.7	10.6	9.5	9.2	16.3	6.5	2.1	0.0	1.2	100.0
	300~399 만원	374	4.2	7.4	6.5	6.4	8.8	7.9	0.7	0.3	0.2	100.0
	400만원 이상	596	2.8	6.2	6.3	5.9	5.7	5.7	1.4	0.2	0.0	100.0
지역별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수도권	601	2.1	6.5	5.7	4.3	3.3	1.4	0.2	0.2	0.0	100.0
	충청권	128	25.9	36.7	1.4	0.6	5.8	1.3	0.0	0.0	0.7	100.0
	호남권	116	0.0	0.6	34.3	45.4	0.0	0.0	0.0	0.0	0.5	100.0
	영남권	306	0.6	0.0	0.6	1.0	25.4	23.4	0.3	0.6	0.3	100.0
지역 크기별	강원	35	2.0	10.6	9.1	4.8	0.0	2.4	0.0	0.0	0.0	100.0
	제주	14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대도시	542	1.0	5.6	3.0	5.7	5.3	4.3	0.2	0.4	0.0	100.0
	중/소도시	567	6.3	10.3	10.2	5.9	11.8	8.8	1.9	0.2	0.4	100.0
	읍/면	90	7.5	1.4	7.8	21.6	10.0	10.9	5.2	0.0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411	3.4	6.1	8.2	7.6	6.0	4.5	1.6	0.0	0.0	100.0
	중도	577	4.6	7.6	6.4	7.2	6.7	7.3	1.6	0.4	0.2	100.0
	보수적	212	3.5	10.0	4.9	5.2	19.5	10.5	0.4	0.5	0.5	100.0
종교	불교	200	3.3	9.7	3.8	4.8	11.5	16.6	3.5	0.5	0.0	100.0
	기독교	232	2.7	7.4	10.6	9.1	7.6	1.8	0.6	0.0	0.0	100.0
	천주교	45	3.4	11.7	3.7	1.6	9.5	6.7	0.0	0.0	0.0	100.0
	기타	2	0.0	50.6	0.0	49.4	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89	4.7	6.9	6.4	7.2	8.6	5.2	1.2	0.1	0.4	100.0
모름/무응답	33	2.5	0.0	8.0	6.1	3.1	21.3	0.0	3.9	0.0	100.0	



설문지

IRB No. E1807/001-002



110-054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 3702-2100, 팩스 [02] 3702-2121, 한국갤럽홈페이지 www.gallup.co.kr, 갤럽패널홈 panel.gallup.co.kr
 한국갤럽 GALLUP KOREA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2018 통일외식조사

--	--	--	--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조사로, 우리 국민의 통일외식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는 7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분들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마치는 데 약 20분 내외의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귀하께서 본 설문에 참여하실 경우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본 설문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 국민의 통일외식을 더 잘 이해하고 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설문조사를 참여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귀하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으며 설문지는 즉시 폐기됩니다.

이 연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임경훈 교수이며, 이 자료는 사회과학자료원에 기탁될 예정입니다. 단, 이 조사결과가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은 물론 식별 가능한 다른 어떤 개인 정보도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이 조사결과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설문지는 자료처리 후 폐기 처리됩니다.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설문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정동준 선임연구원(02-880-8866)에게, 참여자의 권리를 문의할 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02-880-5153)에 문의해 주십시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임경훈

동의함 (이상에서 설명해드린 내용을 듣고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안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동의함 (또한 귀하가 응답하신 설문자료가 사회과학자료원에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안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연구 주관 기관 :



원장 : 임 경 훈 ☎ : 02-880-4052

2018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박재형
 담당연구원 김태한
 (☎ 02-3702-2588)
 실사연구원 최수빈
 (☎ 02-3702-2660)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 지 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세종)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 지역크기 :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 성 별 : 1. 남자 2. 여자

SO1)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 _____ 세 → 만 19세 미만, 만 75세 이상 조사 중단

지금부터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1) (보기카드 1 제시)

○○님은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2. 남북 간 경제협력에 심화되는 것
3.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4.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5. 기타 (적을 것 : _____)

문 2)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반반 / 그저 그렇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3) (보기카드 2 제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2.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3. 현재대로가 좋다
4.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문 4)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5년 이내 | 2. 10년 이내 |
| 3. 20년 이내 | 4. 30년 이내 |
| 5. 30년 이상 | 6. 불가능하다 |

문 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정기적 남북회담'은요?

조사원 아래 ①부터 ⑩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㉞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㉟ 군사적 긴장 해소	1	2	3	4
㊱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1	2	3	4
㊲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1	2	3	4
㊳ 북한의 개방과 개혁	1	2	3	4
㊴ 북한의 인권 개선	1	2	3	4
㊵ 북한 비핵화	1	2	3	4
㊶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㊷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1	2	3	4
㊸ 남북한 경제협력	1	2	3	4
㊹ 평화협정 체결	1	2	3	4

문 6) (보기카드 3 제시)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같은 민족이니까
2. 아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3. 남북 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4.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6. 기타(적을 것 : _____)

문 7) (보기카드 4 제시)

만약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면 ○○님은 그 이유로 가장 큰 것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2.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3.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4.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5.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
6. 기타(적을 것 : _____)

문 8)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9)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10)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㉗ 빈부격차	1	2	3	4	5
㉘ 부동산투기	1	2	3	4	5
㉙ 실업문제	1	2	3	4	5
㉚ 범죄문제	1	2	3	4	5
㉛ 지역갈등	1	2	3	4	5
㉜ 이념갈등	1	2	3	4	5

문 11) (보기카드 5 제시)

○○님은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2.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3.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4.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문 12) (보기카드 6 제시)

○○님께서 학교에서 들었던 통일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반공 및 안보
2. 북한에 대한 이해
3. 탈북자와 다문화
4. 자유민주주의 가치
5.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6. 통일의 이익

문 13) (보기카드 6 제시)

○○님께서 학교 이외에 종교/시민 단체, 군대, 직장 등에서 들었던 통일에 대한 내용 중 많이 들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반공 및 안보
2. 북한에 대한 이해
3. 탈북자와 다문화
4. 자유민주주의 가치
5.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6. 통일의 이익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문 14) (보기카드 7 제시)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2.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문 15)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별로 가능하지 않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가능하다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3.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4.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문 16)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원한다
2. 다소 원한다
3. 별로 원하지 않는다
4.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문 17) ○○님은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그저 그렇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 18)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약간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문 19)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 20)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군정치'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㉗ 선군정치	1	2	3	4
㉘ 주체사상	1	2	3	4
㉙ 천리마운동	1	2	3	4

㉔ 고난의 행군	1	2	3	4
㉕ 장미당	1	2	3	4
㉖ 모란봉 악단	1	2	3	4

문 21)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다' 또는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경험'은요?

조사원 아래 ㉔부터 ㉖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있다	없다
㉔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경험	1	2
㉕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 만나 본 경험	1	2
㉖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경험	1	2
㉗ 대북 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경험	1	2

문 22)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거방식'은요?

조사원 아래 ㉔부터 ㉖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㉔ 선거방식	1	2	3	4
㉕ 사회복지	1	2	3	4
㉖ 언어사용	1	2	3	4
㉗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1	2	3	4
㉘ 가족에 대한 중시	1	2	3	4
㉙ 돈에 대한 중시	1	2	3	4

문 23)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위협을 느낀다
2. 다소 위협을 느낀다
3.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4.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문 24)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잘 모름

문 25) ○○님은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찬성한다
2. 다소 찬성한다
3. 반반 / 그저그렇다
4. 다소 반대한다
5. 매우 반대한다

문 26) ○○님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심각하다
2. 다소 심각하다
3. 보통이다
4. 별로 심각하지 않다
5.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문 27) (보기카드 8 제시)
○○님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다음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인도적 대북지원
2.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3. 대북 제재
4. 북한의 민주화

지금부터는 '대북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8)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㉔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㉕ 남북 사회문화교류	1	2	3	4
㉖ 남북 경제협력	1	2	3	4
㉗ 대북 제재	1	2	3	4

문 29)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 3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한다'는요?

조사원 아래 ㉔부터 ㉖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㉔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한다	1	2	3	4	5
㉕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1	2	3	4	5
㉖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 교류협력은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㉗ 대북배라 실패는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㉘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1	2	3	4	5
㉙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1	2	3	4	5

문 31) ○○님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크다', '조금 크다', '그저 그렇다',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크다
2. 조금 크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크지 않다
5. 거의 없다

문 32) ○○님은 지난 4월 이루어진 2018 남북정상회담이 다음의 사항들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은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약간 긍정적', '긍정도 부정도 아님', '약간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긍정적	약간 긍정적	긍정도 부정도 아님	약간 부정적	매우 부정적
㉠ 남북관계 개선	1	2	3	4	5
㉡ 북한의 비핵화	1	2	3	4	5
㉢ 한반도 평화 구축	1	2	3	4	5
㉣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	1	2	3	4	5
㉤ 개성공단 재개	1	2	3	4	5
㉥ 금강산 관광 재개	1	2	3	4	5
㉦ 북한의 개혁·개방	1	2	3	4	5
㉧ 북한의 인권 개선	1	2	3	4	5
㉨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1	2	3	4	5

다음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33)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친근	다소 친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친근하지 않음	전혀 친근하지 않음
㉠ 탈북자(북한이탈주민)	1	2	3	4	5
㉡ 조선족(중국동포)	1	2	3	4	5
㉢ 중국인(한족)	1	2	3	4	5
㉣ 미국인	1	2	3	4	5
㉤ 동남아시아인(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1	2	3	4	5
㉥ 일본인	1	2	3	4	5
㉦ 남아시아인(네팔, 스리랑카, 인도 등)	1	2	3	4	5

문 34)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동네 이웃'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동네 이웃	1	2	3	4	5
㉡ 직장 동료	1	2	3	4	5
㉢ 사업 동업자	1	2	3	4	5
㉣ 결혼상대자	1	2	3	4	5

문 35) (보기카드 9 제시)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2.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 36)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1	2	3	4
㉡ 정부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1	2	3	4
㉢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1	2	3	4
㉣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1	2	3	4

문 37)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1	2	3	4	5
㉢ 외국인인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한국과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	1	2	3	4	5
㉣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학교나 직장생활 등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1	2	3	4	5

문 38) ○○님은 현재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2.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
3.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4.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 39) ○○님은 현재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을 대한민국 시민이라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2.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
3.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4.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 40)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님은 이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중요하다	다소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1	2	3	4
㉡ 한국 국적을 갖는 것	1	2	3	4
㉢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1	2	3	4
㉣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1	2	3	4
㉤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1	2	3	4
㉥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1	2	3	4
㉦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1	2	3	4
㉧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1	2	3	4
㉨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1	2	3	4

이번에는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41)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단수응답)

- 1. 미국
- 2. 일본
- 3. 북한
- 4. 중국
- 5. 러시아

문 42)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미국
- 2. 일본
- 3. 북한
- 4. 중국
- 5. 러시아

문 43)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 1. 북한 팀
- 2. 미국 팀
- 3.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 4.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4)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 미국	1	2	3	4
㉡ 일본	1	2	3	4
㉢ 중국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5)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 미국	1	2	3	4
㉡ 일본	1	2	3	4

㉢ 중국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6)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미국	1	2	3	4
㉡ 일본	1	2	3	4
㉢ 중국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7)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미국	1	2	3	4
㉡ 일본	1	2	3	4
㉢ 중국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8) (보기카드 10 제시)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현재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남북 간 협력
- 2. 한미 간 협력
- 3. 한중 간 협력
- 4. 모두 중요하다

문 49) (보기카드 11 제시)

○○님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현재 '한미 간 협력'과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한미 간 협력
- 2. 한중 간 협력
- 3. 모두 강화해야 한다

문 50) ○○님은 중국의 부상(강대국화 및 주변국 영향력 확대)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2.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 3. 도움이 되지도 안 되지도 않을 것이다
- 4.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 5.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문 51) (보기카드 12 제시)

○○님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2.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3. 중립을 지켜야 한다

지금부터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52)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심각 하다	약간 심각 하다	별로 심각 하지 않다	전혀 심각 하지 않다
㉠ 빈부격차	1	2	3	4
㉡ 부동산투기	1	2	3	4
㉢ 실업문제	1	2	3	4
㉣ 범죄문제	1	2	3	4
㉤ 지역갈등	1	2	3	4
㉥ 이념갈등	1	2	3	4
㉦ 환경파괴	1	2	3	4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1	2	3	4
㉨ 저출산·고령화	1	2	3	4
㉩ 부정부패	1	2	3	4

문 53)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만족
- 2. 다소 만족
- 3. 다소 불만족
- 4. 매우 불만족

문 54)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다소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자랑스럽다
- 2. 다소 자랑스럽다
- 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 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문 55) (보기카드 13 제시)
그럼, 현재 남한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1점은 '매우 비민주적', 10점은 '매우 민주적'입니다.



문 56)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많이 있다
- 2. 약간 있다
- 3. 별로 없다
- 4. 전혀 없다

문 57)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매우 관심이 있다', '다소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관심이 있다
- 2. 다소 관심이 있다
- 3. 별로 관심이 없다
- 4. 전혀 관심이 없다

문 58)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진보적
- 2. 약간 진보적
- 3. 중도
- 4. 약간 보수적
- 5. 매우 보수적

문 59) ○○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 1. 더불어민주당
- 2. 자유한국당
- 3. 바른미래당
- 4. 민주평화당
- 5. 정의당
- 6. 기타 정당
- 7. 지지정당 없음

문 60) ○○님은 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잘하고 있다
- 2. 대체로 잘하고 있다
- 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문 61) ○○님은 뉴스나 정보를 얻기 위해 다음 중 어느 매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 1. TV
- 2. 신문
- 3. 라디오
- 4. 인터넷

문 62) (보기카드 14 제시)
○○님은 뉴스나 정보를 얻기 위해 위에서 응답하신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1. 하루에 한 번 이상
- 2. 일주일에 5-6번
- 3. 일주일에 3-4번
- 4. 일주일에 1-2번
- 5. 한 달에 한두 번 이하

문 63) (보기카드 14 제시)
○○님은 뉴스나 정보를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SNS, 블로그, 인터넷 댓글 등 소셜 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1. 하루에 한 번 이상
- 2. 일주일에 5-6번
- 3. 일주일에 3-4번
- 4. 일주일에 1-2번
- 5. 한 달에 한두 번 이하 (또는 이용 안함)

자료 분류용 질문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D 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종사자 포함)
- 2.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자 등)
-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 4. 기능/숙련공 (중장비/트럭운전자, 전자/가전제품 A/S 기술자, 수련공 등)
- 5. 일반직업직 (토목관계의 현장직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 6.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된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램어 등)
- 7.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부장 이상의 직위 등)
- 8.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의사, 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 9. 가정주부
- 10. 학생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 11. 군인/경찰
- 12. 무직
- 13. 기타(적을 것 : _____)

D 2) ○○님은 결혼하셨습니까?

- 1. 미혼
- 2. 기혼
- 3. 이혼/별거
- 4. 사별

D 3) 실례지만,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조사원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재학/대학졸업
 5. 대학원재학 이상

D 4) ○○님에게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1. 불교
 2. 기독교 (개신교)
 3. 천주교 (가톨릭)
 4. 기타(적을 것 : _____)
 98. 종교 없음
 99. 모름/무응답

D 5)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 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1. 월 49만원 이하 2. 월 50~99만원
 3. 월 100~149만원 4. 월 150~199만원
 5. 월 200~249만원 6. 월 250~299만원
 7. 월 300~349만원 8. 월 350~399만원
 9. 월 400~499만원 10. 월 500~599만원
 11. 월 600~699만원 12. 월 700만원 이상

D 6)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택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간보다 훨씬 높다 2. 중간보다 약간 높다
 3. 중간과 비슷하다 4. 중간보다 약간 낮다
 5. 중간보다 훨씬 낮다

D 7) (보가카드 15 제시)
 ○○님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의 상 2. 상의 하
 3. 중의 상 4. 중의 하
 5. 하의 상 6. 하의 하

D 8)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 훨씬 좋아졌다 2. 약간 좋아졌다
 3. 차이가 거의 없다 4. 약간 나빠졌다
 5. 훨씬 나빠졌다 6. 잘 모르겠다

D 9) ○○님께서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단수응답)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북한 18. 외국

면 접 후 기 록

응답자 이름			
응답자 주소			
응답자 연락처	1. 일반전화 ()-()-() 2. 휴대폰 ()-()-()		
조 사 일 시	__ 월 __ 일 __ 시 __ 분부터 __ 시 __ 분까지 (분간) (반드시 적어 주세요)		
협 조 정 도	1. 상	2. 중	3. 하
응답 신뢰도	1. 상	2. 중	3. 하
조사원 이름	지역	조사원 ID	

Supervisor	검 증 원

오랜 시간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